

釜山地名總覽

제 7 권

- 기장군(I):기장읍·장안읍편 -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일 러 두 기

- 一. 이책은 《부산지명총람》 전8권 중 제7권이다.
- 一. 이책은 제2편 자치구편 중 기장군(Ⅰ) : 기장읍 · 장안읍으로 편제하였다.
- 一. 각읍의 각리(各里)는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다.
- 一. 각리의 수록항목은 연혁, 공공기관, 산천, 명승고적, 민속(민속놀이 · 당산 · 당집), 시장, 자연마을, 기타 순으로 하고, 그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 一. 각항목의 내용은 선사시대에서 2001. 3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일부의 경우는 최근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 一. 본문은 국한문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한글표기에 노력하였다.

※ 각권별 편제(발행일)

- 제1권 : 부산광역시 개관, 중구, 서구, 동구 - 1995년 발간
- 제2권 :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 1996년 발간
- 제3권 : 남구, 북구, 해운대구 - 1997년 발간
- 제4권 : 사하구, 금정구 - 1998년 발간
- 제5권 : 강서구 - 1999년 발간
- 제6권 :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 2000년 발간
- 제7권 : 기장군(Ⅰ) 기장읍, 장안읍 - 2001년 발간
- 제8권 : 기장군(Ⅱ)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 2002년 발간예정

차 례

제 2 편 자 치 구

제16장 기 장 군(1)

○ 연 혁	9
-------------	---

제 1 절 기 장 읍(機張邑)

○ 연 혁	35
1. 교리(校理)	38
2. 내리(內里)	52
3. 당사리(堂社里)	71
4. 대라리(大羅里)	78
5. 대변리(大邊里)	90
6. 동부리(東部里)	106
7. 만화리(萬化里)	126
8. 서부리(西部里)	140
9. 석산리(石山里)	146
10. 시랑리(侍郎里)	153
11. 신천리(新川里)	175
12. 연화리(蓮花里)	184
13. 죽성리(竹城里)	199
14. 청강리(淸江里)	222

제 2 절 장안읍(長安邑)

○ 연 혁	237
1. 고리(古里)	239
2. 기룡리(奇龍里)	245
3. 길천리(吉川里)	258

4. 덕선리(德仙里)	266
5. 명례리(鳴禮里)	278
6. 반룡리(盤龍里)	292
7. 오리(五里)	302
8. 용소리(龍沼里)	314
9. 월내리(月內里)	325
10. 임랑리(林浪里)	335
11. 장안리(長安里)	348
12. 좌동리(佐東里)	361
13. 좌천리(佐川里)	371
14. 효암리(孝岩里)	382

☐ 《부산지명총람》 제1권 ~ 제6권 총목차

☐ 《부산지명총람》 책임집필자 명단

제 2 편 자 치 구

제16장 기 장 군(I)

제 1 절 기 장 읍

제 2 절 장 안 읍

제16장 기 장 군(I)

○ 연 혁

1) 선사시대의 기장

한반도에 인류가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이다. 우리나라 구석기유적은 한반도 북부의 웅기 굴포리,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부터 남부의 거창 임불리, 밀양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널리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해운대 청사포·신시가지 조성지역인 좌동과 중동에서 대규모 구석기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부산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해운대 구석기유적은 모두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장지역은 현재까지 구석기시대의 유적지로 알려진 곳은 없다. 해운대와 인접한 지역이고, 특히 바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석기 유적의 발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6천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물과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하였는데, 사냥과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여 각종 유적과 유물을 남겼다. 이 시대 주민들이 남겼던 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한 토기류와 석기, 골각기, 장신구, 어업도구 등이 있다. 부산지역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대부분이 조개더미이다. 지금까지 유적으로는 동삼동·아치섬·청학동·영선동·다대포·암남동·금곡동 울리·범방·강동동 북정유적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유적은 파괴 소멸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강가 혹은 바닷가 여러 곳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장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발굴 조사되지 않았지만, 최근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장을 공수마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신석기시대 유물 산포지가 조사되었다. 시랑리 일대에서 타제몸돌석기 1점, 박편석기 2점, 빗살무늬토기 파편 2점, 흑요석제(黑曜石製) 박편, 파상구연(波狀口緣)을 가진 침선문(沈線文) 토기 편과 저부(底部)편, 용기선문토기편 2점과 다량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이로 보아 기장지역은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통한 문화적 기반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장지역에도 신석기시대의 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는 분명한 자료는 없지만 보통 기원전 1000년경부터 시작하여 북방지역으로부터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무문토기와 청동기 등이 사라지는 기원전후 1세기의 무렵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 청동기시대는 지역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은 청동기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마도 북방지역에서 남하한 청동기문화가 남부의 끝지점인 이곳까지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이다. 이는 부산지역에 존재하는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생활유적과 무덤(墳墓) 유적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생활유적은 노포동 주거지·반여동 주거지·온천동 유적·북천동 내성 주거지, 그리고 오류동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무덤 유적으로는 장전동 유적·사직동 유적·부곡동 유적·두구동 임석 유적·낙민동 유적, 그리고 마제석검이 출토된 거제동은·온천동·부곡동·금사동

등을 들 수 있다.

기장지역의 청동기시대의 문화유적은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조사 정리되어 있다. 기장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생활유적지와 분묘 유적지로 나눌 수 있다. 생활유적지였을 가능성은 기장읍 시랑리 일대에 존재한다. 송정에서 기장의 대변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공수고개가 나오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 바로 도로 양 옆의 밭에서 사용흔적이 있는 망치돌 1점, 어망추(漁網錐) 1점과 무문토기편 4점이 채집되었으며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이 채집된 이 곳은 기장군 당사리 명두산 남쪽 끝자락에 조성된 밭인데 유적의 입지나 유물상으로 볼 때 선사시대 조개더미나 주거지 등 생활유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유적지는 장안읍 임랑유적, 정관면 두명리 · 용수리 유적, 철마면 신리 지석묘 등이다. 장안읍 임랑리 까치골지 일대에서 함인석부(蛤刃石斧) 1점을 채집하였고, 정관면 용수리 덕산 유적은 정관초등학교 뒤쪽의 구릉에서 1980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무문토기편 다수를 채집하였고, 정관면 두명리 유적도 마을 북쪽의 낮은 야산에 위치하며 1979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무문토기와 삼국시대 토기의 일부가 채집되었고, 그리고 철마면 신리 지석묘는 온당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지석묘 2기가 확인되었는데, 지상에는 상석의 윗부분만 노출되어 있다. 2개의 지석묘는 동서방향으로 약 25m 정도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이 상에서 볼 때 기장지역에는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동기 유적이 그렇게 많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유적지로 추정되는 것과 분묘 유적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사람이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삼한 · 삼국 · 통일신라시대의 기장

기장지역의 역사적인 최초의 명칭은 삼국시대에 갑화양곡현(甲火良谷縣)으로 불리었다. 기장지역이 삼국시대에 갑화양곡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시기인 삼한시대부터 일정한 지역적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해 조사 보고된 삼한 및 삼국시대 기장지역의 토기 종류와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삼한시대의 토기는 와질토기로 대표된다고 할 때, 기장지역에서는 와질토기의 종류가 상당히 빈약함으로 삼한시대에 정치세력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변한 12국과 같은 하나의 독립 소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

기장지역에 별도의 소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국의 중심 영역인 국읍(國邑)은 없었던 것 같고, 읍락(邑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한의 소국은 국읍 · 읍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읍은 주수(主帥)가, 읍락에는 거수(渠帥)라는 통치자가 있었다. 국읍과 읍락의 관계는 《삼국지》동이전 한전에 의하면, ‘국읍에는 주수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여 서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읍락이 일정한 정치적 독립성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장 지역의 읍락은 인근에 있는 소국의 영역에 포함되었거나 아니면 인근 소국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기장지역의 읍락이 신라에 의해 언제 점령당하였으며 언제 군현으로 편입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기장에 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삼국사기》권34, 잡지3 동래군조에 의하면,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이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쳐 지금까지 그대로 부른다. 영현이 둘이다. 동평현(東平縣)은 본래 대증현(大甞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까지 그대로 부르고

있고, 또 기장현(機張縣)은 본래 갑화양곡현(甲火良谷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까지 그대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기장의 이름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제정되었고, 기장으로 부르기 이전에는 갑화양곡현으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장은 앞에서 삼한 시대 읍락 등의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읍락의 형태가 갑화양곡현으로 불리어진 것은 신라의 군사적 점령으로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되면서부터이다. 신라가 어느 시기에 기장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기장의 인근지역들이 신라에 의해 군사적 점령을 당한 것을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에 기장도 함께 점령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의 《삼국사기》권44, 거도전에 의하면, 신라는 탈해왕대(57~80)에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을 점령하였다. 거칠산국은 부산 동래이고, 우시산국은 울산을 지칭한 명칭이다. 주목되는 점은 부산 동래와 울산을 점령하기 위해 장토의 들에 병사를 모아 놓고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토는 부산 동래와 울산의 인근지역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장지역은 앞의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편제되고 난이후 '갑화양곡현'이 설치되었다. 그러면 기장지역은 언제 신라에 의해 '갑화양곡현'으로 편제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자. 기장지역은 갑화양곡현으로 불리우기 이전에 갑화양곡촌(甲火良谷村) 혹은 갑화양곡성(甲火良谷城)으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갑화양곡현은 언제 설치되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일정하게 추정한다면 문무왕 15년 '백사와 주군의 인을 주조하여 나누어 준' 조치는, 관료체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정비라는 양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후 당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문무왕 15·16년(675·676)에 현령의 활약상이

크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통치조직의 정비와 관련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것은 국왕이 현단위까지도 직접 파악하여 이른바 군현체적 지방지배 체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장지역이 갑화양곡현으로 불리게 된 시점은 7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갑화양곡현은 현령이 파견되는 주현으로 현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기장을 신라시대 갑화양곡으로 부르게 된 요인은 부산의 동래가 이전에 거칠산국이었다는 점이 참고된다. 즉 거칠산국의 유래는 거친 뫼, 즉 황령산(荒嶺山)을 끼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따라서 기장의 옛이름인 갑화양곡도 우리말을 한자음화 한 이두식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갑(甲)’이라는 자가 지명에 사용된 것은 함경도의 갑산(甲山)과, 경기도의 갑비고차(甲比古次, 江華)가 있으며, 갑절(甲折-두배) 등의 용례로 보아 현재의 한자음과 일치하는 글자이다, 갑에 이은 화(火)는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 건치 연혁조에 울산의 옛지명 굴아화촌(屈阿火村)을 소개하고, 그 세주에 ‘신라에 지명에는 화(火)를 칭하는 것이 많은데, 화는 불(弗), 불은 벌(伐)에서 전화된 것이다’라 하고 있다. 결국 火=弗=伐은 동일한 내용의 다른 한자식 표현이라 할 것이다. 양주동에 의하면, 화는 ‘불’로 읽히는데, 당초 광명의 원의로서 ‘국토·원야·도읍’의 뜻으로 바뀌고, 의자론(義字論) ‘國·野·原’, 음차자(音借字)론 ‘發·夫餘·夫里·伐·不·弗·沸’ 내지 ‘平·坪·評’, 훈차자(訓借字)론 ‘火·列’로 기사되는 말이라 한다. 그리고 지명으로 쓰일 때는 읍(邑), 군(郡), 현(縣) 등에 통용되는 것이라 해석도 있다.

다음의 양(良)은 여러 용례로 쓰이지만 약음차(略音借) ‘ㄹ’로도 통용됨으로 화(火) 양(良) 두 글자의 합음은 음독의 경우 ‘활’이 되고 훈독

하는 경우 ‘불’로 읽히게 된다. 곡(谷)은 신라초기의 국호였던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과 같은 어원인 ‘서닌’에서 발상하며, 원래의 뜻은 ‘동천(東川)·동토(東土)’이지만, 국가적 성장 발전과정에서 일부는 ‘서벌’(徐伐·鷄林·始林·東京)로 되어 서울(京)을 의미하게 되고, 곡(谷)은 천(川), 읍(邑)과 함께 ‘서닌’·‘서골’로 읽히고, ‘식골-스골’로 소향(小鄉)의 뜻으로 전화한 것이라 한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한 이후에 곡(谷)=천(川)=향(鄉)은 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지방행정적 용어로 쓰여졌지만, 그 이전에는 독립적 정치단위조직체였을 것임을 이두의 어의 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두식 해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갑화양곡은 갑국(甲國) 또는 갑향(甲鄉)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갑향의 갑(甲)은 음독하여, 갯(邊)과 통하는 것으로 보고 갯마을(邊城-변두리마을)이라 하기도 하고, 갑을 대(大)로 보고 ‘큰마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중앙과 지방이 확연히 구별되기 이전의 시기에 자신의 생활터전을 중앙과 구별하여 변방을 나타내는 ‘갯마을’로 이름짓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웃한 동래·양산·울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을 ‘큰마을’로 불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甲)의 자전적 의미는 10간의 첫글자로서 (首)=시(始)=초(初)와 같고, 차례나 등급의 첫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의를 그대로 살린 ‘첫째마을’·‘첫마을’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귀환할 때 처음으로 닿는 곳이란 정감 어린 표현이 지명으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에서 설명할 기장과 기장의 별호(別號)인 차성(車城)의 해석과도 그 의미가 부합된다.

신라시대 기장의 명칭은 갑화양곡현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갑화양곡현은

경덕왕 16년에 기장현으로 개명되었다. 경덕왕은 16년(757)과 18년에는 9주를 비롯한 지방군현의 명칭과 중앙관부의 명칭을 모두 한자식으로 고쳐버렸다. 이를 한화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한화정책(漢化政策)은 질서가 정연한 중국의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이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기장지역도 경덕왕 16년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갑화양곡현에서 기장현으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장현은 신라시대 주현에서 통일 이후 속현으로 강등되었다. 한편 기장현이 속현으로 강등되자 이전부터 기장현과 정치적 관계가 있었던 지역은 동래였다. 기장현은 동래군에 영속되었다. 따라서 기장현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부터 동래군 태수의 지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갑화양곡현이 기장이란 이름으로 변경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군현 명칭 변경의 사례가 참고된다. 동래의 경우 독로국에서 동래로의 변화는 음역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거칠산군에서 동래로의 변화는 음역식도 아니고 훈연식도 아니다. 이는 동방에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에서 연유하여 취한 것, 즉 지방의 특수성에서 부른 것이 아닐까 한다.

앞에서 갑화양곡이라는 명칭은 바다에서 육지에 닿는 첫째마을 혹은 첫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장이란 명칭도 이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자음화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장이라는 명칭은 《서경》상서(上書) 태갑상란(太甲上欄)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마치 사냥터의 관원과 같아 만사의 계획을 세워 결코 틀림이 없도록 거듭 신중을 기해야한다(若虞機張 往省括千度則釋)’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機)는 화살(쇠뇌=弩牙)이고, 노기기장(弩機既張)이라 하여 갑병으로 국토를 지키기 위해 이곳 변방을 수비한데서 기장이란 명칭이 유래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장이란 명칭은 이 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즉 변방으로 가지는 군사적 중요성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어원 《서경》, 즉 중국의 고사에서 한자음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장을 차성(車城)이라고도 불렀다. 차(車)는 정수리(首)를 뜻한다. 차성은 수성(首城)이다. 그리고 수성을 대성(大城)이라 하여 ‘큰 성’으로 파악하려고 하지만 변방지대인 이곳에 큰 성이 존재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장지역은 해안과 접하는 군사사의 요충지이므로, 기장을 ‘수성=머리성’이라는 의미에서 차성이라 부르게 된 듯하다.

한편, 풍수지리설과 관련하여 ‘기장을 베틀(機)을 차린(張) 형국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기장지역에는 베틀과 관련한 전설이 아주 많다. 그런데 풍수지리설은 신라말 이후에 등장하여 유행하였다. 기장이란 지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8세기 경덕왕 16년 (757)부터 사용되었다. 따라서 기장을 베틀을 차린 형국이다라고 하여 ‘옥녀직금(玉女織錦)’설에서 파악하는 것은 기장의 자연현상을 보고 후대에 부른 명칭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옥녀직금설은 생산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한 뜻에서 가탁한 것이다. 즉 풍수지리설을 통해 기장을 설명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옥녀직금설이 널리 유행되었고, 이에 따라 후대에 기장의 많은 명칭들이 이와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통일신라 말기 기장현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 이 시기 각 지역에서는 지방의 호족세력들이 발호하였고, 한편으로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는 치열한 영역 다툼이 전개되었다. 특히 양 국각는 전지역을 두고 서로 쟁탈전을 하였지만, 이곳 동래(부산)지역을 두고도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태조 7년(924) 견훤은 《고려사》에 의하면, 절영도의 명마 한 필을 고려 태조

7년(924)에 주었다가 이후 이를 태조로부터 절영도의 명마를 되돌려 받았다.

후백제 견훤의 절영도 명마의 획득은 당시의 정치적 관계를 통해 이해하여야 한다. 후백제 견훤은 대외팽창을 도모하면서 먼저 신라지역으로 영토적 확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절영도를 비롯한 동래지역이 후백제 견훤에 점령됨으로써 동래군의 속현이었던 기장현도 함께 복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견훤은 이를 기반으로 세력을 점차 경주지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삼국 정립기의 양국간의 세력 균형은 견훤이 태조 10년에 신라의 경주를 침공하자 신라가 친고려적인 입장을 표방함으로써 점차 고려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결국 고려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은 동래로 하여금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장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나말여초기 기장현은 경덕왕 16년부터 동래군의 속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근의 동래처럼 견훤의 영역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동래군이 고려초기 군현 개편 때 속군으로 전략하였는데, 기장도 함께 동래군처럼 고려전기에 속현으로 존재한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3) 고려시대의 기장

고려의 건국 이후 기장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양주조에 의하면, ‘기장현은 본래 신라의 감화양곡현인데, 경덕왕 때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동래의 영현이 되었다가 뒤에 양주(梁州)로 이속(移屬)되었으며, 현종 9년에 다시 울주(蔚州)에 이속되었고, 후에 감무(監務)를 설치했다. 별호는 차성이다’고 한다. 기장현은 통일신라 때 동래에서 고려의 어느 시기에 양주로 이속(옮겨 지배받게 되는 것)되었고, 현종 9년(1018)에 다시 울주로 이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별호는 차성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기장현이 양주로 언제 이속되었으며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자. 이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등에도 ‘후속양주(後屬梁州 ; 후에 양주에 속했다)’라고 할뿐 분명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려사》지리지 경상도 양주조에 의하면, ‘양주(梁州)는 문무왕 5년에 상주와 하주를 나누어 그 곳에 삼랑주(叡良州)를 두었고, 경덕왕 때 양주(梁州)라 하여 9주의 하나로 하였다. 태조 2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9년에 방어사를 두었다’고 한다. 위의 자료와 연관시켜 살펴 볼 때 주목되는 점은 태조 23년에 양주(良州)가 양주(梁州)로 군현 명칭의 개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태조 23년 군현의 명칭개정은 단순히 군현의 명칭을 고치는 방식과 주변의 군소 군현을 병합하여 사실상 새로운 군현을 창설하는 개편방식이 있었다. 따라서 태조 23년 양주의 명칭 개정 때 기장은 양주에 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려의 군현제는 현종 9년에 또 한차례 개편되었다. 이때 기장현은 양주에서 울주로 이속되었다. 울주는 《신증동국여지승람》울산 연혁조에 의하면, ‘경덕왕 때 이름을 하곡으로 고쳐 임관군(臨關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는 현인 박윤웅(朴允雄)이 공이 있으므로 주변의 동진(東津)·우풍(虞風) 2현을 합하여 흥려부(興麗府 : 흥례부)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박윤웅의 공은 《고려사》권1, 태조 13년 2월조에 의하면, ‘이 때에 신라 이동의 연해주군 마을이 모두 와서 항복하였다. 명주에서부터 흥례부에 이르 기까지 총 110여 성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고려에 귀순한 것을 크게 인정 받은 것이었다. 고려에 귀부하는 포상의 의미로서 ‘부’로 승격되었다. 기장현을 현종 9년 울산에 이속시킨 것은 기장과 울산은 지리적으로 해안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해안방어의 필요에서 울주에 이속시킨 것이다.

셋째, 기장현은 차성이라는 별호를 가지고 있었다. 지명의 별호는 《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예로 《세종실록》지리지》충주목(忠州牧)조에 의하면, ‘충주목 … 별호는 대원(大原)인 순화(淳化:송 태종의 연호)에 정해졌고 또 약성(藥城)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순화, 즉 성종 때에 별호가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순화 별호라고 부른다.

반면 앞의 기장현의 경우처럼 별호의 제정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일반 별호라고 한다. 일반 별호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순화 별호가 제정되면서부터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화 별호의 제정목적은 성종대의 유교적 체제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과 중앙의 지방지배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순화 별호는 당의 군현 명칭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혹은 아화(雅化)시켰다. 그러나 일반 별호의 제정목적은 특별한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 널리 알려진 지명을 별호로 정착시켰다. 따라서 차성이라는 별호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장지역이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장현처럼 지방관, 즉 수령이 파견되지 못한 군현을 속군·속현이라 하며 혹은 관내(管内)·임내(任內)·관할하(管轄下)·경내(境內)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러한 기장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영속 관계에 놓여 있었다. 중앙정부의 지방지배와 통제는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에 한정되었고, 속군현에 대해서는 속군현에 존재하는 향리를 통해·간접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장현의 경우에도 이 지역에 존재하는 향리를 통한 간접 지배방식을 취했다.

한편, 기장현에도 고려시대 부곡제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기장현 고적조에 의하면, ‘고촌부곡(古村部曲)은 현의

서쪽 10리에 있고, 결머부곡(結脉部曲)은 현의 서쪽 10리에 있고, 사랑촌부곡(沙良村部曲)은 현의 동쪽 5리에 있고, 사야부곡(沙也部曲)은 현의 동쪽 3리에 있으며 지금의 사야촌(沙也村)이다'라고 한다. 기장현에는 고촌 · 결머 · 사랑촌 · 사야 등의 4개의 부곡이 존재하고 있었다. 고촌과 결머는 서쪽에, 사랑촌과 사야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부곡의 현재 위치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지명과 방위 등을 고려하여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고촌부곡의 위치는 현재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라는 행정명을 가진 곳이 있으므로 이곳이 부곡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머부곡도 고촌부곡의 인근지역에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촌과 사야는 현의 동쪽 5리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현재의 거리를 통해 유추하면 현재의 기장읍 동쪽 끝지점이나 기장읍과 접하는 일광면 서쪽 끝지점에 존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기장현에는 기장역(機張驛)이 있었다. 역참(驛站)은 전근대사회에서 교통통신에서 중추적인 역할 담당하였고, 중앙집권적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고려는 일찍이 역참제의 실시를 통하여 거의 전국적인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사》권82, 병지3 역참조에는 22개의 역도와 그에 소속된 525개의 역참명이 보인다. 고려시대의 도로망은 군현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계수관을 중심으로 한 간선 교통기구(기본 도로망)와 그 밑에 여러 속군, 속현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사부, 지사군, 현령관을 중심으로 한 지선 교통구(말단 도로망)가 형성되어 있었다.

기장역은 금주도(金州道) 소속 31개 역 중의 하나였으며, 인근 양산지역의 양산역, 동래지역의 소산역(蘇山驛), 울산지역의 간곡역(肝谷驛), 언양지역의 덕천역(德川驛)과 함께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경상도지리지》 경상도 기장현조에는 신명역

(新明驛)과 아월역(阿月驛)만 나타나고 기장역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 후기 어느 시점에 기장역은 없어지고 새롭게 두 역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9년에 성립한 고려의 군현제, 즉 주현-속현체제는 이후 고려 군현제 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이 체계는 예종대 이후 감무가 설치되면서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감무는 고려 예종대부터 시작하여 조선 태종대에까지 설치되었다.

고려전기 속현이었던 기장현에도 어느 시기에 감무가 파견되어졌음을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기장현 명환조에 이세황(李世黃)과 김이(金怡)가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파한집》 발문에 의하면, 이인로(李仁老)의 아들 이세황(李世黃)이 중앙의 관직, 즉 동각에 있다가 기장현으로 좌천되었다고 한다. 이세황은 고종 19년(1232)에 국자감의 학유(學諭)에 있었고, 발문을 쓸 때의 관직이 함문지후(7품)이다. 기장현의 감무로 파견될 때 그의 품계는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한집》을 발간한 시점은 경신년, 즉 원종 원년(1260)에 함문지후의 관직에 있었으므로 그가 기장현의 감무로 파견된 시기는 이보다 빠른 1250년의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장현에 감무가 파견된 시점은 13세기 중반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권108, 김이전에 의하면, 김이가 김심 사건에 연루되어 기장현 감무로 좌천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기장현 감무로 파견된 시기는 김심이 장류(杖流)된 충선왕 후 5년(1313) 2월에서 충숙왕 원년(1314)에 동지밀직사사(중 2품)로 복직되었으므로 약 1년의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권107, 한강전에 의하면 한대순이 충정왕 3년(1351) 중앙의 관직, 즉 지도첨의사사에 있다가 왕이 폐위되고 새롭게 공민왕이 즉위하자 이제현(李齊賢)이 전왕대의 권신을 숙청할 때 기장현의 감무로 강등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기장현은 세종대의 감무 파견으로 주현으로 승격되어 지방의 독립적인 재정운용 · 수취단위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속현 때에 파생되었던 향리 등의 가혹한 조세수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점에서 기장현민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조선시대의 기장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개편이 태종대에 단행되었듯이 8도제도 태종대에 확립되었다. 계수관 읍명 조합(組合)의 도의 명칭이 정착한 과정을 살펴보면 전라 · 경상도는 이미 고려시대에 정해졌고, 충청 · 황해 · 강원도는 태조 4년에, 평안 · 영길(함경)도는 태종 13년에 개정되었으며, 동 14년에는 종래의 경기도와 우도를 합쳐 그냥 경기도로 호칭함으로써 비로소 8도제가 확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를 제외한 외방 7도의 도의 명칭은 그 도내의 계수관의 읍명의 첫 자로 조합되자 그 뒤 도명을 구성하고 있는 계수관의 읍격(邑格) 승강(陞降)에 따라 변경이 잦았다. 그런데 대외관문인 평안도와 대왜관계의 초면인 경상도는 경기도와 함께 반역 · 모역 사건과 강상죄인(綱常罪人)의 발생이 없지 않았으나 대외체면상 타도와는 다르게 8도의 명칭이 확정된 뒤 한번도 도의 명칭의 변화지 않았다.

조선초기 지방제도의 개편 때 기장은 《태종실록》권22, 태종 11년 7월 갑술조에 기장은 군사적으로 경상도의 연해지역으로 왜구의 출입이 많은 곳이므로 기장 감무는 문무를 겸비한 자를 임용하자고 하고 있고, 《태종실록》권30, 태종 15년 12월 경오조에 기장현감을 종래 6품에서 품계를 올려 4품으로 제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장현감의 품계를 2등급 올린 것은 이 지역이 지닌 군사적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장현감의 품계는 곧 종 6품으로 고정되었다. 그렇지만 기장현은 조선 초기 군현의 명칭이나 군현의 병합 등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조선은 초기부터 군현병합책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많은 군현이 병합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실제로 여타 군현에 병합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조선시대 군현 병합은 태종과 세종대부터 실시되었다. 이때 많은 군현이 병합되었지만, 기장은 군현 병합의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태종과 세종의 유업을 계승한 세조는 원년(1455) 8월 의정부에 지시하여 군현 병합과 ‘하나의 읍에 2인의 수령을 두는 문제’를 논의케 한 바 있다. 세조의 군현병합의 의도는 수취체제를 각 읍의 규모와 형세에 따라 균형있게 부과하겠다는 데 있었다. 세조의 군현 병합은 종전과 달리 각 지방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편에 착수하였던 것이며, 또 과거처럼 두 현을 합쳐 하나의 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읍을 병합하여 하나의 군으로 병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장현도 병합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정월 신사조에 세조의 군현 병합책에 따라 구치관 등이 기장현을 동래에 합속시키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2월 기미조에 영의정 정인지가 기장현을 동래에 합속시키지는 구치관 등의 주장에 대해 기장은 연해지역이 갖는 군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장은 세조대에 동래에 병합하려는 논의의 대상은 되었지만 군사적 중요성으로 독립 군현으로 유지되었다.

결국 기장현은 《교남지》 권50, 기장군 연혁조에 의하면, ‘선조 32년(1599)에 기장현을 동래에 통합시켰다가 광해군 9년(1617)에 현을 다시 설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장현은 선조 32년에 동래에 병합되었고, 그후 광해군 9년에 현이 다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장현은 선조 32년 동래에 병합되었을 때 동래에만 병합된 것이 아니고 현의 동쪽지역은 울산에 병합되었다. 기장현은 《교남지》 권50, 기장군 고적조에 의하면, ‘하미면은 선조 기해년(1599)에 울산에 속했고, 효종 계사년(효종 4년, 1653)에 현감 강유후의 진소(陳疏) 후에 환속되었다가 기해(현종 즉위년, 1659)에 또 울산에 속했다가 숙종 신유년(숙종 7년, 1681)에 현감 신담(辛曇; 숙종 6, 1608.8~숙종 9, 1683. 2월까지 재직)과 현의 사람 김상남(金尙南)·김의남(金義男) 상소로 환속되었는데, 후에 중북면·하북면이라 칭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장현은 선조 32년 동래와 울산에 각각 분리 통합되어 현이 폐지되었다가 숙종 7년에 이르러 완전하게 통합되었다.

동래에 통합된 지역은 곧 기장현으로 환원되었으나 울산지역에 통합된 지역은 효종 4년에 환원되었다. 그러나 울산의 민들은 여러 해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동도서축(東圖西囑)하는 등 하미면의 환급을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종 즉위년에 울산의 민들은 비변사에 투장(投狀)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비변사에서는 하미면을 울산에 이속시켜 주는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현종 즉위년에 하미면이 이속되었다.

한편, 기장지역에서는 《오정선생일고》 권상, 〈乞下味面還屬疏〉를 올렸는데, 소에 의하면, ‘금번 암행어사께서 안행(按行)하실 때 그간의 사정을 말하기를 울산은 비단 땅이 기름지고 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넓어 24개 면이나 되는데 본 현은 단지 3개 면으로 그 인구수나 전결 등의 전부를 비교하더라도 하나의 읍이라 말할 것이고 오히려 울산의 1면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를 구제하려면 약하고 기우는 쪽을 도우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서로 경계의 남북에 세운 표말은 張(기장)·蔚(울산) 명칭을 이와 같이 분명히 한 것이다. … 전후의 글의 내용을 한결같이 여기는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경계대로 하미면을 환급하여

주시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따돌거리고 보살피주시는 나라의 은전을 다 같이 누리게 하며 크다고 작은 것을 집어삼키는 탄식스러움을 없게 하시고 흔들림 없도록 하여 주시기 천만번 간절히 빌 따름이옵니다'라고 하는 소를 올렸다. 이와 같은 소가 있는 이후 하미면이 다시 기장현으로 환원된 것을 고려할 때 소가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기장현의 명칭은 숙종 7년 옛 영역을 완전하게 회복한 이후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 개편 때 기장군은 변경될 때까지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조선은 지방 통치체제의 정비를 통해 중앙집권화가 추구되었고, 특히 면리제를 통해 국가의 군현 하부 촌락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면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는 조선초기부터이다. 조선초기 면리제는 《경국대전》 권2, 호전조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은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두고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리정(里正), 면에는 권농관(權農官)을 각각 둔다고 한다. 군현에는 하부 단위로 면과 리가 각각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리제가 정착되기 전 고려말 조선초기의 군현에는 직촌(直村)과 임내(任內)가 아울러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임내에는 속현과 향·소·부곡 등 구역의 대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기장현의 면리제는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음의 자료는 조선초기 기장현에도 면리제가 실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9월 병자조에 의하면, 현재 현의 동현 등이 위치하는 곳에 우물 물이 없으므로 동현 등의 위치를 박곡리로 옮길 것을 청한 것이다. 박곡리는 조선후기 《기장현읍지》 등에 리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박곡리라는 리가 존재하였다는 측면이 주목된다. 《경상도속찬지리지》 경주도 기장현

원우조에 의하면, 현의 동쪽 횡계리(橫界里)에 이을포원(伊乙浦院)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기장현 고적조에 의하면, 사야부곡이 사야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부곡이 자연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장현은 세종 · 성종대 이전에 리 · 촌 등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부터 면리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기장현은 면리의 편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지도서》 기장현 방리(坊里)조에는 ‘읍내면 · 동면 · 상서면 · 하서면 · 남면 · 중북면’ 등의 6개 면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두 개의 신묘식(1831년)과 을묘식(1855년) 호구조사를 수록한 《기장현읍지》에서는 6개 면과 34개의 동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서면이 상서면과 하서면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이전 울산에 편입되었다가 되돌려 받은 하미면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기장현의 면리조직은 조선전기보다 다른 군현처럼 큰 변화는 없었지만 부분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장현의 면리현황

면의명칭	동 리 의 명 칭
읍내면	동부방(東部坊), 서부방(西部坊), 사라리방(土羅里坊), 청강방(淸江坊) 이상 4개 동리
동 면	만화리(萬花里), 고성리(古城里), 후동리(後洞里), 홍계리(洪界里), 취정리(鷲井里), 청광방(靑光坊), 이천리(伊川里) 이상 7개 동리
남 면	송정방(松亭坊), 석산방(石山坊), 당사리(堂祠里) 이상 3개 동리
상서면	고촌방(古村坊), 운봉리(雲峯里), 신명리(新明里), 구칠리(仇柒里), 이곡리(耳谷里), 마지리(麻旨里), 웅천방(熊川坊), 박길리(朴吉里), 와여리(瓦余里), 연귀리(然貴里) 이상 10개 동리
하서면	입석방(立石坊), 말전리(末田里), 아월리(阿月里) 이상 3개 동리
하미면	산막방(山幕坊), 대전방(大田坊), 예림방(禮林新坊), 독이방(禿伊坊), 좌촌방(左村坊), 장안방(長安坊), 신리방(新里坊) 이상 7개 동리

(신묘식, 즉 1831년 호구를 수록한 《기장현읍지》)

개항 이후의 기장의 지방행정, 즉 면리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조선후기 기장현의 면리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면이다. 《기장군읍지(1899)》에 의하면, 읍내면(邑內面)·동면(東面)·남면(南面)·상서면(上西面)·하서면(下西面)·상북면(上北面)·중북면(中北面)·하북면(下北面) 8개 면으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8개 면으로 늘어난 것은 이전의 6개의 면 중 하미면이 상북면·중북면·하북면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의 현황은 1904년에 작성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규 17949)》의 면의 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기장현의 6개 면은 어느 시점에 8개 면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기장군 가호안의 동리현황

면의명칭	동 리 의 명 칭
읍내면	동부동(東部洞), 서부동(西部洞), 교동(校洞) 이상 3개 동리
동 면	만화동(萬化洞), 교동(校洞), 후동(後洞), 조동(棗洞), 횡계동(橫溪洞), 연화동(蓮花洞), 학리(鶴里), 청강동(淸江洞), 이동동(伊東洞), 화전동(花田洞), 청광리(淸光里), 동백리(冬栢里) 이상 12개 동리
남 면	동암리(東巖里), 송정리(松亭里), 당사리(堂祀里), 석산동(石山洞), 운봉리(雲峰里), 고촌(古村), 안평리(安平里) 이상 7개 동리
상서면	곽암리(霍巖里), 직곡리(稷谷里), 마지동(麻旨洞), 미동(薇洞), 천곡동(泉谷洞), 석길동(石吉洞), 백길동(栢吉洞), 연구동(蓮龜洞), 와여동(瓦余洞), 구칠동(九七洞), 대곡동(大谷洞), 장전동(長田洞)
하서면	입석리(立石里), 임기리(林基里), 하월촌(河月村), 부명리(富明里), 두전리(斗田里), 임곡리(林谷里) 이상 6개 동리
상북면	차암동(車巖洞), 고동리(古洞里), 길천동(吉川洞), 고무동(古武洞), 반룡동(盤龍洞), 신리동(新里洞), 개천동(開川洞), 판곡동(板谷洞), 대룡동(大龍洞), 명례동(鳴禮洞), 장안동(長安洞), 기룡동(騎龍洞), 하건동(下乾洞), 용소동(龍沼洞), 반룡동(盤龍洞) 이상 15개 동리
중북면	반룡동(盤龍洞), 월내동(月內洞), 임랑동(林浪洞), 대동동(大東洞), 문중동(文中洞), 칠암동(七巖洞), 신연동(新硯洞), 원동(院洞), 좌천동(左川洞), 좌동(左洞), 선암동(仙巖洞) 이상 11개 동리
하북면	예림동(禮林洞), 방곡동(芳谷洞), 달산동(達山洞), 대전동(大田洞), 가동(佳洞), 매곡리(梅谷里), 상곡리(上谷里), 상평전리(上平田里), 하평전리(下平田里), 산막리(山幕里), 금동(錦洞), 모전동(茅田洞) 이상 12개 동리

이상에서 살펴볼 때 개항이후 기장의 면리현황은 조선후기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자연마을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18·19세기 면리제의 확대 현상은 기장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5) 일제시대의 기장

일제는 식민지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제도의 개편작업을 착수하였다. 1910년 9월 29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발포하고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때의 지방제도는 13도·12부·317군의 체제였다. 도(道)아래 부(府)·군(郡)을 설치하였는데, 도에는 도지사, 부에는 부윤(府尹), 군에는 군수를 각각 임명하였다. 당시 조선 총독부령 제6호 지방관제 제1조에 의해 도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기장과 관련되는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진주로 결정되었고, 관할구역은 종래(1906년)의 경상남도 일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부와 군은 행정구역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기장군은 이전과 변함없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14년 4월 1일 부(府)·군(郡)·면(面)의 행정구역에 관한 통합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종래의 행정구역 중 특히 면은 그 지역 인구와 재정능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각 면간의 재정 부담이 균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상의 폐단도 많아 대폭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행정구역의 정리기준으로 군은 면적 약 40방리, 호구 1,000을 한도로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군은 인접 군에 병합하며, 면은 호구 약 800호, 면적 약 4방리를 최저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곳은 모두 인접면에 병합하였다. 그리하여 부와 군을 통폐합하여 12부로 만들고, 군은 317군에서 220군으로 축소되었고, 면은 4,322면 중에서

1,801개 면을 축소하여 2,521개 면으로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였던 기장군은 결국 동래군에 편입되고 말았다. 동래에 변합된 기장의 면리는 《동래군지(1937) ; 문기주》에 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동래군 소속 기장의 면리 현황

면의명칭	동 리 의 명 칭
기장면	동부리(東部里), 서부리(西部里), 교리(校里), 만화리(萬化里), 신천리(新川里), 죽성리(竹城里), 대라리(大羅里), 청강리(淸江里), 연화리(蓮花里), 대변리(大邊里), 석산리(石山里), 당사리(堂社里), 시랑리(侍郎里), 내리(內里), 송정리(松亭里) 이상 15리
철마면	와여리(瓦余里), 백길리(栢吉里), 웅천리(熊川里), 연구리(蓮龜里), 이곡리(耳谷里), 장전리(長田里), 고촌리(古村里), 안평리(安平里) 이상 8리
정관면	방곡리(芳谷里), 달산리(達山里), 매학리(梅鶴里), 예림리(禮林里), 용수리(龍岀里), 모전리(茅田里), 병산리(屏山里), 두명리(斗明里), 임곡리(林谷里), 월평리(月坪里) 이상 10일
일광면	삼성리(三聖里), 이천리(伊川里), 용천리(龍川里), 청광리(靑光里), 화전리(花田里), 횡계리(橫溪里), 동백리(冬栢里), 신평리(新平里), 칠암리(七巖里), 문중리(文中里), 문동리(文東里), 원리(院里), 학리(鶴里) 이상 13리
장안면	장안리(長安里), 기룡리(奇龍里), 용소리(龍沼里), 오리(五里), 좌동리(佐東里), 좌천리(佐川里), 반룡리(盤龍里), 덕선리(德仙里), 명례리(鳴禮里), 효암리(孝巖里), 길천리(吉川里), 고리(古里), 월내리(月內里), 임랑리(林浪里) 이상 14리

따라서 기장은 식민지배시기 이전의 8개 면에서 5개 면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장면은 이전의 읍내면과 남면이 중심이 되고, 동면의 일부를 합쳤음을 알 수 있다. 철마면은 이전의 상서면에서 동래군으로 편입된 운봉동을 제외한 상서면의 전부와 하서면에서 정관면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입석동·임기동을 합쳤음을 알 수 있다. 정관면

은 상북면의 전부와 하서면(월평동 · 임곡동 · 두전동 · 부명동)의 일부가 합쳐서 되었다. 일광면은 동면의 교동과 만화동을 제외한 지역과 중북면(문동 · 문중동 · 칠암동 · 신평동 · 원동)의 일부를 합쳤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안면은 상북면의 전부와 중북면의 일부 지역(좌천동 · 월내동 · 임랑동 · 좌동동 · 덕산동 · 선암동 · 반룡동)을 합쳤음을 알 수 있다.

6) 해방이후의 기장

동래군에 속했던 기장면 · 일광면 · 장안면 · 정관면 · 철마면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7호에 의해 경상남도 양산군에 통합되었다. 그후 기장면(1980.12.1)과 장안면(1985.10.1)은 각각 기장읍과 장안읍으로 승격되었다.

1986년 11월 1일 양산군 조례987호의 의해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어 기장읍 · 장안읍 · 일광면 · 정관면 · 철마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는 복군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장군은 대통령령 제 4802호(1994.12.22)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었다.

제1 절 기 장 읍

- | | |
|-------------|--------------|
| 1. 교리(校理) | 8. 서부리(西部里) |
| 2. 내리(內里) | 9. 석산리(石山里) |
| 3. 당사리(堂社里) | 10. 시랑리(侍郎里) |
| 4. 대라리(大羅里) | 11. 신천리(新川里) |
| 5. 대변리(大邊里) | 12. 연화리(蓮花里) |
| 6. 동부리(東部里) | 13. 죽성리(竹城里) |
| 7. 만화리(萬化里) | 14. 청강리(淸江里) |

제 1 절 기장읍(機張邑)

○ 연 혁

기장이란 명칭이 불리우기 이전은 이곳을 갑화양곡(甲火良谷)이라 했다. 갑화양곡은 인근의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을 때 함께 정복되었다. 기장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동래군조에 의하면,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쳐 지금까지 그대로 부른다. 영현이 둘이다.··· 또 기장현은 본래 갑화양곡이었는데, 그때 고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기장이란 명칭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전의 주현(州縣), 즉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에서는 속현(續縣), 즉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것은 현(縣)으로 전락하였다.

경덕왕은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추진하였다. 이때 경덕왕은 중앙의 관직명칭 뿐만 아니라 지방의 군현(郡縣)명칭도 변경하였다. 지방의 군현명칭은 이전의 이두(吏讀)의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음으로 모두 변경하였다. 따라서 갑화양곡은 이런 사연으로 기장으로 변경되었다.

기장은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영솔관계에 변동이 있었다. 《고려사》 권57, 지리2 양주(梁州)조에 의하면, ‘기장현은 본래 신라의 갑화양곡현인데, 경덕왕 때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동래의 영현이 되었다가 뒤에 양주(良州)로 이속되었으며, 현종 9년에 다시 울주로 이속되었고, 후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별호는 차성(車城)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볼 때 첫째는 동래에서 양주의

속현으로 영속관계가 옮겨졌다. 둘째는 현종 9년(1018)에 다시 양주에서 울산(蔚山)으로 영속관계가 이속되었다. 셋째는 고려의 어느 시기에 감무, 즉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넷째는 기장의 별호가 차성이었다는 것이다.

첫째, 기장이 동래에서 양주로 이속된 시점은 고려 태조 23년(940) 군현명칭과 영역개편과 관련된다. 이때 양주(良州)는 양주(梁州)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기장은 태조 23년 동래에서 양주로 이속되었다.

둘째, 기장이 양주에서 울산으로 이속된 이유는 현종 9년의 군현개편과 관련된다. 이때 양주와 울산에는 방어사(防禦使)를 파견하였는데, 기장은 울산과 해안선을 통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안 방어를 위해 울주로 이속시킨 것이다

셋째, 기장에 지방관, 즉 감무가 파견된 시기는 고려 중기 감무의 파견 시점과 관련된다. 감무는 예종·인종·의종대에 집중적으로 속현지역에 파견되었다. 이인로(李仁老)의 아들인 이세황(李世黃)이 중앙의 관직에서 좌천되어 기장의 감무로 파견된 사례가 나타난다. 그 시기는 고종대이다. 따라서 기장에 감무, 즉 주현으로 승격된 시점은 고종대 이전임을 고려할 때 예종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장의 별호가 차성으로 불리었다는 것이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차성이란 별호의 명칭이 없었다. 별호는 고려 성종 10년(991)부터 제정하였는데, 지역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당(唐)의 군현명칭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후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별호를 사용하였는데, 차성(車城)도 이때 사용되었다. 기장현은 조선초기 지방관의 명칭이 감무에서 현령으로 변경되었다. 그 시기는 태종 3년(1403) 수령직 강화책에 의해 감무를 지현사(知縣事) 또는 현령(縣令)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태종 13년 지방제도 개편 때 비로소 현감(縣監)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때 기장도 개정되었다. 조선초기 각 군현에는 면리제

(面里制)를 실시하였는데, 기장도 읍내면(邑內面)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위면을 두었다.

임진왜란 후 기장현은 군현통합책에 따라 선조 32년(1599)에 현의 남서쪽은 동래에 편입되고, 동북쪽은 울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장현은 폐지되었다. 광해군 9년(1617) 동래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기장현은 다시 회복되었고, 울산에 편입되었던 지역, 즉 하미면(下味面 · 下尾面)은 숙종 7년(1681)에 이르러 완전하게 복구시켰다. 기장현은 조선후기 동안에는 현의 명칭에 변동이 없다가 고종 32년(1895), 즉 갑오개혁 때 기장군으로 변동되었다.

조선후기 기장현의 면리제는 조선전기 방위면에서 순조 31(1831) 이전 6개면(읍내면 · 동면 · 남면 · 상서면 · 하서면 · 하미면)으로 증가되었다가 한말에 이르서는 8개면(읍내면 · 동면 · 상서면 · 하서면 · 상북면 · 중북면 · 하북면)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한편,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결국 기장군은 동래군에 편입되었다. 아울러 면리의 조직도 개편하였는데 8개 면의 읍내면 · 동면의 일부 · 남면을 중심으로 기장면을 출현시켰다.

기장면은 동부리 · 서부리 · 대라리 · 죽성리 · 신천리 · 청강리 · 연화리 · 대변리 · 교리리 · 만화리 · 석산리 · 당사리 · 시랑리 · 송정리 등의 15개 동리를 관장하였다. 송정리는 1963년 1월 1일에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1개 동리가 줄었다. 1973년 7월 1일 옛 기장군의 영역은 다시 양산군(법률 2,597호)에 편입되면서 양산군 기장면이 되었다. 기장면은 1980년 11월 1일 기장읍으로 승격되었다(법률 제10,050호).

1986년 11월 1일 기장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산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고(양산군 조례 제980호). 1994년 12월 22일 양산군에 분리되어 기장군이 복권되었고(법률 제4,802호), 이듬해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기장읍은 14개 법정리(동부리·대라리·만화리·교리·청강리·내리·시랑리·연화리·대변리·죽성리·서부리·신천리·석산리·당시리)를 관장하고 있다.

1. 교 리

1) 연 혁

교리는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부른다. 이를 교리(校里) 또는 교동(校洞)이라 한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의하면, 교동이란 명칭이 나타난다. 1895년 5월 26일 을미개혁 때 동면 교동(校洞)이었을 것이고,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교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옛 이름은 《기장현읍지(1831)》에 의하면, 동면 고성리(古城里)일 것이다.

고성리라는 이름은 이 마을에 옛날 기장의 옛 성(城)이 있던 곳이다. 옛날 기장성이 이곳에 있다가 언제부터 현재의 기장읍으로 옮겼다. 그 전에는 이곳 교리가 기장 고을의 중심 읍지였던 것이다. 아마도 갑화양곡이라는 본성이 이곳에 있었으니 기장 고을에서는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을의 주읍(主邑)이었던 것이다.

2) 산 천

○ 목 너매 고개

기장읍 교리 북쪽에서 일광면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 박실고개

교동 남서쪽에 있는 박실골짜기에 있는 고개.

○ 구지방울 골

통새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박 곡

교동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생이집골

동내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생이집(‘상여집’의 사투리)이 있었다는데서 생이집골로 불리게 되었다.

○ 소뜸-멀리골

생이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개우지논

장구배미 남쪽에 있는 논으로 개우지(이빨 바진 사람의 별명)의 논이었다는 데서 개우지논이라 한다.

○ 못안들

박실논 안쪽에 있는 들.

○ 생이집골논

생이집골짜기에 있는 논.

○ 섬밭들

교동 동쪽 성신아파트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섬처럼 생긴 돌무더기가 있었는데서 섬밭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 섬밭넘-고개(들)

섬밭 너머에 있는 고래실로 된 들.

○ 장구-배미들

교동 앞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도시화로 옛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 통새밋들

통새미에 있는 들.

○ 섬터-불산

교동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7.9m이다. 전형적인 구릉으로 정상에 너비 1.5m, 길이 5m, 높이 60~70cm의 둔덕으로 축성된 옛 기장 고읍성의 성터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나고 있다. 성터-불산이란 바로 고읍성이 지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 샛트-산

교리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25m이다. 만화리와 경계를 이루는 이 산은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봉우리가 둥그스레하고 산기슭 또한 완만한 편이다. 동쪽 구릉을 따라 신라시대 축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장 고읍성의 둔덕이 지나고 있다.

○ 안 산

교동 맞은 쪽에 있는 산.

○ 불근-딩이(등)

교동 남쪽에 있는 낮은 등성으로 흙색깔이 붉다고 해서 불근딩이로 불리게 되었다.

○ 통새미

교동 남쪽에 있는 우물. 모습이 통처럼 생겼다는데서 통새미로 불리게 되었다.

○ 교동못

교동 앞에 있는 못

○ 박실못

교동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의 논.

3) 명승고적

○ 태정대(太停臺)

기장읍과 교리 사이 큰 길가에 있는 소나무숲을 말한다. 이 주위는 전답이 되어 있고 그 앞쪽은 철길이 놓여 있다.

《경상도여지》에는 고적으로 현(기장현을 말함)에서 동북쪽으로 3리 떨어진 곳이라 하고는 신라의 태종왕이 동래에 온천목욕을 하러 올 때 임금이 탄 어가(御駕)가 이곳에서 멈추어 쉬었다고 해서 태정대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현재는 노송이 숲을 이루었을 뿐 유적이나 유물은 없다.

《동국여지승람》 동래현의 산천을 밝힌 가운데의 온정(溫井) 조항에 의하면, 신라 때 왕이 자주 동래온천으로 목욕하기 위해 행차하였다고 하였으니 태종도 동래온천으로 행차를 한 것 같다.

이 곳을 현재 ‘대정대(大停臺)’라고도 불리고 있으나 역사적 유래로 보아 ‘태정대(太停臺)’가 옳을 것으로 본다.

《경상도읍지》의 ‘울산고적’에 따르면, 신라왕이 동래온천으로 오는 길에 쉬었던 장소로 울산에 왕산(王山)이 있었다고 하고, 산 위에는 왕이 쉬었

다는 반석이 있고 산 아래 대왕동(待王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왕이 경주에서 동래온천장으로 행차할 때의 길은 울산을 거쳐 기장쪽 바닷가 길을 따라 동래로 온 것으로 여겨진다.

영도구에는 태종대가 있는데 이는 신라의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조련(調鍊)하였던 곳이라 하여 그리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니 신라 시대는 수도 경주와 가까운 부산지역은 당시의 왕 또는 왕족과 인연한 곳이 많다.

○ 기장향교(機張鄕校)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의 역대 대유와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 큰 선비들의 위패를 모신 문묘(文廟)와 강학(講學)을 하는 명륜당(明倫堂)을 두어 선철(先哲) 선현(先賢)을 제사하는 한편 지방 자제들의 교육에 임했다.

이 향교는 지방관아인 부(府)·대도호부·목(牧)·군(郡)·현(縣)의 행정 중심지에 설치하여 지방관아에서 관장하였는데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중 6품의 교수 또는 중9품의 훈도(訓導)를 두었다. 기장현은 훈도로서 중 9품이었다.

조선시대 중앙에서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향교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이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되었는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재는 대개 《소학》, 《가례》, 《사서고경》, 《근사록》, 《심경》 등이었다.

향교의 건물은 제향과 강학의 조건과 유교적 교리에 맞아들게 고고하고도 검소한 가운데 단순 소박하면서 바르고 곧은 윤리와 법도의 장(場)으로 조성하였다.

제향의 기능을 가진 문묘인 대성전은 부설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배설(配設)하고 장학의 기능을 가진 명륜당은 부설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로 배설하였다.

정문은 3칸이거나 누문(樓門)이었는데 누문인 경우는 정문의 역할도 하였다.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에는 담장을 치고 문을 세웠다.

기장향교는 현재 교리 62번지에 있다. 세종 22년(1440)에 창건되었는데 향지(鄉誌), 상량문 등을 종합하면 처음 성내에 있던 향교를 광해군 9년(1617 : 이때를 창건연대로 보는 견해도 있음) 기장현의 유림들에 의해 현(縣)의 북쪽 3리 되는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그 뒤 영조 34년(1758)에 다시 현의 동쪽 5리 되는 곳인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1855년에 기록된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이때 6개월을 이는 중수로 보수되었고 1974년에는 대성전 일부의 보수와 명륜당의 기와가 교체되었고 1975년에는 풍화루(風化樓)의 부분 보수와 단청을 새로 입혔다.

건물의 배치형식은 직선을 축으로 하여 명륜당이 앞쪽이고 문묘가 뒤쪽으로 배치되었다.

현재는 매년 8월에 한 차례 향사를 올리고 있다. 건물은 현재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인 대성전을 비롯하여 내삼문 역할을 하는 신삼문, 장학의 자리인 명륜당, 명륜당에 따른 동재와 서재, 장대한 팔작지붕 누각인 풍화루(風化樓) 3칸, 대문인 세심문(洗心門) 등 7동(棟)이 있다.

1983년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15호로 지정되었다가 기장읍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자 1996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주위로 고층건물과 호텔 등이 들어서서 유적으로서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 기장향교앞 공덕비군(功德碑群)

교리의 기장향교에는 기장현감과 군수의 공덕비가 향교 앞과 외삼문 옆과 향교에서 100m쯤 떨어진 곳으로 3기(基)가 흩어져 있다. 이 3기 가운데

① 행현감 이공 동설 영세불망비(行縣監 李公 東謫 永世不忘碑)

이 비는 자연석을 대석으로 하여 그 위에 비신을 세웠다. 크기는 110×40×19cm이다. 내용은 도광 신묘년(道光辛卯 : 순조 31 : 1831)에 훼손 파괴된 향교를 현감 이동설이 주창하여 중수한 일을 기리어 향교측에서 세운 것이다.

② 행군수 이공 해륜 영세불망비(行郡守 李公 海崙 永世不忘碑)

이 비석은 개석과 대석을 갖춘 석비로서 비신의 크기는 110×40×19cm이다. 군수 이해륜이 기장향교를 위해 건물을 보수하고 유풍(儒風)을 일으킨 공덕을 기리어 향교측에서 세운 것이다. 비를 세운 연대는 경자(庚子)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경자년은 서기 1900년이 된다.

기장군 동부리에는 군수 이해륜의 청덕 거사비(淸德去思碑)가 별도로 또 있다. 역시 유풍을 일으킨 청덕을 칭송한 글이 새겨져 있다.

③ 행군수 엄공 신영 유애불망비(行郡守 嚴公 信永 遺愛不忘碑)

광무 8년(1904) 세워진 석비로 크기는 83×35×9.8cm이다. 향교측에서 재임중의 공덕을 기리는 뜻으로 새긴 글이 해서체로 씌어 있다.

기장군 동부리에는 군수 엄신영의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가 별도로 또 있다. 역시 재임중의 공덕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다.

4) 자연마을

○ 골안골마을

기장향교가 위치한 교동(校洞)의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안쪽에 있다고 하여 골안[谷內]이라 불렀다. 마을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마을이름이 붙여진 경우이다. 이하 마을이름의 유래는 《기장향토문화연구지》(孔泰道편, 기장현향토문화연구소, 1998)를 많이 참고하였다.

○ 교동마을

기장향교가 위치한 마을이라 교동(校洞)이라 불렀다. 교리(校里)라고도 부른다. 특정한 사물, 특히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교리의 옛이름은 고성리(古城里)다. 이 마을에 기장의 옛성(城)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장의 가장 중심되는 마을이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章閣圖書 17949, 서울대)에 의하면, 당시 기장군 동면(東面) 교동(校洞)에는 23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4칸 집이었다. 23호 가운데 김경선(金敬善)집이 초가 5칸으로 칸수가 가장 크다. 초가 4칸 집은 4호이다. 김씨(10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박씨(4호), 송씨(4호) 순이다. 경상남도 기장군 동면 교동 일부가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군 기장면 교리가 되었다.

기장향교 앞에는 교리회관이 있다. 향교 앞에는 문화그린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교리초등학교 신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는 교리 커피숄, 교리떡방앗간, 교리상회, 교리꽃식물원, 교리농장식당 등 교리, 교동과 관련된 이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아랫각단마을

교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말에 교동 아래쪽[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한다. 각단은 ‘뜸’과 같은 것으로 동네·마을을 뜻한다. 아랫은 아랫의 변이형이다. 아래쪽을 뜻하는 아랫과 마을을 뜻하는 각단이 합쳐져서 아랫각단이 되었다. 마을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아랫각단이라고도 부른다.

○ 홍문간마을

기장향교로 들어오는 어귀에 있는 마을이다. 홍문(紅門)은 홍살문이나 정문(旌門)을 뜻한다. 홍살문은 능·원·묘·궁전·관아 등의 정면에 세우던 붉은 칠을 한 문으로, 둥근 기둥 두개를 세우고 위에는 지붕이 없이 붉은 살을 죽 박았기 때문에 홍살문[紅箭門]이라고 부른다. 기장향교의 홍살문 부근에 있던 마을이라서 홍문간(紅門間)마을이라 불렀다. 특정한 사물, 특히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부산대박물관,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1998년)에 의하면, 향교 입구에 세워져 있던 홍살문은 현재 홍살문대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 동쪽의 것은 상부가 깨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5) 기 타

○ 고읍성(古邑城)터

현재의 교리 일대에 토성(土城)이 있었다. 이 토성을 기장 고읍성이라 한다.

성벽은 속칭 셋드산의 동쪽 구릉 정상부를 따라 계곡을 건너 향교의 북서쪽 능선에서 교리 뒷산을 거쳐 향교의 동쪽으로 내려오는 평면 타원형(平面橢圓形)으로 남아 있다. 남아있는 토성둘레는 1,300m정도인데 확인되는 성벽의 단면에 의하면, 성벽은 기단부(基壇部)에 석축(石築) 1~2단을 배치하고 그 위에 토사(土砂)를 다져넣은 판축(版築)의 기단 석축형 판축토성으로 추정된다.

성 안쪽으로 북문골이라는 지명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북문골이 북문터로 여겨진다. 이 고읍성은 신라시대 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후기에 왜구(倭寇)의 침입으로 성이 파괴되자 다시 축조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의 기장현 고적에서 볼 수 있는 둘레

3,208척의 토성이었고 현재의 석축 읍성이 축조되기 전까지의 고읍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과 97년 사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곳 유적지를 조사 발굴한 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이로써 이 고읍성은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 3·1의거 (機張 三·一 義舉)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독립쟁취를 위한 민족의 합성이 서울(당시는 京城)에서 일어나자 그 기세는 요원의 불꽃처럼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기장읍에 독립선언서가 닿은 것은 동래읍에서 3월 13일에 3·1의거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 뿌려진 것을 장에 갔던 기장사람 김수문(金守文)이 가져온 것이었다. (일설로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김수룡이 가져왔다고도 함)

독립선언서를 본 김도엽(金度燁 : 21세 : 대라리), 권철암(權鐵岩 : 19세 : 동부리), 구수암(具壽岩 : 20세 : 동부리), 김수룡(金壽龍 : 20세 : 교리), 최기복(崔基福 : 19세 : 서부리), 이택규(李澤奎 : 21세 : 동부리), 박공표(朴孔杓 : 21세 : 동부리) 들은 새삼 젊은 피가 끓었다. 기장에서의 의거가 논의되었다. 그 논의는 여러차례 거듭되는 가운데 4월 5일의 장날로 정해졌다.

독립선언서의 등사를 위해 기장면사무소의 재무서기였던 최창룡(崔昌鎔 : 22세 : 동부리)에게 의논했다. 최창룡이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면사무소의 등사판과 등사용지를 이용하여 기장의 옛 장관청(將官廳)에서 3월 28일 독립선언서를 400장 등사하여 장관청 빈 방에 숨겨두었다. 김도엽이 ‘양심발원 인도적 자우민족(良心發源 人道的 自由民族)’이라 혈서(血書)로 쓴 기(基)와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국’이라 크게 쓴 기도거사를 위해 만들어 두었다.

4월 5일 장날이 되었다. 오전 11시에 앞서 말한 주동인물은 준비한 선언문을 시장에 오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준비한 깃발을 시장 한 가운데 세우고 오기원(吳基元 : 21세 : 대라리), 장봉기(張琫起 : 19세 : 대변리), 최학림(崔鶴林 : 20세 : 일광면 월정리)의 호응을 얻어 약 100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시장은 불어나는 군중들로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로 변했다.

주동인물은 깃발을 휘날리며 읍내를 일주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군중이 더욱더 불어났다.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었다. 나라잃은 설움이 북받쳐오른 것이었다.

일본경찰이 공포를 쏘며 밀어닥쳤다. 그래도 곳곳으로 흩어진 소집단이 되어 ‘대한독립만세’가 터져나왔다. 시위는 오후 5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동래에서 헌병대가 밀어닥쳤다.

기장주민의 항거는 주동자를 체포해간 4월 5일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4월 8일 밤 10시에는 수백명의 노동자와 부녀자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독립을 소리높이 외쳤다. 이 외침은 독립선언서에서 선언한 그대로 세계만방에 알리는 외침이었다.

4월 10일 장날에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은 아침 9시경이었다. 기장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그 동안 체포되지 않은 주동자와 학생 50여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교문을 박차고 나와 기장읍내를 누비며 시위를 벌이자 주민과 시장 장꾼이 호응하여 하루 내내 망국의 울분에서 일어난 만세소리가 기장읍을 진동케 했다.

5일과 8일과 10일의 기장의거에서 검거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김도엽 징역 2년 6월이었고, 김수룡 2년, 권철암·구수암·최기복·이택규·최창룡 등이 1년 6월, 오기원·장봉기 등이 8월, 최학림 6월, 박공포 3월이었다.

이 기장의거는 뒷날 많은 항일투사를 낳게 한 시발점이 되었다.

○ 기장구포(機張九浦)

기장(지난날의 기장현, 오늘날의 기장군)은 바닷가 아홉 포구가 기장을 대표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기장 구포(九浦)라 하였는데 옛날은 이 구포로 고깃배와 배에 실린 물자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갔다.

옛부터 일컬어온 구포를 《기장읍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① 무지포(無知浦)

기장읍 신암마을과 대변리 바닷가를 무지포라 했다. 무지포의 ‘무’는 ‘물’이고 ‘재’는 성(城)의 옛말로서 ‘물재’가 되는데 한역하면 수성(水城)이 된다.

지난날의 무지포 가운데의 대변리 바닷가는 뒷날 용암포(龍岩浦)라 일컬어지다가 현재는 대변항(大邊港)이라 하고 있다.

② 이을포(伊乙浦)

이을포는 일광면 이천리(伊川里) 바닷가를 말한다. 이을개는 이은개〔連結浦〕라는 말로 강물을 한군데로만 흐르도록 물살을 막아놓고 그곳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랑(漁梁)을 말한다.

이 어랑을 만들기 위해 말뚝을 일렬로 박고 나란히 이어지도록 장치하는 것을 ‘이을개’라 하는데 이을개를 한자로 표기하자니 伊乙浦(이을포)가 되었다.

이 이을포는 조선말 외부대신과 법무대신을 지낸 이하영(李夏榮)의 출신지가 되어 그 출신지를 바닷가 포구 이름을 가질 수 없다 하여 ‘이천(梨川)’으로 고쳤다고 하나 꼭이 믿을 것이 못된다.

③ 가을포(加乙浦)

가을포는 오늘날의 해운대구 송정동 바닷가를 말한다. 옛날에는 기장군에 속했던 송정동은 송정천과 송정천 하구 일대는 갈대밭이어서 갈개 또는 갈포라 했는데 그 말을 한자로 쓰자니 加乙浦(가을포) 또는 加來浦

(가래포)가 되었다고 한다.

이 가을포가 송정(松亭)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1800년경 호조 참판과 경주부윤을 지낸 노영경(盧泳敬)이 과거를 볼 때 출신지를 갯가인 가래포로 쓰면 불리할까 해서 송정이라 썼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노영경의 출신지가 되어서 천대받을 갯가 이름을 피해 송정이라 했다는 말도 있으나 두 갈래의 두 말은 꼭이 믿을 것이 못된다.

④ 동백포(冬柏浦)

일광면 동백리 바닷가를 말한다. 동백리를 가로질러 동쪽 바다로 흐르고 있는 동백천 주위의 포구가 된다.

⑤ 공수포(公須浦)

공용으로 쓰이는 땅인 공수전(公須田)이 많아서 공수마을이라고 한 기장읍 시랑리 바닷가를 말한다.

‘공수포’ 이전은 ‘비오개’라고도 했는데 이 비오개는 비오리 [紫鴛鴦] 가 많이 몰려온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⑥ 기포(碁浦)

일광면 이천리 이동(伊東)마을 바닷가를 말한다. 이동마을은 이천(伊川) 동쪽이 되기 때문이다.

기포의 기(碁)는 바둑 ‘기’ 자다. 바닷가에 검은 바둑돌이 많아서 ‘기포’라 했다.

⑦ 독이포(禿伊浦)

일광면 문동리(文東里) 바닷가를 말한다. 독(禿)자는 ‘민둥산 독’자다. 문동리 뒷산이 민둥민둥하게 생겨서 민둥이산 [禿伊山] 이라 했고 개 [浦] 를 ‘민둥개’라 한 것을 한자의 음과 뜻을 따서 ‘독이포’가 되었다.

그러나 민둥이는 어감이 좋지 못해 발음이 같고 좋은 뜻인 문(文)으로 바꾸어 산은 문산(文山)이라하고 마을은 문리(文理)라 했다가 문동리라 하였다.

⑧ 월래포(月來浦)

장안읍 월내리(月內里)에 있는 바닷가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월내라 하지만 1895년 을미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월래(月來)라는 이름이었다.

⑨ 화사읍포(火土乙浦)

장안읍 고리(古里)에 있는 바닷가를 말한다. 이 ‘화사읍포’를 줄여서 ‘화포(火浦)’라고도 하고 ‘불살개’라고도 하였다.

이 불살개나 화포는 새벽에 붉은 햇살이 비취지는 찬란함을 말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곳에 아이포봉수대(阿爾浦烽燧臺)가 있어서 봉수대의 불로 인해 ‘화사읍포’ 또는 ‘화포’라 하였다는 말도 있다.

앞에 말한 기장 구포(九浦)가운데 가을포가 송정으로 이을포가 이천으로 바뀌어서 그 두포구의 이름 대신 기장읍 두호리의 두모포(豆毛浦)와 일광면 학리의 항리포(項里浦)를 넣어 구포라고 한 때가 있었다.

이 이외에도 장안읍 임랑리의 임을랑포(林乙郎浦), 일광면 칠암리의 칠암외포(漆岩外浦)가 있다. 이들은 《읍지》에 나타나지 않는 포구지만 《읍지》에 나타나지 않는 포구로는 대변리의 무지포로 알려졌던 용암포(龍岩浦)는 현재 대변항(大邊港)이라 하여 동해안의 일종 어항이 되어 있다.

이 구포 가운데 가을포는 송정해수욕장이 되고 이을포는 일광해수욕장이 되고 월래포는 월내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하고, 무지포 · 동백포 · 독이포는 횃집들이 많이 들어서 타지 사람이 많이 찾아드는 회요리 중심의 항구로 바뀌었다. 화사읍포는 원자력발전소로 변했다. 공수포 · 기포 · 두모포 · 항리포 만이 갯가 마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옛날부터 기장구포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은 《읍지》가 물산(物産) 또는 토산(土産)이라 하거나 진공(進貢)이라 하여 열거한 것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광어(廣魚)와 청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홍합(紅蛤) 전복[鮑] 가오리, 도다리, 모래무지, 전어, 갈치 들이고 그 다음으로 김, 미역, 가사리, 참가사리, 해삼, 가막바리 들이고 대구는 송정에서 잡히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바닷가에서 미역따는 곳을 광전(藿田)이라 하는데 이 광전은 월래포 앞바다·문동리 앞바다·칠암리 밖의 앞바다·고리 앞바다에 있었다. 뒷날에는 두호의 두모포, 신암리의 무지포, 학리의 향리포, 이천리의 기포 에도 광전이 있었다. 이 광전은 미역뿐 아니라 탄 해조류도 채취하였다.

이러한 특산물 가운데 오늘날까지 유명한 것은 기장갈치와 기장미역 이다. ‘갈치’를 이곳에서는 ‘칼치’라고 하는 이 칼치는 검푸른 색으로 크고 두텁고 맛이 탄 지역 갈치에 비할 바 없이 뛰어났다. 그래서 광복 후 기장역 좌천역 월내역에서는 칼치강주리가 역구내를 메우고 아주머니 들이 그 무거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부산 동래 등지로 가서 팔기 위해 화물차, 개차 들을 메웠다.

기장미역은 아이를 낳은 산모의 필수음식품이다. 산모는 기장미역을 먹어야 출산 뒤의 몸이 회복된다고 한다.

2. 내 리

1) 연 혁

내리(內里)는 내동(內洞)·오신(梧新)·소정(蘇亭)·백동(栢洞)의 네 마을을 합친 법정동리이다. 내리는 안마을 이라는 뜻인데 이는 내동을 본 마을로 하였던 것에서 생긴 이름이다.

동리의 명칭은 《기장현읍지》·《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제시대, 즉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기장면 내리란 명칭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앵림산의 깊은 계곡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안골마을이라 하였던 것에서 동리의 명칭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리의 명칭이 불리우기 이전에는 남면(南面) 석산방(石山枋)에 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산 천

○ 드무닛재(고개)

안전사 북쪽에서 철마면 안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해발 고도 200m가 넘는 첩첩산중으로 나 있으며, 예부터 험악한 재로 이름난 곳이다.

○ 매박곡(고개)

웃오신 마을 남서쪽에서 백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매박골

매박곡 아래에 있는 골짜기.

○ 매바위

매박골에 높이 솟아 있는 바위로 매가 알을 낳고 새기를 치는 매의 서식처로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즉, 옛날 이 마을에 중병을 앓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며느리는 효성이 지극하여 이 산 저 산을 찾아 좋다는 약을 모두 캐어 약을 달여 올렸다.

그럭저럭 어느날 시어머니는 계곡에 있는 가재가 먹고 싶다고 하기에 며느리는 깊은 계곡에서 가재를 많이 잡아 매바위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무서운 호랑이가 덤빌 듯이 으르렁거렸다.

이때 큰 매 한 마리가 날렵하게 호랑이에게 덤벼들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호랑이의 눈언저리를 핏퀴면서 호랑이 쫓아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위 위에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있는 큰 매가 “너의 효심에 감복하여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쫓아 버렸으니 나 걱정은 말고 빨리 시어머님께 그 가재를 드려라” 고 하였다.

그런데 그 가재를 먹은 시어머니는 신통하게도 그 지병이 쾌유되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고마워서 그 매의 상처를 보살피 주려고 그 바위를 찾았으나 상처를 입은 그 매는 흔적은 없고, 대신에 매가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있던 바위가 꼭 매처럼 닮아 있었다. 큰 바위로 변한 매의 넓을 위로하고 감사의 고사를 올렸다. 그 후로 이 매바위에는 매가 등지를 짓고 살았고 마을사람들은 해마다 고사를 올렸는데 그때부터 이 바위를 매바위라고 불렀다 한다.

○ 무곡고개

내동 북동쪽에서 청강리의 무곡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봉산고개

구치머리 남서쪽에서 해운대구 석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장산의 북동기슭으로 나 있는 이 고개는 험준한 산악재이다.

○ 살고개

백동 북서쪽에서 안적사로 넘어가는 고개.

○ 질매고개

오신마을에서 백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질매(‘길마’의 사투리)처럼 생겼다는데서 질매고개로 불리게되었다.

○ 구곡산골

문바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홉산 아래 골짜기라 하여 아홉산골로 불리기도 한다.

○ 내리골

황침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연화봉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내리천에 흘러드는 소지류의 상류계곡에 해당되며 지형이 ‘내리받이’로 생겼다.

○ 문바웃골

내리골 서쪽 문처럼 생긴 문바위가 있는 골짜기.

○ 삼발골

챙이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삼발이 있었다는데서 삼발골로 불리게 되었다.

○ 챙이골

불맷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챙이(키)처럼 생긴데서 챙이골로 부르고 있다.

○ 황침짓골

삼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도드멧들

웃오신 마을 앞 일대의 넓은 들판.

○ 두릉배미논

오신 마을 남쪽에 있는 둥그스레한 들판.

제2편 자치구

○ 덧 들

아랫오신 마을 뒤에 있는 들판.

○ 매바웃들

맥박골 밑에 있는 들판.

○ 멍에-배미논

두릉배미논 밑에 있는 들판으로 멍에처럼 생겼다.

○ 바지-배미논

삼글들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바지처럼 생긴데서 바지배미논으로 불린다.

○ 삼거리들

웃오신 마을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안적사·내동·오신마을로 가는 세갈림길이 있는데서 삼거리들 또는 삼글들이라 불린다.

○ 솔뚜배기논

아랫 오신마을 남동쪽에 있는 들판. 본래 이곳은 개척되기 전에는 해송림이 우거져 있었고 이 소나무 숲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면서 솔뚜배기는 또는 소뚜배기논으로 불리게 되었다.

○ 중보평들

오신 마을 앞에 있는 들판.

○ 포구정들

웃오신 마을과 내동 사이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내리천의 양안에 형성된 충적평야이다. 포구정들이란 옛날 이곳에 포구나무가 많았다는데서 비롯된다.

○ 도드맷보

웃오신 마을 앞들인 도드맷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삼거리보

삼거리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구치머리산

감뜨미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구곡산(아홉산)의 머리 쪽이 된다.

○ 소뚜베기산

오신마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98.9m이다. 구릉성 산지로 산봉우리가 둥그스레하다. 과녁판을 세워 놓고 활을 쏜 것으로 전해진다.

○ 시등산(감뜨미산)

내리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12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봉우리가 감처럼 둥그스레하다 하여 감뜨미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 내동못

내동에 있는 못으로 내리못이라 불리기도 한다.

○ 내리교

소정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리천에 가로놓인 다리. 1969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길이는 44.2m이다.

○ 소정교

소정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리천에 가로놓인 다리. 내리교와 나란히 놓여 있다.

○ 오금골

웃오신 마을과 아래오신 마을 사이 일대의 넓은 골짜기. 내리천이 이곳에서 굴곡하여 휘어 흐르면서 팔오금처럼 오금탕이가 되는데 이런 곳을 기장지방 사투리로 ‘오금’이라 하여 오금골로 불리게 되었다.

○ 백동

백동마을에 있는 깊숙한 골짜기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새벽에 밝은 해가 동해 바다에서 솟아오르면 햇살이 가장 먼저 이 골짜기에 비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 골짜기를 백골 또는 별골이라는 뜻의 백동[栢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백골’을 한자로 치나무 백(栢)과 골[洞]이라 하나 이 골짜기에는 해송은 있어도 잣나무는 없으므로 ‘잣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풀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3) 명승고적

○ 안적사(安寂寺)

안적사는 조계종 사찰로 기장읍 내리 692번지의 앵림산(鶯林山)에 있다. 《기장현읍지》에 기장현의 4대 명찰로 기록되어 있는 안적사는 신라 문무왕 원년(661) 원효대사의 창건으로 전해져 내리지만 그것이 구전설화(口傳說話)가 되어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옛 사찰 규모도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범어사의 묘전화상(妙全和尚)이 중건한 바 있고 고종 10년(1873)에 대웅전, 수선실 등으로 경허(慶虛), 해령(海嶺) 스님이 3차에 걸쳐 중수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안적사는 1973년 폐사가 된 사찰을 덕명스님이 대웅전, 삼성각,

수선실, 범조, 요사채, 종무소, 사천왕상, 후 불목탱화, 자장목탱화, 신중목탱화 등을 중건한 것이다. 이때 대웅전은 석축을 쌓은 위에 동향으로 배치하였다. 대웅전의 후면 북서쪽에는 삼성각(三聖閣)을 세우고 남쪽에 보림원(寶林院), 북쪽에 심검당을 두었다.

삼성각 북쪽에 옛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있다. 그 위에 조성시기를 알 수 없는 부도(浮屠) 1기(基)가 있다. 일반적인 중형 부도다.

안적사를 중창한 덕명스님이 전해내린 창사기원을 쓴 ‘안적사 창건유래’에 의하면,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형제의 의를 맺고 도를 구하기 위해 명산을 찾아다닌 젊은 시절이란 것이다. 어느날 장산국(菴山國 : 장산국의 중심 텃자리를 오늘날의 해운대의 장산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난데없이 찢꼬리떼들이 모여들어 두 스님 앞을 너울거리며 가로 막았다. 이에 두 스님은 이곳이 도를 깨칠 곳이라 하여 의상대사는 장산(菴山)에 토굴을 지어 도를 닦기는 하고 원효대사는 오늘날의 안적사가 있는 곳에 토굴을 지어 도를 닦았다고 한다. 두 스님이 득도(得道)에 이를 무렵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공양을 올리는 천공(天供)을 받게 되어 성불(成佛)이 됨으로 선실(禪室)을 넓혀 큰 가람을 신축하였는데 원효대사가 정진한 곳의 산을 찢꼬리가 모여 들었다. 하여 앵림산(鶯林山)이라 하고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를 요달(了達)하여 적멸상(寂滅相)에 통관하였다 하여 절을 안적사(安寂寺)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발간(1998)한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는 앞에서 말한 덕명스님의 ‘안적사 창건유래’를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의상관련 설화의 내용과 주인공만 차이가 있을 뿐 얘기의 뼈대는 거의 같다고 하고 있다.

4) 민 속

○ 내리 내동 할배 ·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당사가 두 곳에 있는데, 하나는 할배당산으로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의 산밑에 있고, 또 하나는 할매당산으로 마을에서 남쪽 약 50m 지점의 마을 입구 왼쪽 개울가에 위치하고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79년 음력 4월 8일.



내리 내동당산 제당



내리 내동마을 할배당산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마을 뒤에 있는 할배당사의 크기는 앞면 382cm, 옆면 310cm로써 건평이 3.6평이며, 맞배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8cm, 세로 150cm)이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할매당사의 크기는 앞면 184cm, 옆면 240cm로써 건평이 1.3평이며, 슬라브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철판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한 쪽의 크기는 가로 79cm, 세로 180cm)이다.

- 당사의 좌향 : 할배당사는 남향이고, 할매당사는 서남향이다.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할배당사의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74cm, 옆면 79cm, 높이 57cm 이고,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매당사의 제단도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49cm, 옆면 60cm, 높이 58cm 이고,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할배당사의 오른쪽 벽에 “1979년 4월 초8일 제당건립찬조금명단”(크기는 가로 98cm, 세로 53cm)의 액자가 붙어 있다.
- 당산 주위 환경 : 할배당사의 주위에는 돌담(높이 130cm 두께 60cm)이 둘러 있고, 그 밖에는 팽나무 · 괴목 · 향나무 등이 있다. 그리고, 할매당사는 석축 위에 시멘트로 입힌 축대(앞면 400cm, 옆면 12m, 높이 55cm)에 있으며, 주위에는 소나무 7그루가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선정하였으나, 요사이에는 이장이 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정오경과 유월 14일 정오 경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매제→당산할배제의 순서이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매제→당산할배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할배당사 앞에서 해반하여,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간이었으나 요사이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제2편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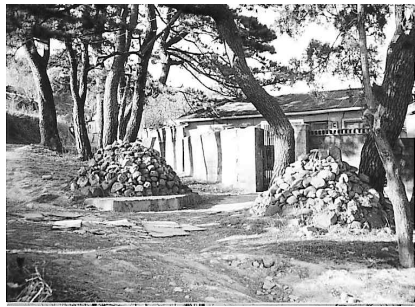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에서 정성껏 내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옛날에는 동답 2마지기를 경작하게 하였으나 요사이는 없다.

○ 소정리 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 서북쪽 70m 지점의 산 밑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337cm, 옆면 355cm로써 건평이 3.6평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91cm, 세로 152cm)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남쪽 마을 입구의 길가 오른편에 소나무 7그루가 서 있는데 돌탑(둘 다 높이가 120cm이나, 앞의 것은 밑변지름이 200cm이고 뒤의 것은 밑변지름이 220cm임)이 있다. 이 돌탑 주위에는 10cm 정도 높이의 시멘트



소정당산



소정 탑거리

담장이 둘러 있는데, 앞면 길이가 약 480cm, 옆면 길이가 약 10m이다. 그리고 앞뒤 돌탑 위에는 돌(앞의 것은 지름 20cm, 높이 30cm이고, 뒤의 것은 앞면 24cm, 옆면 12cm, 높이 37cm)이 얹혀 있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당사의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20cm, 옆면 60cm, 높이 32cm이고, 제단 위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마을 남쪽 입구에 있는 뒤쪽 돌탑 앞에 시멘트 제단이 있는데, 크기는 앞면 151cm, 옆면 90cm, 높이 11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 뒤 오른쪽 180cm, 왼쪽 215cm 지점에 각각 돌탑(크기는 둘 다 밑변 지름 200cm, 높이 80cm)이 있고 주 위에는 소나무와 오리나무가 무성하다. 그리고 당사 앞 약 25m 지점에 제물 조리당(크기는 앞면 532cm, 옆면 408cm로써 건평이 6.6평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이다)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에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제의를 맡는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 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제→거리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옛날에는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돌탑 옆에 세웠으나 요사이에는 하지 않는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해반을 하는데, 부정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

제2편 자치구

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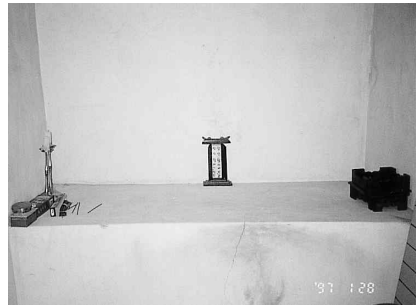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소정리 오신당산

- 당산 소재지 : 바깥 오신에서 안 오신으로 가는 길가 오른쪽에 있으며, 바깥 오신에서 서북쪽 50여m 지점에 있음.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21cm, 옆면 322cm로써 건평이 2.15평이다. 슬라브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철판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105cm, 세로 167cm)이다.
- 당사의 좌향 : 동동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81cm, 옆면 78cm, 높이 58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오신당산



오신당산의 위패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나무 위패에 세로 두줄로 “당산할아버지신위 당산할머니신위” 라 쓴 지방이 위패에 붙어 있는데 위패의 크기는 가로 12cm, 세로 26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 뒤에는 10여년생의 은행나무 · 팽나무가 서 있고, 도로 좌우변에는 논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연말에 이장이 선정 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유월 14일 자정 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와 할매를 동시에 지냄.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음복을 한다.
- 금기 기간 : 2개월 정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 하며, 약 15-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소정리 백동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군부대 안에 있으며, 소정 2구 마을 서쪽의 용소 할매당사(송정동 72번지 소재)는 건물은 있되 제의를 베풀지 않고, 백동마을 앞 개울가의 할배당사(내리 49번지 소재)에는 현재 제사를 지낸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歲在丁酉季己酉月庚戌日酉時立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백동 할배당사의 크기는 앞면 240cm, 옆면 274cm로써 건평이 약 2평이다. 맞배 기와지붕에 벽은 돌과 흙을 섞어 쌓아 안은 회칠을 하고 밖은 시멘트 반과 회칠 반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 판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제2편 자치구

63.5cm, 세로 131cm, 두께 2cm)이다. 용소의 할매당사의 크기는 앞면 165cm, 옆면 185cm로서 건평이 0.9평이다. 맞배 기와지붕에 벽은 흙벽에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1cm, 세로 130cm)이다.

- 당사의 좌향 : 백동 할매당사와 용소 할매당사는 다 같은 동남향이다.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백동 할매당사의 제단은 길을 시멘트로 마감한 것으로 앞면 184cm, 옆면 57cm, 높이 69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백동 할매당사 앞 현판거는 위치에 나무판으로 된 ‘歲在己卯八月日栢洞祭堂寄附金芳名’판(崔春景 외 16명, 歲在己丑六月修理, 가로 170.5cm, 세로 31.3cm, 두께 2cm)이 걸려 있다.



백동당산

- 당산 주위환경 : 백동 할매당사의 오른쪽 230cm 거리에 약 150여년 된 노송(흉고 둘레 293cm) 1그루와 주위에 소나무 1그루를 비롯해 잡목이 무성히 있고, 용소 할매당사 주위에는 큰 소나무 10그루 작은 소나무 5그루가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하고, 음력 정월 10일경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하며, 제물을 장만할 여자 2명도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 · 할매 양위를 동시에 모시는데, 축문에는 ‘당산목신신위’라 한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건립하지 않는다.
- 음복 여부 : 15일 아침에 부정없는 마을 사람들이 당사에 들어가 음복하되, 음복 뒤에는 일주일간 금기생활을 해야 한다.
- 금기 기간 ; 제관의 금기생활은 3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는데, 약 40만원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백동 할매당사 맞은편에 제당답 2마지기를 1988년도에 팔기 전까지 제관이 제당답을 경작하여 여기에서 소출되는 벼 3섬으로 제의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제관이 보수로 가졌다.
- 특기 사항 : 군 부대 안에 있어 출입이 통제되어 현지 조사가 어렵고, 백동 할매당사 앞 동남쪽 740cm 거리의 개울가에 제물당(방한 칸과 부엌 한 칸으로 된 건물로 크기는 앞면 513cm, 옆면 325cm로 건평이 5평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ब्ल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했으며, 방문은 외쪽 미닫이 격자 한옥문이고, 부엌문은 함석으로 만든 한쪽 여닫이문임.)이 있다. 이 제물당에서 정월 10일경에 선정된 부인 2명이 제의에 쓸 모든 제물을 조리한다.

5) 자연마을

○ 내동마을

내리의 밑오신마을에서 길을 따라 가면 좌측이 오신마을이고, 우측 안쪽으로 계속 가면 내동마을이 나온다. 앵림산(鶯林山) 깊은 계곡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내동(內洞)이라 부른다. 내리, 안골이라고도 부른다. 옛날에는 ‘안골아리’라고 하였다. 내리의 중심 마을, 본 마을로서, 큰 마을, 안 마을이다. 차성가(車城歌)에 “만자천홍(萬紫千紅) 깊은골에 내동(內洞)이 기절(奇節)하고”라고 하여, 내동이 나온다.

마을 입구에 「내동마을」이라고 쓰여진 큰 표지석이 있다. 그 옆에 당 집과 당산나무가 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 안에는 「기장군 내동마을게시판」이 서있다. 마을 주민의 결집체인 마을회관이 있다.

내동 앞에 있는 들이 중붓들[中淤坪]이다. 앵림산에는 안적사가 있다. 경상남도 기장군 남면 내동이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군 기장면 내리가 되었다.

○ 매박골마을

장자방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매박곡 밑에 있는 마을이다. 매박곡[골]에 높이 솟아 있는 바위가 매바우[위]다. 매가 이곳에서 새끼를 쳤다고 한다. 매바위골 밑에 있는 마을이라서 매박골[매바골]이라 불렀다. 웃오신 서남쪽에서 백동으로 가는 고개가 매박곡고개다. 매박곡 밑에 있는 들이 매바웃들이다.

매박곡[골]과 인접해 있어서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인접한 지명과 관련 하여 붙여진 마을이름에서 두 지명 중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는가 하는 순서가 문제가 된다. 마을이름에 따라 골이나 고개 이름이 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백동마을

마을이 있는 깊은 골짜기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아침에 해가 뜨면 이곳을 먼저 비춘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박골, 별골, 백골이라 불렀다. 박골[백골]에 있는 마을이라서 백동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이름이 한자로 잣나무 ‘백(栢)’인 백동(栢洞)이다. 잣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해석도 있으나, 실제 이 골짜기에는 잣나무가 없으므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한다.

백동골, 봉동골, 백좌동(栢佐洞)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소정마을에서 송정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가면 송정1호교 다리가 나온다. 다리 옆에 「소정2구(용소·백동부락)」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다. 용소마을 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군용지로 둘러싸여 제대로 출입도 못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지금은 군용지로 흡수되어 마을이 사라지고 말았다.

○ 소정마을

오신마을에서 마을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마을이다. 내리추어탕, 내리교회, 농협창고, 내리제일상회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곳에는 소나무 아래 돌탑거리가 있다. 약 300년 정도의 당산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옛이름은 솔정이다. 마을과 논밭으로 개척되기 전에 해송(海松)이 우거져 있어 솔정이라 하였다. 마을이름인 소정(蘇亭)의 ‘소(蘇)’자는 소나무에서 따 온 것이고, ‘정(亭)’자는 평평하다는 의미다. 소나무가 평지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을 솔정이라 하고 한자로는 송정(松亭)이라 표기하는데, 방언으로 솔정을 소정이라 부른 데서 소정(蘇亭)이라 표기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소나무 숲을 논으로 개간한 곳을 소뚜배기[솔뚜배기]논이라고 부른다.

○ 아릿오신마을

송정에서 삼양식품주식회사를 지나 길을 가면 좌측에 있는 마을이 오신마을이다. 도로 양쪽에 오신마을을 알리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정류장에는 「삼양식품 《오신마을》 무곡마을」이라고 쓰여져 있다. 옆에 오신 슈퍼마켓, 내리부동산이라는 상점이 들어서 있다. 오신마을과 마주보는 마을이 석산마을이다. 도로에 접한 마을이 밑오신마을이다. 여기서 길을 따라 산쪽으로 가면 「오신부락」이라 쓴 표지석이 「미황사」를 알리는 표지석 아래에 또 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오신마을 일대는 옛날에는 오금골[梧琴洞], 오금디이라고 불렀다. 내동천(內洞川)이 흘러가다가 이곳에서 팔오금처럼 굴곡을 이루어서 오금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마을 뒷산의 모양이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처럼 생겼다고 하여 오금(梧琴)이라 하였다고 하나 분명하지 않다.

오금골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오금골의 ‘오’자와 새 ‘신’자를 따서 오신(梧新)이라 하였다고 한다. 오신은 아릿오신과 웃오신이 있다. 아릿오신은 오신의 동남쪽 아래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아릿은 아랫의 변이형이다. 내리의 바깥쪽이 된다. 아래쪽에 있는 오신이라서 아릿오이라 부른다. 밑오신, 배끝오신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 용소마을

송정과 경계를 이룬 마을이다. 소정마을에서 송정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가면 송정1호교 다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용소마을이 나온다. 다리 옆에 「소정2구(용소·백동부락)」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청년회에서 세운 소정2구 알림판이 서있다. 마을

안에는 소정2리 경로당 · 부녀회 · 청년회 회의실로 사용되는 작은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방앗골 건너편의 마을이다. 소정2구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차성가(車城歌)에 “용소동(龍沼洞) 흐른물이 장강(長江)을 내려가니”라고 하여, 용소동이 나온다. 마을 위쪽, 산쪽에 있는 마을이 백동마을이다.

○ 웃오신마을

위쪽에 있는 오신마을이라 웃오신마을이라 부른다. 안오신이다. 오신 마을에 대해서는 아랫오신마을을 참조.

○ 장자방마을

맥박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맥박골에 대해서는 맥박골마을 참조. 마을에 장자(長者), 즉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장자방마을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3. 당사리

1) 연 혁

옛 이름은 알 수가 없다. 당사리(堂社里)는 초기에는 《기장현읍지》에 남면 당사(堂祠)리로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도 남면 당사(堂祠)리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당사리(堂祠里)가 되었다.

당사(堂祀)나 당사(堂社)는 발음도 같고 그 뜻도 같다. 당사(堂社)는 토지(土地)나 부락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神堂)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보통 큰 고목 밑에 당집(堂祠)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다. 아랫마을 동쪽 산을 당산이라 하고, 지금도 두 아름이 넘는 당산나무(소나무)가 있다. 그렇다면 예부터 이곳은 신성한 곳으로서 사람의 거주가 금지되어 오다가 그 뒤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샘골 · 소구리 · 중리 · 하리 마을이 있다.

2) 산 천

○ 짚대밭 고개

당사리 북동쪽에서 시랑리 동암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이 고개 마루에 짚대밭(‘잔디밭’의 사투리)이 넓게 자리잡고 있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보듯골

새뭇골 남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우뭇골

당사리 남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지형이 송아지처럼 생겼다하여 우뭇골 또는 우뭇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 집골짜

당사리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옛날에 외딴집이 있었다는데서 집골짜이라 불리게 되었다.

○ 광대논

양반 도가리 북쪽에 있는 논으로 이 곳에서 광대가 놀았다하여 광대 논이라 불리게 되었다.

○ 새묵골들

당사리 북쪽 새묵골에 있는 들.

○ 양반도가리논

중리 앞에 있는 들로서 옛날 양반들이 이 곳에 앉아 광대놀이를 구경하였다는데서 양반도가리논으로 불리게 되었다.

○ 하붓들

당사리 서쪽에 있는 하보 밑에 있는 들.

○ 하보

당사리 서쪽에 있는 보(淤). 내리의 중보 아래쪽이 된다. 하보는 내리의 중보와 함께 하보들의 주요 농경수로이다.

3) 명승고적

○ 동해안의 절경

동해안의 절경은 해운대구에서 기장군으로 들어서면서 절경을 이룬다. 그 절경은 동해남부선 기차길이나 굽이진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버스길을 가릴 바 없다. 오른편은 남벽의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가운데 바닷가 바위로 부딪치는 물결은 흰 물보라를 일으키고 왼편으로 이어지는 산악(山嶽)과 평야는 계절의 변모를 정경으로 펼쳐준다.

이 동해안의 절경 가운데 태백 뒤희기와 동해바다가 확연이 구별되면서 굴곡의 산세(山勢)가 주는 묘(妙)와 널브러진 일망무제(一望無際)의 바다가 주는 묘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기장군의 당사리부터란 말이 옳을 것이다.

동해남부선 철도는 때로는 내륙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해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해안가로 열린 버스길은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정경이 가슴을 띄워준다. 싱그러운 바닷바람과 함께 바닷가로는 어촌 풍경이 드러나고 산간으로는 농촌풍경이 아늑하다. 당사리 시랑리 연화리 대변리 월내리로 이어지는 길은 속세를 벗어나게 한다.

바다로는 갈매기가 운무를 펼친 아래 기선이 지나면서 흰 물보라를 긋고, 바닷가에는 강태공이 낚시대를 드리워 한가하다. 산으로는 등산로가 열려 있다. 동해 이 지역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날도 멀지 않다.

4) 민 속

○ 당사리 당산

- 당산 소재지 : 당사리 마을회관 바로 뒤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95년.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329cm, 옆면 238cm로써 건평이 2.37坪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당사리 당산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짝 미닫이문(한 쪽의 크기는 가로 82cm, 세로 177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동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직사각형 탁자로 크기는 앞면 180cm, 옆면 79cm, 높이 73cm이고, 제단 위에는 아무 것도 없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제의 때 흰 한지(가로 15cm, 세로 25cm)를 제상 앞 벽에 붙였다가 제의가 끝나면 떼어 불에 사든다.
- 당사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 앞에 시멘트로 포장하고 마당(크기는 가로 620cm, 세로 560cm)이 있고, 그 앞에 마을회관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는데 이장이 제관이 되고, 제의 때 마을 사람들이 참석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 할매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마을회관에서 제의에 참석한 사람만이 모여 음복하며, 마을 회의를 갖는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간이었으나 요사이는 없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 하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5) 자연마을

○ 당사마을

송정에서 송정천을 따라 마을안쪽으로 올라가다가 다리를 건너면 마을이 있는 곳이 당사리다. 송정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당사리 전체를 당사마을로 부르고 있다. 당사는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神堂)이 있는 곳을 말한다. 당사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당사마을이라 하였다. 당사마을 이름의 한자는 堂社 또는 堂祀로 표기를 달리한다.

차성가(車城歌)에 “세시복랍(歲時伏臘) 취(醉)한부로(父老) 당사(堂社)에 모아놓고”라고 하여, 당사가 나온다. 당사마을 전체가 다시 아랫마을, 중간마을, 윗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당사동 앞에 있는 보가 하보(下淤)고, 하보 밑에 있는 들이 하봇들[下淤들]이다.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 수록, 1832년) 방리(坊里)조를 보면, 기장현 남면에 당사리(堂祠里)가 보인다. 당사리는 현의 남쪽 14리에 있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남면(南面) 당사리(堂祀里)에는 26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4칸 집이었다. 4칸 집은 이경수(李敬壽) 집 등 5호이다. 김씨(12호)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다음이 박씨(4호), 윤씨(3호), 정(鄭)씨(3호) 순이다. 경상남도 기장군 남면 당사동(堂社洞)이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군 기장면 당사리가 되었다.

○ 소구리마을

새못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소구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소구리마을을 중간마을과 같은 마을로 보는 사람도 있다.

○ 아랫마을

당사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구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마실, 하리(下里)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아랫은 아랫의 변이형이다. 당사 아랫마을의 입구에는 큰 소나무와 당집이 있다. 마을에는 당집이 3군데 있었으나 지금은 합사하여 마을회관 뒤편 당집에서 지낸다고 한다. 아랫마을에 당사마을 개시판이 있고, 당사마을회관이 있다.

○ 윗마을

중간마을에서 얇은 고개를 넘어 가다가 철길을 지나 석산리쪽에 있는 것이 당사 윗마을이다. 윗마을, 상리라고도 부른다.

○ 중간마을

당사리 한복판에 있는 마을이다. 중간마실, 중리(中里)라고도 부른다. 중간마을에는 반야선원이라는 사찰이 있다. 마을 앞에 있는 논을 양반도가리 논이라고 부른다. 양반들이 이 곳에 앉아 광대놀이를 구경했다고 한다. 중간마을과 소구리마을을 같은 마을로 보기도 하고, 달리 보기도 한다.

6) 기 타

○ 당사리 유적(堂社里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95년에서 98년에 걸쳐 기장군 일대의 기층문화 조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시행할 당시에 발견된 당사리유적이다.

당사리 당산 일대가 되는 이 유적지는 유물산포지(遺物散布址)가 되는데 당사리 공수마을에서 석산리 용소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길과 동해남부선이 닿는 곳의 동쪽에 해발 60m 정도의 야산이 있다. 이 야산을

마을사람은 당산이라 하고 지금도 소나무가 있다.

현재 이 산의 동쪽 기슭은 중턱에서부터 계단식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채집 토기의 대부분은 동체부편으로 기형을 알 수 없었다.

도질토기(陶質土器)의 동체과편으로 보이는 것은 그릇 안과 밖은 회청색을 띠었고 속심은 적갈색이었다. 태토(胎土)에는 미세석립이 소량 섞여 있었다. 정면수법(整面手法)은 안쪽은 평행타날(平行打捺)을 하고 바깥은 돌대를 경계로 윗부분은 종방향(縱方向)으로, 아래부분은 사방향(斜方向)으로 행날(行捺)을 한 후 전면(全面)회전물 손질을 하였다.

채집된 곳은 구릉이 완만하게 뻗은 일반적인 가야무덤의 입지조건과 상통함으로 가야의 분묘유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은 예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온 터라 제사유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4. 대라리

1) 연 혁

《기장현읍지》에 의하면, 읍내면에 사리리방(土羅里坊)·사라방(土羅坊)이 기록되어 있다. 사라(土羅)마을과 마동(麻洞)마을을 합쳐서 오늘날의 대라리가 되었다. 대라리(大羅里)에 큰(大)를 붙인 것은 웃 사라 부락과 아래 사라부락을 합쳐 대사라가 되었는데, 사(土)를 빼고 대(大)라라고 한 것 같다. 1914. 3. 1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대라리가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원마(元麻) 1구(區), 2구 및 사라마을이 있다.

원마(元麻)는 사라방(土羅坊)이 사라동(土羅洞)과 구분(區分)되면서 생긴 마동(麻洞)이다. 마동은 글자 그대로 조선시대에 이 곳에 삼밭(麻田)이 많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삼밭마을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대라방의 아랫 사라마을로 있다가 마을이 커지자 위와 같이 마을로 인정되었다. 이를 다시 구분하여 1구와 2구로 하였다.

2) 공공기관

○ 기장읍사무소

기장읍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기장읍사무소의 연혁을 보면, 1018년(고려, 현종 9)에 울산군 영현이었고 1599년(조선, 선조 32)은 동래군에 속하였고 1617년(광해군 9)에 기장현으로 설치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기장군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군·면 정비때 다시 동래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양산군에 병합되었다가 1980년 12월 1일 기장읍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3월 1일에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다.

기장읍의 행정구역은 14개의 법정리와 32개의 행정리 및 29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9.06km²이고 인구수는 38,362명이다.

청사의 대지 면적은 4,316.7m²이고 건물 연면적이 1,909.17m²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사무실·회의실, 부대시설이 있다.

기장읍사무소의 주요 업무로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 농어촌 발전대책에 의한 투융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조직 기구로는 읍장 밑에 1과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6명으로 읍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기장문화원

기장문화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72-1에 자리잡고 있다.

기장문화원의 연혁을 보면, 1996년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7년 3월 26일 창립총회를 거쳐 1997년 11월 6일에 개원하였다.

기장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업무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을 선양하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하고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와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으로 지역환경보존과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

기구 조직은 원장 밑에 부원장 1명, 사무국 2과(총무과,사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 향토문화학교, 향토사연구소, 후원회 등 부속 기관을 두어 기장 주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산 천

○ 비석걸(골짜기)

대라리와 청강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청강천의 지류인 사라수의 상류 계곡에 해당된다.

이 골짜기에 비석이 서 있었다는 데서 비석걸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다.

○ 새마지골

사라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 기장현의 사직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 가죽논골

사라 마을 서쪽에 있는 은정골논 서쪽 골짜기로 옛날에 가재가 많이 서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뗏들

사라마을 뒤에 있는 들판.

○ 발머리들

사라마을 뒤쪽의 들판.

○ 은정골논

사라마을 서쪽에 있는 논으로 옛날 이 일대에서 수정을 많이 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선바위

대라리의 사라마을 뒷산 중턱에 우뚝 솟은 큰 바위. 높이 6m, 폭 2m 정도로서 마치 사람이 곧곧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 이 바위는 다음과 같은 전설을 안고 있다. 즉,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산 꼭대기에 있던 큰 바위가 굴러내려 이 곳에 우뚝 서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단종애화가 전해지면서 백성들이 이를 슬퍼하자 선바위는 슬픈 사람 모습으로 변하면서 애절한 곡성을 하였다고 한다.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이리 저리 피난 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자 이 바위도 전후 좌우로 흔들거렸다고 한다. 주민들은 남북통일이 되어 나라가 편안하면 이 바위도 기쁜 모습으로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과 함께 온갖 슬픔을 함께 하면서, 마을을 굽어 지켜주는 이 바위에 주민들은 아직도 우환을 호소하고 굿을 하기도 하면서 소원을 성취하여 줄 것을 빌고 있기도 하다.

○ 광리교 → 서부리의 ‘수각다리’

○ 기장저수지

사라에 있는 사라저수지이다. 청강천의 상류인 새죽골 하류에 독을

막음으로서 생긴 큰 저수지로 일제 강점기인 1940년에 완공되었다.

○ 사직동 못

사라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막아 만든 못으로 새마지 못이라 불리기도 한다. 옛날 이 곳에 기장현의 사직단이 자리잡고 있었다는데서 사직동 못으로 불리게 되었다.

○ 우렁터 못

사직동 못 남동쪽에 있는 못.

○ 홍교 (다리)

옛 기장현의 남문 안에 있었던 다리로 무지개다리라고도 한다.

○ 수각다리 → 서부리의 ‘수각다리’

4) 민 속

○ 대라리 사라 할매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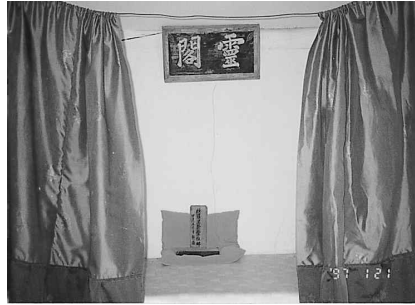
- 당산 소재지 : 대라리 345-2번지로 마을에서 동북쪽의 변.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檀紀四阡貳百八拾九年丙申拾月初八日 辛巳午時豎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196cm, 옆면 247cm로써 건평이 1.46평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6cm, 세로 141cm)이며, 당사 안에 “靈閣”(크기는 가로 46.5cm, 세로 21cm, 두께 3cm)이라 음각한 나무 현판이 붙어 있다. 그리고 제당에서 동북 163cm 거리에서 블록으로

만든 산신제단(크기는 앞면 60cm, 옆면 50cm, 높이 17cm)이 있다.

- 당사의 좌향 : 동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제단은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80cm, 옆면 81cm, 높이 72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사라 할매당산



사라 할매당산의 위패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紗羅里祭堂位牌 甲辰五月日新造”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붉은 방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9cm, 세로 21cm, 두께 2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사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 (크기는 앞면 550cm, 옆면 560cm, 높이 115cm, 두께 13cm)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음력 정월 7일경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선정하고 이장이 제의를 돕는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제당할매제→용왕제(마을의 공동 우물가)의 순이다.

제2편 자치구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음복을 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 금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노인층만 주로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3,4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돈’이라 하여 마을의 주민이 성의껏 내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사항 : 제의가 끝난 정월 보름날 마을회관에 동민이 모여 회의를 갖는데 이를 ‘망제’라 한다.

○ 대라리 원마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대라리 원마마을 가운데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西紀壹仟九百七拾九年己未參月貳拾八日巳時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11cm, 옆면 276cm로써 건평이 1.76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46cm, 세로 151cm)이며, 문에 태극도형이 그려져 있다.
- 당사의 좌향 : 동남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2.5cm 두께의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78cm, 옆면 87cm, 높이 80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나무 위패에 “麻洞土地之神 神位”라 쓴 지방이 붙어 있는데, 위패의 크기는 가로 14cm, 세로 50cm, 두께 3.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사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250cm, 옆면 830cm, 높이 125cm, 두께 11.5cm)이 있고, 당사 뒤에 흉고 둘레 210cm의 모감주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원마 할매당



원마 할매당의 위패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선정하는데, 요사이는 이장이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매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보름날 대동회를 베풀고 거기에서 음복을 한다.
- 금기 기간 : 정월 9일부터 정월 그믐까지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자체 기금으로 하며, 약 20-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月××朔十五日××

海東大韓民國釜山廣域市機張郡機張邑大羅里長幼學××敢昭告于
大羅里守護 城皇堂神 歲序遷易 今以××年 本洞民 一切安寧祈願
神其保佐 俾無後艱 謹以清酌 脯醢 祈薦于神 尚饗

5) 시 장

○ 기장장(機張場)

상품을 팔고 사는 교역(交易)의 장(場)을 지난날의 5일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시(場市)라 하는 반면 오늘날의 상설시장은 시장(市場)이라 한다.

5일마다 서는 장은 매일 열리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모일 수 있는 빈터에 난전으로 열려서 그 자리는 때에 따른 상황으로 옮겨질 경우가 많았다.

기장장은 1905년경까지만 해도 동부리에 있는 기장초등학교 정문 앞쯤 자리 약 500평 정도의 빈터와 서부리 수각다리까지의 골목이 장터가 되었다.

1950년대에는 만풍지(서부리정미소터 약 150평) 자리에 가축시장도 형성되었다.

1960년대 쯤 되어서는 대라리(기장지서 앞)으로 5일장이 옮겨졌다. 5일장이 옮겨지는 무렵부터 가축시장이 절로 없어졌다. 대라리로 옮겨진 장시는 1964년쯤 대라리 65번지 일대 1,206평 자리에 점포를 세워 상설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상설시장은 영성하여 새로운 현대식 시장이 요구되었다. 이 요구에 힘입어 1985년에는 현대식 상설시장을 건축하였다.

상설시장이 건축될 때는 많은 상인들이 그 위치와 규모와 경비문제로 분규가 발생하였다. 분규가 일어날 때 청강리 청강가에 상가시장을 건립하게 됨으로 기장시장은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6) 자연마을

○ 사라마을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사라동·마동·동부동 각각 일부가 합쳐져서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군 기장면 대라리가 되었다. 대라리라 하여 큰 ‘대(大)’자를 붙인 것은 웃사라마울과 아랫사라마울이 합쳤기 때문이다. 대사라에서 ‘사’자를 빼고 대라라고 한 것 같다.

옛이름은 사날이다. 고려 때는 이 곳에 사야부곡(沙也部曲)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현 고적조)에 의하면, 기장현의 영역에는 4개의 부곡이 존재했다고 전한다. 고촌(古村)부곡, 결며(結紮)부곡, 사량촌(沙良村)부곡, 사야부곡이 그것이다. 사야부곡은 현의 동쪽 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야부곡은 후에는 사야촌(沙也村)이 되었다. 사라에는 1940년 경에 만들어진 사날못이 있다. 차성가(車城歌)에 “사라수(土羅水) 장미수(長尾水)가 삼천(三川)이 합류(合流)로다”라고 하여, 사라수가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사라리동에는 19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19호 가운데 최씨돌(崔氏厓) 집이 초가 5칸으로 가장 큰 집이다. 김씨(6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최씨(5호) 순이다.

사라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 사라는 산 알에서 나온 말로서, 산은 얼과 같이 선(仙), 성(聖)의 뜻이고, 알은 밭에서 온 것으로 광명을 나타낸다. 산알은 산얼이 될 수도 있는데 얼은 우물[井]을 뜻한다. 따라서 사날은 성스러운 광명, 성스러운 정(井)을 뜻한다. 둘째; 사라는 사라(沙羅)와 같은 어원으로 성(城)을 나타내는 고을이다. 옛날에 이 곳에 성이 있어 부른 이름이다. 마을 뒷산이 성산(城山)이다. 따라서 사라는 성촌(城村)을 뜻한다. 셋째; 이 마을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솟아 있다는 뜻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남문안마을

기장현 읍성의 남문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문내리(南門內里)라고도 불렀다. 기장읍성은 기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다. 기장읍성 남문지(南門址)는 반원형의 옹성이 남아 있는 대라리 186번지 주변 일대로 확인된다. 기장초등학교 남쪽에 기단석을 비롯한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영남읍지》(1871년)에 수록된 《기장현읍지》 누정(樓亭)조를 보면, 기장읍성 남문의 누각 이름은 공신루(拱辰樓)였다.

○ 남문밖마을

기장현 읍성의 남문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문외리(南門外里), 남바깸, 남밖, 남밖에라고도 부른다. 기장읍성은 기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다. 기장읍성 남문지(南門址)는 반원형의 옹성이 남아 있는 대라리 186번지 주변 일대로 확인된다. 기장초등학교 남쪽에 기단석을 비롯한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영남읍지』(1871년)에 수록된 《기장현읍지》 누정(樓亭)조를 보면, 기장읍성 남문의 누각 이름은 공신루(拱辰樓)였다.

○ 원마마을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사라동·마동·동부동 각각 일부가 합쳐져서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군 기장면 대라리가 되었다. 이곳에 삼밭[麻田]이 많아서 마동(麻洞)이란 이름이 생겼다. 삼밭마을이라 불렀다. 마동을 삼밭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즉 마동은 마루골로서, 산마루의 마루처럼 높은 곳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원마(元麻)는 이 마을이 원래 마동이었다는 뜻이다. 마을이 커지면서 원마1구, 2구로 나누어졌다.

7) 기 타

○ 대라리 유적(大羅里遺蹟)

대라리 유적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95년에서 98년에 걸쳐 기장군 일대의 기층문화조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할 당시 발견된 유적이다.

위치는 양달산(陽達山) 북동쪽 구릉의 평평한 계곡 상단부 일대에 분포했던 유물산포지로 해발 130m 높이의 정상이 된다. 유물 대부분은 도랑처럼 파여 있는 주변에서 채집되었다. 구덩이 벽면을 조사했으나 약 1m 이상 흠이 퇴적된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유구(遺構)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유적에서는 도질토기(陶質土器)와 연질토기가 여러 점 채집되었지만 기형을 알 수 있거나 특징적인 형태나 문양을 가지고 있는 조각은 몇 개에 불과 했다. 도질토기는 회청색 도는 회색 대호편과 동체부편으로 추정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와질토기(瓦質土器)는 동체부편으로 회백색을 띠고 태토(胎土)는 소량의 장식과 석립이 혼합되고 승문(繩文)이 타날(打捺)되어 있었다. 연질토기는 적갈색, 회백색 타날토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빈도수(頻度數)는 도질>연질>와질, 순이었다.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문양 및 형태로 보아서는 5~6세기대의 유적이 아닌가 한다.

채집유물 중의 연질토기의 빈도수와 기형으로 보아 청강리(淸江里) 분묘유적(墳墓遺蹟)과 관련되는 생활유적으로 여겨진다.

구릉의 정상부에도 유구가 파괴된 흔적은 없었다. 만일 유구가 있다면 보존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장의 오골계(烏骨鷄)

기장읍 대라리 산 2번지에 있는 권세윤(權世允)씨 집에서 대대로 길러오는 오골계가 한때는 천연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해제되고 현재는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화학리에 있는 오골계를 천년기념물 제 265호로 지정하고 있다.

한때는 대라리의 권씨댁 오골계가 유명하였고 오골계에 관한 기록도 대라리의 권씨댁 오골계가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1권의 오골계 항목을 보면, 1973년 7월 23일 기장군 기장읍의 오골계 알의 크기를 측정한 바 48.8~51.3mm×36.7~36.8mm라 한 것이라든가 우리 나라에서는 기장읍과 동래온천장에서 사육하고 있다고 한 것들이다.

이 오골계는 닭 품종의 하나로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다. 체형과 자세는 닭 품종의 하나인 코친을 닮아서 둥글고 몸매가 미끈하다. 인도 차이나에서 동쪽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특수한 닭이다.

우리 나라에는 언제 어디서 도입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오골계의 머리는 작은 편이며 수컷의 정수리에는 어두운 자색 또는 어두운 붉은 색의 짧고 넓은 복관(複冠)이 있다.

이 닭의 특수한 점이라면 피부, 고기, 뼈 등이 모두 어두운 자색을 띠고 5개의 발가락이 있는 점이다. 체질이 허약하고 산란 능력도 적으며 알도 작다. 고기도 어두운 색이 되어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호흡기병에 효과가 크다 하여 약용으로 쓰인다.

5. 대변리

1) 연 혁

대변(大邊)과 무양(武陽)을 합쳐서 법정동리를 이루고 있다. 옛날의 동리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무지포(無知浦) 등이 오늘날의 대변을 포괄하고 있었을 것이다. 1895년 5월 26일 을미개척으로 기장군

읍내면 용암동(機張郡 邑內面 龍岩洞)과 무양동(武陽洞)으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처음으로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大邊里)라는 법정동리가 형성된 것이다. 자연마을로는 대변(大邊)마을과 무양마을 있다.

2) 산 천

○ 남바고개

새마실과 남바 사이에 있는 고개. 지금은 포장된 지방도로가 달리고 있다.

○ 디맷골

큰 골새 뒤에 있는 골짜기.

○ 큰골새(골짜기)

대변항에서 북쪽으로 새마실에 들어간 골짜기.

○ 간암(바위)

소로방 동쪽에 있는 바위.

○ 광계바위

새엣돌 동쪽 바닷가에 있는 갯바위.

○ 덕돌바위

수문돌 서쪽에 있는 바위로 떡처럼 생겼다.

○ 불맷-개안바위

파래장 동쪽에 있는 갯바위.

○ 뽕곶-돌(바위)

수문돌 남서쪽에 있는 바위로 뽕곶하게 솟아있다.

○ 성기듬(바위)

수문돌 남쪽에 있는 갯바위로 성게처럼 생겼다.

○ 소광계 바위

광계 동쪽에 있는 작은 바위.

○ 소로방 바위

불맷개안 동쪽에 있는 바위로 생긴 모습이 소와 비슷하다.

○ 수문돌 바위

대변항 남서쪽 바다 밑에 있던 갯바위로 대변 포구로 드나드는 선박에 불편하다 하여 깨뜨려 버렸다.

○ 파래장 바위

대변항 남동쪽 해안인 파래장 앞바다에 있는 갯바위.

○ 강개논

대변 동쪽에 있는 논.

○ 외소나무-비알산

무량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봉래산의 지맥 봉우리. 한 그루의 큰 소나무가 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대변항

대변리에 있는 어항. 연화리 죽도와 대변리의 파래장 끝 사이에 북쪽으로 깊숙히 들어간 만으로 발달하였다. 입구에는 대변등대가 있고 안쪽에는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묘박지가 잘 갖추어져 있다. 철따라 가자미, 멸치, 장어, 꼼장어의 어획물이 물양되고 있으며 미역의 위탁판 매량도 많다. 배후에는 헛집촌이 들어 서 있다.



대변항 전경

조선시대에는 주사창 또는 전선창이라 불리던 수군이 주둔하던 군항 으로서 종9품의 수장인 주사(舟師)와 그 아래 별장, 병선장, 군기감관, 선직이 각 각 1명씩 있었다. 지금도 수협 건물 뒤 언덕배기를 주사대라 부르고 있고 이 곳에는 주사를 모시는 사당과 전선창터 및 주사창터가 남아 있다.

○ 갯불

대변 앞에 있던 모래밭 이였으나 지금은 어항개발로 사라져 버려,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 광계불

시앿돌 동쪽 바닷가에 있던 모래밭.

○ 불맷-개망(불)

파래장 동쪽에 있던 모래밭.

○ 소광계(불)

광계 동쪽에 있는 작던 모래밭.

○ 소호방(불)

소로방에 있던 모래밭.

○ 전산안(불)

전선창터 안쪽에 있던 모래밭.

3) 명승고적

○ 척화비(斥和碑)

기장읍 대변리 608번지인 대변수협지소 뒤편 노송밑에 세워져 있는 기장 척화비는 1996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에서 기념물 제41호로 지정하였다.

척화비는 고종 때 대원군이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에 승리한 후 외국을 배척하고 쇄국주의를 고창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한 지역에 세웠던 비 가운데의 하나가 된다.

높이 144cm, 폭 52.5cm, 두께 21cm 규모의 화강석으로 된 이 비의 비문은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으로 되어 있다. 풀이하면 “서양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니 우리 만년 자손에게 경계한다. 병인년(1866)에 만들어 신미년(1871)에 세우다”가 된다.

이 비석은 원래는 기장군 대변항 방파제 안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항구시설을 하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 광복 후인 1947년 최태희씨의 지도를 받아 마을 청년들이 척화비를 인양하여 현재의 위치인 대변수협지소소 뒤편에 옮겨 놓았다.

○ 기장 대변 멸치축제

대변은 멸치의 명산지로 멸치가 집중적으로 많이 잡히는 4월에는 해마다 멸치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가 맨 처음 열린 해는 1997년 4월이었다. 이때부터 대변 바닷가에 특설무대가 세워지고 이틀동안 흥겨운 축제가 길놀이를 시작으로 펼쳐졌다.

기장 대변 멸치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축제에는 멸치 무료시식회가 열리고 멸치, 미역 맛자랑대회에서는 멸치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가 선보인다.

멸치 비비기대회에서는 소금에 비빈 멸치를 즉석에서 할인 판매한다. 이 축제에는 특설무대에서 대변향 가요제가 열리고, 멸치아지매 선발대회가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열려 재즈, 댄스공연도 펼쳐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합주, 발레, 바이올린공연도 마련된다.

대변향에서는 어선 퍼레이드가 열리고 후리소리가 재연되고 밤으로는 불꽃축제가 흥취를 돕는다. 말하자면 멸치철을 맞은 대변의 마을축제가 될 수 있다.

4) 민 속

○ 풍어제

풍어제는 옛부터 전래되는 부족의 제전의식에서 소규모의 동제(洞祭)로 변모하였고, 이것이 어촌에서는 마을의 평온함과 풍어 및 어부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풍어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 풍어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경비의 공동부담을 비롯하여 행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한 마다 마을 축제를 열게 된다.

기장지역에서 펼쳐지는 풍어제는 동해안 별신굿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서해안 배연신 곳 ; 위도 띠벳놀이는 동해안 별신굿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풍어제로 이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고 있다.

이들 풍어제는 무당을 불러들이는 굿이므로 반드시 무가(巫歌), 무무(巫舞), 무악기(巫樂器)를 곁들이는데, 동해안 별신굿은 타악기 중심으로 장구, 징, 꽝과리, 채팔이 등이 중심이 되어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피리, 젓대, 해금 등은 사용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가진 기장지역의 풍어제는 최근인 1996년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년만에 두모포(豆毛浦)에서 열렸고, 이러한 별신굿이 기장지역의 칠암, 이천·학리·두호·대변·공수마을 등에서 번갈아 열리며 일반적으로 그 주기는 매년 또는 2, 3, 5, 7, 10년이며 그 시기는 대개 음력 정월중에 열린다.

○ 대변리 당산들

- 당산 소재지 : 대변에는 산신제당·큰할매제당·장수천왕할배제당·작은할매당(용왕당)·골매기장군당의 다섯 제당이 있다. 산신제당은 마을에서 동북쪽 약 150m 지점의 산 능선의 소나무 숲속에 있고, 큰할매제당은 산신제당의 서남쪽 약 60m 아래쪽에 있으며, 장수천왕할배제당은 마을의 중앙 뒤 주은해변빌라 밑에 있고, 작은할매당(용왕당)은 대변마을에서 남쪽 해변도로 위 약 5m 지점의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있으며, 골매기장군당은 마을의 아래쪽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산신제당은 1976년 9월 20일 준공이고, 큰할매제당은 1984년 6월 7일 신축이며, 장수천왕할배제당은

미상이고, 작은할매당(용왕당)은 1982년 7월 19일 준공이며, 골매기장군당은 戊申年閏七月初八日午時立柱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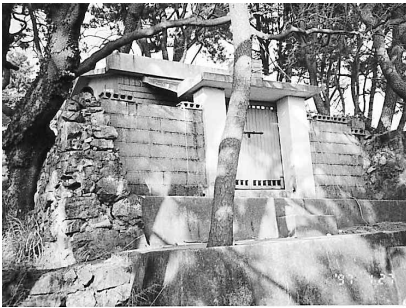
대변 산신제당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산신당사의 크기는 앞면 93cm, 옆면 91cm로써 건평이 0.26평이다. 슬라브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여닫이문(크기는 가로 61cm, 세로 87cm)이고, 큰 할매당사의 크기는 앞면 342cm, 옆면 342cm로써 건평이 3.5평이다. 시멘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72cm, 세로 172cm)이고, 작은할매당사의 크기는 앞면 282cm, 옆면 249cm로써 건평이 2.1평이다. 기와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 (한 짝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66cm)이고, 장수천왕할매당사의 크기는 앞면 180cm, 옆면 168cm로써 건평이 0.9평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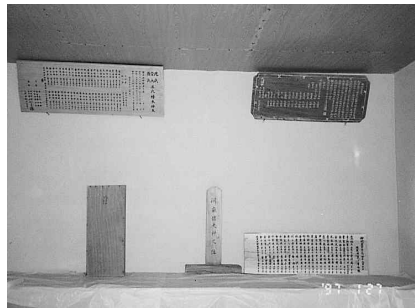
제2편 자치구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50cm)이고, 골매기장군당사의 크기는 앞면 152cm, 옆면 123cm로써 건평이 0.57평이다. 슬레이트 맞배 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0cm, 세로 135cm)이다.

- 당사의 좌향 : 산신제당은 남남서향이고, 큰할매제당은 남향이며, 장수천왕할배제당은 서서북향이고, 작은할매당(용왕당)은 서남향이며, 골매기장군당은 서향이다.



대변 큰할매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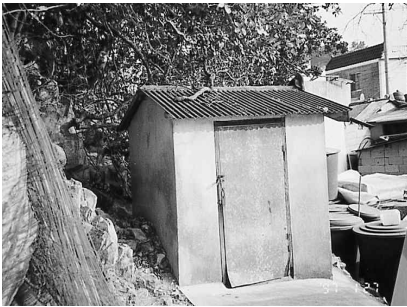


대변 큰할매제당의 위패

- 제당(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산신제당의 제단은 없고, 큰할매제당의 제단은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304cm, 옆면 74cm, 높이 82cm이며, 장수천왕할배제당의 제단은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54cm, 옆면 37cm, 높이 79cm이고, 작은할매당의 제단은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46cm, 옆면 59cm, 높이 71cm이고, 골매기장군당의 제단은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27cm, 옆면 46cm, 높이 65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산신제당에는 위패가 없고, 큰할매제당에는 “洞麻姑大神之位”라 쓴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55cm, 두께 5.5cm이며, 장수천왕할배제당에는 제단 위의 벽에 가로 7cm, 세로 15cm 크기의 한지가 붙어 있고, 작은할매당에는 제단 위의 벽에 가로 9cm, 세로 15cm 크기의 한지가 붙어 있으며, 골매기장군당에는 제단 위의 벽에 가로 8.5cm, 세로 15cm 크기의 한지가 붙어 있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큰할매제당 안과 골매기장군당 안에만 현판이 붙어있는데, 큰할매제당에는 光武五年七月望日に 쓴 “神祠重建文”(크기는 가로 89.5cm, 세로 35cm, 두께 3cm)과 西紀一九八四年甲子九月七일에 쓴 “沈氏全氏吳氏 三氏楮木神主 請助芳名記”(크기는 가로 108cm, 세로 36cm, 두께 4cm)가 위패 위의 벽에 걸려 있고, 또 “神祀堂甲子一九八四年六月七日竣築協贊芳名錄”



대변 장수 천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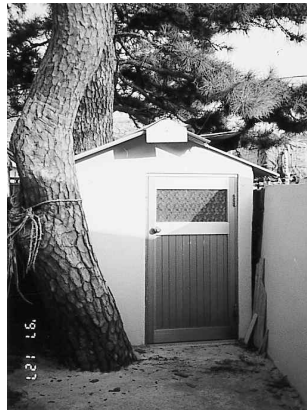
대변 작은 할매당(용왕당)

(크기는 가로 93.5cm, 세로 29cm, 두께 4.5cm)이 위패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골매기장군당에는 한지 신채 오른쪽에 “골매기거리대장군님.집신축자/조복님/남편 이칠룡”이라 가로로 나란히 쓴 나무판(크기는 가로 20cm, 세로 8.5cm, 두께 1.1cm)이 붙어 있다.

- 당산 주위환경 : 산신제당 주위에는 담장이 없고 소나무 숲이며,

제2편 자치구

큰할매제당 주위에는 블록담장(양옆면 580cm, 뒷면 450cm, 높이 131cm, 두께 15.5cm)이 있고, 그 밖 양옆에는 돌담(양옆면 660cm, 높이 140cm, 두께 70cm)이 있으며, 장수천왕할배제당에는 왼쪽에 흉고둘레 330cm의 팽나무가 서 있고, 주위에는 사철나무가 있다. 그리고, 작은할매당에는 담장은 없고, 당사 뒤에는 길이 190cm, 높이 162cm의 석축이 있으며, 앞에는 앞면 400cm, 옆면 550cm의 시멘트 바닥이 있고, 당사의 왼쪽 9cm 거리에 “一九六六年丙午六月五日竣工, 祭堂建立人 朴斗伊”라 기록된 화강암비(크기는 앞면 18cm, 옆면 13cm, 높이 52cm)가 서 있으며, 그 뒤에 흉고둘레 267cm의 노송이 비스듬히 서 있고, 골매기장군당 앞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205cm, 옆면 170cm, 높이 125cm, 두께 13cm)이 있고, 당사 왼쪽 앞뒤에 흉고둘레 116cm · 195cm의 소나무가 서 있다.



대변 골매기 제당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선정하였으나, 요사이는 해룡사에서 맡아 지낸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10시경 당사에서 지내고, 음력 6월 14일 10시경과 10월 14일 10시경에는 寺內에서 지낸다. 즉 1년에 3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당사할배할매제→질대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보름에 제물을 노인당에 가져가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절에서 지내기 때문에 금기가 없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70-8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5) 자연마을

○ 대변리마을

대변향을 좌우로 무양마을과 대변마을이 나누어진다. 대변등대가 있는 마을이다. 대변마을 해안가에는 대변부락회관이 서 있다. 그 밖에 기장군수협대변어촌계사무소, 동부산농협대변지소, 수협바다마트, 수협활어판매장, 울산해양경찰서대변지서와 울산해양경찰서 대변선박출입항신고소, 부산동부수협 대변지소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대변제일횃집, 대변관광활어회센터, 대변슈퍼 등 대변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건물들이 있다. 일년에 세 번 음력 1월 14일 자정, 6월 14일 자정, 10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대변마을에는 고종 때 세운 척화비가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대변지서 건물을 따라 뒤로 걸어가면 큰 소나무가 있는데, 나무 아래에 비석이 있다. 하지만 비가 높이 1미터 이상의 바위에 세워지고 바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는 어렵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용암동과 무양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변포(大邊浦)라 불리던 곳이다. 이 곳에 대동고(大同庫)가 있었다. 대동고가 있는 갯가라는 뜻인 대동고변포(大同庫邊浦)를 줄여서 대변포라 불렀다고 한다.

옛날 이 곳은 수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선두포(船頭浦)라 부르기도 하고, 전선창(戰船廠), 주사창(舟師廠)이라 하였고, 무지포(無知浦)에 속하였다(용암마을 참조). 차성가(車城歌)에 “읍과정(湄波亭) 잠깐올라 선두포(船頭浦) 굽어보니”라고 하여, 선두포가 나온다. 1914년 대변리라는 법정리가 생긴 후로는 용암이라는 이름보다 대변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여, 지금의 대변마을로 굳어졌다.

○ 무양마을

기장에서 대변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다보면 우측에 대변항 무양횃집번영회에서 세운 이 지역 횃집 안내판이 서 있다. 여기서 조금더 가면 청강-대변간 도로가 새로 건설되었다. 이 도로에서 해안으로 펼쳐진 마을이 무양마을이다. 무양마을과 대변마을은 해변가에 있는 우리들약국 옆으로 난 도로를 경계로 나누어진다. 대변항으로 들어오기 전 산쪽으로 무양부락회관이 있다. 무양마을 해안가에는 대변초등학교와 대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있다. 그 외 대변농수산물활어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곳은 옛날에 남산봉수대 봉군(烽軍)들의 무영(武營)이 있던 곳이다. 옛날에는 남바오, 남바우, 남바위, 나암바, 남바라고 불렀다. 남바오의 남은 남쪽, 바오는 무영을 뜻한다. 남산봉수대 봉화군의 무영이라는 뜻에서 남무영이라 하였다. 남무영을 줄여서 무영이라 불렀다가 마을 이름이 되었다. 무영이 음이 변하여 무양(武陽)으로 되었다. 한편 무는

마 [南] 이고, 양은 광명으로 신성한 곳인 신역(神域)의 뜻이어서, 무양은 남산신역, 밝은 신성한 곳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무양동(武陽洞)에는 6호가 살고 있었다. 6호 가운데 3호가 초가 4칸 집이다. 6호 가운데 형제로 보이는 문씨가 2집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용암동과 무양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연화리가 되었다. 무양동은 일부는 대변리에, 일부는 연화리에 편입되었다.

○ 새마실마을

흘구덩이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마실, 새모실, 새바실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생긴 시기와 관련된 이름이다. 마을이 생기기 전에 본래 존재해 있던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붙여질 당시 새로 생겼다하여, ‘새’나 ‘신’자를 붙여 마을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보통 새+터, 마실, 모실, 각단, 동네의 형태로 불린다.

○ 용암마을

용암(龍岩)은 지금의 대변마을 옛이름이다. 몇몇 토박이들만 그 이름을 알고 있을 뿐 잊혀져 가는 이름이다. 대부분 대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마을 안에 용암할매집과 같이 용암이란 명칭을 쓰는 곳이 아직 남아 있다.

용암마을이란 이름은 용암이란 바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 곳에는 용암이란 바위는 존재하지 않고, 또 비슷한 이름의 바위도 없다고 한다. 용암동은 미리 [龍]+바위 [岩]+골 [洞] 로서, 미리바위골이라는 뜻이다. 미리는 머리[頭], 바위는 바오[武營]의 뜻으로, 미리바위골은 머리

바오골의 와음(訛音)으로, 머리바오는 두무영(頭武營)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옛날 이 곳은 수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선두포(船頭浦)라 부르기도 하고, 전선창(戰船廠), 주사창(舟師廠)이라 하였고, 무지포(無知浦)에 속하였다. 따라서 용암이란 지명은 이런 수군영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것이다. 즉 용암동은 두무영, 수무영(首武營), 본무영(本武營)의 뜻이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용암동(龍岩洞)에는 31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3칸 집이었다. 31호 가운데 최수창(崔守昌) 집이 초가 5칸으로 가장 크고, 4호가 초가 4칸이다. 최씨(8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김씨(6호), 박씨(5호) 순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용암동과 무양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가 되었다. 이 이후에는 용암마을이 점차 대변마을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에는 대변마을로 정착된 것 같다.

○ 흘구디이마을

대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흙이 많이 나와서 생긴 이름이다. 흘구디이는 흘+구디이로 분석되는데, 흘은 경상도 방언으로 흙에 해당되고, 구디이는 구덩이다. 흘구덩이, 흘구디, 흘구덕, 흘구덩, 흘구덕, 흘구덩이, 흘구디기마을로도 불린다. 마을의 지리적 형세나 특성에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마을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곳에 마을이 생기기 전에, 어떤 지역의 지명이었고, 여기에 마을이 생김으로 해서 앞서 있었던 지명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기 타

○ 김득복묘(金得福墓)

대변리 산 5번지에 김득복장군의 묘가 있다. 동호장군(東虎將軍)으로 불린 김득복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주 문천(蚊川)에서 주위 여러 고을의 의사(義士)들이 왜적을 섬멸할 것을 꾀로써 하늘에 맹세하였는데 이 맹세를 문천회맹(蚊川會盟)이라 한다.

이 문천회맹은 1592년(선조 25) 6월 김득복과 함께 류백춘(柳伯春) · 이눌(李訥) · 이여량(李女良) · 윤홍명(尹弘鳴)들이 맹세를 하고 의병을 모아 분전하였다. 이때 적을 격살함이 4백여급이고, 총검 등을 노획한 것이 27자루나 되었다. 《울산의 임진 · 정유왜란사》 : 李有壽著 : 1993년 참조).

그 이후 울산의 구강(鰐江), 경주의 금오산(金鰲山)과 영천(永川), 대구 팔공산(八公山) · 화왕산(火旺山) · 서생포(西生浦)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조정에서는 선무원종공신 1등훈(宣武原從功臣 一等勳)에 녹훈(錄勳) 되었다.

전란이 끝나고 임치진(臨淄鎭) 어제사(御制使)에 부임한 바도 있다. 뒤에 동지첨중추부사(同知僉中樞府事)에 증직되었다.

김득복의 아버지되는 인수(仁壽)는 울산의 아산도(兒山島) 전투에서 전사를 하여 선무원종공신 3등훈을 입었다.

이 무덤은 후손들에 의해 1977년 봉분이 다시 조성되고 조경사업이 이루어졌으나 비석과 기타 석물은 미완성인 상태에 있다.

《울산의 임진 · 정유왜란사》(李有壽著 1993년) 가운데 1593년(선조 26) 10월에 있었던 《구강동고록》(鰐江同考錄 : 구강은 오늘날의 伴鰐洞)에 의하면, 김득복의 당시의 나이는 27세이고 경주 사람으로 되어 있다.

○ 전선창(戰船廠) 터

대변 동쪽 바닷가에 전선창터라는 이름의 곳이 있다. 주사창(舟師廠)이라고도 한다. 전선창이라면 수군(水軍 : 오늘날의 海軍)이 전쟁때 쓰는 전선을 정비시키던 터가 되고 주사창이라 해도 수군 전선을 정비시킨 곳이다.

그런데 이 대변리 바로 이웃에 죽성리(竹城里)의 오늘날의 두호(豆湖)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 : 줄여서 慶尙左水營) 휘하의여두모포만호영(豆毛浦萬戶營)이 있었다. 그 두모포만호영은 1629년(인조 7)에 부산의 동구인 부산포로 옮겼다가 1680년에는 현재의 동구 수정동으로 옮겼다.

그러한 경상좌수영 휘하의 두모포만호영의 변천과정을 감안할 때 두모포만호영이 부산포로 옮기자 이곳 해방(海防)이 허술하여 대변의 전선창에 얼마간의 수군과 전선을 두고 방비에 임한 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대동고(大同庫) 터

대변리 447번지에 대동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주민들은 이곳을 대고장(大庫場)이라고 하는데 대동고장을 줄여서 말한 것으로 본다. 대동고가 있었다면 대동미(大同米)를 비축하였다가 배로써 부산진의 부창(釜倉)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확임할 수 없다.

6. 동부리

1) 연 혁

옛 이름은 알 수 없다. 기장현의 관청이 이곳에 들어서면서 새로 형성된 마을 이름이다. 지금의 기장초등학교 자리가 옛 동헌(東軒)에서 남으로 큰 길을 만들고 이 길 동쪽은 동부방(東部坊), 서부방(西部坊)이라 하였다.

《기장현읍지》에 의하면, 읍내면 東部坊이 기록되어 있다. 1895년 5월 26일 동부리(東部里)로 되었다. 자연마을로 동문 밖마을 · 동무 안마을 · 장태(제자태) · 통방마을 등이 있었다.

2) 산 천

○ 객사논

동부리에 있는 옛 기장현의 차성관(車城館)인 객사(客舍)에 딸린 논이었으나 지금은 도시화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연꽃배미논

동부리 동쪽에 있는 장구처럼 생긴 들판으로 옛날에 연꽃이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는데다 연꽃이 많이 피었다하여 연꽃배미라 불리기도 했다.

○ 빙고등

동부리 동쪽에 있는 낮은 등성이. 옛날 이곳에 기장고을의 빙고(氷庫)가 자리잡고 있었는데서 빙고등이라 불리게 되었다.

○ 기장교

동부리 한복판에 있는 다리로 신천(新川)에 놓여 있다.

○ 여지못

동문터 서쪽에 있는 못. 얼마전까지 미나리 밭이었으나 지금은 도시화로 거의 사라져 버렸다.

3) 명승고적

○ 기장읍성(機張邑城)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98년에 발간한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장읍성은 고려 우왕(禡王 : 1375~1388) 때 교리(校里)에 있었던 읍성이 왜구(倭寇)의 침입으로 함락되고 관아(官衙)가 모두 불타버리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현재의 읍성이 있는 곳(동부리 285) 일대로 치소(治所)를 옮겨 울산·언양·창녕 등지 주민들을 동원하여 축성한 석성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 13의 세종 3년(1421) 9월 조항에 의하면, 경상도관찰사로부터 기장현의 성 안에 천수(泉水)가 없다고 하여 박곡리(朴谷里)로 옮기기를 청하여 그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의하면, 기장읍성은 세종 7년(1425)에 석축으로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왜구로 인해 파괴된 읍성은 동부리로 치소와 함께 옮겨져 1425년에 축성된 것으로 본다. 이때 세워진 읍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장현의 성곽(城郭) 조항에 기록되어 있는 둘레 3,197척, 높이 12척의 읍성이다.

이 읍성은 현재 동문이 있었던 동문지(東門址)를 중심으로 길이 약 1km, 높이 약 4m의 성벽이 남에 있는데 당시는 동서남북 4대문을 갖추어 오늘날의 동부리, 서부리, 대라리 일대인 옛 기장 시가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북쪽은 얇은 동산을 끼고 남쪽은 평지로 된 평산성(平山城)이었던 것 같다.

남아 있는 성벽으로 보아 평지는 안과 밖 모두 돌로 쌓았으나 높은 지형의 북쪽은 바깥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워져 있다.

돌을 쌓은 석축은 주로 아래쪽을 1.4×1.2×0.4×0.5m 크기의 큰 돌로

쌓았고 위쪽으로 가면서 70×50×30~40cm 크기의 작은 돌을 이용하였다.

석벽의 곳곳에 V자형으로 훼손된 부분을 작은 돌로 수축한 흔적이 있다. 성곽의 부속시설로 문지(門址)와 옹성문(擁城門), 적대(敵臺)가 조사되었다.

문지는 기록에 차이는 있으나 지적도(地籍圖)를 보면, 동문은 동부리 310~311번지 일대, 서문은 126번지 일대, 남문은 대라리 186번지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문터에는 반원형의 옹성(擁城)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북문은 서부리 82번지 일대에 있었다고 하지만 문터의 흔적이거나 옹성의 터는 찾을 수 없다.

대라리 484~1번지에 남아 있는 성벽에는 축성을 담당했던 지역의 지명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성 안에는 동헌(東軒), 향사당(鄉射堂), 객사(客舍), 사창(司倉), 인리청(人吏廳), 차성관(車城館), 직금루(織錦樓), 척서루(滌署樓), 식파루(息波樓), 장관청(將官廳), 영방(營房), 군기고(軍器庫) 등이 있었고 성문 밖에는 망풍정(望豐亭), 공진루(拱辰樓), 관덕정(觀德亭), 빙고(氷庫), 마지(麻池) 등이 있었다고 한다.

○ 장관청(將官廳)

조선조 때 장관(將官)이 군무를 보던 장관청이 기장읍 동부리 198번지 원위치에서 일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동안 건평 26평의 건물 자체는 부분적 수리로 변형되었다.

이 장관청은 팔작지붕의 기와집으로 초석과 기둥의 짝임이나 서까래는 본래의 모습이다. 낮은 단층기단위에 가공하지 않은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이 장관청은 1910년 일제강점이 되자 기장의 항일운동 지사들이 명정의숙학당으로 사용하여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바 있다.

○ 동부리 공덕비군(東部里 功德碑群)

기장초등학교 앞이 되는 동부리 306~2번지에 37기(基)의 석비(石碑)와 철비(鐵碑)가 있다. 이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비를 1972년 2월 이 곳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조선조의 태종 5년(1405) 이후에서 대한제국까지의 것이 된다.

내용별로 보면 현감공덕비 15기, 관찰사공덕비 7기, 군수공덕비 5기, 수군절도사공덕비 1기, 어사공덕비 1기, 지방아전공덕비 2기, 객사건설비 1기, 교량(橋梁)개축 및 증축에 관한 비 2기, 기타 3기이다.

지금의 상태로 주위가 단장된 것은 기장거주 공태도(孔泰道)씨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1997년 1월의 일이었다.

비석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① 순상국 서공 희순 거사비

이 비는 석비(石碑)로서 전면에는 「巡相國 徐公 熹淳 去思碑」라 써여 있다. 순상국이란 관찰사(觀察使)를 말했다. 관찰사는 조선시대 각 도마다 나라에서 지방장관으로 한사람씩 두었다. 이를 감사(監司)라고도 했다.

「거사비」란 감사나 수령이 바뀐 뒤 그 선정을 기리어 백성이 세운 비를 말한다.

이 비는 서희순 감사의 선정을 기리어 1835년(헌종 1)에 세운 것으로 크기는 120(높이)×51(가로폭)×39.5cm(두께)이다.

② 순상국 조공 병현 거사비(巡相國 趙公 秉鉉 去思碑)

1936년(헌종 2)에 세워졌는데 이는 경상관찰사 조병현이 기장현을 순시한 일을 기리어 세운 것이다. 그 당시의 경상관찰사는 오늘날의 경상 남북도를 다스렸는데 중앙의 지령에 따라 시정(施政)을 한다 해도 도(道) 전반의 행정권,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을 행사했다.

이 비는 철비(鐵碑)로서 크기는 101×33.5×4.5cm이다.

③ 순상국 홍공 재철 영세불망비(巡相國 洪公 在喆 永世不忘碑)

1841년(헌종 7)에 세워진 크기 81.5×31×3cm의 철비는 관찰사 홍재철이 변방인 기장현의 시정을 감안하여 물자를 대는 일을 탕감하여 백성을 구해준 일을 칭송했다.

이때의 관찰사는 경상관찰사였는데 관찰사가 집무하는 곳을 감영(監營)이라 했다. 경상관찰사 감영은 경주 · 상주 · 대구 · 안동 등 시대에 따라 근거지를 달리했다.

④ 수상국 이공 기춘 영세불망비(水相國 李公 基春 永世不忘碑)

여기 수상국이라 한 것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말하는데 절도사는 지방의 군정(軍政)을 맡았던 벼슬 이름이다.

이기춘은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 :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었음) 좌수사로 1862년 11월에 배임을 받아 1864년 1월 임기가 차서 교체되었다.

이 비는 철비로써 크기 90×33.5×13cm로 경상좌수사 관할인 이곳 기장에 대해 베푼 공적을 기리어 1863년(철종 14)에 세운 것이다.

⑤ 순상국 김공 세호 추사 불망비(巡相國 金公 世鎬 追思 不忘碑)

비신의 크기 120×44×18cm의 석비로서 밑자리는 귀부(龜趺)의 대석(臺石)으로 되어 있다. 관찰사 김세호의 선정을 영원토록 잊지 말기를 바라는 뜻으로 1874년(고종 11)에 세웠다.

김세호는 경상도관찰사 이후 파직되었다가 중화(中和)에 유배된 바 있으나 1879년 풀려나와 한성부판윤(漢城府 判尹)을 지냈다.

⑥ 순상국 박공 제인 유애 불망비(巡相國 朴公 齊寅 遺愛 不忘碑)

비의 크기 122×35.5×13cm의 석비다. 가운데가 두동강난 것을 붙여 놓았다. 1877년(고종 14)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⑦ 수사 이공 도재 생사단(繡史 李公 道宰 生祀壇)

비의 크기 9.25×36×13cm의 석비로 네모난 대석 위에 섰다. 수사(繡史)는 암행어사를 말하고 생사단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제사지내는 단(壇)을 말한다. 어사 이도재가 기장현의 폐해를 바로 잡았으니 영원히 제사지낸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도재(1848~1909)는 뒷날 학부대신(學部大臣)으로 1898년 지석영(池錫永)의 청을 들어 한성의학교(漢城醫學校) 설치를 인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을 세우게 했다. 그 이후 내부대신(內部大臣)을 역임한 바 있다.

⑧ 관찰사 지공 석영 선정불망비(觀察使 池公 錫永 善政不忘碑)

이 비석의 관찰사 지석영은 1879년(고종 16) 부산에 있는 일본인병원인 재생의원(齎生醫院)에서 종두법(種痘法)을 배우고 1880년에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 종두약[痘苗]제조법을 배우고 돌아와 그 당시 어릴 때면 거의 걸리다시피 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은 전염병인 천연두를 없애는데 온 힘을 기울렸다.

1883년 문과에 급제 전적(典籍), 지평(持平)을 역임하고 형조참의(刑曹參議), 승지(承旨)를 거쳐 1895년(혹은 1896년) 동래부사가 되었다.

그런데 1895년 5월에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전국을 23부(府) 331군(郡)을 두었는데 이때 동래부는 전국 23부 가운데의 하나가 되어 동래 관찰부(東萊觀察府)가 되었다.

동래관찰부는 동래군들 비롯하여 양산군·기장군·울산군·언양군·경주군·영일군·장기군·홍해군·거제군의 10개군을 관장하는 관찰부였다. 이때 기장현은 기장군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지난날의 행정체제로 다시 되돌아 갔지만 기장군 자체는 1914년까지 존속하였다.

혹들 기록에 동래관찰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무렵의 일이 되는데 이 비석에 「관찰사 지공 석영」이 되어 있는 것도 지방관제 개정 당시의 동래관찰사를 말하는 것이지 경상관찰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석영이 동래관찰부 부사로 올 때를 1896년으로 기록한 바 많으나 그 실은 1895년 5월, 말하자면, 지방관제 개정과 같은 시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동래부사 정인학(鄭寅學)이 1895년 5월에 떠나고 7월에 동래군수로 박용구(朴容九)가 부임했다.

그러니 지석영은 양산·기장·울산·언양·거제 등 10군(郡)을 관장하는 동래관찰부 부사로 동래군수나 기장군수의 상위직으로 부임한 것이다. 그것은 비석비문에 표술 10군(表率 十郡)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비의 건립을 병신(丙申 : 1896) 9월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비석은 석비로 크기는 108×40×18cm이다.

지석영은 동래관찰부 부사 이후 1898년(광무 2) 학부대신(學部大臣)에 청하여 이듬해 3월 한성의학교(漢城醫學學校 : 뒤에 京城醫學校로 이름이 바뀜)를 설립 교장에 취임하고 1905년에는 신정국문(新訂國文) 6개조를 상소하여 학부(현 교육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설치 연구위원이 되었다.

⑨ 순상국 오공 취선 이배 유혜비(巡相國 吳公 取善 移配 遺惠碑)

어느때 세워졌는지 알 수 없는 석비로 크기는 98×36×12cm이다. 원래는 개석(蓋石)이 있었던 것 같으나 현재는 없다.

⑩ 현감 백공 세전 청덕 거사비(縣監 白公 世傳 淸德 去思碑)

비를 세운 연대가 1685년(숙종 11)이다. 동부리에 있는 비군 가운데 현감의 것으로는 가장 오래 되었다. 석비의 크기는 123×45×15cm이다.

기장현은 신라시대부터 고려 말 가까이까지 동래·양산·울산 등의 속현(屬縣)이 되어 있었다. 그 당시는 지방의 호족들이 관직을 맡았다.

그러나 고려 고종 이후부터 현감(縣監), 감무(監務) 등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현감은 최하급의 지방관으로서 종6품이었다. 이 현감은 도(道)의 관찰사가 직접 감독했다.

⑪ 현감 최공 진일 청덕비(縣監 崔公 震一 淸德碑)

비를 세운 연대는 1716년(숙종 42)으로 71×27×3cm 크기의 철비다. 현감을 한 최진일을 기리는 비다. 《기장읍지》에는 최진일을 공죽(公州) 사람으로 무관이라 했다.

기장은 변방이었기에 무관이 현감으로 오는 바 많았고 그 무관이 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했다. 절제도위란 조선왕조 때의 무관 외관직(外官職)으로 각도(道)의 절도사(節度使) 밑에 있는 종6품 벼슬이었다. 수군에는 절제도위란 관직이 없으니 이는 육군에 해당된다.

⑫ 행 현감 김공 성희 무휼 해민선정비(行 縣監 金公 聖賚 撫恤 海珉 善政碑)

행 현감의 행(行)은 본래 품계보다 낮은 직위에 임관되었을 때 붙인다. 말하자면 종 6품의 현감이 임명되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위의 계급이 임명되었을 때 쓰인다. 무휼해민은 어루만져 도와줌이 컸다는 말이 된다.

이 비석의 크기는 109×48×15.5cm로 개석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1729년(영조 5)에 세워졌다.

⑬ 전 이조참의 행 현감 권공 적 청덕선정비(前 吏曹參議 行縣監 權公 臬 淸德善政碑)

비신 위쪽에 전 이조참의(前 吏曹參議)라 가로로 적고 그 이하는 세로로 적었다. 참의는 조선조 때 6조(曹)에 소속한 정3품 벼슬이다. 그러했던 권적이 기장현감으로 와서 있었다. 그 권적을 기리는 선정비를 허나익(許那翊) 김정(金登)으로 해서 1737년(영조 13)에 세워졌다.

권적은 시랑리의 시랑대에 시를 남겼는데 그 시랑대란 이름도 권적으로 인해 생겨났다. 조선조의 정3품인 참의 벼슬은 고려 때의 정4품 시랑의 벼슬이기 때문이다.(기장읍 시랑리 시랑대 참조)

비신의 크기는 109×43×17cm이다.

⑭ 현감 이공 기수 거사비(縣監 夔秀 去思碑)

《기장현 읍지》의 현감 조항에 의하면, 이기수는 무관으로서 서울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철비로 된 비신은 70×34×3.5cm로 1816년(순조 16)에 세워졌다. 내용은 세금의 감면과 덕치, 그리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살게 해 준 공덕을 기르고 있다.

⑮ 현감 함공 영석 거사비(縣監 咸公 英錫 去思碑)

비신 105×34×3cm의 철비로 1836년 현종 2)에 세워졌다.

⑯ 행 현감 오공 윤영 생사단(行 縣監 吳公 胤泳 生祀壇)

비신의 크기 90×37×12.5cm의 석비로 1868년(고종 5)에 세웠다. 현감 오윤영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살아 있는 오윤영에게 제사하기 위해 단(壇)을 조성해서 비석을 세운 것이다.

⑰ 현감 정후숙 거사비(縣監 鄭侯塾 去思碑)

비신 87×35.5×11.5의 석비로 1870년(고종 7)에 세웠다. 현감 정후숙이 세금을 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⑱ 행현감 임공 백은 청덕선정비(行縣監 任公 百殷 淸德善政碑)

비신 115×44×18cm의 석비로 1874년(고종 11)에 세워졌다. 대석으로 귀부(龜趺)가 있으나 개석은 떨어져 나가고 없다. 현감 임백은의 공덕을 기리는 비다.

제2편 자치구

⑲ 행현감 홍공 찬 영세불망비(行縣監 洪公 潁 永世不忘碑)

비신의 크기 96×37.5×12.5cm로 1882년(고종 19)에 세웠다. 현감 홍찬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다.

⑳ 행현감 이공 규선 청덕 불망비(行縣監 李公 圭選 淸德不忘碑)

비신의 크기 70×42×14cm의 석비로서 1887년(고종 24)에 세워졌다. 현감 이규선이 백성을 위해 소를 하사하여 땅을 일구게 하는 등의 공을 쌓았던 일을 기리고 있다.

㉑ 행 현감 오공 영석 생사단(行 縣監 吳公 榮錫 生祀壇)

비신의 크기 77×39×10cm의 석비로서 1893년(고종 30)에 세웠다. 현감 오영석을 위한 생사단이다.

㉒ 행 현감 함안 조공 징당 불망비(行 縣監 咸安 趙公 徵唐 不忘碑)

비신의 크기는 104.5×45×20cm의 석비로 1988년에 세웠다. 비문에 의하면 현감 조징당은 함안 조씨로 제16대 기장현감에 재임하는 가운데 정사에 청렴하고 학문을 널리 강론하였으며 도의를 치민(治民)의 근본으로 삼았다.

후에 관직을 사(辭)하고 귀향함에 현민들이 선정불망비를 세웠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실(流失)되어 후손들이 비를 재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㉓ 행 현감 손공 경현 청덕 선정비(行 縣監 孫公 慶鉉 淸德 善政碑)

비신의 크기 113×40×14cm의 석비로 세운 연대를 을미(乙未)라고만 하고 있다. 대석은 87×44cm이고 개부는 팔각지붕 형태다.

㉔ 현감 강공 유후 청덕선정 만세불망비(縣監 姜公 裕後 淸德善政 萬世不忘碑)

크기 112×62×18.5cm의 석비다. 개석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보주형이며 뱀 또는 용같은 형상의 두 마리가 양각되어 있다.

《기장읍지(1855년 간행)》의 현감조에 강유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문관

으로 서울거주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 현감조에서 미루어볼 때 효종조 때(1649~1659) 부임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비군(碑郡) 가운데 가장 오래된 비로 여겨진다.

㉕ 객사건성비(客舍 建成碑)

기울어져 가는 객사를 다시 세운 공을 기리어 세운 88×40×13.5cm의 석비다. 비석 전면 한가운데 현감 이경렬(李景烈)의 이름이 나오고 후면에는 비를 세우는데 일을 주도한 사람의 직함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㉖ 군수 이공 경우 영세불망비(郡守 李公 敬佑 永世不忘碑)

여기 군수라 한 것은 기장군수를 말하는데 기장군수는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고 1895년 2차 개혁이 단행되었을 때 동래도호부가 동래관찰부(東萊觀察府)가 되어 그 아래 10개구를 형성 하자 기장현이 동래관찰부 아래의 기장군이 되었을 때가 된다.

이 동래관찰부는 오래 가지 않았으나 이 무렵에 격상된 기장군은 그 위상이 계속 이어졌다.

이 비석의 군수 이경우는 1895년 5월에서 1896년 9월 사이의 군수일 것이다. 비신의 크기는 114×41×16cm의 석비다.

㉗ 행 군수 이공 해륜 청덕거사비(行 郡守 李公 海崙 淸德去思碑)

비신의 크기 102×37×13.5cm의 석비로 대석과 개석이 갖추어졌다. 비를 세운 연대를 신축(辛丑)이라 한 것으로 보아 기장군시절의 신축년은 1901년이 된다.

㉘ 행 군수 엄공 신영 청덕거사비(行 郡守 嚴公 信永 淸德去思碑)

비신의 크기 96×47.5×20cm의 석비로 대석과 개석을 갖추었다. 1904년에 세운 것으로 군수 엄신영의 덕을 기린글이 새겨졌다.

기장읍 시랑대 바위에는 홍문관 교리(郊理)라 하여 엄신영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이곳 군수로 오기 전에는 홍문과 교리 벼슬에 있었던 것 같다.

②⑨ 행 군수 홍공 재규 영세불망비(行 郡守 洪公 在圭 永世不忘碑)
1906년에 세워진 석비로 비신은 117×41×13cm이다. 비문은 춘궁기에 창고를 열어 널리 베푸니 비를 세워 그 공을 기린다고 되어 있다.

③⑩ 행 군수 구연호 영세불망비(行 郡守 具然浩 永世不忘碑)
비신의 크기 111×41.5×18cm의 석비로 1910년에 세워졌다. 이 해가 일제에 강점된 해가 되어 기장군수로서는 마지막 송덕비가 된다.

③⑪ 兵房 정태망 무휼고정 만세불망지비(兵房 鄭泰望 撫恤庫丁 萬世不忘之碑)
병방인 정태망이 창고를 지키는 장정들에게 물질을 베풀어 도와준 일을 기리어 1729년(영조 5)에 세운 석비로 크기는 74×39×16cm이다.
기장에는 동부리에 군기(軍器)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고, 동부리 동쪽 등성이에선 빙고(氷庫)가 있고, 해창마을에는 해창(海倉), 대변리에는 대동고(大同庫)가 있었다.

③⑫ 경저 주부 최동진 불망비(京邸 主簿 崔東鎭 不忘碑)
경저란 고려와 조선 때 지방 관아에 딸려 있으면서 중앙관청과의 사무 연락을 위해 서울에 머물던 벼슬아치를 말했는데 주부는 종6품 벼슬이다.
그 주부 최동진이 기장고을에 적선(積善)을 한 일을 기린 석비다. 1880년(고종 17)에 비신 113×35.5×16cm로 세워졌다.

③⑬ 좌수 김선국 홀군비(座首 金善國 恤軍碑)
좌수는 그 지방의 덕망가와 연장자 중에서 선발하여 현감이 임명하였는데 임기 2년으로 수령의 자문역을 했다.

이 비석을 세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70×46×22cm의 석비로 김선국이 군(軍)에 물질적 은혜를 베푼 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㉔ 가선대부 전 내장원 경 오공기영 불망비(嘉善大夫 前 內藏院 卿 吳公 璣泳 不忘碑)

가선대부는 조선때 종2품 문무관의 품계가 된다. 그 가선대부로 전에 궁궐의 재정을 맡은 내장원의 경(임금이 2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부를 때 쓴말)이었던 오기영이 돈을 내어 가난을 구했다는 내용의 글이 새겨졌다.

비신의 크기는 95×34.5×10cm로 세운 연대를 을사(乙巳)라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㉕ 마애호장 한한흥비(磨崖戶長 韓漢興碑)

비신의 크기 117×51×15cm의 석비다. 비를 세운 연대를 알 수 없다. 비신의 전면 윗 부분에 마애(磨崖)라고 썼는데 그 마애의 뜻도 헤아리기 어렵다. 양쪽에 쓴 글은 호장 한한흥이 사재를 털어 봉화군(烽火軍)을 도와준 것을 기리는 뜻이다.

㉖ 청강교비(淸江橋碑)

비신의 크기 176×70×19.5cm의 석비로 1758년(영조 34)에 세워졌다. 비신전면 상부에 가로로 청강교비문이라 적고 2단에 가로로 현감 김공수한(金公 受漢)이라 적었다.

비문은 박창휘(朴昌輝)가 주도하고 송세홍 등이 돈을 내어 청강교를 완성 하였다고 했다.

이 청강교는 광리교(廣利橋)를 말한 것 같은데 광리교는 기장성의 남문 안에 있는 다리로 수각교(水榭橋)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③7 수각교 중각비(水榭橋 重築碑)

비신의 크기 170×66×18.5cm의 석비다. 비의 전면 위쪽에 가로로 현감 장공 유풍(張公 有豐)이라 적고 있다.

비문은 마멸되어 판독하기 어려우나 비를 세운 연대부분인 함풍오년 을묘(咸豐五年乙卯)는 읽을 수 있어 그 해가 1855년(철종 6)임을 알 수 있다.

이 수각교는 1758년(영조 34)에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그 다음해에 완성한 청강교인 것 같다.

이 비는 증축 당시의 현감 공덕비를 겸하고 있다.

○ 동부리 회나무

동부리 228번지에는 대대로 이은 마을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회나무가 있다.

나무의 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 75cm, 수관폭은 동서로 18m, 남북 17m 정도이며 수령은 1,000년 넘게 보고 있다.

이 나무에는 참새가 앉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가운데 해마다 정월이면 이 나무 아래에서 동제(洞祭)를 지내왔으나 근년에 와서는 그 동제가 끊어지고 있다.

회나무는 노박덩굴과의 낙엽관목이다. 꽃은 6월에 피고 자주색이다. 열매는 9월에 자주색으로 익으며 둥글로 5개의 날개가 있다. 깊은 산에서 자라며 동북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4) 민 속

○ 동부리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의 북쪽에 있는 VIP호텔 서쪽 80m 지점.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93년.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4cm, 옆면 231cm로써

건평이 1.6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1cm, 세로 155cm)이며, “東部堂山”(크기는 가로 58cm, 세로 26cm, 두께 3.5cm)이라는 나무 현판이 붙어 있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합판으로 만들어 「자형이며, 뒷벽에 붙은 제단의 크기는 앞면 200cm, 옆면 59cm이고, 왼쪽 벽에 붙은 제단」의 크기는 앞면 137cm, 옆면 44cm이며, 높이는 다 같이 86cm이다. 제단 위에는 중앙에 2개의 위패함과 양쪽에 조화를 꽂은 꽃병이 각각 1개씩 얹혀 있고, 오른쪽 구석에는 담뱃대 1개가 세워져 있다.
- 위패 또는 시체와 산신도 : 오른쪽 위패함에는 “東部黨山之神位”, 왼쪽 위패함에는 “車城聖主之神位”이라 쓰인 지방이 붙어 있는데 위패함의 크기는 다 같이 가로 15cm, 세로 34cm, 두께 2cm이다.



동부당산



동부 당산안의 위패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으로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 (크기는 앞면 385cm, 옆면 425cm, 높이 140cm, 두께 14cm)이 있다.

제2편 자치구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동짓날에 대동회를 열어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내는데, 뒤편 제단에 두 분, 왼쪽 제단에 한 분의 제물을 진설하여 지낸다.(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기 때문에)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옛날에는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당산나무 옆에 세웠으나 요사이는 하지 않는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의에 참석한 사람만 음복을 하고, 다음 날에는 동부 1리의 이장집에서 별도로 음식을 장만하여 노인정(동부 1리에는 마을회관, 동부 2리·3리에는 노인정)에 보내어 먹게 한다. 별도의 음식물을 만드는 것은 제의에 쓴 음식물에는 금기가 따라 사람들이 먹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 금기 기간 : 제주만 1개월 정도 한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 하되, 동부 1리가 30만원, 동부 2리가 15만원, 동부 3리가 20만원씩 모으며, 제물 구입비로 30만원을 사용한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30만원이다.
- 특기 사항 : 현 동부 1리의 이장인 이말년(여, 55세)의 말에 따르면, 제당이 처음에는 기장초등학교 남쪽에 있었는데, 그 뒤 도시구획정리로 말미암아 기장초등학교 뒤편으로 옮겼다가 다시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함.

5) 시 장

○ 읍내장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 수록, 1832년) 장시조를 보면, 읍내장은 현성 문안에서 5일, 10일장으로 열렸다(在縣城門內 五日十日開市). 좌천장과 함께 기장의 대표적인 5일장이다. 《교남지(嶠南誌)》 기장군 시장조를 보면, 기장시장은 읍내에 있고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고 하였다. 이 기장시장이 옛날의 읍내장이다. 기장장이라고도 부른다.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화식, 팔역장시조)에 의하면, 읍내장은 5일과 10일날 장이 서며,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광어, 조기, 생복(生鰻), 해채(海菜), 담채(淡菜), 해삼, 소금, 종이, 담배[烟艸], 돗자리[莞席] 등 물품들이 많이 거래되었다.

장안읍 월내리 월내역 앞 도로 옆에는 보부상 출신인 배상기(裴常起)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左右社班首裴常起恤商永世不忘碑]가 세워져 있다. 광무 8년(1904)에 세워진 이 비석은 보부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비석이다. 배상기가 기장지역의 보부상을 관할하는 책임자인 반수로서 상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의 뒷면에는 보부상 접장 김상명(金相明)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 비석 옆에는 배상기 관련 비석[通政大夫裴公常起勸塾獎學碑, 通政大夫裴公常起勸契恤里碑] 2기가 서 있다. 읍내장은 좌천장과 마찬가지로 배상기, 김상명 등과 같은 보부상들의 중요한 상업 활동 무대이었을 것이다.

기장장은 1919년 기장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기장지역에서도 김도엽 등 주도자 7명이 거사를 준비하고, 거사일을 4월 5일 기장장날로 정하였다. 4월 5일 김도엽 등은 독립선언서와 큰 깃발을 가지고, 기장읍 장터로

나가, ‘조선독립단’, ‘양심발현인도적자유민족(良心發現人道的自由民族)’이라고 쓴 큰 깃발을 시장 한복판에 세운 다음, 백여명의 군중과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10일 장날에도 주도자들은 기장공립보통학교 학생 50여명과 함께 기장 읍내를 누비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이 장날이어서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어 밤에는 군중이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6) 자연마을

○ 동문안마을

지금의 기장초등학교는 옛날 기장의 동헌이 있던 곳이다. 동헌에서 남으로 큰 길을 만들고, 길의 동쪽은 동부동, 서쪽은 서부동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동부동, 마동(麻洞), 서부동, 동면 교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가 되었다. 동부리에 기장면 면사무소가 있었다.

동문안마을은 동부리에 있는 마을이다. 기장읍성의 동문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문내(東門內)마을이라고도 불렀다. 기장읍성 동문지(東門址)는 동부리 310~311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기장읍성은 동문지 쪽이 가장 잘 남아 있다. 문지의 폭은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문지 앞 집안에 웅성이 시작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웅성은 반원형의 편문식(片門式) 웅성으로 추정된다. 차성가(車城歌)에 “동문(東門)연당(蓮塘) 구경하고 빙고등(氷庫燈) 더위잡아”라고 하여, 동문이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동문리동(東門里洞)에는 32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32호 가운데 박례포(朴禮浦) 집이 초가 7칸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박소단(朴小丹)집으로 초가 5칸이다. 김씨(15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박씨(5호)이다. 동문리동이 동문안, 동문밖마을 또는 그 밖의 마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 동문밖마을

지금의 기장초등학교는 옛날 기장의 동헌이 있던 곳이다. 동헌에서 남으로 큰 길을 만들고, 길의 동쪽은 동부동, 서쪽은 서부동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동부동, 마동(麻洞), 서부동, 동면 교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가 되었다. 동부리에 기장면 면사무소가 있었다.

동문밖마을은 동부리에 있는 마을이다. 기장읍성의 동문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문외(東門外), 동바깥, 동밖마을이라고도 불렀다. 기장읍성 동문지(東門址)는 동부리 310~311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기장읍성은 동문지 쪽이 가장 잘 남아 있다. 문지의 폭은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문지 앞 집안에 웅성이 시작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웅성은 반원형의 편문식(片門式) 웅성으로 추정된다. 차성가(車城歌)에 “동문(東門) 연당(蓮塘) 구경하고 빙고등(氷庫燈) 더위잡아”라고 하여, 동문이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동문리동(東門里洞)에는 32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32호 가운데 박례포(朴禮浦) 집이 초가 7칸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박소단(朴小丹)집으로 초가 5칸이다. 김씨(15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박씨(5호)이다. 동문리동이 동문밖, 동문안마을 또는 그 밖의 마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 장태마을

장태는 동헌터 앞에 있는 터다. 제자태라고도 부른다. 그 지형이 선녀가 비단을 짜는 옥녀직금형(玉女織錦形)이라고 한다. 장태는 장터, 제자태는 저자터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 곳이 기장 읍내장이 서는 장(場)터, 저자터라고 생각한다.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 수록, 1832년) 장시조를 보면, 읍내장은 현성 문안에서 매 5일, 10일, 한달에 여섯 번 열리는 정기시장이다. 이 읍내장이 기장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장터, 저자터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서 장태, 제자태마을이라 불렀다고 생각한다.

○ 통방마을

동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 기장현 관아의 통방(通房)이 있었다. 통방은 통인방(通引房)을 일컫는다. 《기장현읍지》(《영남읍지》 수록, 1871년) 공해(公廨)조에 보면 통인방이 기재되어 있다. 통인방은 통방, 통방집, 통청(通廳)이라고도 부른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통청은 읍내면 동부동에 있었으며, 와가(瓦家) 4칸이 었다. 통인방, 통방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서 통방마을이라 불렀다.

7. 만화리

1) 연 혁

만화리는 동서(東西), 두화(斗禾)마을로 법정리를 형성하고 있다. 만화(萬花)가 아닌 만화(萬花)란 아주 보기 드문 마을이름이다. 《기장현읍지》 읍내면 만화리(萬花里)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동면에는 만화동(萬花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만화리(萬花里)로 불리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화는 만(萬) 달리(化)로서 만달리가 되는데 이는 만다리의 소리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곳 방언으로 산봉우리를 만다리, 만데이, 산꼭다리, 산만등 이라고 하고 높은 곳이나 위쪽을 만다리 라고 한다. 만화리의 동서 부락은 일광산 서부의 산복에 있는 높은 곳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두화 부락이나 읍내마을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마을,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만다리 라는 이곳 방언으로 호칭하였는데서 유래한 것 같다. 한역한다면 "만다리 마을"은 상리(上里)가 된다. 만화는 방창(方暢)에서 만화가 되었다는 풀이가 있고, 근처에 있었던 망풍정(望豊亭)의 망(望)과 두화(斗禾)마을의 화(禾)를 따서 망화(望禾)를 만화(萬化)로 표기하였다는 풀이는 억설에 불과 할 것이다.

2) 산 천

○ 가마재

만화리의 본마을 남서쪽에 있는 재. 만화리와 서부리를 오가던 고개로 지금은 해운대-기장 간의 14번 국도에 이어진다.

○ 교동고개

샛트산 북동 기슭을 따라 교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조동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 찢알고개

만화리 본부락인 동서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일광면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 목논고개

만화리 본부락인 동서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철마면 이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제2편 자치구

○ 수현고개

만화리에서 남쪽으로 서부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해운대-기장간의 14번 국도에 이어진다. 숲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 재고개

큰 이내터 마을에서 작은 이내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로 셋트산 허리를 따라 나 있다.

○ 재비내고개

목논고개 북서쪽에서 일광면 용천리로 넘어가는 고개.

○ 구리이비골

못골짜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구렁이골

셋발골 남서쪽에 있는 구렁진 골짜기.

○ 까치실골

만화리 본부락인 동서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까치혈(穴)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까치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 쌍다리재

해운대구 반송동을 지나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쌍교마을(쌍다리마을)에 있는 쌍다리못(안평전수지)에서 기장읍 만화리 동서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의 지명 유래는 안평리 쌍다리마을의 지명을 따서 붙인 것으로 보이며, 몇 년전만 하더라도 왕복 2차선으로 옛 고개길을 따라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꼬불꼬불한 고개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산을 절개하여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되어 기장과 동래를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은 옛 고개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으나, 그 형태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 느티실 골

두비실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대밭골

동서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대밭이 있었다.

○ 돌티빙이골

구리이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돌이 골짜기에 깔려 있다.

○ 디논골

동서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 목논골

방가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마골이라고도 한다.

○ 백맛골

여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방가-터(골)

대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해서 방가-터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 셋밭골

목논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안골짜

느티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교리의 셋트산과 만화리의 셋트산 사이의 계곡 상류 골짜기에 해당된다.

제2편 자치구

○ 엄나무골

새터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엄나무가 있었다는데서 엄나무골로 불린다.

○ 여집골

동서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윗밭골

동서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작은 이내터골

이내터의 작은 골짜기.

○ 재골

돌티빙이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절텃골

백맞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조밭골

동서마을 북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피밭골

샛트산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활배미논

새터 앞에 있는 들판으로 활처럼 생겼다.

○ 계십바우

만화리에 있는 바위로 흔들바위라고도 한다.

○ 내린방우

범방우 동쪽에 있는 바위.

○ 만풍징이들

새터 남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 이 곳에 '만풍정'이라는 정자가 자리잡고 있었는데서 만풍징이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 점칠매미논

동서마을 남쪽에 있는 논.

○ 구불딩이(등)

작은 이내터 북쪽에 있는 산등이로 구불구불하게 생겼다.

○ 동따리-갯산

셋트산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20m이다. 셋트산과 같은 줄기의 산으로 전형적인 노년산지이다.

○ 동서못

동서마을에 있는 저수지.

○ 만화교

만화에 있는 다리.

○ 이좌수봇통

새터 서쪽에 있는 작은 보(湫). 옛날 이 곳에서 좌수(座首) 이씨가 빠져 죽었다는데서 이좌수봇통이라 불리게 되었다.

3) 명승고적

○ 차건신(車建申)의 묘(墓)

일반적으로 차릉(車陵)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무덤은 만화리 산 72번지에 차(車)씨 류(柳)씨 대중회(大宗會)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건신의 무덤이라 한다.

무덤의 크기는 직경 7m, 높이 2.5m의 원분으로 둘레 넓이는 200평 정도다. 무덤 주위를 두른 석물이나 비석들은 근간에 세운 것이다.

전해내리기를 신라의 39대 소성왕(昭聖王)의 재상(宰相)이자 40대 애장왕(哀莊王)의 보상(輔相)이었던 차진건의 무덤이라 한다.

그 유래는 차건신이 소성왕의 재상으로 있을 때 소성왕이 어린 왕자에게 왕위를 전하기 불안하여 차건신에게 잘 보살피 주기를 유언으로 남겨서 차건신은 12세에 즉위한 애장왕의 보상이 되어 보필을 잘 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 차건신이 죽으니 왕례(王禮)로서 예장(禮葬)을 하고 소성왕묘(昭聖王廟)에 배향(配享)했는데 무덤은 기장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장을 차성(車城)으로 승격시켜 세인의 존경지(尊敬之地)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차건신이 죽고는 아들 색(穡)이 아버지를 이어 좌상(左相)이 되어 애장왕을 보필했는데 애장왕 10년 왕의 서숙(庶叔)이 되는 김언승(金彦昇)이 왕과 왕자를 죽이고 헌덕왕(憲德王)이 되었다.

애장왕의 죽음으로 좌상에서 물러난 색은 큰아들 공숙(恭叔)과 왕(헌덕왕)을 복수하기를 꾀하고 헌덕왕이 시냇길로 나설 때 길목 다리밑에 복병(伏兵)하여 거사(擧事)하려 하던 차에 그 계획이 누설되어 헌덕왕이 체포령을 내렸다.

두 부자는 색의 생질 요동백(遼東伯) 김생(金生)의 집에 몸을 피해 있었는데 헌덕왕은 두 부자를 체포하는 자에게는 금 천근과 읍만호(邑萬戶)를 현상한다는 포고를 내렸다. 김생이 이 현상이 탐이 나서 외숙(外叔)을 밀고하려 하자 그 집 종이 눈치를 차리고 색에게 몰래 전하니 색과 아들 공숙은 그날 밤 도망하여 유천(儒川) 구월산 묵방동(墨坊洞)으로 피신하여 조모(祖母)의 성인 양씨(楊氏)로 하려다가 그마저 불안하여 양(楊)과 뜻이 같은 류씨(柳氏)로 변성(變姓)을 하였다.

그리하여 1세(世)가 승상 색(丞相, 穡), 2세가 사공좌윤 숙(司公左尹 叔), 3세 진부(振埠), 4세 해평산장 무선(海平山長 茂先), 5세 월묵산장 보림(月墨山長 普林) 등 6세가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었는데 그 장자를 고려 태조가 연안군(延安君)에 봉하여 옛 성인 차(車)씨로 복귀하고 종적(宗籍)을 연안(延安)으로 하였고, 차자를 문화군(文化君)으로 봉하여 문화 류씨(文化柳氏)로 형제가 양성(兩姓)으로 나누어졌다.

색공(穡公)에서 보공(普公)까지 5대의 묘소가 구월산에 모셔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전(失傳)되었고 국토양단으로 찾을 길이 막연하며 5대의 배위(配位) 기록도 전해지는 바 없으므로 천년 동안 향화(香火)가 끊어지고 있는 셈이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기장군이 양산군에 속해 있을 때인 1989년도 출간의 《양산군지》와 1992년도 출간의 《양산의 문화유적》을 참고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출간의 《구기장군 향토지》는 이 무덤을 두고 33세 이위(李渭)의 무덤이면서 범곡에 그 배실묘(配室墓)도 있다고 그 후손이 주장한 바 있었다고 적고 있다.

제2편 자치구

그러면서 만화리 사람들은 이 곳에서 먼저 동신제(洞神祭)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당산제를 거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무덤은 옛날 나라의 큰 공신으로서 백성들과 고을사람들의 숭앙을 받았고 사후에는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게 된 분의 무덤으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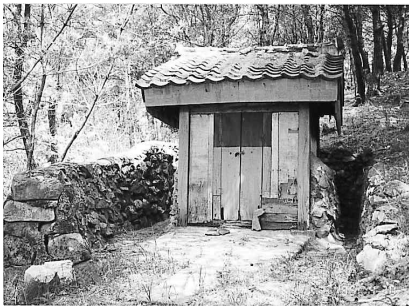
이 같은 세 사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차견신의 묘는 경상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58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후의 오늘날에는 문화재 자료에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4) 민 속

○ 만화리 서리 제당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동쪽 100m지점의 산록.



만화리 서리당사



만화리 서리당사의 위패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檀紀四千二百九十二年 十月 二十九日
乙卯午時立柱上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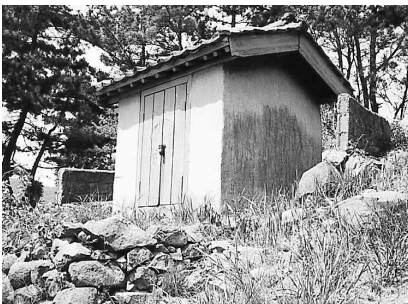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00cm, 옆면 230cm로써 건평이 1.4평이다. 맞배 기와지붕에 벽은 돌과 시멘트를 섞어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31cm, 세로 150cm)이며 “萬化祭堂”(크기는 가로 167cm, 세로 24cm, 두께 2.5cm)이라는 나무 현판이 붙어 있다. 그리고 제당에서 서북북향 13m 지점에 편편한 자연석으로 만든 산신제단(크기는 앞면 133cm, 옆면 62cm, 높이 5cm)이 있고, 마을 입구에 있는 소나무인 당산나무의 서쪽 밑에 시멘트제단(크기는 앞면 164cm, 옆면 127cm, 높이 27cm)이 있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며, 크기는 앞면 173cm, 옆면 66cm, 높이 103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위패에는 “堂社神靈之位”라 쓰여 있고, 크기는 가로 23.5cm, 세로 95cm, 두께 2.6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양옆과 뒤에 돌담장(크기는 뒷면 400cm, 양 옆면 560cm, 높이 106cm, 두께 50cm)이 있고, 그 밖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제2편 자치구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제당할매제→거릿대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옛날에는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당산나무 옆에 세웠으나 요사이는 당산나무에 금줄만 친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음복을 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 금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노인층만 주로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이었으나 요사이는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옛날에는 제의 뒤 보름날 농악놀이를 하였다.

○ 만화리 동리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 뒤 북쪽 100m 지점의 산록.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檀紀壹仟九百七拾參年陰拾貳月貳拾四日午時立柱上樑.



만화리 동리당산



만화리 동리당산의 위패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13cm, 옆면 210cm로써 건평이 1.35평이다. 맞배 기와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43cm, 세로 150cm)이다. 그리고 제당에서 뒤 3m 지점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산신제단(크기는 앞면 98cm, 옆면 63cm, 높이 34cm)이 있고, 마을에서 동남쪽 200여m에 있는 흥고돌레 290m의 괴목인 당산나무의 동남쪽에 시멘트 제단(크기는 앞면 160cm, 옆면 120cm, 높이 25cm)이 있다.

- 당사의 좌향 : 동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며, 크기는 앞면 184cm, 옆면 53cm, 높이 57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위패에는 “主山堂山神之位”라 쓰여 있고, 크기는 가로 9.5cm, 세로 30cm, 두께 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는 석축에 세워져 있고 양 옆과 뒤에 블록 담장(크기는 뒷면 550cm, 양 옆면 370cm, 높이 66cm, 두께 15cm)이 있고, 산신제단도 블록 담장으로 형태는 당사담장과 같으나 크기는 뒷면 127cm, 양옆면 80cm, 높이 44cm, 두께 15cm이며 당사 뒷편에 소나무들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제당할매제→거릿대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옛날에는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당산나무 옆에 세웠으나 요사이에는 당산나무에 금줄만 친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음복을 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 금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장년 노년층만 주로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백일간이었으나 요사이에는 반달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3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5) 자연마을

○ 동서마을

반송동에서 국도 14번을 따라 기장으로 가다보면 만화리 표지석과 장승이 서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두 개다. 만화주유소, 만화휴게소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면 마을에 큰 소나무가 나타난다. 마을에 들어서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서부 《동서》 반송」이라고 써 있다. 마을이 동과 서로 갈라져 있어 동서(東西)마을이라 하였다고 한다. 동서마을은 만화리의 본마을이다. 마을에는 동서부락회관이 있고 옆에는 동서마을 경로당이 따로 세워져 있다. 마을회관 옆길을 따라 산쪽으로 들어가면 차릉(車陵)이 있다.

또다른 마을입구에는 ‘여기는 만화리입니다’라고 쓴 표지석과 만화리라고 쓴 목판을 걸어둔 장승이 서있다. 여기에 차릉 표지석도 서있다. 그 밖에도 만화한정식, 만화식육점 등 만화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들이 많이 있다. 만화리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마을에는 만화천이 흐르고, 동서못이 있다.

한편, 기장읍 동부리 306의 2번지 기장초등학교 앞에는 주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비들을 모아 놓은 비석거리가 있다. 비석 가운데 청강교비(淸江橋碑)가 있다. 영조 38년(1758) 세운 석비로서, 청강교의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비문 내용 가운데 「東西洞首 尹興昌 金德潤」이라 하여, 동서동(東西洞) 동수(洞首)의 이름이 보인다.

○ 두화마을

동서마을에서 기장쪽으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진테마빌아파트 뒤로 난 길을 따라 안으로 가면 「두화마을(샛터)」이라고 쓴 표지석이 있다. 마을 옆에는 「일광산테마임도」가 있고, 임도 입구에 안내도가 있다. 임도는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철마면 웅천리를 잇는 길로 길이가 약 10km이다. 이 길을 따라 산으로 가면 자연굴이 많다고 한다. 임도 입구에 장승을 세워 임도와 등산객의 무사안녕을 빌고 있다.

마을의 옛이름은 두배실이다. 마을 앞쪽에 박곡제(朴谷堤)라는 오래된 못이 있다. 이 못이 있는 곳을 박실(朴室)이라 불렀다. 박실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뒷박실, 뒤박실이라 불렀다. 디배실, 디비실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두배실의 두는 뒤의 의미고, 배는 박과 같은 뜻으로 밟다는 의미며, 실은 동·곡 등 마을을 뜻한다고 보거나, 두는 두텁다는 뜻이며, 배는 배[布]의 뜻으로 두터운 배 즉, 무명배를 짠다는 뜻으로, 마을의 모습이 「비단 형국의 골짜기」 같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마을 뒷산을 새터산, 샛드산이라 부르는데, 이 산이 말[斗]과 같이 닮았고, 두배실의 배가 벼와 발음이 닮아서 벼 ‘화(禾)’자를 써서, 두화(斗禾)라고 불렀다고 하나, 분명하지 않다. 두화는 두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은 표지석에 적힌 것처럼 두화마을과 샛터[새터]마을을 같은 마을로 보고 있다.

○ 새터마을

디비실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동서마을에서 기장쪽으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진테마빌아파트 뒤로 난 길을 따라 안으로 가면 「두화마을(새터)」이라고 쓴 표지석이 서 있다(두화마을 참조). 지금은 표지석에 적힌 것처럼 두화마을과 새터[새터]마을을 같은 마을로 보고 있다. 새터마을 서쪽에는 엄나무골, 뒤에는 성전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마을이 생긴 시기와 관련된 마을이름이다. 마을이 생기기 전에 본래 존재해 있던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새로 생겼다 하여 ‘새’ 나 ‘신’ 자를 붙였다. 보통 새+터, 마실, 모실, 각단, 동네 형으로 불린다.

○ 이내터마을

구렁이(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렁이골은 셋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다. 동서마을에서 국도 14번을 타고 기장읍으로 오면 좌측으로 여관들이 많이 있다. 이 곳이 이내터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내바다, 큰이내터, 큰이내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내터에는 이내터못이 있다. 이내터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이내터, 작은이내바다이다.

8. 서부리

1) 연 혁

기장초등학교 자리가 옛날 기장현청인 있는 동헌(東軒)이 있던 곳이다. 이 동헌에서 남쪽으로 큰길을 내었는데 지금 있는 큰 도로이다. 이 큰길 동편은 동부방이고 서편은 서부방이 되었다. 서부리는 동부리와 더불어 성내(城內)마을이다.

《기장현읍지》 읍내면 서부방(西部坊)이었다가, 1895년 5월 26일 을미개혁

으로 기장군 읍내면 서부동(西部洞)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4년 3월 1일 동래군 기장면 서부리(西部里)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문안 · 북문밖(봉밖) · 서천방 마을이 있었다.

2) 산 천

○ 숲고개→만화리의 ‘숲고개’

○ 용소골

서부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만화리의 셋드산 남서 기슭에서 발원 하여 동부리로 흘러가는 청강천의 상류계곡으로 옛날 이 곳에서 용이 났다 하여 용소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용소골은 지금은 하류에 독을 막아 대부분 용소골 저수지로 되어 있다.

○ 봉밖들

서부리 북쪽에 있는 들로서 옛기장 읍성의 북문이 자리잡고 있었다는데서 ‘북문 밖들’ 또는 ‘북문외리들’이라고도 한다.

○ 주산

서부리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71.4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봉우리가 둥그스레하다. 옛 기장현의 주산으로서 주살미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 수각다리

청강천에 놓인 다리로 청강교라고도 한다. 조선 영조 38년(1758년) 기장현감 이수한이 세운 석조다리이다. 서기 1800년경에 만들어진 차성가에는 이를 수계교(繡溪橋)라 하였으며, 철종 5년(1855년)에 세운 비문

에는 수각교라 하여 처음으로 ‘수각다리’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855년경에 편찬된 《기장현읍지》에는 이를 ‘광리교’(廣利橋)라 하여 정축년 봄에 읍내 사람 송세홍이 백여금을 출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수각새미

수각다리 옆에 있는 샘.

3) 명승고적

○ 서부리산성(西部里山城)

서부리산성을 기장읍의 대라리 산 20~2번지, 서부리 산 9~1번지, 철마면 안평리 산 112~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 2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발간한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성을 쌓은 목적을 왜(倭)의 침략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이 산성에서 내려다 보면, 일광·기장은 물론 송정·해운대 주변의 남동쪽 해안 모두가 한눈에 들어오는 사실을 들고 왜구의 침범으로 고읍성(古邑城)이 침략된 사실을 들고 있다.

축성시기는 기장읍성(고읍성)이 축조 될 때 기장읍성의 배후 산성으로 축조된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통일신라 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읍성이 축조될 이전에 이미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성은 해발 350m 고지에 포곡식(包谷式) 석축의 산성으로 성벽의 북쪽이 가장 높고 서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성의 규모는 둘레가 약 775m이고, 성벽의 폭은 5m 내외이고, 상부에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폭 2m의 성벽도 축조되어 있다. 남아 있는 성벽의 높이는 1~3m정도이고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 둘로 쌓은 협축식

(夾築式) 축성인데 내부는 모두 돌을 채웠다.

성 내부시설로 연못과 우물이 각각 하나씩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 안에 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리는 5곳이었다. 이 주거지는 창고나 수비군의 거처가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1995년부터 기장군 문화유적을 조산한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이 성터 안에서 도질토기(陶質土器) 조각과 기와조각을 채집하였다. 도질토기 조각은 병형토기의 구연부조각과 외면에 격자문(格子文) 타날(打捺)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이후의 토기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병형 토기편은 소편이고 동체부의 형태를 알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려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서부리산성은 기장군에서 조사된 성곽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앞으로의 정밀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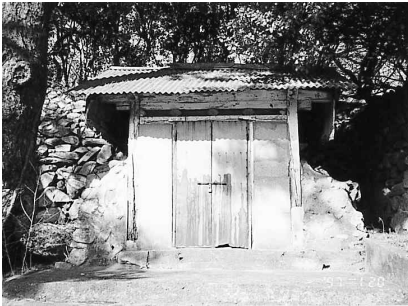
4) 민 속

○ 서부리 할매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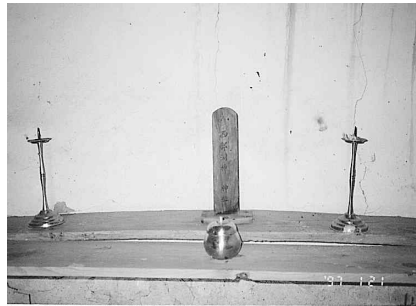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동쪽 100m 지점의 산록.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檀紀四二八二年己丑四月十六日巳時詩立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194cm, 옆면 212cm 로써 건평이 1.36평이다. 맞배 슬레이트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두 짝 여닫이 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138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서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제2편 자치구

직사각형이며, 크기는 앞면 175cm, 옆면 41cm, 높이 98cm, 두께 2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와 촛대 2개·정화수 그릇 1개가 얹혀 있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두께 1.5cm인 합판으로 만든 제상(크기는 앞면 100cm, 옆면 58cm, 높이 74cm)이 있는데 이 위에 향로가 얹혀 있다.



서부리 할매당산



서부리 할매당산의 위패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위패에는 "西部洞神 神位"라 쓰여 있고,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30cm, 두께 1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오른쪽과 뒤쪽에 석성이 있고, 왼편에 흉고 둘레가 200cm·183cm의 一根二枝의 소나무가 있으며 그 뒤에 잡목+미 무성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제의 10일 이내에 이장이 선정하는데, 한번 선정되면 2·3년간 제관이 된다.(요사이 는 이장이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세우지 않는다.
- 음복 여부 : 제의 참석자와 동네의 노인층이 주로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관으로 선정된 다음날부터 3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동비(洞費)로 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옛날에는 제의 뒤 보름날 농악놀이를 하였다.

5) 자연마을

○ 북문밖마을

지금의 기장초등학교는 옛날 기장의 동헌이 있던 곳이다. 동헌에서 남으로 큰 길을 만들고, 길의 동쪽은 동부동(東部洞), 서쪽은 서부동(西部洞)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서부동 일부가 동래군 기장면 서부리가 되었다.

기장읍성의 북문(北門)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북문외, 봉밖, 봉[北門] 바깥, 봉밖에마을이라고도 불렀다. 기장읍성 북문지(北門址)는 서부리 82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문지와 읍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북문안마을

지금의 기장초등학교는 옛날 기장의 동헌이 있던 곳이다. 동헌에서 남으로 큰 길을 만들고, 길의 동쪽은 동부동, 서쪽은 서부동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서부동 일부가 동래군 기장면 서부리가 되었다.

기장읍성의 북문(北門)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북문내, 북문내리(마을)라고도 불렀다. 기장읍성 북문지(北門址)는 서부리 82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문지와 읍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서천방마을

읍내면 서천방(西川坊)에 있던 마을이다. 청강천(淸江川) 서쪽에 있던 마을로 추정된다. 《기장현읍지》(1832년, 1871년) 산천조에 보면, 청강천은 그 원류가 둘인데, 하나는 현 서쪽 5리에 있는 용소동(龍沼洞)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현 남쪽 덕발동(德發洞)에서 시작되어 두모포에서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청강천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서천방이라 부른 것 같다.

9. 석산리

1) 연 혁

옛날은 마을 이름을 야무라기라 하였는데 석산마을 북쪽에 있다. 마을 뒤에 야마사터라는 절터가 있는데 야마사(耶摩寺)라는 절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다. 산기슭을 이곳 방언으로 라기 또는 래기라고 한다.

석산리는 《기장현읍지》 남면 석산방(石山坊)으로서 송정방(松亭坊)과 더불어 우두머리(坊首)가 있는 큰 마을이다. 석산이라는 동리명은 오래 전부터 있던 이름이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남면 석산동(石山洞)이 되었고, 1914년 3월 1일 군·면 통폐합 때 동래군 기장면 석산리(石山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석산은 돌(石) 피(山)이다. 돌피의 돌은 일광면의 달산리의 달과 달음

산의 달리 같이 모두 높다(高)의 뜻을 가진 옛말이다. 뢰는 산(山)의 옛말인데 이곳 방언으로 미, 매라고 발음하고 있어 돌뢰를 이곳 방언으로 돌미라 발음하였을 것이다. 아랫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매밧골, 매밧들이라 하는데서 뢰, 매라는 지명을 엿볼 수 있다. 돌뢰는 높은 산이라는 옛말이 되고 이를 한역표기 하면 고산(高山)이 된다. 이 고산은 연화봉 등성이를 지칭하고 있다. 높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분명히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돌뢰의 돌을 돌뢰이로 잘못 알고 돌(石)자로 뢰는 올바르게 뢰(山)자로 하여 석산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선산리에는 큰 돌이나 바위도 별로 없는 마을이다.

2) 산 천

○ 대내곡 고개

야무라기 북동쪽에서 시랑리의 동암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연고개

야무라기 북쪽에 있는 고개.

○ 골반 옆골

연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연화봉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송정천의 상류인 내리천에 흘러드는 작은 내(川)의 계곡. 지형이 고리(망태기)안처럼 생겼다 하여 골반 옆골로 불리게 되었다.

○ 대망터(들)

연고개 남쪽에 있는 들. 1960년에 새운 대망사(大望寺)의 절터 일대의 넓은 들에 해당된다.

제2편 자치구

○ 마미곡

아랫마실, 즉 하리(下里)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연화봉에서 발원하여 송정천의 상류인 내리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계류의 계곡에 해당된다. 메릿골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는 ‘연화봉 아래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몰릿들

몰리에 있는 들.

○ 배들→당사리의 ‘배들’

○ 석산보(湫)

석산 앞에 있는 보, 배리천에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송정-울산 간의 31번 국도가 지나면서 교량으로 개축되었다.

○ 석산못들

석산보 일대의 비교적 넓은 들판이다.

○ 연곡들

야무라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인 연곡 일재의들.

○ 연곡못

연곡 아래에 있는 저수지.

○ 찬새미

야무라기에 있는 찬 샘.

○ 찬새밋들

찬새미 일대의 들.

3) 민 속

○ 석산리 최장군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동쪽 산정에 위치하고 약수암에서 약 50m 지점.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97cm, 옆면 292cm로써 건평이 2.6평이다. 맞배 기와지붕에 벽은 돌과 시멘트를 섞어 쌓아 만든 구조물이고, 문은 철판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92cm, 세로 155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석산리 당산



석산리 당산안의 위패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67cm, 옆면 57cm, 높이 18cm이고, 제단 위에는 신석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신체는 신석으로 크기는 밑변지름

제2편 자치구

85cm, 총높이 105cm인데, 신석의 목과 두상의 길이는 22cm이고 이 부위의 지름은 12.5cm이다. 신석에는 가로 16cm, 세로 24cm의 한지 세개가 원세끼에 묶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상을 최장군 할아버지라 칭한다. 마을 앞에 할매당이 있었는데 20여년 전에 할매당에 합쳤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 출입구 앞쪽에 돌담이 있는데 크기는 앞면 430cm, 옆면 270cm, 높이 150cm, 두께 80cm이다. 그리고 주 위에는 소나무가 뺄뺄히 들어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2명을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유월 14일 자 정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음복하고, 음복한 사람은 한 달 정도 금기생활한다.
- 금기 기간 : 제주의 금기생활은 옛날에는 6개월간이었으나 요사 이는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 하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4) 자연마을

○ 석산마을

당사리에서 철길을 넘어 위로 계속 올라가면 녹원어린이집이 보이는 마을이다. 혹은 송정에서 기장군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가면 삼양식품 주식회사가 나오는데 도로 우측이 석산마을이고, 좌측이 내리 오신마을이다. 큰 도로가에 「석산마을」과 「석산리」라고 쓴 표지석이 있다. 석산 마을에는 석산마을회관이 있고 석산경로당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장군 석산리마을게시판이 세워져 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석산(石山)은 돌 ‘석’자와 피 ‘산’자가 합성된 것으로 돌피다. 그러나 여기서 돌은 돌[石]의 뜻보다는 높다[高]는 의미로, 돌피는 높은 산의 의미로서, 연화봉 등성을 가리킨다고 한다. 높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라 돌피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산(石山)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큰 돌이나 바위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돌이 많아 석산으로 불렀다고 보기도 한다. 석산보(石山湫) 앞에 있는 돌이 석산בות이다.

차성가(車城歌)에 “층암절벽(層巖絶壁) 험(險)한길로 석산(石山)을 내려 간다”라고 하여, 석산이 나온다.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수록, 1832년) 방리(坊里)조를 보면, 기장현 남면에 석산방(石山坊)이 보인다. 석산방은 현의 남쪽 13리에 있었다.

○ 야무라기마을

석산마을 위쪽(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뒤쪽에 야마사(耶摩寺) 절터가 있다. 산기슭을 이 곳 방언으로는 라기 또는 래기라고 한다. 야무라기의 야무는 야마사의 야마에서 유래한 것 같다. 야마라기가 야무

라기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사 절터 부근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야무라기로 부른 것 같다. 야무라기 북쪽에 있는 고개가 연곡 고개, 연고개다. 야무라기 동북쪽에서 시랑리의 동암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서엄곡[대매곡]고개다. 야무라기에 있는 우물이 찬새미, 찬샘이다.

○ 아랫마실

석산마을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마을, 하리라고도 부른다. 아랫마실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가 매릿골, 마미골[馬尾谷]이다.

5) 기 타

○ 석산리 동암유적(東岩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장군 일대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실시할 때 석산리 동암마을 북쪽 구릉의 서편 평지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유물산포지 유적을 발견했다.

이 평지는 그 당시 경작지로 곧 개간될 것 같았으며 유물은 평지의 일정부분에서만 채집되었다. 채집된 유물은 도질토기편(陶質土器片) 5점, 와질(瓦質) 토기편 1점, 연질(軟質)토기편 4점이었는데 모두가 작은 파편이어서 기종이나 기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유적에서는 유구(遺構)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물채집량이 소량이었기 때문에 유적성격을 명확하게 해명하기는 곤란했다. 그러나 파상문이 시문된 발형기대편(鉢形器臺片)으로 생각되는 토기와 인화문이 시문된 토기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존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적이 있다면 예상외로 잔존상태가 좋을 가능성도 있다.

10. 시랑리

1) 연 혁

시랑리는 시랑대에서 그 이름이 생겼다. 조선조 영조 9년(1733) 당시 기장현감이었던 권적(權檣)이 원앙대(鴛鴦臺)에 놀러가서 돌벽에 시랑대(侍郎臺)라고 글자를 새긴데서 유래되었다.

옛날의 지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남면 동암리(東巖里) 및 공수동(公須洞)이라는 동리명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기장면 시랑리(侍郎里)로 변경되었다. 공수(公須)마을과 동암(東岩)마을을 합친 법정리이다.

공수마을의 옛이름은 비오개이다. 이를 비옥포(非玉浦), 비옥포(飛玉浦)로 표기하였다. 이곳은 철새인 비오리(紫鴛鴦)가 많이 몰려왔는데서 그 이름이 생겼다. 이 근처에 있는 원앙대(鴛鴦臺)의 이름도 이 비오리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수란 마을명은 옛 이름과는 관련이 없고, 이 마을에 공수전(公須田)이 있었는데서 유래되었다. 공수전은 관청의 영선비, 출장중인 관리의 숙박이나 접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밭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장현조에 공수포는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수라는 이름은 오래 되었다. 결국 이곳은 공수전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라는 마을 이름이 되었다.

2) 공공기관

○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진흥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에 자리잡고 있다. 수산진흥원의 연혁을 보면, 1921년 5월에 수산시험장으로 창설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1949년 4월에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으로 개장하였다. 1955년 3월에 해무청 소속으로 중앙수산시험장이 개편되었다가 1961년 10월에 농림부 중앙수산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1963년 12월에 국립수산진흥원으로 개칭되고 1966년 3월에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으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신설로 국립수산진흥원이 소속되었다. 1999년 1월에 해양수산공무원 교육원을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수산진흥원의 기능으로는 수산진흥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으로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 조사와 보전 연구를 하고 어업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 수산생물의 증양식기술 개발과 수산물 위생 관리 및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수산기술 보급 및 공무원 교육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수산연구 개발 지표로는 수산기술 혁신으로 경쟁력 제고로 산업과 지결되는 실용기술의 중점 개발과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역군 양성한다.

수산연구 개발 방향은 환경 개선과 기초 응용 연구의 조직화 및 기초 응용 연구의 조직화 및 활성화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와 어업 생산성이 높은 수산공학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수산기술 보급 및 공무원 교육은 수산업 관련 정부시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연구 방향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연근해 수역의 환경정화 방안 집중 연구에 목표를 두고 세계적 수산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조직 기구로는 원장 아래 4국 12과 1실 수산연구소 3개소, 내수면연구소 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658명으로 다가오는 2천년대 무한 경쟁속에서 수산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려 근무하고 있다.

○ 수산과학관

수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번지에 국립수산진흥원 내에 자리잡고 있다.

수산과학관은 해양보존 방법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미래해양 개발에 대한 흥미를 갖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 홍보 나아가 수산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진보적 지식을 체득케 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고 수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관람하는 한국 유일의 수산과학관이다.

시설 개요는 부지가 2,800평이며, 건평이 1,371평이고 관람시설은 수산업의 발달 과정, 해양개척의 역사와 미래상, 해양과 수산 등 주제별 전시관과 영상실 그리고 옥외시설로 구성되어 1997년 5월 26일에 개관하였다.

관람시간은 3월에서 10월은 10시부터 17시이고 11월에서 2월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다. 휴관일은 공휴일 다음날과 신정, 설날, 추석 연휴 기간이며, 관람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3) 산 천

○ 공수고개

동암마을 남서쪽에서 공수마을로 가는 넘어 고개로 ‘공숫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랑산(82m)의 북쪽 산기슭을 따라 나 있던 이 고개는 옛날 송정에서 대변을 잇는 해안의 황토길 교통로였으나 지금은 포장도로가 개설 되면서 옛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 깎참고개

공수마을 남서쪽에서 해운대구 송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비포장 공수고개길과 함께 포장되면서 통행이 편리해졌다.

○ 당사고개

공수마을에서 명두산 북동 기슭을 따라 당사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 대넛고개

옛날 동암마을 북쪽에서 연화리로 넘어가던 비포장고개였으나 지금은 잘 포장된 공수고개길 도로에 연결, 옛 모습이 사라졌다.

○ 가불비안바위

동암 서쪽 해안에 있는 작은 여(汝)로 '미역바위'라고도 불리며 생긴 모습이 가부리(가오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가불비안 바위]로 부르게 되었다.

○ 고래 개안골

공수마을 동쪽에 있는 공수개안산의 작은 골짜기

○ 고암산 바위

공수마을 남쪽 야트마한 구릉 위에 있는 바위로 기반암의 나출암이다. 이 바위는 사람이 올라서 디디면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하여 '동두바위'라고도 한다.

○ 공숫골→공수고개

○ 당골

공수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땅골짜기라고 한다.

○ 먹통개안바위

해비갯골 남쪽에 있는 바위로 오징어를 잡아서 여기서 시꺼먼 창자통인 먹통을 떼어낸다고 해서 먹통개안바위로 불리게 되었다.

○ 멩두바윗골

공수마을 서쪽 2개의 바위가 있는 작은 골짜기.

○ 박천개안

공수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인 서뭇개안골과 둥두바위가 있는 고암산 사이의 또다른 작은 골짜기이다.

○ 사느끝안골

공수마을 동남쪽에 있는 웅달진 작은 골짜기.

○ 삼밭골

공수마을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옛날 이 일대는 삼을 재배하는 삼밭으로 되어 있었는데서 삼밭골리라 불리게 되었다.

○ 서뭇개안골

공수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석산골

공수마을 북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학사암(바위)

시랑대 옆에 있는 또 다른 바위. 학사암(學士巖)이란 기장군수였던 홍문관의 교리 손경현이 이 곳에 놀리워서 바위 이름을 학사암이라 명명 한데서 비롯된다.

○ 대바위

용궁사 동쪽 끝 해변의 큰 바위. 예부터 기장 제1의 경승지로서 ‘車城八景’중의 하나이다. ‘시랑대’(侍郎臺)란 조선 영조 9년(1733)에 권적이

기장 현감으로 좌천되어 이곳 경치를 보고 자신의 벼슬이 고려시대 ‘侍郎’이라 하여 암반에 ‘侍郎臺’라 새긴데서 비롯된다.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던 곳으로 이 일대의 절경에 압도되어 ‘차성가’에 “시랑대 높은 바위 건시랑의 유적이다.”란 한시가 있을 정도이다.



대바위 전경

시랑대의 절경을 월천선생(1714~1786)의 사랑대기에 따르면, “대바위는 그 가운데가 큰 집 안방처럼 생겼는데 바닥은 평탄하게 방바닥이 되어 있고, 사오십 명이 앉아도 자리가 남을 만큼 넓다. 대바위의 뒷편은 기암 괴석이 첩첩히 쌓여 마치 긴 칼을 세운 듯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엄청나게 큰 바위 두 개가 맞닿아 그 중간이 벌어 졌는데 돌문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대바위 왼쪽은 축석이 크게 큰 칼처럼 꽂혀 있어 접근 할 수 없다. 오른쪽은 바위가 비스듬히 경사져 되어 있어 겨우 이 곳에서 대바위 까지 내려 갈 수가 있지만 보통 간담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바위는 앞쪽이 탁 끊어져 큰 단애가 되어 있다. 이 단애 위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생겨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아녀자들은 아예 접근을 못한다. 돌문처럼 되어 있는 큰 바위 아래쪽은 커다란 바다 동굴이 있고, 이 동굴은 바다 밑으로 통하여져 그 깊이를 알 수 가 없다.

음침한 냉기가 감도는 이 동굴에 큰 파도가 치면 쿵, 쿵, 우레 소리를

토하면서 물보라가 되어 공중으로 높이 치솟고, 햇빛을 받아 찬란한 칠색 무지개를 수 놓는다. 쏟아진 파도는 돌바닥을 천갈래 만갈래로 솟아 흐르면서 분수가 되어 옥처럼 반짝인다. 앞을 보면 망망한 동해바다가 수평선 너머로 거울처럼 펼쳐 있다. 돛을 단 조각배가 평지를 달리듯 오고 간다.

오색 찬란한 비오리는 쌍쌍이 짝을 지어 파도를 타면서 희롱하고 있다., 아- 눈앞에 펼쳐지는 기괴하고, 만변하는 이 기절을 어이 글로서 표현할 수 있으리.."하면서 이 곳 경승에 흠뻑 취하고 있다.

시랑대는 또한 영검하다하여 삼월과 시월에 용왕제를 지내던 곳으로 날이 저물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시랑산

용궁사 뒤쪽의 산으로 높이는 82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산꼭대기가 둥그스레하고, 산 허리 또한 완만하다. 북쪽을 제외하면 산기슭은 해안의 암초에 이어진다. 동쪽 바닷가에 ‘시랑대’가 자리잡고 있는데서 시랑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시랑산 전경

○ 작은 섬

서룻개안과 박천개안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汝’에 해당된다.

제2편 자치구

○ 장승 개안골

먹통개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승이 서 있었다는데서 장승개안골로 불리게 되었다.

○ 제비섬

벌라 북쪽에 있는 ‘汝’로서 모습이 제비처럼 생겼다해서 제비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 조구덤 바위

공수마을 동쪽 해안에 있는 ‘汝’로 옛날 이곳에 조기가 많이 잡혔다는 데서 조구덤이라 불리게 되었다.

○ 해비깃골

동암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동암선창

동암 마을 앞에 있는 나루터.

○ 고래개안산

공수 동쪽에 있는 낮은 언덕으로 높이는 약20m. 전체적으로 평평하며 기슭은 북동-동-남-남서로 향해 완만하게 해안으로 이어진다.

○ 덧갓산

공수마을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6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종순형으로 산기슭은 가파르다. 해운대구 송정동과 경계를 이루는 이 산은 서쪽에 송정천이 흐르고 있다.

○ 고암산

동부바위가 있는 산.

○ 안산

동암마을 남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5m이다. 능선이 북동에서 남서로 되어 있는 안산은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산기슭이 완만하다. 옛부터 동암의 ‘案山’으로 여겨온데서 안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 멍두산

신암마을의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약 40m. 당사리와 경계를 이루는 멍두산은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산봉우리가 둥그스레하고 산기슭 또한 완만하다. 서쪽 산기슭에는 송정천이 흐르고 있다.

○ 멍두바위

공수마을 서쪽에 있는 2개의 바위.

○ 석산

동암마을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3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산전체가 둥그스레하다.

○ 간징이 바위

조구덤 남쪽에 있는 바위는 옛부터 미역과 홍합의 자연 양식장이자 부근에서 장어가 많이 잡힌 곳으로 이름났었다.

○ 도치섬[바위]

먹통개안 동쪽에 있는 산.

○ 조구-덤[바위]

둥두바위 남쪽에 있는 바위로 옛부터 이 곳에서 조구(‘조기’의 사투리)가 많이 잡히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허리-듬[바위]

공수마을 남쪽에 있는 바위.

○ 흙-짜리 바위

가불비안 남쪽에 있는 바위로 흙이 패여 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 바위섬

공수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나간 해안 앞 바다에 있는 ‘汝’로 공휴일 낚시꾼들이 즐겨찾는 낚시터이다.

○ 큰 섬

수산진흥원의 북동해안 앞바다에 있는 ‘汝’로 공휴일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낚시터이다.

이 섬 앞에는 또다른 ‘汝’인 작은 섬이 있다.

4) 명승고적

○ 시랑대(侍郎臺)

시랑대는 기장읍 시랑리 남쪽 해변암대(岩臺)로 오늘날의 용궁사(龍宮寺) 옆에 있다. 옛부터 기장현의 제일 명승지로 일컬어진 곳이다.

시랑대를 본래는 원망대(鴈鴛臺)라 하였다. 시랑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1733년(영조 9) 계축에 전직이 이조참의(吏曹參議)였던 기장현감 권적(權臈)이 이곳에 놀러와서 자기의 벼슬을 시랑(侍郎)이라 하여 시랑대(侍郎臺)라는 이름을 붙이고 侍郎臺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긴 후로는 시랑대라 하게 되었다.

1894년(고종 31)에는 기장군수였던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 손경연(孫慶鉉)이 이곳에 와서 학사암(學士癌)라 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겼다. 세종 때 집현전에 둔 교리를 학사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랑대 동북쪽에 있는 큰바위를 기우암(祈雨岩)이라 한다. 이 기우암 북쪽에는 해룡단(海龍壇)이라 새긴 글자가 있다.

이러한 변화로 본래의 원양대는 시랑대 북쪽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북쪽에는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이 들어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랑은 고려 관직으로는 각 부의 장관인 상서(尙書) 다음가는 벼슬이다. 그런데 기장현감으로 온 권적(1675~1755)은 안동 권씨로 1713년 증광문과(增廣文科)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가 되었다가 검열(檢閱), 대교(待敎), 봉교(奉敎), 정언을 거쳐 사서(司書), 수찬(修撰), 교리(敎理),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지내고 대사간, 승지, 이조참의가 되었다.

그 이조참의일 때 좌천이 되어 온 것 같다. 그것은 기장읍 동부리의 기장초등학교 앞에 전 이조참의 ‘행 현감 권공 적 청덕선정비’가 1737년에 세워져 현재도 남아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 기장현감일 때 이곳으로 자주 와서 지방 선비와 시를 짓고 한유를 하는 가운데 주위에서 현감이라 하기에는 격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전직 참의라 하기도 곤란해서 고려때의 벼슬 ‘시랑’이 조선 때의 참의에 행당하니 시랑 또는 시랑대라 한 것이라 여겨진다.

권적이 시랑대 바위에 侍郎臺라 쓰고 바위벼랑에 자작시를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謫居猶得近蓬萊(적거유득근봉래)

人自天曹貳席來(인자천조이석래)

三字丹書明翠壁(삼자단서명취벽)

千秋留作侍郎臺(천추류작시랑대)

- 귀양살이를 하는데도 오히려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이 가까와졌으니 사람이 하늘마을에 버금가는 자리로 왔구나

세자를 쓰서 푸른 벽에 밝혔으니

천년토록 시랑대로 남아리라 -

권적의 시 이외도 이 자리에 1894년 홍문관 교리로 있다가 기장군수로 온 엄신영이 아우와 함께 이곳 시랑대에 들러 권적의 시를 보고 바위에 새긴 엄신영 제 우영 차권시랑 차운(嚴信永 弟 宇永 次 權侍郎 次韻)이 있고, 손경현의 시, 그리고 이후서(李厚瑞)의 시들이 바위벼랑에 새겨져 있다.

기장현감으로 좌천되어 왔던 권적은 이후 조정에 다시 불려들여 대사헌, 한성부 좌윤, 호조참판, 경기도관찰사, 한성부 판윤, 호조참판, 경기도관찰사, 한성부 판윤, 형조판서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우빈객(右賓客) 등 여러 요직을 지냈다.

권적으로 해서 시랑대가 된 이 주위는 그 동안 해안경비를 위한 초소와 도로 등의 군사시설 설치과정에서 대부분이 망실되거나 훼손되고 말았다. 빼어난 경관과 유서를 가진 명승지가 이해부족의 손길로 훼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용궁사(龍宮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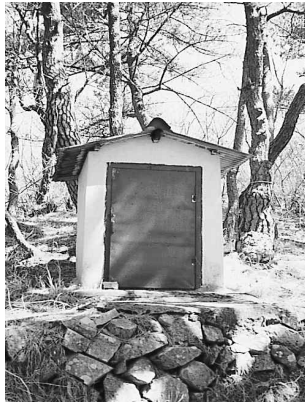
시랑리 416~3번지에 대한불교 태고종의 용궁사가 있다. 동해바다를 향해 경관이 빼어난 반석을 중심으로 세워진 용궁사는 이웃에 역시 바다를 면해 역사적 유서를 가진 시랑대들이 있어 참배객과 관광객이 날로 많아지는 가운데 명성이 나고 있다.

이 사찰을 1935년 창설되었으나 이후 좁은 텃자리이기는 해도 모양새 있게 가람을 배치하여 사찰로서의 경건함을 가지는 동시에 찾아드는 이들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그것은 대웅전을 동쪽 바다를 향한 다포식 팔작지붕의 기와집으로 하고 남쪽 옆에 석조 여래좌상을 모신 감실과 용궁단을 배치하면서 용궁단 바로 옆의 높은 대지에 해수관음입상을 조성한 일들이라 할 수 있다.

5) 민 속

○ 시랑리 동암 골매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 뒤 산록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中原甲乙酉十二月十日丙戌午岾入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산신제당의 크기는 앞면 123cm, 옆면 113cm로써 건평이 0.4평이다.
-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



동암 산신제당

- 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6cm, 세로 122cm)이다. 골매기당사의 크기는 앞면 249cm, 옆면 256cm로써 건평이 1.9평이다. 맞배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8cm, 세로 134cm)이다.
- 좌향 : 산신제당의 좌향은 서서남향이고, 골매기당사의 좌향은 서남향이다.

제2편 자치구

-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산신제당에는 제단이 없고, 골매기당사의 제단은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15cm, 옆면 91cm, 높이 80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골매기당사 안의 왼쪽 마루대공에 성주종이(가로 7cm, 세로 24cm)가 붙어 있고, 왼쪽의 앞구석에 시준단지가 놓여 있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골매기당사 안의 제단 위쪽 벽에 1988년에 나무판으로 만든 “機張邑侍郎里東岩各姓氏別神位“(크기는 가로 155cm, 세로 36cm, 두께 7cm, 기재된 성씨는 仁同張氏를 비롯하여 26성씨임)가 걸려 있다.
- 당산 주위환경 : 산신제당의 주위에는 담장이 없고 소나무가 둘러 있으며, 골매기당사의 주위에는 돌로 된 담장(크기는 앞면 460cm, 옆면 520cm, 높이 150cm, 두께 55cm)이 있고 담장 밖에는 소나무들이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옛날에는 음력 정월 초순에 무당이 대를 잡아 선정하였으나 요사이는 이장과 어촌 계장이 제주가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되 축문이 없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산제 →골매기할배할매제→용신제(우물제)→거릿대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마을의 동쪽 해변도로 위쪽에 세우고 제를 지낼 때 거릿대에 한지로 싼 마른 명태를 대가리가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새끼로 묶어단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이장고 어촌계장을 비롯해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복을 한 뒤 남은 제물을 경로당에 가져가면 노인들이 음복한다.



동암할매제당



동암거릿대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1년간이었으나 요사이는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부락자금과 선주의 기부금으로 하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옛날에는 좋은 미역발을 주었지만 요사이는 없다.
- 특기 사항 : 이 마을에는 제의에 쓸 제물을 만드는 제물당(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블록벽이며 크기는 앞면 578cm, 옆면 337cm로 5.9평)이 있고, 거릿대제단은 블록을 쌓고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앞면 218cm, 옆면 270cm, 높이 53cm, 두께 12cm)안에 만들어 놓은 시멘트제단(앞면 196cm, 옆면 120cm, 높이 20cm, 좌향은 남 남서향)이며, 거릿대의 크기는 나무둘레 16cm, 높이 140cm이고, 거릿대 위에 오리형상의 길이는 33cm이다.

○ 시랑리 공수 할배 ·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당산할아버지당사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의 바다 위 산록에 위치하였고, 산신당사는 당산할아버지당사에서 동북쪽 약 10m지점의 산록에 있으며, 당산 할머니당사는 마을 가운데 위치함.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西紀壹仟九百八拾年庚申參月初拾日丁卯未時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산신당사의 크기는 앞면 150cm, 옆면 209cm로써 건평이 0.95평이다.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54cm, 세로 114cm)이며, 당사 앞에는 돌을 쌓고 시멘트로 마감한 마당(크기는 앞면 150cm, 옆면 140cm, 높이 63cm)이 있다. 당산할아버지당사의 크기는 앞면 245cm, 옆면 279cm로써 건평이 2.07평이다. 슬라브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63cm, 세로 180cm)이며, 당산할머니당사의 크기는 앞면 245cm, 옆면 276cm로써 건평이 2.05평이다. 슬라브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에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61cm, 세로 180cm)이다. 그리고, 당산할아버지당사에는 “公須部落守護神祠堂”이라 쓴 나무 현판(가로 120cm, 세로 17cm, 두께 2.5cm)이 가로로 걸려 있고, 당산할머니당사에도 “公須部落守護神祠堂”이라 쓴 나무 현판(가로 120cm, 세로 17cm, 두께 2.5cm)이 가로로 걸려 있다.

- 당사의 좌향 : 산신당사의 좌향은 동남남향, 당산할아버지당사의 좌향은 남향, 당산할머니 당사의 좌향은 서서남형



공수리 산신제당과 당산신제당

공수리 산신제당의 위패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산신당사의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27cm, 옆면 48cm, 높이 32cm이고, 제단 위에는 촛대 2개와 향로 1개가 있다. 산신당사의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10cm, 옆면 62cm, 높이 61cm이고, 제단 위에는 촛대 2개와 향로 1개가 있다. 당산할머니당사의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09cm, 옆면 60cm, 높이 60cm이고, 제단 위에는 촛대 2개와 향로 1개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세 당사 모두 제단 윗벽에 위패함(프라스틱제품으로 가로 9cm, 세로 25cm)이 붙어 있고, 그 위패함에 지방을 붙여 놓았는데, 산신당사의 지방에는 : “本山神靈之位”, 당산할아버지당사의 지방에는 “古來里中槐神之位”, 당산할머니당사에는 “古來里中稷神之位”라 쓰여 있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산신당사의 왼쪽 벽에는 “慶南東萊郡機張面侍郎里公須部落”이라 쓴 나무판이 걸려 있고,

제2편 자치구

당산할아버지당사의 왼쪽 벽에는 “祠堂改築費據出金名單”(가로 66cm, 세로 97cm)의 액자가 걸려 있고, 오른쪽 벽에는 성주신체(가로 13cm, 세로 24cm의 한지 접은 것)를 붙여 두었다.

- 당산 주위환경 : 산신당사의 주위에는 담장이 없고 소나무 숲이고, 당산할아버지당사의 오른쪽은 돌담이고 앞쪽과 왼쪽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420cm, 옆면 610cm, 높이 148cm, 두께 15cm)에 출입문이 있고 주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으며, 당산할머니당사의 앞쪽에도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255cm, 옆면 307cm, 높이 152cm, 두께 11cm)이 있고 주위에는 민가가 있다.



공수리 할매당산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옛날에는 제의 한 달 전에 골매기할머니의 대를 무당이 잡아 선정하였으나, 요사이에는 이장이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10시경과 6월 14일 밤 10시경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 육고기는 쓰지 않고,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 →당산할아버지제→당산할머니제→용신제(마을 공동우물샘에서)→용왕제(선창 가에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음복하는데, 마을사람들이 다소 꺼려 많이들 먹지 않는다.
- 금기 기간 : 제의 전후 1개월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비’라 하고 동민의 찬조금으로 하며, 약 50~5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사항: 당산(골매기성황)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을 개척조로 할아버지의 성은 장씨, 할머니의 성은 홍씨라 한다.

6) 자연마을

○ 고래개안마을

공수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공수마을 동쪽에는 고래개안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서 고래개안마을이라 부른 것 같다. 마을 이름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 공수마을

시랑리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법정동명인 시랑리의 「시랑(侍郞)」이란 이름은 조선 영조 때 시랑직을 지낸 권적(權臧)에게서 유래된 듯하다. 영조 9년(1733) 시랑 권적이 기장현감으로 좌천되어 와서, 공수(公須)마을 위쪽의 바위 경치를 보고 그 바위 위에 자신의 벼슬인 시랑을 따서 시랑대라 새기고 이를 시제로 삼아 시를 지은 데서 시랑이란 명칭이 생긴 것이다. 지금도 권적이 지은 시가 시랑대에 남아 있다. 차성가(車

城歌)에 “시랑대(侍郎臺) 높은바위 권시랑(權侍郎)의 유적(遺蹟)이라”라고 하여, 시랑대가 나온다.

해운대구 송정동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송정에서 공수마을로 넘어 오는 고개를 ‘간참고개’라 한다. 고개 아래쪽에는 송정천이 흐르고 송정 2호교가 놓여져 있다. 송정해수욕장을 지나 동암마을 쪽으로 가다보면 일출횃집이 나오고, 그 앞에 공수마을 표지판이 연달아 세워져 있다. 해운대구 송정에서 대변으로 가는 도로를 경계로 위쪽은 당사마을, 남서쪽(왼쪽)은 송정, 북동쪽(오른쪽)은 동암, 아래쪽(남쪽)은 바다로 사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 전체가 거의 정남(바다쪽)을 바라보고 앉은 모습이다. 해안을 따라 긴 사형(蛇形)으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안 소나무 숲에 홍씨할매당이 있다. 「공수부락수호신사당」이라고 쓰여 있는 이 사당은 시랑슈퍼 뒤편에 있다. 공수마을 노인정 뒤편 난 길을 따라 가면 마을 남쪽의 등두바위에 장씨할매당과 산신당이 있다. 할매당은 산신당 아래쪽에 있으며 산신당에 비해 조금 큰 편이다. 할매당과 같은 글씨로 「공수부락수호신사당」이라 쓰여 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도시 근교 지역이고 교통·문화·교육 등도 도시풍을 따르면서,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고, 당집도 잘 보존되는 등 민간신앙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당산제와는 별도로 10년에 한번 풍어제를 성대하게 지내기도 한다. 마을에는 동부산농협공수지소가 있고, 2층은 기장읍공수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다.

공수마을의 옛이름은 비옥포(非玉浦, 飛玉浦), 비오포(飛鳥浦), 비오개 등이다. 비옥, 비오라는 이름은 철새인 비오리[紫鷺鷥]가 많이 몰려와서 생긴 것이라고 전한다. 공수마을 동북쪽에 있는 시랑대의 본래 이름인

원앙대도 비오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차성가(車城歌)에 “반포(反哺)하는 저가마귀 날아드니 비오포(飛鳥浦)요”라고 하여, 비오포가 나온다.

공수라는 현재 지명은 옛지명인 비오개와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공수라는 이름은 마을 앞바다가 넓은 마당처럼 동네를 감싸고 있는 넓은 물터인 ‘공수(空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수라는 지명은 이 마을에 있었던 공수전(公須田)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 각 관청의 건물 수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이나 접대 등에 드는 경비를 쓰기 위해서, 주(州)·현(縣)·역(驛)·관(館)에 공수전이란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조선초의 공수전은 지방관청의 운영 경비에 충당되는 토지로 그 수확은 빈객(賓客)의 접대나 기타 잡비에 쓰여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현, 산천조)에 보면, “공수포(公須浦)는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공수마을은 이 공수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남면 동암동과 공수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시랑리가 되었다.

마을 규모는 촌로(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1930년 경에는 15~20가구, 1950년 경에는 50가구 정도였다고 한다. 1995년 마을 조사서에 의하면 187가구였다. 기장의 9대 포구[무지포·이을포·기을포·동백포·공수포·기포·독이포·월래포·화사을포]의 하나라 어업이 발달하고, 특히 미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김·정·이·박·백씨가 마을의 토박이 성씨이다. 반농반어촌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기장읍이지만, 생활권은 송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동암마을

시랑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버스정류장에 동암마을, 다른 정류장

표지판에는 「대변 《동암》 송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마을입구에는 「동해의 명소, 동암횃촌」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국립수산진흥원 입구에도 「시랑리 동암부락」이라고 쓴 표지석이 서 있다.

마을 중간에는 동암부락회관이 있는데, 동암노인정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마을에는 기장군 동암마을 게시판이 서 있다. 동암마을에는 동암어촌계가 있고, 해안가에 동암청년회사무실,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무속·민속지정연수원이 있다. 한국통신 기장전화국 시랑분기국사, 용공사, 국립수산진흥원 등이 이 마을에 있다. 그 밖에 마을 도로가에는 동암숯불갈비, 동암백숙, 동암상회, 동암황토방 등 동암이란 이름을 가진 음식점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있다.

연화봉은 지맥(支脈)이 동서로 뻗어 내려간다. 동쪽 지맥 끝에 동암, 서쪽 지맥 끝에 서암마을이 있다. 동암마을의 옛이름은 대내(臺內)다. 공수마을 동북쪽 바닷가에 있는 시랑대와 오랑대 두 대의 안에 있다 하여 대내라 하였다고 한다. 바닷가 해청횃집 옆에는 높이 2m 정도의 거터대가 세워져 있다. 마을 안 소나무 숲에는 골매기할매사당이 있는데,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낸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남면 동암동과 공수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시랑리가 되었다.

7) 기 타

○ 시랑리 유적(侍郎里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1995년에서 97년 사이 기장군 일대의 문화유적 지표 조사를 하였을 때 시랑리에서 유물들을 채집한 바 있었다.

해운대구의 송정에서 기장 대변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공수고개가 나오는데 공수고개를 넘은 자리에서 어망추(漁網錐) 1점과 무문토기 1점, 그리고 망치돌 1점, 무문토기 파편 2점이 채집되었다. 정확한 위치는

시랑리 595, 392번지와 527, 528번지가 되는데 이곳은 신라시대 패총이나 주거지(住居地) 등 생활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랑리 444, 459, 460번지 일대에서는 다량의 빗살무늬토기 파편과 숫돌 3점을 비롯한 흑요석제박편(黑曜石製剝片) 3점과 망치돌 1점, 물결무늬 아가리를 가진 침선문토기(沈線文土器)조각이 채집되었다.

이 유적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나 현재는 모두가 경작지이다. 유적 퇴적층이 매우 두텁고 유적의 보존상태도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유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늬있는 토기편이 적었다.

시랑리 442번지 일대에서는 융기선문토기편(隆起線文土器片) 2점과 다량의 빗살무늬토기조각과 타제박편석기(打製剝片石器)조각이 채집되었다. 이 유적지는 포함층(包含層) 유적으로 추정되며 신석기시대 전기(前期) 이전에 속하는 융기문토기 중심 유적이 아닌가 한다.

유적이 남아 있는 상태도 좋은 것 같고 분포범위도 넓은 것 같다.

시랑리 공수마을 북쪽 구릉이 완만하게 연결되는 자리에는 유물산포지(遺物散布址) 유적이 있었다. 현재는 계단식 밭이 경작되고 있다. 이곳에서 채집된 유물은 무문토기조각과 도질토기조각이었다. 유구(遺構)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무문토기시대유적과 삼국시대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11. 신천리

1) 연 혁

옛 이름은 쇠부리이다. 그러나 쇠부리마을은 지금의 신천부락은 아니고, 동쪽고개 넘어 죽성리로 가는 길아래가 되는 북쪽 도로가에 돌담이 있는

곳이다. 현재의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km로 지점이 되는데 이곳을 담안 밭이라고 부르고 있다. 돌담은 그 당시 마을이 있었다는 뚜렷한 흔적으로 집은 없고 담만 남아있는 것이다.

신천리란 명칭은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신천리란 행정명칭이 등장한다. 그런데 차성가에 「백석청광(白石淸光) 맑은 물이 비가 개니 신천(新川)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신천(新川)은 일찍부터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쇠부리터”라고 불리우는 곳은 전국적으로는 여러 곳이 있다. 옛날 철(鐵)을 생산하여 이를 정련하였던 곳을 쇠부리터라 하였다. 곳에 따라서는 두두리터라고도 하고, 달천(達川), 모화(毛火)라 한역(漢譯)한 지명도 있다. 이 신천리의 쇠부리터의 정확한 지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쇠를 채굴한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명백하지 않다. 남쪽 산의 계곡(南山烽火臺)의 북쪽산 기슭을 솟골이라 하고 금곡(金谷)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 솟골의 어느 지점인 듯 싶다. 또 북쪽에 있는 산을 모산(毛山·털음메)이라 하였으니 이곳 근처에도 원철(原鐵)을 채굴하였을 것 같다. 임진왜란으로 이곳 쇠부리터는 폐지가 되자 사람들은 흩어졌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신천리에 있는 작은 연못을 매몰하고 순흥(順興) 안(安)씨일가가 처음으로 정착하였다고 한다.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새마을이라고 부르고 신리(新里)라 하였다. 그후 치내(聚川)에 마을이 생겨 치내라 하였다. 또 치내를 치천(治川)이라 하였다. 청강천(淸江川)이 이곳에서 범람하므로 제방(堤防)을 쌓았으며 제방을 쌓아서 범람하는 내(川)을 고쳤대[治]는 뜻으로 고친내[治川]라 하였던 것이다.

기장군 새청사가 신천리 1번지에 들어서 2000년 2월 14일 개청식을 가졌다.

2) 공공기관

○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기장군청의 연혁을 보면, 505년(신라, 지증왕 6)에 감화양곡현이라 불렀다. 757년(경덕왕 16)에 기장현으로 개정하였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영동도의 소관으로 경주목, 양주군의 영현이 되었고 1018년(현종 9)에 울주군의 영현이 되고 별호를 차성이라 하였다.

1394년(조선, 태조 3)에 전국을 8도로 개편시 경상도 기장현으로 존속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시 동래부의 기장군으로 개명되었다. 1914년에 기장군이 폐지되고 동래군에 속하였다. 1973년에 동래군이 폐지되고 양산군에 병합되고, 1980년에 기장면이 기장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에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기장군이 설치되었다.

기장군의 행정구역은 2읍 3면으로 법정리 62리, 행정리 125리, 66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17.42km²이고 인구수는 74,555명이다.

기장군청의 주요 업무로는 예산편성, 정보통신, 실업대책, 관광개발, 청소년 문제, 부동산 관리, 세무관리, 재산관리, 가정복지, 환경관리, 공원 녹지관리, 농촌개발, 수산증식, 도시개발, 교통행정, 농작물 지도 등 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 조직 기구로는 군수 아래 부군수 1명에 1실 10과 58담당,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24명으로 군청 행정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 기장군보건소

기장군보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기장군보건소의 연혁을 보면, 1973년 부산시 동래구 소재 구 동래

군청사에서 양산군보건소 동부지소로 발족하였다. 1978년 기장읍 대라리 소재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 양산군보건소 동부지소로 이전하였다.

1995년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로 직제 개편되어 기장읍 동부리 155-4번지에 임대 건물에 보건소 개소를 하였다. 1999년 3월에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다.

기장보건소의 목적은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적 1차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양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한다. 청사의 대지 면적은 3,450㎡이고 건물 면적은 2,082.57㎡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의 구조이고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등의 시설이 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로는 1차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진료(일반진료, 치과, 한방진료) 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영양개선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행정 조직 기구로는 소장 밑에 1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기관으로 4개 보건지소 및 2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38명으로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3) 산 천

○ 꼭개 고개

치내 북쪽에서 일광면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 꼭개산

꼭개에 있는 산.

○ 당산

신천 북쪽에 있는 산으로 산 정상에 신천리 할머니당산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매년 1회씩 음력 정월 보름날 밤 10~12시 사이에 제사를 지낸다.

○ 담안들

신천 동쪽에 있는 들.

○ 대밭골

치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대나무 밭이 있었다는데서 대밭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 대밭골 못

대밭골에 있는 못.

○ 덕발 고개

신천 서쪽에서 청강리 덕발로 넘어가는 고개.

○ 마장태(버덩)

치내 남서쪽에 있는 버덩으로 옛날 이 곳에서 말을 타고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마장태들

마장태에 있는 들.

○ 말-몰리골

치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제2편 자치구

○ 배양숫들

신천 북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뱀혈(穴)의 명당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배양숫들보

배양숫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복걸들

신천 북쪽에 있는 들판.

○ 복걸들 뚝

복걸들에 있는 뚝.

○ 뺨덕갯산

신천 남동쪽에 있는 산. 구릉성 산지로 산봉우리가 편편하다.

○ 속골

치내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집너매 고개

신천 동쪽에서 죽성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포장된 도로가 달리고 있다.

○ 집너맷들

신천 동쪽에 있는 들로서 집너매 고개 아래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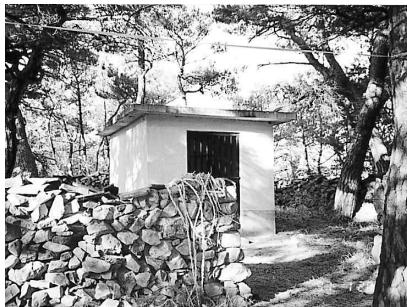
○ 치내들

치내 앞에 있는 들.

4) 민 속

○ 신천리 할머니 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북쪽 작은 산의 정상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0cm, 옆면 266cm로써 건평이 1.85평이다. 슬라브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쇠살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93cm, 세로 143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95cm, 옆면 78cm, 높이 32cm이고, 제단 위 112cm 높이에 대나무 햇대가 가로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창호지 네 장이 걸려 있다.



신천리 할매당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돌 담장(크기는 앞면 890cm,

제2편 자치구

옆면 900cm, 높이 90cm 기단폭 60cm)이 있고, 담장 안에 흉고둘레 176cm · 105cm · 225cm · 115cm나 되는 소나무 4 그루가 있으며, 담장 밖에는 소나무 숲이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만 모시는 이’라 칭하고, 정월 초에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이장이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밤 10-12시 사이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육고기는 제물로 쓰지 않으며,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당산할매제→우물제(용왕제)→거릿대 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거릿대제단(마을에서 도로를 건너 동북 약 50m의 개울둑에 시멘트와 블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제단은 앞면 115cm, 옆면 80cm, 높이 34cm이며, 제단 가에는 동동남쪽을 제외하고 ㄷ으로 블록을 15cm 높이로 쌓았음.)에 소나무를 가지채 꺾어 세우고 그 중간에 마른 명태를 원세끼로 묶는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만 모신 이의 집에서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제관은 약 3개월간 길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망갓돈’이라 칭하고, 이장이 예산을 세워 각가정에 할당하는데, 총경비는 5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20만원을 수고비로 준다.

5) 자연마을

○ 신천마을

기장군청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죽성리로 가다보면 나타나는 마을이다. 도로가에 신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청강 《신천》 죽성」이라고 쓰여져 있다. 버스정류장 앞쪽에는 신천상회가 있고, 신천부락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신천의 옛이름은 쇠부리다. 쇠부리마을은 지금의 신천마을이 아니고, 동쪽 고개를 넘어 죽성리로 가는 길 아래가 되는 북쪽 도로가에 돌담이 있는 곳이라 한다. 지금의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km되는 지점으로 담안밭이라 부른다. 돌담은 당시 마을이 있었던 증거로 집은 없고 담만 남아 있다. 쇠부리라는 이름에서 이 곳에도 철을 생산하여 정련하는 쇠부리터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쇠부리터가 폐지되자 사람들이 흩어져서, 쇠부리마을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신천리에 있는 작은 연못을 메운 후 순흥 안씨가 정주하면서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서 새마실, 새마슬, 신리(新里)라 불렀다. 신리마을이 형성된 후 치내마을이 생겼다. 지금의 신천(新川)마을은 신리의 ‘신’자와 치천의 ‘천’자를 따서 신리라 부른 것이다. 차성가(車城歌)에 “백석(白石)청강(淸江) 맑은물이 비가개니 신천(新川)이라”라고 하여, 신천이 나온다.

신천마을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웃각단, 아랫각단으로 나뉜다. 웃각단에는 마을회관인 신천회관이 있다. 아랫각단에는 기장군수가 지정한 신천공동정호가 있다. 공동정호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서, 이 옆에는 공동빨래터도 마련되어 있다. 아랫각단 안쪽에는 순흥안씨 재실이 있다.

신천리 도로가에는 남산봉수대 입구라고 쓰여진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신천동 일부가 동래군 기장면 신천리가 되었다. 1930년 10월 실시한 국세(國勢)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편찬된 《조선의 성(朝鮮の姓)》(조선총독부, 1936년)에 의하면, 당시 동래군 기장면 신천리에는 순흥 안씨 22세대의 동족마을이 있었다. 신리가 순흥 안씨 집성촌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천동 앞에는 둔전평(屯田坪)이라는 들과, 복양보(伏羊洑)라는 보가 있었다.

○ 치내마을

신천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에 보면,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신천동 서북에 있는 내 이름[川名]이 치내[치천, 雉川]이다. 치내[치천]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서 치내마을이라 불렀다. 치내는 취천(聚川)이라고 부른다. 치내를 한자로 달리 표기하기도 한다. 청강천이 이 곳에서 범람하므로 제방을 쌓아서 범람하는 내를 고쳤다는 뜻으로 다스릴 치(治), 내 천(川)자를 써서 치천(治川)이라 한다는 것이다. 치내 앞에 있는 들이 치냇들이다.

12. 연화리

1) 연 혁

신암(新岩)마을과 서암(西岩)마을을 합쳐 연화리라는 법정리를 형성하고 있다. 연화리는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동면 연화동(蓮花洞)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되었다가,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처음으로 연화리 변경되었다.

연화리는 마을 뒷산이 되는 연화봉(蓮花峯)에서 유래되었다. 연화봉은 그 모습이 연꽃처럼 생겼다가보다 기장 고을을 옥녀직금(玉女織錦)이라는

풍수설에 의하여 풀이하여 연꽃무늬의 비단폭에 해당되는 산봉우리라는 뜻이 적절하다. 옛날은 정식 동리이름은 없었고 기장현 읍내면 무지포(無知浦) 등으로 불리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산 천

○ 남치곡 고개

서암마을 남서쪽에서 석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연화봉의 남쪽 산허리에 해당된다.

○ 연곡고개

연화리 서쪽에서 청강리와 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연화봉의 북쪽 산허리에 해당된다.

○ 금정골

신암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연화봉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계곡. 금정골이란 이 골짜기에 금점(金店)이 있었다는데서 비롯된다.

○ 연화봉

서암마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49.7m이다. 석산리와 경계를 이루는 연화봉은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전체가 둥그스레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연화봉이란 산의 모습이 연꽃(蓮花)처럼 생겼다는데서 비롯된다. 즉 옛날 기장고을의 형국(形局)을 말할 때 ‘王女織錦’형이라 하고, 이러한 형국이 연화봉에 있어서 연꽃 무늬의 비단 폭에 해당되는 산봉우리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 장배기산

큰 뱅전산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0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전체적으로 둥그스레하다.

○ 큰 뱅전산

신암마을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88.6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산봉우리 일대가 넓고 평평하다는데서 큰 뱅전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 큰 등걸산

큰 뱅전산과 장배기산 사이에 있는 구릉성 산지로 높이는 78.2m이다.

○ 까마구 똥눈 바위

죽도 남쪽 끝에 있는 바위로 모습이 까마구(‘까마귀’의 사투리)눈처럼 생겼다는데서 비롯된다.

○ 비둘기 돌 바위

서암마을 남동쪽에 있는 바위로 옛부터 산비둘기가 많이 서식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뿔라돌(바위)

신암마을과 서암마을 사이의 해안에 있는 ‘汝’로 이곳에서 뿔라기(‘볼락’의 사투리)가 많이 잡혔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휴일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볼락 낚시터이다.

○ 삼도바위

죽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m 해상에 있는 바위섬으로 2개의 큰 ‘汝’로 이루어져 있다. 갯바위 낚시터로 공휴일 많은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

○ 줄바우

신암마을 앞 바다에 줄지어 있는 갯바위로 ‘汝’에 해당된다.

○ 쿵키바위

서암마을 남동쪽에 있는 큰개안 남쪽의 갯바위로 큰 파도가 칠 때면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 하여 쿵기바위로 불리게 되었다.

○ 큰개안 바위

서암마을 남동쪽에 있는 큰개 안쪽의 바위.

○ 해다리 뜸바위

서암마을 남쪽에 있는 바위. 옛날 이곳에서 해다리(‘해달’의 사투리)를 잡았다하여 해다리 뜸바위로 불리게 되었다.

○ 서암못

서암마을 서쪽에 있는 소류지로서 연화봉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계곡의 중류에 독을 막아 만든 못이다.

○ 죽도

신암 마을 앞 바다 200m 거리에 있는 섬으로 옛부터 기장의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장현읍지》에는 명승지나 고적지라기 보다 차성지방의 유일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청에서 남쪽 7리에 있는 무지포 앞바다에 있으며, 생긴 모양이 거북이 물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섬의 길이가 40척이고 넓이는 20척인데 섬 안에 대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근래에는 대밭은 별로 없고 동백나무가 울창하게 자생하고 있어 동백섬이라고 불리고 있다. 옛부터 명승지로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광복

후에 개인 소유지가 되어 철조망이 쳐 있다. 섬 안에는 암자가 있었는데 약 10여년 전에 암자를 헐어버리고 그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외부인의



죽도 전경

접근을 금하고 있다. 차성가에 “죽도에 우는 대로 죽지사 노래던가”라 하여 “건곤(乾坤)의 不老月長在하니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로구나 어히요 이히요 이히 하야 一心淸念은 극락나무아미상이로구나 야루느니 나야 루나”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은 섬은 대나무숲이 우거진데다 그 속에 암자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섬은 또한 파도가 곧 덮쳐버릴 듯한 낮고 작은 섬인데도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기이한 섬이기도 하다. 옛부터 대숲과 동백숲으로 우거진 작은 바위 섬 속의 암자에 머물면서 달빛이 섬바람에 살랑거리는 대나무잎 소리와 비를 보고 동해 바다 가운데 있는 모습이야 말로 ‘竹島夜雨’의 절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옛날 기장 현감 尹學東이 죽도와 관련하여 지은 시가 《읍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해변의 위험한 종적에 병까지 겹쳤으니 다락집 창가에는 선달이 저물어 겨우 문을 열었도다. 밀물이 일고 있는 죽도에는 바다 바람이 급히 몰아치고, 안개 걷힌 봉대산에 달빛이 섬섬하고나,

저녁을 알리는 두 줄기 봉화는 마을을 밝게 하고, 공진삼각은 꿈속에도 뽕죽하고나, 산봉우리 구름은 얼은 강이 되고저 사라져 가고, 근심스런 마음은 모진 추위에 덜고, 세밀은 몹시도 출구나.’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장현조에 ‘無只浦島’는 현이 있는 곳에는 남쪽 4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과연 무지포섬이 있었는지 그 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는데다 다른 《읍지》에도 무지포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죽도’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에 붙여졌을 것이다. 옛날 죽도에 옥녀당이 있어서 정월 초하루, 육월 초하루, 시월 초하루엔 마을에서 당제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민 속

○ 연화리 신암 고사당

- 당산 소재지 : 고사당은 마을에서 북동쪽 약 100m지점의 산 아래에 있고, 죽도 안에 있는 당사는 섬의 왼쪽 해변 가까이에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丁巳年 9月.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고사당의 크기는 앞면 278cm, 옆면 253cm로써 건평이 2.1평이다. 슬라브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녹색타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0cm, 세로 166cm)이며, 죽도 안에 있는 당사의 크기는 앞면 214cm, 옆면 218cm로써 건평이 1.4평이다. 슬라브 위에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49cm)이다.
- 당사의 좌향 : 고사당의 좌향은 동남남향이고 죽도 안의 당사의 좌향은 북북동향이다.

제2편 자치구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고사당의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40cm, 옆면 66cm, 높이 93cm, 높이 93cm이고, 제단 위 위패의 오른쪽에 “丁巳九月日重建時募椽人”이라는 나무판(크기는 가로 55cm, 세로 27cm, 두께 2.3cm)이 얹혀 있다. 죽도 안의 당사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80cm, 옆면 68cm, 높이 77cm이다.



연화리 신암 고사당



연화리 신암 고사당의 위패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고사당에는 “告祀堂神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8.3cm, 세로 40cm, 두께 2.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고사당 안의 제단 위에 있는 “丁巳九月日重建時募椽人”이라는 나무판에는 金基魯외 36명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 당산 주위환경 : 고사당은 바위 위에 세워져 있고, 주위에는 블록을 쌓은 담장(크기는 앞면 690cm, 옆면 700cm, 높이 116cm, 두께 15.5cm)이 있고 담장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다. 죽도 안의 당사에는 담장이 없고 주위에는 사철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히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연말에 무당이 대를

잡아 선정했으나, 요사이느 마을 노인층의 연령순으로 하되 부정이 있으면 건너 뛰어 한다.



신암죽도 당산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 6월 1일 밤 자정 · 10월 1일 밤 자정이며, 1년에 3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골매기할배할매제→장승제→죽도 당산제→샘제(용왕제)→목신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마을회관에서 음복을 한다.
- 금기 기간 : 6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특기 사항 : 산신제단은 고사당 왼쪽에 있으며, 크기가 앞면 199cm, 옆면 223cm, 높이 38cm의 시멘트 바닥 위에, 앞면 110cm, 옆면 80cm, 높이 23cm로써 좌향 동남향의 제단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으며, 제단 왼쪽에는 흉고둘레 220cm의 소나무가 있다. 목신제단은 마을에서 서남쪽 담벽 사이에 있고, 앞면 408cm, 옆면

제2편 자치구

133cm, 높이 56cm로써 좌향 동남향의 제단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으며, 제단 서북쪽에는 흉고둘레 144cm의 소나무가 있다. 그리고, 장승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좌우에 서 있는데, 좌측에 지하여장군(나무 둘레 36cm, 높이 118cm) 우측에 천하대장군(나무 둘레 40cm, 높이 116cm)이 서 있다.

○ 연화리 서암 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의 서서북쪽, 공수에서 대변 가는 도로 위쪽 산기슭에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연화리 서암 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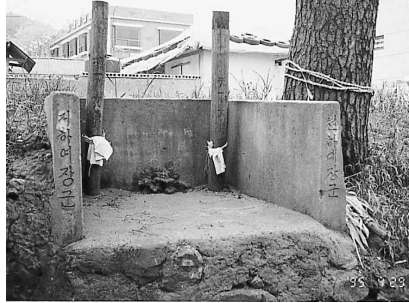
연화리 서암 거릿대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49cm, 옆면 280cm로써 건평이 2.1평이다. 슬라브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녹색타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3cm, 세로 171cm)이다.
- 당사의 좌향 : 동남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10cm, 옆면 87cm, 높이 86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告祀堂神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9cm, 세로 40cm, 두께 2.3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사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돌담장(크기는 앞면 476cm, 옆면 439cm, 높이 178cm, 두께 60cm)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제의 1주일 전에 점 바치가 대를 잡아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옛날에는 음력 정월 14일 밤 · 유월 그믐 밤 · 시월 1일 밤이었으나 요사이는 음력 정월 14일 밤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산신제물에는 쇠고기 산적 · 익힌 쇠혀 · 과실 · 솔밥을 쓰고, 골매기 제물에는 대우 · 나무새 · 메밥 · 과실을 쓰되 튀김은 쓰지 않는다.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골매기할배할매제→거릿대장군제→장승제→용왕제(우물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세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주 집에서 음복을 하되, 부정이 없는 사람만 참여한다.
- 금기 기간 : 1년간 마을의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돈’이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5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연화리 서암 장승

- 특기 사항 : 산신제단은 고사당의 오른쪽 돌담 너머에 있는 약 200여년 된 소나무 밑에 돌과 시멘트로 만든 제단(크기는 앞면 138cm, 옆면 145cm, 높이 87cm)이고, 거릿대제단은 뒷면에 블록을 쌓고 시멘트로 마감한 한면의 뒷벽(길이 120cm, 높이 62cm, 두께 17cm) 앞에 만들어 놓은 시멘트제단(앞면 116cm, 옆면 109cm, 높이 5cm, 좌향은 동남향)이며, 거릿대의 크기는 나무둘레 31cm, 높이 123cm이고, 거릿대 위의 오리형상의 길이는 40cm이다. 그리고, 장승제단은 코마라공장 뒤편에 있는데, 블록으로써 □형으로 쌓고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옆면 134cm, 뒷면 140cm, 높이 60cm, 두께 12cm) 안 오른쪽모서리에 천하대장군(크기는 장승둘레 39cm, 높이 115cm) 왼쪽모서리에 지하여장군(크기는 장승둘레 35cm, 높이 112cm)이 서 있고, 제단은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앞면 130cm, 옆면 130cm, 높이 60cm이며, 담장 밖 오른쪽에 흉고둘레 164cm의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4) 자연마을

○ 신암마을

연화리의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 있다. 송정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해변쪽으로 가다가 나오는 서암마을 쪽의 진입로 입구에는 「연화리횃촌」이라고 쓴 큰 알림판이 서 있는데, 연화리횃촌이 기장군 지정 먹거리마을임을 알리고 있다. 한편 해변리에서 시랑리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만 따라가면 도로가에 「연화리 신암마을」이라고 쓴 표지석이 나타난다. 여기에도 「연화리횃촌」이라고 쓴 알림판이 서 있다. 도로가에 있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는 연화리라고 쓰고 있다. 이 표지석을 따라 가면 마을이 나타난다.

진입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큰 소나무가 나타나고 그 아래에 천하대장군이라 쓰여진 목장승이, 맞은편에 지하여장군이라고 쓰여진 장승이 서 있다. 또한 마을 안에는 당산나무와 당집이 비취모텔 뒤편에 있다. 일년에 세 번 음력 1월 15일, 6월 1일, 10월 1일 오전 10시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신암마을 해안가에는 울산해양경찰서 신암출입항신고소가 있고, 그 앞에 연화리 마을회관이 있다. 마을 앞에는 죽도라는 섬이 있다. 이 섬에는 박동명별장이라고 알려진 개인 별장이 들어서 있다. 해안가에는 「○○엄마, ○○아줌마」라는 간판을 단 작은 활어횃집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다. 그 외 연화횃집, 연화노래연습장 등 연화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들이 많다. 「연화리횃촌」이란 알림판처럼 연화리의 대표적인 횃촌마을이다.

신암의 옛이름은 무재다. 『기장현읍지』에는 이 곳을 무지포(無知浦), 무차포(武次浦)라 적고 있다. 지금의 해변항까지를 포함하여 무지포라 불렀는데, 기장에서 가장 큰 포구다. 이 곳은 옛부터 수군영이 있는 변방의 요충지였다. 옛이름인 무재에서 무는 물의 고어이고, 재는 잣이라고도

부르는데 성(城)의 고어이다. 따라서 무재 즉, 물재는 수군영을 뜻하는 수성(水城)의 의미다. 무지포는 기장의 9대 포구[무지포·이을포·기을포·동백포·공수포·기포·독이포·월래포·화사을포]의 하나이다.

신암의 신은 새롭다는 뜻으로 해뜨는 곳, 동쪽의 의미다. 암은 바오의 와음(訃音)으로 보고 있다. 바오는 영의 옛말이다. 따라서 신암은 원래는 새바오 즉, 동영(東營)을 의미한다. 무지포에 있는 수군영을 새바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잘못 새바우로 발음하고,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신암(新岩)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신암을 신촌(新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차성가(車城歌)에 “신암(新岩)의 배를끌러 여리(余里)로 흘러저어”라고 하여, 신암이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신암동(新巖洞)에는 19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3~4칸 집이었다. 19호 가운데 김일단(金一丹) 집이 초가 5칸으로 가장 크다. 5호가 초가 4칸 집이다. 김씨(5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이씨(4호)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신암동·서암동·무양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연화리가 되었다.

○ 서암마을

대변향에서 국립수산물진흥원 방면으로 조그만 가면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 신암마을이고, 그 옆 동네가 서암마을이다. 서암마을 입구에는 「서암횃촌」이라는 알림판이 서 있다. 또한 서암마을이 금정세무서장이 지정한 「성실납세 시범마을」임을 알리고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둥근 선창이 나오는데, 그 앞에 1m 남짓 높이의 거터대가 세워져 있다. 마을에는 장승도 세워져 있다. 마을의 한 자연산 헛집 옆으로 난 골목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큰 소나무가 나타나고, 그 아래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 쓰여진 작은 목장승이 있다.

소나무에 금줄이 쳐져 있어 이 곳이 신성시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서암부락회관이 있고, 회관은 경로당과 서암부락어촌계 사무소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서암횃집 등 서암이란 이름이 붙은 상호들이 있다. 시랑리와 경계 지점에 오랑대공원이 들어서 있다.

서암마을의 옛이름은 여리개[餘里浦, 餘爾浦]다. 차성가(車城歌)에 “신암(新岩)의 배를끌러 여리(余里)로 흘러저어”라고 하여, 여리(개)가 나온다. ‘여’자는 남을 ‘여’자이지만, 남어[넘어]의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리[이]포는 남[너머]+리[이]+개가 합성된 남이개라는 옛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한다. 남이개는 언덕 너머에 있는 포구라는 뜻의 넘어개를 의미한다. 신암마을에서 보면 서암마을은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서암이라는 이름은 신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화봉은 지맥(支脈)이 동서로 뻗어 내려간다. 동쪽 지맥 끝에 동암, 서쪽 지맥 끝에 서암마을이 있다. 서암은 동암과 반대 방향에 있고, 신암의 옆 동네에 있으므로 서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서암동(西巖洞)에는 12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12호 가운데 최창호(崔昌浩) 집이 초가 5칸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김경호(金景好)집으로 초가 4칸이다. 12호 가운데 최씨(5호)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이 김씨(3호)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신암동·서암동·무양동 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연화리가 되었다. 서암에는 서암못, 서암지라 불리는 못이 있다. 서암 서남쪽에서 석산리로 가는 고개가 남치곡고개다.

5) 기 타

○ 연화리 신암유적(新岩遺蹟)

연화리의 신암마을에서 대변리 방면 도로 0.6km 지점에 동쪽으로 뻗은 얇은 구렁이 있다. 이 구렁 정상부는 계단식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밭둑에서 1995년부터 97년 사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장군 지역 지표조사를 할 당시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구렁의 끝부분으로 대변리로 가는 도로 양 옆 밭에서도 도질토기 조각이 널리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유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신암마을은 옛부터 기장 마을에서는 가장 큰 포구였다. 이 곳을 옛날에는 ‘무재’라 했는데 ‘물재’인 수성(水城)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밭과 도로와 크고 작은 건축공사로 유적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채집된 도질토기의 타날수법(打捺手法)과 기형(器型)으로 보아 4~5세기대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와조각은 조선시대의 유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유적과 조선시대 유적이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 읍파정터(挹波亭址)

연화리 서암마을 동쪽에 있는 적선대(謫仙臺)를 읍파정터라 일컬어지고 있다. 적선대란 신선이 죄를 짓고 귀양와서 있었던 곳이어서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전설 그대로 옛날에는 선경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는 해송이 우거져 해뜨는 경관이 신비로울 정도로 장관이어서 원왕대·삼성대·황학대와 더불어 4대(大) 명승지로 꼽혔다.

읍파정이란 이 적선대에 정자가 있어 그 정자에서 동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가 허리를 굽혀 읍(挹)하면서 밀려오는 것 같다하여 읍파정이란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1800년 경에 지어졌으리라고 보는 「차성가(車城歌)」에 “적선대 있건마는
기경선(騎鯨仙) 어디간고 / 죽도에 우는 새는 죽지사(竹枝詞) 노래든가 /
읍과정(挹波亭) 잠간 올라 선두포(船頭浦) 굽어보니 / 청작황룡(靑雀黃
龍)은 전병선(戰兵船)이 둥실 띄고/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당시
읍과정이란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3. 죽성리

1) 연 혁

원죽(元竹) 1·2구, 두호(豆湖), 월전(月田)마을을 합쳐서 죽성리(竹城里)라는 법정리가 되었다. 이전의 동리명을 알 수 없으나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의하면, 읍내면 두호동(豆湖洞)의 명칭이 나타난다. 이 두호동이 1914년 3월 1일 군·면 개편 때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竹城里)로 개편되었다.

죽성리라는 《기장현읍지》 고적조에 죽성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성의 사방(四方)에 대(竹)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니 대가 있는 성(城)이라 하여 죽성이라 한 것 같다. 이 지역은 두모포진성의 석축성(石築城)이 있고, 또 임진왜란 때의 왜성(倭城)이 있다.

두호는 두모포진성이 존재하였던 곳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의하면, 두모포는 현에서 동쪽 5리에 있고 수군 만호(萬戶)가 수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도 두모포영은 수군만호가 있고 정덕(正德)경오(庚午), 즉 중종 5년(1510)에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기장현이 폐현이 되자 두모포 만호영을 부산성(釜山城)으로 옮겨 버렸다. 부산성으로 옮겨 가면서 그 이름까지도 그대로 가져가서 부산성에 있는 두모포진영(豆毛浦鎭營)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곳은

진영(鎭營)과 함께 동리 이름까지도 잃어버렸다. 식자들이 이 곳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던 두호를 마을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산 천

○ 꼭개고개

드매에서 대변리로 넘어가는 고개. 대변고개라 불리기도 한다.

○ 범의골

죽성리에 있는 골짜기.

○ 성밑들

죽성 밑에 있는 들로서 지금은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 진너맷들

죽성 너머에 있는 들.

○ 태산들

봉대산 동쪽 기슭 아래에 있는 들.

○ 부흥대산

봉대산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43.7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봉우리가 둥그스레하다. 동쪽에는 죽성산이 있고 북쪽 산기슭 아래에는 신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 강개골 바위.

죽성리에 있는 바위

○ 기뭇섬 바위

죽성리 앞 바다에 있는 갯바위.

○ 매방우

두호마을에 있는 큰 바위로 매처럼 생겼다하여 매방우라 불리고 있으며, 이 바위에 조선왕조 고종 20년(1894년) 어사 이도재가 ‘御土岩’이란 글자를 새겨 넣은데서 어사암이라 부르기도 한다.

○ 어사암 바위

두호마을 남쪽에 있는 매바위의 또다른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즉, 1894년(고종 20)에 기장현 독이방에 있는 ‘海倉’에서(지금의 문동리) 곡물을 가득 실은 조운선이 해운대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곳 앞 바다까지 와서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매바위에 부딪쳐서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곳 어촌 주민들은 그 난파선에서 흩어진 벼섬을 건져서는 관가에 반납하지 않고 숨겨놓았다. 이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갯마을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기장 관아에 붙잡혀 가서 뇌옥에 구금되었고, 관아의 형방과 형졸들은 마을을 수색하여 곡식을 모두 수탈하여 갔다.

뇌옥에 갇힌 주민들은 형틀에 매달려 개처럼 매질을 당하고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생기고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되고 장독에 고통을 받는 처절한 가혹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도난사건과 가혹한 고문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도재(李道宰)를 어사로 기장현에 파견하였다.

어사 이도재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갯마을 주민들은 기장관기로 있는 월매를 시켜 갯마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관아에서 가혹

행위로 도난량을 많은 것처럼 꾸며 수탈하려 하였다는 그간의 처사를 진정하게 하였다. 월매라는 열아홉살의 기생은 온갖 애교로서 어사 이도재로 하여금 주민편을 들도록 설득하였다. 이를테면 주민들은 미인계를 썼던 것이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이곳 매바위에 어사를 따라온 월매는 매바위에서 춤과 노래와 교태로 어사를 즐겁게 하였다.

이 곳의 절경과 월매의 교태로 흥겨워진 어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텅 비었으니 보이는 것이 없고, 사나운 바다는 시객을 위해 춤을 추는데 저 멀리 뚝단배는 언제 무사히 돌아 오려나…”글을 짓고 매바위에 ‘御土岩’이라는 글씨 새겨 놓으니 매바위는 어사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덕택으로 주민들은 추상 같은 호령과 조사를 면하고 무사하게 되었다.

그후 세월이 흘러 그 ‘刻字’가 마멸되자 일제강점기 때 이곳 주민들은 그 당시의 이도재 어사의 은공과 기생월매의 인정을 잊지 못하여 어사 암에 ‘李道宰’라는 성명과 ‘妓 月每’라는 세글자도 함께 새기게 하였다.

월매는 가정부인이 되어 가정이 있었는지라 본명 ‘月梅’라고 하지 않고 ‘月每’라고 새겼다. 그리고 이를 고맙게 여긴 주민들은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은 동부리에 보존되어 있다.

어사 이도재는 그 후덕한 인품 때문에 한말에 학부대신, 외무대신, 내무대신을 역임하고 시종원경이 되었으니 서기 1909년 62세로 별세하였다. 호를 ‘心齋’라 하였고 시호는 ‘文貞公’이다.

○ 범-방아바위

범의골에 있는 바위.

○ 달밭개(월전포)

원죽마을 앞 포구를 달밭개라고 불렀다. ‘달’은 높다. 또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남산(南山) 기슭의 언덕산을 개간하여 생긴 마을로서,

경작지가 높은 곳에 있는 밭, 또는 산에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달밭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달 ‘월’자를 따서 월전이 되었다고 한다. 달밭개를 월전포(月田浦)라고 부른다. 차성가(車城歌)에 “월전포(月田浦) 잠긴교어(鮫魚) 직금성(織錦聲)이 분명(分明)하다”라고 하여, 월전포가 나온다.

○ 꼭두방아섬

드매 앞에 있는 갯바위섬.

○ 남대기섬

달밭개 앞에 있는 갯바위섬.

○ 애기섬

월전 동쪽에 있는 갯바위섬.

○ 죽도(섬)

죽성 동쪽에 있는 갯바위섬.

○ 선두끝(개)

달밭개 북쪽에 있는 개(浦).

○ 황새-목

죽성리에 있는 목으로 지형이 황새목처럼 생겼다는데서 황새목으로 부르고 있다.

3) 명승고적

○ 남산봉수대(南山烽燧臺)

기장의 남산봉수대는 죽성리 산 52번지의 봉대산(해발 228m)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봉수대는 적침(敵侵)을 살피고 그 상황을 알려 전하는 곳이 되어 주위 바다를 지켜 바라보기 좋은 곳이라야 하는데 이 남산 봉수대가 있었던 봉대산에 오르면 지금도 대변향과 죽성향은 물론 동으로는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앞바다 그리고 남으로는 송정 앞바다까지 한눈으로 바라보인다.

남산 봉수대를 남산연대(南山煙臺)라고도 하였는데 전국 봉수로(烽燧路) 가운데의 제2로(路)에 속했다. 봉수 경로는 경상도 동래에서 경북·충북·경기도의 수많은 봉수망(烽燧網)을 거쳐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 현 南山)에 닿아 군사상의 위급을 중앙정부인 조정에 알렸다.

그렇게 알리는 신호는 낮은 연기 밤은 횃불이었다. 그 연기와 횃불도 위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수를 달리했다.

남산 봉수대가 직접 연결되는 곳은 남쪽으로는 해운대의 간비오산(干飛鳥山) 봉수대였고, 북쪽으로는 직선거리로 약 10.5km 떨어진 장안읍의 임랑리(林浪里) 뒷산의 임랑포 봉수대였다. 임랑포 봉수대가 없어진 뒤에는 직선거리 약 4.8km 떨어진 일광면 이천리의 아이포(阿爾浦) 봉수대와 연결되어 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에 폐지되었다. 《기장읍지》에는 봉수군을 200여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남산봉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으로 접할 수 없으나 고려 성종 4년(985)에 설치되었다고 전해지지만 1425년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설치된 것만은 틀림없다.

남산봉수대는 현재까지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로 중앙의 연대

(煙臺)는 동서 직경 약 7m, 남북 직경 약 5m, 높이 약 5m 규모이다. 연대 상면에는 연소부로 보이는 약 4m×5m 규모의 장방형의 석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산은 봉화대의 고적지로 유명하지만 관광지로도 빼어난 곳이다. 봉대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수평선 넘어 대마도가 희미하게 고래등처럼 보인다. 부산의 오륙도가 선명하고 발 아래로는 대변항과 죽도가 내려다보인다. 남산봉수대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로 1995년 12월 15일 지정되었다.

○ 기장 죽성리 왜성(竹城里 倭城)

남산 기슭 높다란 구릉지인 죽산리 산 5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이 《조선왕조실록》《증보문헌비고》에 두모포왜성(豆毛浦倭城)으로 기록된 기장 죽성리왜성이다. 서생면 서생리에 있는 서생포왜성과 축성양식이 비슷하다. 일본측 문헌은 기장성(機張城)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성은 죽성만(竹城灣)의 서쪽에 있는 남북 두 개의 작은 구릉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남쪽 구릉은 본성(本城)으로 북쪽 구릉은 지성(支城)으로 삼아 북쪽의 청강천(淸江川)을 자연적인 외곽선(外廓線)을 형성하고 있다.

성의 구조는 남쪽 해발 64m의 독립된 구릉의 가장 높은 곳을 일본식 축성법에 의한 본환(本丸)으로 한 윤곽식(輪廓式) 산성이다. 성벽은 화강암을 쌓기 쉽게 망치로 가공하여 틈이 없도록 잔돌을 이용하였으며 70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게 했다.

《기장읍지》의 고적조에서는 “왜성은 현에서 동쪽으로 8리에 있으며 옛 두모포진(豆毛浦鎭) 위에 임란 때 왜가 세웠는데 평장하고 견고하여 방원(方圓)으로 통행하여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 상하로 사닥다리[梯]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성에서 북쪽 골짜기를 건너면 서북쪽 의작은 구릉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독립된 성벽이 있다. 이것이 지성이다.

본성과 지성의 서쪽에는 지성 밖으로 연결되는 호(濠：空堀)가 둘러져 있다. 지성은 해발 45m의 낮은 구릉에 석축을 쌓고 동쪽으로 뻗어내려 오는 구릉을 포함시켜 외곽을 쌓았다.

이로써 보면 이 왜성은 남북 양쪽 구릉뿐 아니라 두모포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죽성리왜성의 총평수는 2,600평 정도이고 잔존 성벽 높이는 약 4~5m 정도로 3~12단위 석축이 약 70도 정도 경사지게 축조되었다.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왜장 구로다나가마사(黒田長政)가 축성한 것으로 선조 26년(1593) 서울에서 후퇴한 왜군이 서생포에서 동래·김해·웅천·거제에 이르는 해안선에다 장기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쌓은 성 중의 하나이다.

당시 이 성을 쌓는데 동원된 인부는 약 3,300명이었다. 정유재란 때는 왜장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주둔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성 주위가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며 최근에 일부 주택이 성 밖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본 성과 지성의 구도는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이 왜성은 우리 수군의 두모포진성과 접속한 상태로 남아 있어 우리나라 축성법과 일본식 축성법을 비교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만한다.

이 기장 죽성리왜성을 1998년 부산광역시는 기념물 제48호로 지정하였다.

○ 죽성리 해송(海松)

기장 죽성리 마을에 있는 해송(海松)은 수령 250년~300년으로 보고 있는 데 6그루의 나무가 모여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보이면서 가지가 아래로 처져 해송 종류로는 좀처럼 보게 드문 빼어난 자태를 보이고 있다.

이 해송을 곶솔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리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수당이 있어 민속적 유래 또는 길다.

이 죽성리 해송을 2001년 3월 30일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5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황학대(黃鶴臺)

죽성리 해안 두호마을에 황학대가 있다. 황학대는 육지와 이어져 있는데 황색의 바위가 길게 “한덩어리가 되어 바다로 내밀려져 있다. 남쪽 암벽에는 이곳 출신 진사 방치주(方致周)의 친필각자가 있다. 황학이 나래를 펴고 있는 모습이라하여 황학대라 하였다는 것이다.

해안에는 큰 기암 괴석이 펼쳐 있고 암반 위에 노송림(老松林)이 있어 절경으로서의 운치가 있다. 가까이에 어사암(御史岩 : 매바위)과 우리 수군의 옛 두모포성 유적, 그리고 기장 죽성리 왜성이 있고 북쪽에 용두대가 있다. 마을 뒤에 있는 남산에는 봉수대가 있어 외적침입을 주위와 함께 서울에 알렸다.

차성가(車城歌)에서는 “황학대가 어디메뇨 백운이 유유하다. 응암(鷹岩)을 잠깐 지내 죽성을 더우 잡아”라고 그 정경을 읊고 있다.

○ 어사암(御史岩)

죽성리의 두호마을 앞바다에 어사바위가 있다. 어사바위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는 매를 닮았다하여 ‘매바위’ 또는 매옹(鷹) 바위 암(岩)의 ‘응암’이라 했다.

《경상남도여지》에 형성지(形勝地)로 어사암(御史岩)을 기록한 기록에는 기장군에서 동쪽 10리에 있는데 1883년(고종 20)에 수의어사(繡衣御史)인 이도재(李道宰)가 여기서 기쟁 월매(月梅)와 놀았다하여 ‘어사암’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이도재(1848~1909)는 1882년 정시문과 병과에 급제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이듬해 수의어사로 지방으로 나오게 되어 이 지역과 인연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어사암의 주인공 이도재는 1886년 호군(護軍)으로 재직중 사대당에 의해 유배되었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개화당정부가 수립되자 풀려나 동학혁명이 일어난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고는 지휘자 전봉준을 생포 하여 서울로 압송한 바 있다.

뒷날 학부대신에 임명되어 지식영(池錫永)의 청을 들어 한성의학교(漢城醫學校)를 세운 바 있고 내부대신을 거쳐 시종원경(侍從院卿)에 이르렀다.

이도재가 응암에서 관기 월매(月梅)와 놀았다는데 대해서는 기장문화원 이사 허영식씨가 고구한 바 있고 《구기장군향토지》가 ‘설화’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허영식이 언급한 그대로 실제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에 의하면, 1883년 동래 좌수영으로 곡물을 신고 가던 관청의 화물선이 암초에 걸리는 그때 파도에 휩쓸려 배와 함께 곡물이 수장(水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수장된 곡물을 마을사람이 건져올려 식량으로 삼았는데 현령은 화물선을 습격하여 곡식을 탈취하였다고 관가에 잡아 들여 추달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상도 암행어사 이도재가 죽성으로 오고 기장현감은 관기와 더불어 이도재를 환영하는 주연을 베풀었다. 그 주연자리에서 관기 월매가 어사에게 귀엣말로 수장된 곡물을 거둔 사실과 애매한 지방 사람들의 무고한 사연을 하소하는데 따라 사리가 밝혀졌다고 한다.

그런 그 뒤 매바위 높은 곳에 어사암(御史岩)이라 새기고 그 옆자리 바위에 이도재(李道宰), 그 옆에 월매(月梅)를 새기고는 이도재의 오언

절구의 시도 새겼으나 그 시는 마멸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상남도여지》에는 시의 원문이 남아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空更無物(천공갱무물)

海闊難爲詩(해활난위시)

環球九萬里(환구구만리)

一葦可航之(일위가항지)

—빈 하늘 이외 다시 무슨 물(物)이 있으리오

바다가 활짝 열려 있으니 시 읊기 여렵구나

둥근 지구도 구만리로 넓으니

한 잎 갈대로써 건너나 볼까—

현재 지장읍 동부리 기장초등학교 앞 공덕비군(功德碑群) 가운데에는 1883년에 세워진 이도재의 선정을 기리는 생사단(生祀壇) 단비가 남아 그날을 말하고 있다.

○ 용두대(龍頭臺)

죽성리 해안에 용두대가 있다. 《기장읍지》는 형승(形勝)의 승지로 4대(大) 승지 가운데의 하나로 잡고 있다. 기장읍지는 이 용두대를 현(縣)에서 동쪽 8리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나지막한 산으로 별로 특징이 없는 평범한 야산이다.

그러나 바다에 접한 이 야산 정상에 올라보면 경관이 좋아서라기보다 지관(地官)이 말했다는 풍수상의 명당임을 알게 된다. 정상의 모습은 용머리처럼 생겼고, 지맥을 보면 용의 목 부분이 잘록하게 되어 양면이 날카롭게 좁고, 용의 허리 부분은 완만하게 굽어지고, 용의 꼬리 부분은 뚜렷이 학리쪽으로 뻗어 있다. 꼭 큰 용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방 풍수가(風水家)들은 황룡부해지형(黃龍浮海之形)이라 하였다.

이 용두암 앞에는 어사(御史)가 놀았다고 해서 ‘어사암’이라고도 불리고 매처럼 생겼다고 해서 응암(鷹岩)이라고도 불리는 바위가 있고 6대 승지(勝地)의 하나인 황학대(黃鶴臺)가 그 앞에 펼쳐졌다.

4) 민 속

○ 죽성리 월전 골매기당산

- 당산 소재지 : 죽성리 월전마을의 회관에서 동북쪽 약 60m 지점의 민가 가운데 있음.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壬子年.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46cm, 옆면 307cm로써 건평이 2.28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이중으로 안의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62cm, 세로 163cm)이고, 바깥의 문은 함석으로 만든 끼우기식의 두짝 문인데 크기는 안의 문과 같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10cm, 옆면 87cm, 높이 82cm이고, 제단 아래에 제구를 넣어 두었다. 그리고 당사 왼쪽에 있는 소나무 앞에 돌제단(앞면 90cm, 옆면 52cm, 높이 32cm)이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620cm, 높이 160cm, 두께 15cm)이 있다. 그리고 제당의 왼쪽에 一根二枝의 소나무가 있는데, 죽은 가지는 흉고

둘레가 212cm이고 산 가지는 흉고둘레가 315cm이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만 모시는 사람’이라 칭하고, 제의 10일 전에 무당이 대를 잡아 선정하였으나, 요사이 는 이장이 맡아 행한다.



월전 골매기 당산

- 제의 날짜와 연회 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성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골매기 할배할매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제물을 마을회관에 옮겨 해반하는데 부정이 있는 사람은 음복하지 않는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간이었으나 요사이는 하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 모시는 돈’이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제의날 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배에 불을 켜둔다.

○ 죽성리 원죽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죽성리 원죽 1구 마을에서 북쪽 민간 2채가 있는 데의 끝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46cm, 옆면 227cm로써 건평이 1.69평이다. 맞배기와 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8cm, 세로 151cm)이다.
- 당사의 좌향 : 동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10cm, 옆면 58cm, 높이 43cm이고, 제단 앞의 향로단은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가로 40cm, 세로 27cm, 높이 13cm이다.



원죽 할매당산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뒤는 대밭이고, 앞과 옆은 담장인데 기층 으로부터 반은 돌담 그 위는 블록담(앞면 620cm, 옆면 640cm,

높이 151cm, 두께 1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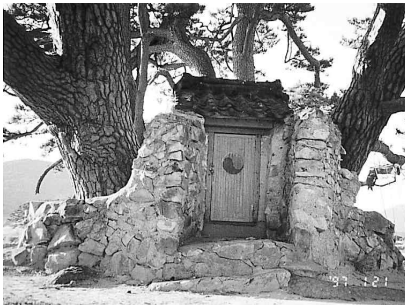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만 모시는 이’라 칭하고, 이장이 맡는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저녁 오후 5~6시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뒷날 마을 회관에서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1년간 마을의 길흥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당산제 경비의 모금방법과 액수 : ‘제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에 할당하는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죽성리 두호 국수당 · 할매당산 · 거릿대당

- 당산 소재지 : 두호마을에서 당산할아버지제당(국수당 또는 국시당이라 칭하기도 함) · 당산할머니제당 · 거릿대당의 세 제당이 있다. 당산할아버지제당은 마을에서 서쪽 뒷산의 산정에 있고, 당산할머니제당은 마을의 동북쪽 바닷가에 있으며, 거릿대당은 마을의 남쪽 월전으로 가는 길 위쪽에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당산할아버지제당과 거릿대당은 “癸酉七月十一日末時立柱上樑”이고, 당산할머니제당은 “己巳年四月初八日午時立柱上樑”이다.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산할아버지당사의 크기는 앞면 155cm, 옆면 190cm로써 건평이 0.9평이다. 맞배기와 지붕에 벽은 돌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외짝 여단 이문(크기는 가로 61cm, 세로 115cm)이며, 당산할머니당사의 크기는

제2편 자치구

앞면 193cm, 옆면 194cm로써 건평이 1.13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쪽의 크기는 가로 56cm, 세로 142cm)이며, 거릿대당사의 크기는 앞면 150cm, 옆면 140cm로써 건평이 0.64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돌에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65cm, 세로 102cm)이다. 그리고, 세 당사의 문에는 태극도형이 그려져 있다.



두호리 국수당



두호리 할매당

- 당사의 좌향 : 당산할아버지당은 동동남향이고, 당산할머니당도 동동남향이며, 거릿대당은 동향이다.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당산할아버지당의 제단은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책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92cm, 옆면 38cm, 두께 2cm, 높이 61cm이며, 당산할머니당의 제단은 나무로 만든 판자형 직사각이되 2단 제단으로 크기는 밑의 것이 앞면 163cm, 옆면 60cm, 두께 2cm, 높이 61cm이고, 위의 것이 앞면 163cm, 옆면 29cm, 두께 2cm 밑제단에서 높이 55cm이며, 거릿대다의 제단은 나무로 만든 책상형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97cm, 옆면 38cm, 두께 2cm, 높이 59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당산할아버지당의 제단과 거릿대당의 제단에는 아무것도 없고, 당산할머니당의 제단에는 윗 제단의 오른 쪽 구석에 시주단지(크기는 높이 13cm, 중간 지름 14cm)가 얹혀 있는데 그 단지 안에는 모래가 들어 있고 창호지로 봉하여 두었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산할아버지당의 입구 양벽 앞에 길이 110cm, 높이 145cm, 두께 60cm의 돌담이 붙어 있고, 당사 뒤에는 흉고 둘레 350cm나 되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100여년이상 되는 소나무 4그루가 있다. 당산 할매당은 높이 48cm의 시멘트 축대 위에 있고, 당사의 양옆과 뒤에는 돌담(옆면 470cm, 뒷면 480cm, 높이 180cm, 기저폭 60cm)이 둘러 있다. 거릿대당에는 담장이 없고, 당사의 뒤에 20여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음력 정월 2-3일 경 무당을 불러 대잡이를 하여 제주를 선정했으나 요사이에는 이장이 선정한다.



두호리 거릿제당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옛날에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시월

제2편 자치구

14일 밤 자정이었으나 요사이는 정월 보름날 정오경이며, 옛날에는 1년 2회였으나, 요사이는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육고기는 제물로 쓰지 않으며,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머니제→국수당제→거릿대제→어사암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일년간 길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당제비라 하고, 부락의 기금으로 하는데, 약 5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미역 양식하는 ‘각암’을 하나 준다.
- 특기 사항 : 골매기할매는 羅氏라 추정되며, 이분이 마을의 시조로 추앙되어 제만을 베풀었는데, 그 뒤 국수당을 지어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 70~80년 전에 부락민의 합의 아래 거릿대당을 지어 거릿대장군을 모시게 되었으며, 조선시대 이도재라는 암행어사가 마을 앞 수중 바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바위 이름을 ‘어사암’이라 칭하고, 이곳에서 제의를 치른 뒤 물밥을 하여 바다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골매기할매에게는 제의 때 반드시 돈 1000원을 제단에 얹고 제만을 지내며, 5년에 한번씩 별신굿을 음력 정월 3일에 거행한다.

5) 자연마을

○ 두호마을

죽성리 죽성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앞에 있는 해안가 어촌마을이다. 마을 북쪽에는 원죽마을, 남쪽에는 월전마을이 있다. 봉태산 꼭대기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산등성이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부분에 마을이 위치한다.

마을의 한쪽 높은 지역에 두호마을회관이 있다. 회관은 경로당, 양산 경찰서 두호출입항신고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주민의 성씨별 구성은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전체적으로는 각성받이가 섞여 있다. 이장과 어촌계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대동회는 1년에 한번 12월말경에 갖는다. 어업이 주산업이며, 농업은 부수적이다. 미역 · 다시마 · 장어 · 문어 등이 주요 어업 생산물이다. 최근에는 횃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옛이름은 두모포(豆毛浦)다. 우리말로로는 두모개라 부른다. 두모는 원래 둑뿔로서 두매, 두메, 두모, 드매라고 부르고, 표기는 두모(豆毛)라고 하였다.

둥글다[圓]의 옛말이 되는 ‘뽇’을 ‘두’로 발음하고, 두(豆)로 표기하였다. 뽇은 산의 옛말인데, 방언으로는 매나 모로 발음하고, 모(毛)로 표기하였다.

두모포는 옛부터 연해 방어를 위한 군사 요충지였다. 《세종실록》에도 두모포는 현의 동쪽 5리에 있는데, 수군만호가 지킨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현, 관방조)에 의하면, “두모포영은 현의 동쪽 7리에 있으며, 수군만호 1명이 있다. 정덕 경오년(1510년, 중종 5)에 비로소 석성을 쌓았으며, 둘레는 1250자[尺]이고, 높이는 10자이다”고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기장현, 관액, 1760년 경)에 의하면, 두모포영은 인조 7년(1629)에 동래로 진을 옮겼다고 하였다. 두모포 수군만호영이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그 곳 이름을 두모포진이라 불렀다. 진영과 함께 마을 이름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월내 앞바다는 월호, 송정 앞바다는 송호, 두모포 앞바다는 두호(豆湖)라고 불렀다. 차성가(車城歌)에 “두호(豆湖)에 닳을놓고 왜선창(倭船艙)에 줄을맨다”라고 하여, 두호가 나온다. 두모포 앞바다를 말할 때 쓰던 두호라는 명칭을 그대로 마을이름으로 사용하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두호동과 월전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두호동(豆湖洞)에는 35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3칸 집이었다. 35호 가운데 최두일(崔斗一) 집이 초가 5칸으로 가장 크고, 초가 4칸 집이 5호이다. 김씨(10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이씨(6호), 박씨(4호), 최씨(4호) 순이다.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249번지에는 1997년 2월 4일 보호수(기장군 군나무)로 지정된 해송(海松)이 있다. 이 나무는 6그루의 나무가 모여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보이는 노거수(老巨樹)로, 수령은 약 250~3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수관은 직경 약 30m 정도이다. 죽성향 배후 언덕 위에 위치하여 조망이 뛰어나며, 주변에서 보면 모양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나무 사이에는 서낭신인 당산할배를 모신 국수당이 있다. 국수당은 개벽 당시 하늘에서 신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고기잡이 나간 어부의 무사 귀환,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로서 민속적인 유래가 깊은 곳이다. 마을

회관 아래 해안가에는 당산할매당이 있다. 당산할매는 골메기할머니다. 마을 서북쪽 해안에 당산할배당이 하나 더 있다. 거릿대당이라고 부른다. 거릿대당은 70~80년 전에 마을주민이 합의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죽성초등학교(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90번지)가 있어, 마을 어린이들이 취학하고 있다.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운선도와 관련이 있는 황학대가 있다. 황학대 앞에는 두모포슈퍼마켓이라는 가게가 있다. 황학대 옆으로 난 길을 돌아가면 두호상회가 보인다. 바닷가에 두모포 풍어제터라고 새겨진 큰 바위가 서 있다. 풍어제는 음력 정월 2~3일경에 열린다고 한다. 두모포라는 옛 이름의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 원죽마을

두호마을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두호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좁은 바다 수로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에는 죽성소나무횃집, 죽성짚불곰장어, 죽성실내포장 등이 죽성이란 상호를 가진 가게들이 많이 보인다.

옛이름은 염분리다.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밭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후 염분이 없어지자, 염분리라는 이름 대신 죽성(竹城)이라 불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월전동과 두호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가 되었다. 죽성리라는 법정리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원래의 죽성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원죽성(元竹城)을 줄이면서 원성(元城)이 아니라 원죽으로 되었다. 죽성리에서 신천리로 가는 고개 위에 원죽1구회관이 서 있다.

○ 월전마을

죽성리의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는 월전경로당과 월전여자 경로당이 한 건물에 들어서 있다. 옆 건물에는 월전부락회관이 있고

월전조기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그 외 월전활어판매장, 월전활어횃집, 월전슈퍼 등 월전이란 이름을 붙인 많은 건물들이 있다. 안쪽에 있는 활어판매장 옆에는 월전어촌선박신고소가 있다. 좁은 길을 따라 가면 죽성교회가 나오고 두호마을이 나온다.

옛이름은 달밭이다. 마을 앞 포구를 달밭개라고 불렀다. ‘달’은 높다, 또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남산(南山) 기슭의 언덕산을 개간하여 생긴 마을로서, 경작지가 높은 곳에 있는 밭, 또는 산에 있는 밭이라는 뜻에서 달밭이라 하였다고 한다. 즉 달밭은 고전(高田), 산전(山田)이란 뜻이다. 달밭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달 ‘월’자를 따서 월전이 되었다고 한다. 달밭개를 월전포(月田浦)라고 부른다. 차성가(車城歌)에 “월전포(月田浦) 잠긴교어(鮫魚) 직금성(織錦聲)이 분명(分明)하다”라고 하여, 월전포가 나온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월전동, 두호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기장지역에서는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리(里) 단위의 청년회 활동이 활발한 것이 특징의 하나다. 리 단위 청년회는 주로 강습소, 야학 등의 운영을 통한 대중교육 활동에 치중하였다. 1922년 10월 25일 기장면 월전(月田) 보인(輔仁)청년회는 기존의 야학회를 인수하여 「기장월전보인강습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방대 조직,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사업, 황해도 지역 수재민을 위한 동정금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월전에는 월전보인강습소, 월전보인청년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기 타

○ 두모포영(豆毛浦營)터

《동국여지승람》 기장현의 관방(關防) 조항에 두모포영(豆毛浦營)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의 동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 1인이 있다”고 하였다. 신증(新增)으로 덧붙이기를 “정덕 경오(正德 庚午 : 중종 5년 : 1510년)에 돌로써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250척, 높이 10척”이라 하였다.

이것이 기장 죽성리에 있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 휘하의 두모포만호영이었고, 1510년에 쌓은 성이 두모포만호영의 성이었다.

이 성은 죽성리 749번지 일대에 있었는데 현재는 청강천(淸江川)을 굽어 보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논을 가로지르는 46~1번지 지역에서 성벽이 이어진 모습을 얼마간 보이고 있다. 662번지에는 성의 기반석(基壇石)과 그 위의 대형판석(大形板石)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성벽 높이는 2.5m이고 아래 부분은 2.0×1.5m 크기의 대형판석인데 그위를 50×70cm×40×50cm 크기의 돌로써 성벽을 쌓았다.

이 두모포진영의 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기장죽성리왜성을 쌓 때 대부분의 석재(石材)가 그곳으로 옮겨져 훼손된 상태가 되었다.

이곳 두모포진성은 고려초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처음은 토성(土城)을 쌓았다가 자주 무너짐으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그대로 중종 5년(1510)에 돌로 쌓은 것이다.

이 석축의 성과 두모포만호영은 그 이후인 인조 7년(1629)에 성은 그대로 두고 진영은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바닷가인 부산포로 옮겨 두모포만호영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다가 숙종 6년(1680)에는 오늘날의 수정동에 있었던 옛 왜관 자리로 옮기면서도 두모포만호영이란 이름을 계속 가졌다.

두모포만호영이 수정동으로 옮겨지자 오늘날의 수정동을 두모포리(豆毛浦里)라 했다. 두모포리가 수정동으로 바뀐 것은 1910년 일제강점 이후의 일이다.

14. 청강리

1) 연 혁

무곡(武谷)마을과 덕발(德發) 1, 2, 3 마을을 합쳐 법정리를 이루고 있다. 《기장현읍지》에 의하면, 읍내면 청강방(淸江坊)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의하면 읍내면에 청강동(淸江洞) 및 무곡동(武谷洞)으로 구분되었다.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읍 청강리가 되었다.

청강리(淸江里)는 청강천(淸江川) 변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청강이라 하였는데, 옛날 이곳 냇물이 너무 맑아서 맑을 청(淸), 내 강(江)으로 청강이라 하였다.

2) 공공기관

○ 기장우체국

기장우체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280-1에 자리잡고 있다. 기장우체국의 연혁을 보면, 1910년 9월 10일 기장우편소로 개소되었다. 1955년 4월 1일 기장우체국 전화업무가 개시되었고 1979년 7월 17일 기장읍 대라리에 청사 신축 이전하였다. 1998년 1월 1일 구청사를 한국 통신에 이관하였다. 2000년 5월 22일 기장읍 청강리에 청사 신축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장우체국의 주요 업무로는 우정세입, 체신 예금·보험, 공과금 자동이체, 보통·특수통상·소포, 우편주문판매 등 친절봉사체제 확립으로 우편물 배달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우체국의 대지 면적은 3,585㎡이고 건평은 979.22㎡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2개읍과 3개면을 관할하며, 우체통 81개소, 우표류 판매소 69개소, 사서함 30개소의 우편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직 기구로는 국장 밑에 2과 1실과 일반국이 3국, 별정국이 2국, 우편취급소 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61명으로 우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3) 산 천

○ 갯 고개

무곡마을 동남쪽에서 연화리의 갯가로 넘어가는 고개.

○ 고개 넘 고개

무곡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로 지금은 송정-기장 간의 포장된 국도가 달리고 있다.

○ 고래먼들

고개 넘 고개 뒤에 있는 산등성이.

○ 물-고부 고개

무곡마을 서쪽에서 철마면 안평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경사가 급하여 옛날 말을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졌다는 소문으로 ‘말구부’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 개방우

무곡마을 남서쪽에는 있는 큰 바위 ‘괴방우’라고도 한다.

○ 개방웃골

무곡마을 남서쪽에 있는 큰 바위인 개방우가 있는 골짜기이다.

○ 동매산

무곡마을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102.8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산봉우리가 동그스레하고 산기슭 또한 완만한 편이다.

○ 약물 샘

무곡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웅덩이의 약물샘으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즉 ‘옛날 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효녀가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정성들여 밥상을 마련하였으나 어머니는 엉뚱하게 붕어가 먹고 싶다고 투정질을 하면서 밥먹기를 거절하였다. 추운 겨울에 붕어를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지라 처녀는 여기 저기 찾아다녔으나 붕어를 잡지 못하고 몸이 얼고 피곤에 지친 나머지 이 약물샘에 와서는 깜박 졸게 되었는데, 그 때 꿈인지 생시인지 신령님이 나타나서 “너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일러주노라. 잠을 깨고 웅덩이 속을 살펴보면, 큰 붕어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잡아서 졸여 드리고, 이 웅덩이 물로 목욕을 시켜드리면 병이 씻은 듯 나아질 것이다.”

효녀가 정신을 차려 웅덩이 속을 보니 큰 붕어 한 마리가 얼음 위로 치솟아 땅에 떨어져 처녀 발 아래에서 파닥거리는 것을 시키는 대로 어머니에게 졸여 드렸다. 그리고 웅덩이 물로 어머니를 깨끗이 목욕을 시켰더니 온 몸에 솟아있던 종기는 씻은 듯이 없어지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이 효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인근 주민들은 이 웅덩이 샘물로 목욕을 하고 모두 피부병이 나아지면서 이 웅덩이를 약물샘이라 불렀다. 근래에는 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장안·일광·철마 등지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물을 가져가기도 하며, 더욱이나 이 약물샘에 돈을 넣으면 그 효험이 더욱 뚜렷하다고 한다.

○ 청강천

청강리를 북서에서 남동으로 관류하는 하천으로 옛부터 기장의 명당수로 잘 알려져 있다. 《읍지》에 보면, “청강천은 두 원류가 있다. 하나는 현청의 서쪽 5리 용연동에서 나오고, 하나는 현청의 남쪽 덕발골에서 나와 합류 하여 두모포에 들어간다”고 적혀있다. 청강천은 옛 기장 읍내면에 있는 마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감싸면서 맑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름답게 청강천이라 했던 것 같다. 발원지(용연동 또는 용소동)은 숙산과 무산 사이의 골짜기인데 암벽에 옛날 수령들의 이름을 새겨놓은데가 많고 찬물샘은 유명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 청강천을 장강(長江)이라 부르기도 하며 물이 맑아 물 밑에 있는 돌조차 이끼 하나 끼지 않고 하얗게 되어 있다고 하여 ‘白石清江’이라 하였다.

한편, 이 용연동에서 발원하여 사라리를 지나 기장중학교 바로 서쪽에서 본류인 신천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곳까지를 ‘사라수’라 하고, 무곡리에서 덕발리를 거쳐 ‘사라수’와 합류하는 지류를 ‘덕발수’라 하였다. 읍지에는 청강천의 원류인 이 사라수와 덕발수의 2개의 지류가 합류하여 장미수로 되고 만화리 뒷산에서 발원하여 기장초등학교 북쪽을 지나 흐르면서 강폭이 넓어지고 여기서 1km 정도 흐르다가 ‘덕발수’와 합류한다. 이와 같이 3개의 지류가 합류하여 신천리의 아래쪽 북동쪽을 흘러서 죽성리의 두모포로 흘러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삼천’이라 하였다.

현재 행정상으로 청강천을 죽성천이라 하고, 덕발수와 본류를 합쳐 ‘신천’의 본류로 부르고 장미수를 만화천, 사라수를 ‘서부천’이라 부르고 있다.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청강천에는 곳곳에 논계와 민물장어가

돌구멍마다 있었고, 은어떼가 강물을 메웠었지만 지금은 급속한 도시화로 복개되면서 옛 정취를 찾아볼 수 없다.

4) 명승고적

○ 청강리 고분군(淸江里 古墳群)

청강리고분군은 그 범위가 행정구역상으로는 대부분이 대라리(大羅里)에 속해 있지만 이전부터 청광리고분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의 유적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청강리 산 43번지의 정상부(해발 110m 정도)에서 구릉 말단부까지 수백기의 소형고분이 밀집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청강리 고분군 이라 하는데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도굴되어 석곽들이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다. 땅위에 드러난 고분에 의하면, 매장 주체부의 구조는 장방형의 수혈식 석곽묘가 대부분이고 아래쪽 유구는 목곽묘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상북쪽으로도 목곽묘가 간혹 섞여 있다.

고식도질토기(古式陶質土器)와 신라토기들이 대부분이고 그릇종류는 고배류(高杯類)와 호류(壺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출토유물 가운데 원저장경호(圓底長頸壺)는 최근 발굴조사된 김해 대성동 2호분 부곽출토 원저장경호 및 복천동 109호 4곽(槨) 출토 원저장경호와 계통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는 어깨 부분이 강조되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점등은 아직까지 고식적(古式的)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로 보아 이 고분군의 중심연대는 5세기 전반대(前半代)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이 곳에서 채집된 유물 가운데 원저단경호 3점, 원저장경호 1점, 철족(鐵) 3점 등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 민 속

○ 청강리 덕발 할배 · 할매당산

- 당산소재지 : 청강 1리 덕발마을에는 당사가 두 곳 있는데, 하나는 남경아파트 B동 서쪽 3m지점의 도로 가에 있는 할매제당이고, 또 하나는 할매제당에서 서북쪽 약 150m 지점의 동산위의 淸江郊外 老人亭 앞에 있는 할배제당이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전에 있던 당사를 1997년 개축하되, 할매제당은 철로변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개축하였다.



덕발 할매당



덕발 할배당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할매제당의 크기는 앞면 280cm, 옆면 230cm로써 건평이 1.95평이며,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고동색 타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77cm, 세로 185cm)이다. 그리고, 청강교외 노인정 앞에 있는 할배제당의 크기는 앞면 284cm, 옆면 205cm로써 건평이 1.76평이며,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고동색 타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 짝

제2편 자치구

여담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79cm, 세로 180cm)이다.

- 당사의 좌향 : 할매제당은 남남서향이고, 할배제당은 동남남향이다.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할배제당과 할매제당의 제단은 대리석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20cm, 옆면 60cm, 두께 3.6cm, 높이 63cm이고,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두 제당에 아무것도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할매제당의 주위에는 블록 담장이 둘러 있는데, 앞면 길이 880cm, 옆면 길이 820cm, 높이 143cm이고 담장 밖에는 도로와 집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당사 왼쪽에 약 15여년생의 팽나무가 서 있고, 할배제당의 주위를 보면 앞쪽에 대숲이 있고 뒤쪽에 흉고둘레가 450cm나 되는 노송과 그 뒤에는 소나무가 많이 서 있다. 이 제당에는 담장이 없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하고 마을회의에서 선정하였으나, 요사이는 금기 때문에 제주를 기피하므로 이장(김정득)이 도맡아 하고 있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육고기를 쓰지 않으며,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마을 수호신제(할배제)→할매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음복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금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노인층만 주로 음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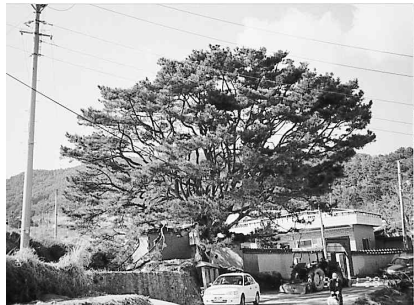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간이었으나 요사이는 음력 2월까지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 하였으나, 요사이는 마을회관 건물의 아래층을 세 주어 들어오는 돈으로 하며, 약 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청강리 무곡 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서북쪽 200여m 지점의 산록.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中元甲丁酉三月二拾四日酉時立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70cm, 옆면 283cm로써 건평이 2.3평이다. 맞배기와 지붕에 벽의 바깥 면은 시멘트와 돌로 안면은 토벽에 회칠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46cm, 세로 140cm)이다. 그리고 마을 입구의 왼편 길가에 있는 당산나무(흉고둘레가 278cm인 소나무) 앞에 시멘트로 만든 당산 할매제단(크기는 앞면 350cm, 옆면 204cm, 높이 49cm로 좌향은 동북향)이 있다.



무곡 산신제당



무곡 당산나무

- 당사의 좌향 : 남향

제2편 자치구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75cm, 옆면 57cm, 높이 43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위패는 없고 제단 위 123cm 높이에 지름 2.5cm의 햇대에 건명태를 묶어 두었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뒤에는 흉고둘레 270cm의 소나무가 있고, 주위에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이장이 마을 어른을 연장자 순서로 정해 놓고 유고가 없는 한 순서에 따라 제의를 맡게 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오후 4시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제(당산제)→당산나무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동네사람들이 갈라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비’라 하여 마을의 각 가정으로 각출하며, 약 50만원 정도이다.
- 제관의 대한 보수 : 15만원을 준다.

6) 자연마을

○ 덕발마을

대라리에 있는 기장읍사무소 아래에 난 길 건너편이 청강리 덕발마을이다. 청강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이름은 뗏불, 덕불이다. 덕발마을 뒤편에는 지금의 청강천 중류지점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두둑하게

언덕진 둔덕이 마치 긴 허리띠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모습은 초생달처럼 생겼다. 긴 둔덕에는 소나무가 무성하여 둔덕산이 되었다. 그 둔덕산 앞을 청강천이 흐르고, 그 사이에 마을이 있다. 청강천을 사이에 두고 별판이 펼쳐 있다. 마을에는 당사(堂祠)가 두 곳 있다.

이처럼 허리띠처럼 길게 뻗어 있는 별판을 그 모습을 따서 띠벌이라 부른다. 띠벌은 띠불이라 불렀다. 띠불이 뗏불, 뗏불, 띠발, 덕발로 발음되었다. 띠벌, 뗏불, 띠불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차음하여 덕발(德發)이라 적었다고 본다. 덕발을 띠발, 띠발로 보고, 터가 넓다는 뜻의 ‘터발’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무곡마을

덕발마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청강주공아파트에서 부산 방면으로 버스 한 정거장을 더 가면 나오는 마을이다. 버스정류장에는 「오신 《무곡》 청강주공아파트」라고 쓰여져 있다. 기장에서 부산(송정)으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가면 청강휴게소 앞 마을입구에 「무곡마을」 표지석이 서 있다.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철도건널목이 있다. 이 철길 넘어 마을로 들어간다. 마을 안에 무곡회관이 있고 무곡부락경노당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옛이름은 무실이다. 무실은 한자로 武室로서 무곡(武谷)과 같은 한자 표기이다. 무실이라는 이름에서 이 곳에 무영(武營)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읍내면 청강동, 무곡동, 신천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읍내면 무곡동(武谷洞)에는 11호가 살고 있었다. 11호 가운데 8호가 초가 4칸 이상 집이다. 11호 가운데 김삼월(金三月) 집이 초가 7칸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김세진(金世辰), 김경매(金京每)집으로 초가 5칸이다. 11호 가운데 10호가 김씨 집이다. 가주(家主)의 본관을 알 수 없어 분명하지는 않으나, 가주의 이름으로 보아 집성마을일 가능성이 크다. 초가 2칸의 무곡리숙(武谷里塾)이 있다.

무곡 서남쪽에는 개방우[피방우]라는 바위가 있다. 무곡 동남쪽에 있는 산이 동매산이다. 무곡 서쪽에서 칠마면 안평리로 가는 고개가 물고부[말구부]고개이다. 무곡 북쪽에서 대라리로 가는 고개가 솔고개다. 무곡 동쪽에서 연화리 여리개로 가는 고개가 여르개고개다.

7) 기 타

○청강리 무곡유적(武谷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95년에 1997년 사이 기장군 일대의 지표조사를 할 당시 기장읍 청강리 무곡마을 맞은편 구룡지역 일대에서 산재 유물을 채집했다. 채집된 자리는 감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고 일부는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고 있었지만 유구(遺構)는 확인 되지 않았다.

채집된 유물은 모두 도질토기(陶質土器) 조각으로 한 점은 대호(大壺) 동체부편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2편은 대각편(臺脚片)으로 보였다.

이들로 보아 이 곳에서 채집된 유물의 중심연대는 4~5세기로 추정된다.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위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삼국시대 분묘군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장읍성 동문터

동부리 310~311번지에 기장읍성의 동문터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동문터의 전면(前面) 폭은 약 4.1m, 중간폭은 3.5m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다.

이 문터에는 평면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의 문설주공이 있는 초석이 양쪽에 있다. 동문터 앞에는 웅성의 자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웅성의 형식은 반원형(半圓形)의 편문식(片門式)으로 추정된다.

○ 기장읍의 동헌(東軒) 터

동헌은 지방의 수령(守令)이 공사를 처리하던 곳을 말하는데 기장현의 현령이 공사를 처리하던 동헌은 기장읍성안의 가장 높은 곳인 북쪽에 있었다. 그 위치는 지금의 기장초등학교 교장사택이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일제강점기 기장초등학교를 지으면서 허물어 버렸다.

○ 객사(客舍) 터

객사란 고려와 조선조 때 각 고을 관청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들이 궐패에 배대한 뒤 묵게 되는 곳이다. 고을의 수령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이 객사의 궐패 앞에서 격식을 갖춘 절을 올렸다.

기장현의 객사는 오늘날의 기장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이름을 차성관(車城館)이라 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객사는 창건연대를 알 수 없으나 현감 이경련이 중수하고 군수 손영희가 다시 중수하여 보존하다가 1954년 무렵 허물어질 염려가 있어 뜯고난 뒤 기장초등학교 교사(校舍) 터가 되었다.

○ 기장읍성의 적대(敵臺)

적대는 성 둘레에서 적의 침입을 지키는 망대(望臺)를 말한다.

문종 원년(1451년) 8월 문헌에 나타나는 기장읍성에는 적대가 여섯군데 있었다고 한다. 이 여섯군데 가운데의 하나의 적대가 동문터에서 약 50m 남쪽에 터만이 남아 있다. 그 규모는 가로 6.9m, 세로 8.7m로 성곽에 덧대어 있다.

제 2 절 장 안 읍

- | | |
|-------------|--------------|
| 1. 고리(古里) | 8. 용소리(龍沼里) |
| 2. 기룡리(奇龍里) | 9. 월내리(月內里) |
| 3. 길천리(吉川里) | 10. 임랑리(林浪里) |
| 4. 덕선리(德仙里) | 11. 장안리(長安里) |
| 5. 명례리(鳴禮里) | 12. 좌동리(佐東里) |
| 6. 반룡리(盤龍里) | 13. 좌천리(佐川里) |
| 7. 오리(五里) | 14. 효암리(孝岩里) |

제 2 절 장안읍(長安邑)

○ 연 혁

장안읍은 지금의 다른 기장군 지역과 함께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는 동래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한 거칠산국(巨柒山國)과 일정한 정치적 연계를 가지고 존재하였을 것을 생각된다. 신라에 정복된 이후 신라의 갑화양곡현이 되었다.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이르러서는 기장현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그에 소속되었다. 이 시기 기장현은 동래군의 속현으로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 군현 개편 때 동래군의 속현에서 양주(梁州)의 속현으로 이속되었고, 현종 9년(1018)에 이르러 울주(蔚州)에 이속되었다. 12세기 속현지역의 대대적인 감무의 파견으로 기장으로 감무(監務), 즉 지방관을 두게 되었다.

오늘날의 장안은 조선시대 기장현의 북면(北面)이었는데, 임진왜란 후인 선조 32년(1599)에는 기장현이 폐지되었을 때 울산군 하미면(下味面)이 되었다. 《효종실록》에는 하미면(下末面), 《울산읍지》에는 하미면(下尾面)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군 하미면이 되었던 기장지역은 효종 4년(1653) 기장현감 강유후(姜裕後)의 상소와 경상감사 조계달(趙啓達)의 실정조사 의견서 등에 힘입어서 기장현의 중북면과 상북면으로 환속되었다가 7년후인 1660년에 다시 울산의 하미면이 되었다. 숙종(肅宗) 7년(1681) 6월에 현민 대표들의 상소로 또 다시 기장현의 하미면으로 복귀하고, 이후 하미면은 상북면과 중북면으로 분리되었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북면지역이던 좌천(佐川), 좌동(佐東) · 덕선(德仙) · 반룡(盤龍) · 월내(月內) · 임랑(林浪) 등 6개리와

상북면 지역이던 용소(龍沼)·기룡(奇龍)·장안(長安)·명례(鳴禮)·오리(五里)·길천(吉川) 그리고 차암(車岩)과 당시 양산군 외남면 관할이던 효열(孝烈)을 합쳐서 이름지은 효암(孝岩) 등 8개리를 합하여 총 14개리로 면을 개편하면서 장안면(長安面)이란 면명이 처음으로 등장, 동래군 장안면이 되었다.

장안의 유래는 이 고장의 이름난 사찰인 장안사에서 따온 것으로 생각된다. 장안지역에는 신라 문무왕 13년(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장안사(長安寺)라는 고찰이 있고 그 절이 소재하는 불광산(佛光山)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장안천이 유일하게 역내(域內)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류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명례·장안·기룡·용소·반룡·월내·길천 등의 많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면사무소도 면지역 전체의 중심 지점이 되는 기룡리의 하근마을에 있었다. 장안읍에는 장안사 이외에 특별하게 상징성을 지닌 대상도 없었고, 장안사·장안봉사 등 장안이 들어가는 기존 명칭이 많았다. 한자(漢字) 풀이로도 길게 또는 오랫동안 뜻인 장(長)과 편안할 안(安)을 합하여 오래도록 편안하고 화평스러운 면(面)이 되라는 뜻으로서 장안사를 염두에 두고 장안이란 지명을 명명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후 1973년 7월 1일 군 통폐합에 따라 동래군이 양산군에 병합되면서 양산군 장안면이 되고,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에 의거,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과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14개 법정 리동 가운데 고리(古里)는 1969년 한국전력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은 집단이주 또는 개별 이주하고 리동명만 남아있을 뿐이다.

현재 장안읍은 13개의 법정리(좌천리·좌동리·덕선리·용소리·기룡리·장안리·명례리·오리·반룡리·효암리·길천리·월내리·임랑리)를 관장하고 있다.

1. 고 리

1) 연 혁

옛날에는 아이포(阿爾浦)라 했다. 이는 작은 개 또는 포구라는 뜻이 된다. 옛사람들은 작다는 말을 아이(小兒)로 표현했다.

이를 그대로 차음(遮音)하여 아이(阿爾)로 그리고 개 또는 물가를 차훈(借訓)하여 포(浦)라 하여 아이포라고 이름하였다. 이곳에 봉화대가 설치되면서부터는 화사을포(火土乙浦)라 불리어 졌다. 불(火)을 사르다(立乙)와 갯가(浦)를 합쳐 지어진 화사을포가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마을 이름을 두글자로 불리우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사을(士乙) 두 글자를 줄여서 화포(火浦)라 하였다. 그러다가 통신수단의 발달로 봉화불이 없어지게 되자 화포라는 마을이름이 명분을 잃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고리(古里)로 이름 지어졌다. 고리는 고리마을 동쪽에 있는 모래사장 안쪽에 있는 소리골에서 따온 이름이다.

고리란 지명은 《기장현읍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 가호안》에는 고동리(古洞里)란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아이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통합하였고,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고리가 되었다. 그후 1969년에 한국전력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나라 최초로 건설되면서 주민 없는 마을 이름만 남게 되었다. 이 마을을 이름이 화사을포(火土乙浦) 화포(火浦) 등 불과 관계를 맺어 왔는데 마침내 『제3의 불』로 불리우는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2) 공공기관

○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 자리잡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7년 6월에 초임계(원자로의 점화)를 한 다음, 각종 시험을 거쳐 197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총공사비는 외자 1억5,7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1,428억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가동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제작한 것으로, 그 발전로는 가압경수형, 시설용량은 58만 7000kW이며, 핵연료 ^{235}U 도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인도에 이어 3번째의 원자력발전국이 되었으며, 가동이래 만 4년이 채 안되는 1981년말 현재 총 119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그 전력량은 초기 투자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또 유류전소 화력 발전 대비 약 2000억원의 원가상의 이득 및 약 1800만 배럴의 유류 대체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수입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의한 안정된 장기 에너지 확보의 길을 열었고, 또 관련된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출적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 후 1983년 7월에는 시설용량 68만 kW의 고리2호기, 1985년 9월에는 시설용량 95kW의 고리3호기, 이어 1986년 4월에는 역시 시설용량 95만kW의 고리 4호기가 준공되어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모두 4호기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갖추게 되어 시설용량은 총 313만 7000kW에 이른다.

조직 기구는 본부장 아래에 2발전소 1실 1팀 21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985명이 평화스럽고 살기 좋은 사회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3) 산 천

○ 당재(고개)

고리 북동쪽에서 효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봉대산(125.8m)의 남동쪽산 기슭을 따라 나 있으며, 옛날 이곳에 서낭당이 자리잡고 있었는데서 당재라 불렀다.

○ 봉웃골

고리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봉대산에서 발원하여 월래포(月來浦)에 흘러드는 작은 하천의 계곡이다. 지금은 상류만 제외하면 도시화되면서 옛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솔깃돌(바위)

고리 마을 북서쪽 어귀에 있는 바위.

○ 아기돌

고래개안 동쪽에 있던 갯바위로 애기처럼 생겼다 하여 아기돌로 불리게 되었으나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사라져 버렸다.

○ 개똥바우

미륵돌 북쪽에 있는 바위. 옛날 이 바위에 개들이 똥을 잘 누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미륵돌(바위)

고리마을 앞 바다 밑에 있던 갯바위인 암초. 이런한(사투리로 ‘미륵한’) 뱃사람들은 이 암초에 걸려 배를 파손시키기 쉽상이라는 데서 미륵돌 바위로 불리게 되었으나,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때 사라져 버렸다.

○ 기 - 방우

시리듬 북동쪽에 있던 바위. 기이한 짐승처럼 생겼다는데서 기방우라 부르게 되었으나 월내포 축항을 건설할 때 깨뜨려 버렸다.

○ 마 - 뜸 바위

고리마을 남쪽에 있던 갯바위.

○ 말갱이 바위

배나들방우 북동쪽에 홀로 우뚝 솟은 바위. 옛부터 뱃사람들이 물길이를 재는데 기준을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 배나들 방우

기방우 동쪽에 있던 갯바위. 두 개의 바위 사이로 고깃배들이 드나들었다고 해서 배나들방우로 불리게 되었으나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옛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 시리듬(바위)

고리 동쪽 무지개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에 있는 편편한 바위. 시루를 엮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데서 시리듬이라 불리게 되었다.

○ 야수방우

말깎이 바위 북동쪽에 있는 바위. 옛날 이 바위에 야수(‘여우’의 사투리)가 숨어 살았다하여 야수방우로 부리게 되었다.

○ 용우 - 굴바위

야수방우 동쪽에 있던 큰 갯바위. 밑바닥이 동굴처럼 깊숙이 패어 바닷물이 드나들었는데 이 때문에 이 바위에는 용이 숨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큰돌방우

마طم바위 남쪽에 있는 큰 갯바위.

○ 고래 - 간 불

고리 동쪽 바닷가에 있던 모래사장으로 옛날 이 곳에 돌고래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왔다는데서 고래개안 또는 고래간불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모래사장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때 매립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 무지 - 개

고리마을 동쪽에 있던 개.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사라져 버렸다.

4) 자연마을

○ 화포마을

옛이름은 아이포(阿爾浦)다. 아이포는 아이개[아이+개]로서 작은 개[少浦]를 뜻한다. 이 곳에 봉수대가 생기면서 아이, 아이포봉수대라 하였다.

봉수대가 생긴 후로는 아이포라 하지 않고, 화사을포(火土乙浦)라 하였다고 한다. 봉수대가 생긴 후 햇불을 사르게 되자, 봉수대가 있는 포구를 불살개라 불렀다. 즉 불을 사르는 곳의 개라는 뜻으로 불사르개가 줄어 불살개가 되었다. 불살개의 불[火]+살[사를, 土乙]+개[浦]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화사을포(火土乙浦)가 되었다고 한다.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 수록, 1832년) 산천조에 보면, 화사을포(火土乙浦)는 현의 동쪽 30리에 위치하였다. 화사을포는 기장의 9대 포구[무지포 · 이을포 · 기을포 · 돌백포 · 공수포 · 기포 · 독이포 · 월래포 · 화사을포]의 하나이다.

화사을포가 줄어서 화포(火浦)가 되었다. 《기장현읍지》(《영남읍지》 수록, 1871년) 산천조에 보면, 화포(火浦)는 현의 북쪽 30리에 위치하였다. 1832년, 1871년 《기장현읍지》에 각각 실린 화사을포와 화포는 현에서 떨어진 거리는 30리로 서로 같으나, 방향이 달리 표기되어 다른 지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방향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성가(車城歌)에 “아이봉대(阿爾縫臺) 저문불은 비쳤으니 화포(火浦)이요”라고 하여, 화포가 나온다.

봉수대가 없어져 화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화포마을의 상징이 되는 고래개안[고랫간]의 이름을 따서 고리(古里)라 하였다. 고래개안[고랫간]이란 이름은 고리골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바다에 양쪽에 바위가 있고 바위 사이가 마치 물의 골짜기 모양으로 길게 홈처럼 생긴 개안이라 고래개안[고랫간]이라 부른 것 같다. 고래개안[고랫간], 고리골에 있는 마을이라서 고리라고 부르면서 한자로는 옛 ‘고(古)’자를 써서 고리(古里)가 되었다. 그러나 고리는 옛마을이라는 뜻이 아니고, 큰골[大谷]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고리는 고리동(古里洞)으로도 불리고, 줄여서 고동(古洞)이라고도 부른다. 차성가(車城歌)에 “불개청음(不改淸陰) 늙은대는 돌아오니 고동(古洞)

이요”라고 하여, 고동이 나온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고동(古洞)이 동래군 장안면 고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고동리(古洞里)에는 24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24호 가운데 2칸 집이 15호나 된다. 이씨(9호)가 가장 많이 살고, 다음이 김씨(7호), 장(張, 2호)씨 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이 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원전고리 1호기는 1971년 3월 기공되어, 1978년 7월 준공식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 마을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 상징되는 마을이 되어 버렸다.

○ 핵광마을

월내 삼거리에서 장안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타고 철길을 건너면 양갈래 길이 나온다. 장안사 방면과 신암 방면의 길이 있는데, 신암 방면으로 가면 월내 목공소가 나온다. 여기를 지나면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 사택인 한빛아파트가 나온다. 모두 1, 2, 3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 단지가 핵광마을이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사원아파트 단지인 핵광(核光)마을이 생긴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이미지에 맞는 원자핵의 ‘핵’과 빛 ‘광’자를 따서 핵광마을이라 한 것 같다. 지금은 이름을 고쳐 핵광마을 대신 한빛마을로 불리고 있다.

2. 기룡리

1) 연 혁

기룡리는 기룡마을과 하근마을을 합하여 법정리를 이루고 있다. 「고례」

라는 조그마한 자연마을도 여기에 속해 있다. 장안천의 남북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기장현읍지》에 기룡이라는 마을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상북면 기룡동(騎龍洞)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기룡리(騎龍里)로 되었다. 그후 1973년 7월 1일 양산군에 폐합되어 양산군 장안면 기룡리가 되고, 1985년 10월 1일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양산군 장안읍 기룡리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자로 기장군이 복군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가 되었다. 1900년대 초기에는 기룡(騎龍)리라고도 썼으나 뒤에 기룡(奇龍)리로 쓰게 되었는데 그 내력과 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2) 산 천

○ 돌입네 뒷고개

기룡 서쪽 골짜기 마을인 고래마을 북쪽에서 장안리로 넘어가는 고개. 산세가 험하기로 이름난 이 고개 아래에 돌입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데서 돌입네 뒷고개라 불리게 되었다.

○ 칼고개

기룡골에 있는 고개.

○ 갯골

중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팬질 - 골

구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팬질(패인사)가 자리잡고 있었는데서 팬질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 구숫골

절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소의 구유처럼 생겼다.

○ 모자릿골

기룡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월내천의 상류 계곡으로 수원이 풍부하여 가뭄에도 못자리하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앙골

기룡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찬물이 나는 샘이 자리잡고 있다.

○ 손막골

괭절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소를 치는 막처럼 생겼다 하여 손막골로 불리게 되었다.

○ 절랫골

갯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자리잡고 있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점동들

점동골에 있는 들.

○ 점동골

손막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어 전동대를 만들었다는데서 전동대골로 불리기도 한다.

○ 고래들

기룡 서쪽 골짜기 마을인 고래에 있는 들로 월내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내(川)의 양안에 펼쳐져 있다.

제2편 자치구

○ 중골

절텃골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채봉골

기룡과 장안리와의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서 벌꿀을 많이 채취하였다 하여 채봉골로 불리게 되었다.

○ 항골

기룡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진 - 배미논

기룡 동쪽에 있는 긴 배미의 논.

○ 덧들

기룡 뒤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월내천 양안에 형성된 충적평야이다.

○ 가맷등산

기룡마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07m이다.

○ 동네갓산

기룡마을 북동쪽에 있는 산.

○ 큰갓산

기룡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30m이다.

○ 예수방우

큰 갓산 북쪽에 있는 바위.

○ 기룡 - 걸(내)

하근 마을 서쪽에 있는 내(川). 월내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이다.

○ 딛들보

딛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洑).

○ 봉애 - 송(소)

기룡 북쪽에 있는 소류지로 월내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상류 계곡을 막아 만든 저수지이다.

○ 실꾸리 웅덩이

손막골 어귀에 있는 웅덩이.

○ 정지물보

고래마을 서쪽에 새로 만든 농업용수의 보(洑).

○ 큰애기 - 송(소)

기룡 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

○ 재 - 빠든(버덤)

한데 빠든 동쪽 들판 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고 편편하며 잡초가 무성한 거친 땅

○ 한데 버든(버덤)

기룡 동쪽에 있는 버덤. 월내천이 범람할 때 쌓인 자갈 더미로서 편편한데다 잡초가 난 거친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명승고적

○ 유공 장안면장 송덕비(有功 長安面長 頌德碑)

장안면 기룡리에 장안면 면장을 역임하는 동안 공이 컸던 세 사람의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78년 11월 면민의 이름으로 장안면 새마을갓기추진위원회에서 송덕비를 나란히 한 위치에 세웠다. 현재는 장안면 새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자리는 주위의 송림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안사에 드는 길목이 되어 왕래하는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 셋 송덕비는 다음과 같다.

① 김기호면장 순직 추모비(金基浩面長 殉職 追慕碑)

김기호(1907~1952) 면장은 광복후 장안면 초대면장으로 부임하여 민정에 힘쓰다가 6·25한국전쟁중이던 1952년 2월 5일 공산주의자의 기습공격에 순직하였다.

② 손해종선생 송덕 추념비(孫海鍾先生 頌德 追念碑)

손해종(1907~1964) 면장은 장안면장으로 부임하여 지역개발에 공헌하는 등 면정에 공헌한 바 컸다.

1952년부터는 장안면의회 의원으로서 1960년부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③ 김의동선생 송덕 추념비(金義東先生 頌德 追念碑)

김의동(1916~1978) 면장은 장안면 면장으로 부임하여 소류지를 개발하여 미국증산에 기여하는 등 면정에 힘쓴 바 컸다. 1952년부터는 장안면의회 의장을 지냈다.

4) 민 속

○ 기룡리 고래 고씨할아버지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 앞 남쪽 약 10m지점의 밭 가운데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辛亥六月初二日午時入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42cm, 옆면 260cm로써 건평이 1.9평이다. 스테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6cm, 세로 146cm)이다.



고래 고씨할배당산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34cm, 옆면 54cm, 높이 40cm이고, 제단 위에는 제구가 없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는 140cm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담장은 없으며, 당사의 오른쪽에 흉고둘레 200cm의 회나무 한 그루와 흉고둘레 224cm의 팽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제2편 자치구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보름날 아침에 당산 앞에 동네사람들이 모여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제의 전후 3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일리돈' 또는 '제만비'라고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기룡리 할배당산

- 당산소재지 : 장안읍 기룡리 768-1번지, 마을 오른쪽 길 옆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戊寅正月初五日丁卯午時豎柱上樑.



기룡리 할배당산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5cm, 옆면 295cm로써

건평이 2.1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방풍막이 붙어 있고, 벽은 흙벽에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에 유리를 끼운 두짝 미닫이문(크기는 가로 53cm, 세로 154cm) 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02cm, 옆면 73cm, 높이 63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단 제단 위의 보에 가로 7.5cm, 세로 29cm의 한지 두께가 나란히 부착되어 있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돌담장 위에 기와를 얹은 담(크기는 앞면 610cm, 옆면 920cm, 높이 145cm, 두께 65cm)이 있다. 그리고, 당사 뒤에 군보호수인 팽나무(수령 400년, 수고 20m, 나무둘레 4.7m)가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 또는 제주라 칭하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1명이 제관으로 선정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재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관이 음복하고, 보름날 아침에 제관집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공동기금에서 경비를 빼내는데, 약 20~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제2편 자치구

- 특기사항 : 제의를 치른 뒤, 당산나무 아래의 땅에 제물로 쓴 명태의 대가리를 떼어 묻는다.

○기룡리 하근당산

- 당산 소재지 : 장안초등학교 뒤편에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95년.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75cm, 옆면 307cm로써 건평이 2.55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 (한 짝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67cm)이다.



하근당산

- 당사의 좌향 : 남남서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슬라브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43cm, 옆면 77cm, 높이 61cm이고, 제단 밑 4개의 유리문 안에 제구가 들어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고, 제단 위 78cm 위치에 한지 두 장을 나란히 붙여 놓았는데, 크기는 가로 18cm, 세로 29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 (크기는 앞면 690cm, 옆면 1300cm, 높이 115cm, 두께 14cm)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부락회의 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할매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남은 제물은 땅에 묻는다.
- 금기 기간 : 3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돈’이라 하고, 마을의 경비에서 지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5) 자연마을

○ 기룡마을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301-1번지에 장안초등학교가 있다. 장안초등학교를 지나 장안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내를 경계로 기룡마을과 하근마을로 나뉜다. 내를 건너 장안사 쪽으로 있는 마을이 기룡마을이다. 기룡마을은 장안사가 있는 장안마을의 아랫마을이 된다.

마을 입구에는 신기술배기라고 불리는 소나무 숲이 있다. 이 곳에는 1813년(崇禎紀元後 癸酉 10월)에 세워진 기장현감 송재우(宋載遇)의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비석에는 「萬古不忘 恤民善政」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는 1978년에 세워진 손해중(孫海鍾)·김의동(金義東)선생 송덕추념비와 김기호면장 순직추념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또 2001년 5월 25일에 세운 대한민국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가 세워져 있다.

마을에는 기룡마을농산물직판장이 있다. 이 옆에 「기룡마을」 표지석이 있고 기룡교라는 다리가 있다. 기룡집, 기룡등나무집 등 기룡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 기룡마을회관이 있다. 버스정류장에는 「장안사 《기룡》 하근」이라고 쓰여져 있다.

마을의 옛이름은 알 수 없다. 기룡(奇龍)의 ‘기’는 키, 크의 차음(借音) 표기로 보고 있다. 크다는 의미이다. ‘룡’자는 ‘머리’로서 머리[頭, 宗]의 의미다. 따라서 기룡은 큰 머리의 의미로 해석된다.

장안천은 옛날에는 건천(乾川), 용천(龍川)이라 하였다. 건천은 마르내고, 용천은 머리내다. 모두 머리내로서 큰 내, 으뜸가는 내라는 뜻이다. 기룡은 이 머리내 가에 있는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한편, 장안천에 물이 맑아 용이 기거(寄居)한다고 기룡이라 하였다고 주민들 사이에 전한다. 차성가(車城歌)에 “호공(壺公)의 거친막대 타고나니 기룡(騎龍)이요”라고 하여, 기룡이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기룡동(騎龍洞)에는 55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55호 가운데 이순득(李順得), 이시단(李時丹), 김사원(金四元), 김복손(金卜孫), 김덕일(金德一)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55호 가운데 김씨(23호)가 가장 많다. 다음이 이씨(14호), 鄭씨(3호), 池씨(3호) 순이다. 기룡마을은 경주 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1904년 당시 이씨 14호는 본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로 미루어 경주 이씨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호안》에서는 기룡동의

한자를 탈 ‘기(騎)’자로 쓰고 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기룡동이 동래군 장안면 기룡리가 되었다. 당시 기룡리에 장안면 면사무소가 있었다. 1930년 10월 실시한 국세(國勢)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편찬된 《조선의 성(朝鮮の姓)》(조선총독부, 1936년)에 의하면, 당시 장안면 기룡리(奇龍里)에는 김해 김씨 36세대의 동족마을이 있었다.

기룡동 뒤편에는 후야평(後野坪, 덧들, 덧들), 앞에는 짚안들이 있다. 기룡동 앞에는 박천(薄川)이 흐르고 있다. 기룡 동쪽에는 진[긴]배미라는 논이 있다. 동북쪽에는 모자릿골[모자리골]이 있다.

○ 하근마을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301-1번지에 장안초등학교가 있다. 장안초등학교를 지나 장안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내를 경계로 기룡마을과 하근마을로 나뉜다. 내 아래쪽이 하근마을이다. 장안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이 마을에 있다. 초등학교 앞에 「하근마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하근교, 하근회관, 하근상회, 하근중앙교회 등 하근이란 이름이 붙은 명칭이 많다.

옛이름은 건천(乾川)이다. 장안천은 옛날에는 건천(乾川), 용천(龍川)이라 하였다. 차성가(車城歌)에 “수락석출(水落石出) 건천(乾川)이요 절극침사(折戟沈沙) 고무(古武)”라고 하여, 건천이 나온다. 건천은 마르내고, 용천은 미리내다. 모두 머리내로서 큰 내, 으뜸가는 내라는 뜻이다. 건천은 윗건천[上乾川], 아랫건천[下乾川]으로 나뉘는 것 같다. 그러나 상건천은 부르지 않고, 하건천만 통용되고 있다. 하건천이 하건으로 되었다. 그러다가 하건(下乾)이 하근(下根)으로 바뀌었다. 하건의 ‘건’자가 마르다는 뜻이어서, 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자주 생기자 1955년 경에 하근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건’과 ‘근’이 발음이 비슷하여 하근으로 통

용된 것 같다.

옛날 김해 김씨 두 형제가 마을 터전을 잡았다고 전한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하건동(下乾洞)에는 2호가 살고 있었다. 초가 2칸, 3칸 집이 각각 1호다. 2호 가운데 김씨, 양(梁)씨가 각각 1호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의하면, 하건마을에는 하건점(下乾店)이라는 주막이 있었다.

3. 길천리

1) 연 혁

길천리는 최근에 와서 길천 본 마을과 고원(古原) 마을이 합쳐져 이루어진 법정리이다. 고원마을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사택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마을은 길천리 지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행정마을의 하나로서 길천리에 속하게 되었다.

길천리는 《기장현읍지》에는 동리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상북면 길천동이란 명칭이 나타나고 있고, 1941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래군 장안면 길천리가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동래군이 양산군에 병합됨에 따라 양산군 장안면 길천리가 되었다.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에 의거 읍으로 승격,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에는 기장군이 북군 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가 되었다.

길천은 마을 북쪽, 현 울주군 서생면과 경계하는 곳으로 동해남부선의 온곡(溫谷) 터널 남쪽 입구쪽에서 남으로 바닷가 가까이까지 약 2km나 되는 길고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예로부터 이 들을 ‘질고지’들이라 일러왔다. 시대의 변천과 함께 지명도 변해서 질고지의 끝자 『지』가 『재』로 변하여

질고재-들이라 한다. 길천이란 마을 이름이 아마도 이 질고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길천이란 동명을 지을 때 『질』은 『길』의 사투리이기 때문에 바로 길(吉)로 바로 잡았고, 『천』은 소리나는 대로 차음하여 (川)자를 따서 길천이라 이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산 천

○ 강월-재

길천 북쪽에서 서생면 명산리 강월로 넘어가는 고개.

○ 수무산재(고개)

길천 북서쪽에 있는 고개로 산속 깊숙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서 수무(‘숨어’의 사투리) 산고개로 불리게 되었다.

○ 효암고개

길천 북동쪽에서 효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 개넛골

못구렁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오리의 개내(開川), 즉 효암천의 상류 계곡에 해당된다.

○ 다래동골

길천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효암천 상류로 흘러드는 작은 내의 계곡으로 옛날 이곳에 다래가 많았다는데서 다래동골로 불리게 되었다.

제2편 자치구

○ 못골

구렁이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계곡을 막아 못을 만들었다는데서 못골로 불린다.

○ 산짓골

다래동골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샘이 있다.

○ 안골

질고개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절골

길천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절(사찰)이 자리잡고 있었는데서 절골로 불린다.

○ 질고개-무릉지골

질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풍부하여 가뭄에도 물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다.

○ 큰들무릉지골

큰 들에 있는 골짜기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다.

○ 구렁이들

길천 북쪽 구렁에 있는 들.

○ 덧들

길천 뒤쪽에 있던 들. 지금은 고리원자력 발전소 사원의 주택단지로 바뀌었다.

○ 매때기들

큰들 동쪽에 있는 들.

○ 봉우골-논

길천에 있는 논.

○ 새밋-자리들

질래잣골 북동쪽에 있는 들로서 샘이 자리잡고 있다는데서 새밋자리
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 섬들

큰들 옆에 있는 들로서 모래톱 안쪽에 자리잡음으로써 섬처럼 보인다.

○ 아릿구렁이들

구렁이 아랫쪽에 있는 들.

○ 아릿섬들

섬들 아래쪽에 있는 들.

○ 웃-구렁이들

구렁이 위쪽에 있는 들.

○ 웃섬-들

섬들 위쪽에 있는 들.

○ 재밋-자리 논

길천 북쪽에서 서생면 감월로 넘어가는 감월고개 밑에 있는 논

제2편 자치구

○ 질 고갯들

질 고갯골에 있는 들.

○ 큰 들

길천 북서쪽 월내천 따라 형성된 넓은 들판.

○ 할리평 들

큰 들 북동쪽에 있는 들로서 한림평(翰林坪)이라고도 한다.

○ 안골-등

안골 위쪽에 있는 등성이

○ 온곡골

길천 북동쪽에 있는 동해 남부선 철도의 터널로서 서생면 온곡에
이어져 있다.

○ 월내교 →월내리

○ 절골못

절골에 있는 못.

○ 후릿자리불

길천 남쪽 월내천 하류에 있는 모래사장으로 멸치를 잡으려고 그물로
후리질 하였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3) 자연마을

○ 길천마을

월내교를 지나서 나타나는 삼거리에 「길천마을」 표지석이 서 있다. 월내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월내탕, 월내우체국 등이 길천마을에 있다. 월내초등학교 앞에는 길천노인정이 있다. 길천리에는 길천성당과 길천리사무소가 있다. 길천리사무소에는 길천리회관이 함께 있다. 그 옆에는 길천기공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외 길천야적장, 길천선착장 등이 있다.

질곶이골에서 발원한 개천이 그 아래에 펼쳐진 들을 비옥한 들로 만들어 그 주변에 농가를 형성하였다. 질곶이는 긴곶이를 가리킨다. 길게 생긴 곶(串)을 의미한다. 긴 곶이 질곶, 질곶재, 질곶이 등으로 바뀌었다. 질곶이는 한자로 표기하면 장곶(長串), 영곶(永串)이 된다.

질곶이에 있는 내가 질곶이천이다. 질곶(이)천을 한자로 표기하면 장곶천(長串川), 영곶천(永串川)이 된다. 장곶천, 영곶천이란 의미의 길곶천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길다는 의미의 훈으로 쓰지 않고 음독으로 ‘길(吉)’자를 쓰고 곶이 생략된 채 내 천(川)가 붙어 길천(吉川)으로 되었다. 차성가(車城歌)에 “길천(吉川)도 좋거니와 산경(山景)을 다시보세”라고 하여, 길천이 나온다.

이 곳 주민들은 임진왜란 때 박·이·윤·서씨 등이 이 곳으로 피난와서 정착하였고, 큰 들 가운데로 큰 내가 흘러 마을 가운데로 흐르므로, 내를 따라 좋은[吉한] 마을이 되라는 뜻에서 길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길천동(吉川洞)에는 11호가 살고 있었다. 11호 가운데 2칸 집이 10호, 3칸 집이 1호이다. 11호 가운데 이씨, 임(林)씨가

제2편 자치구

2호이고, 나머지 구씨, 권씨, 김씨, 박씨, 백씨, 신(辛)씨, 한씨가 각각 1호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길천동이 동래군 장안면 길천리가 되었다. 길천동 서쪽에는 대평(大坪)이 있었다.

○ 마짜마을

길천 마쪽[남쪽]에 있던 마을이라 한다. 마쪽에 있는 마을이라 마쪽 마을로 불리던 것이 마짜마을로 바뀐 것 같다.

○ 불각단마을

길천 서남쪽의 불에 있던 마을이라 한다. 각단은 ‘뜸’과 같은 것으로 동네·마을을 뜻한다.

○ 새짜마을

길천 새쪽[동쪽]에 있던 마을이라 한다. 새쪽에 있는 마을이라 새쪽 마을로 불리던 것이 새짜마을로 바뀐 것 같다.

4) 기 타

○ 기룡리유적(奇龍里遺蹟)

기룡리 함골에서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도질호편(陶質壺片) 2편을 채집한 바 있다. 채집한 자리는 장안초등학교에서 1km가량 북쪽에 구룡이 있는 그 끝자리 밭이었다.

유물이 채집된 지역은 구룡의 경사가 매우 급해 유적이 있었다면 주거 유적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분묘(墳墓) 유적인 가능성이 크다.

○ 하근마을의 왕비릉(王妃陵)

기룡리 하근마을 기룡천 건너편 송림속에 옛날 왕비릉이 있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때는 삼한시대 말엽쯤 오늘날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우시상국(于尸山國)이라는 작은 부족국가가 있었으나 국가체제를 갖추어가던 신라의 침략을 받아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이다.

그 침략으로 왕과 왕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왕비만 아홉 공주를 데리고 빠져나와 지금의 기룡리 근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기룡리도 신라의 손길이 뻗쳐 왕비와 아홉공주는 신분을 숨기고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는 품팔이를 하며 목숨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왕비는 고된 일에 지쳐 병을 얻어 숨지자 아홉공주는 어머니 시신을 마당 한가운데 묻고 제각기 흩어져 살았지만 해마다 3월 보름이면 어머니 무덤가에 모여 치마폭에 흙을 담아 초라한 어머니 무덤의 봉분을 밤을 꼬박 새워가며 쌓았다는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마을의 부녀자들도 해마다 3월 보름이면 왕비의 무덤 봉분 쌓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그래서 수십년 전만 해도 3월 보름이면 마을의 부녀자들은 전해오는 말을 따라 이곳 무덤에 모여 잔치를 벌이며 아홉공주의 효행을 기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왕비릉이 있었을 만한 동산에는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해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봉분의 흔적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문중의 소유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전해 내리는 전설 그대로 이곳에 왕비릉이 실제 존재했을까? 이에 대한 진부는 헤아릴 길이 없다.

4. 덕선리

1) 연 혁

옛 명칭은 알 길이 없고, 아마도 내덕(內德)마을의 덕(德)자와 선암(仙岩)마을의 선(仙)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덕선리는 《기장현읍지》에는 동리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상북면 중북면 선암동이라는 동명(洞明)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그후 20년 만인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의 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덕선리라 명명되어 오다가 1973년 7월 1일부터는 양산군 소속이 되고 1985년 10월 1일에는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장안읍 덕선리로 그리고 1995년 3월 1일 80년만에 기장군이 복군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가 되었다.

2) 산 천

○ 진등-재(고개)

선암마을 북쪽에 있는 긴 고개로 용소리로 넘어간다.

○ 독점골

선암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점이 자리잡고 있었던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민독골

선암마을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북녕골

선바윗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북성골

선암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등성이가 빈대처럼 생겼다.

○ 선바윗-골

신선바위가 있는 골짜기. 좌광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인 홍류의 계곡에 해당된다.

○ 소시랑골

선암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세의 모양이 꼭 소시랑 같이 생겼다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 장자골

절랫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장자가 살았다는데서 장자골로 불리게 되었다.

○ 신선방우

덕선리의 선암마을 남쪽 작은 언덕에 있는 바위. 신선이 놀았다는 장기관이 있는 골짜기의 바위로 경승지의 하나이다. 《기장현읍지》에는 “군에서 북녘 30리에 있다. 그 아래에 있는 홍류가 장관이다. 지상에 신선이 놀았다는 흔적이 있다. 그 까닭에 선암이라 이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치가 너무 좋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이 곳에 오지 못하고 신선들만 이 곳에 와서 언덕 밑을 흐르는 계곡을 즐기면서 신선바위에 앉아 장기를 두었다고 한다.

내덕지(內德池)에서 흐르는 계곡과 선암리에서 흐르는 계곡이 합류되어 이 바위 밑으로 흐르면서 옛부터 변함없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계곡 중류에 선암사가 있고 좌동 앞을 흘러 임랑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름 없는 작은 계곡이지만 옛 사람들은 이 곳에서 태고의 신비를 느끼면서

제2편 자치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던 것 같다. 지금도 공휴일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 절댓골

빈대등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절이 자리잡고 있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지앗골

회창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서 기와를 구운 것으로 알려진다.

○ 진산들

다래 뭉덩이 아래에 있는 긴 들.

○ 큰애방웃골

장자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회창골

덕선리에 있는 골짜기로 좌광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계곡.

○ 굽들

진산들 아래에 있는 굽은 들.

○ 아릿들

선암마을 동쪽에 있는 들.

○ 장구-배미(논)

선암마을 앞에 있는 들논으로 장구처럼 생긴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집앞들

선암마을 앞에 넓은 들.

○ 집앞보

집앞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洑).

○ 방우대기 밭

내덕마을 위쪽에 있는 밭.

○ 신선산

신선바위가 있는 산으로 경치가 너무 좋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신선들만 이곳에 와서 언덕 아래로 흐르는 계곡은 즐기면서 신선바위에 앉아 장기를 두었다는 것과 같이 시선이 와서 놀았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안장결산

함박산 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말안장처럼 생겼다.

○ 장군-대배기산

소장골 북서쪽에 있는 산.

○ 꽃밭등

지앗골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꽃이 많이 핀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함박산

내덕마을에 있는 산으로 함박꽃이 많이 핀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2편 자치구

○ 다래-몽당이(등)

소장골에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다래가 많다는데서 다래-몽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 청룡등

내덕마을 동쪽에 있는 등성이.

○ 선바우→신선바우

○ 자래바우

신선바우 남쪽 냇가에 있는 바위로 모습이 자라처럼 생겼다.

○ 내덕못

내덕마을 동쪽에 있는 큰 저수지로서 덕산저수지로 불리기도 한다.

○ 가매-쑤(소)

폭포수 북쪽에 있는 소류지로 구유처럼 생겼다.

○ 총각쑤(소)

선암마을 동북쪽에 있는 소로서 좌광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의 상류계곡을 막아 만든 소류지이다 총각쑤 위에는 애기가 머리를 빗다가 빠져 죽었다는 애기쑤(소)가 있다.

○ 폭포쑤(소)

구시쑤 위쪽에 있는 소류지.

3) 명승고적

○ 신암마을의 신선암(神仙岩)

덕선리의 신암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신선바위가 있다. 바위 아래에 있는 홍류(虹流)가 장관이다. 이곳에서 신선이 놀았다고 하여 선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곳 경치가 너무 좋아 속인들은 올 수가 없고 신선들만 와서 언덕 밑을 흐르는 홍류를 즐기면서 신선바위에 앉아 장기를 두었다고 전한다. 선암마을은 이 신선암에서 유래한 것이다.

내덕지(內德池)에서 흐르는 계곡과 선암리에서 흐르는 계곡이 합류하여 아래로 흐르면서 천고(千古)의 선경을 이루고 있다. 이 계곡의 흐름은 좌동 앞을 흘러 임랑천으로 흘러든다.

○ 선암사(仙岩寺)

내덕지(內德池)에서 흐르는 계곡과 선암리에서 흐르는 계곡이 합류하여 아래로 흐르는 계곡 중류에 선암사가 있다. 주위 경관이 좋아 찾아드는 참배객이 많다.

○ 처사 월성 최공 휘 영수 공적비(處士 月城 崔公 諱 榮壽 功績碑)

덕선마을에 세워진 석비로서 최영수가 마을에 베푼 공을 기렸다. 세운 사람과 세운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 동쪽마을인 이곳이고 보면 월성 최씨들이 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비석의 크기는 92×33×17cm로 방형의 대석이 있다.

해서체로 된 비문은 다음과 같다.

巖彼紫陽(찰피자양)

歸我里中(귀아리중)

제2편 자치구

伊誰之力(이수지력)
都在此公(도재차공)
未見運動(미견운동)
蒙利無窮(몽리무궁)
銘於片石(명어편석)
不忘其功(불망기공)

○ 이팝나무

덕선리 내덕(內德)마을에 이팝나무 노목이 자라고 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당산나무로 이 나무 아래서 해마다 마을사람들이 동제(洞祭)를 지내고 있다.

나무의 높이 24cm, 둘레 2.6m, 수관폭 동서남북 모두 18m로 수령은 7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어린 가지에 털이 다소 있다. 5~6월에 꽃이 피는데 꽃잎이 고르게 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에서 자라고 일본·타이완 및 중국에 분포하고 있다.

4) 민 속

○ 덕선리 내덕 할머니당산

- 당산 소재지 : 덕선리 781번지로 내덕회관에서 서쪽 약 40m 지점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丙戌三月十五日庚申午時豎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199cm, 옆면 230cm로써 건평이 1.38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140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동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64cm, 옆면 45cm, 높이 36cm이다.



내덕 할매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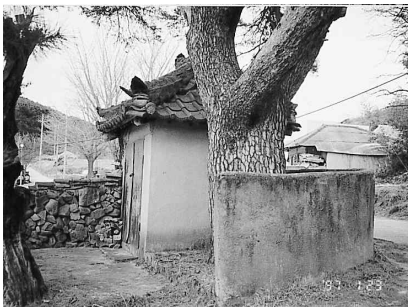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담장은 없고, 당사 앞의 언덕에 세죽과 이팝 나무들이 많이 있으며, 당사 왼쪽에 마을나무로 지정된 이팝나무(수령 700년, 수고 10m, 나무둘레 2.7m)가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의 3가구가 한 조가 되어 교대로 모시기 때문에 3명이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 반드시 삶은 쇠머리를 얹으며,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매제만 지낸다.

제2편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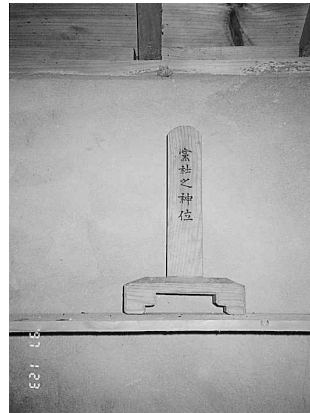
- 음복여부 : 제의 뒤 제물을 마을회관에 가져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1년간 제관은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망제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30-4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덕선리 선암 할아버지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남쪽 약 70m지점의 마을 입구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西紀一九七二年壬子正月二十七日立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7cm, 옆면 193cm로써 건평이 1.38평이다. 팔작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선암 할배당



선암 할배당의 위패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72cm, 세로 158cm)이다.

- 당사의 좌향 : 서북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19cm, 옆면 53cm, 높이 13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제단 위 126cm 위치에 설치한 나무 판자 시렁(앞면 220cm, 옆면 14.5cm, 두께 1.5cm)위에 “黨社之神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25cm, 두께 1.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오른쪽 입구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뒷면 270cm, 옆면 193cm, 높이 110cm, 두께 13cm)이 있고, 당사 앞쪽에는 돌담장(크기는 앞면 607cm, 옆면 370cm, 높이 50cm, 두께 50cm)이 있다. 그리고 시멘트담장 안, 당사의 오른쪽에 당산나무인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의 24가구가 순번을 정하여 1가구씩 교대로 가장이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마을 사람들이 제관 집에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보름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당제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12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정월 13일에 산에 가서 소나무를 가지째 끊어와서 껍질을 벗겨 당산나무에 원새끼로 묶어둔다.

5) 자연마을

○ 선암마을

기장쪽에서 장안 방면으로 1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1012번 지방도를 타야 하는 사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정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장안중합고교가 바로 왼쪽에 나온다. 다시 조금더 가면 주유소가 나온다. 주유소 위쪽에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선암마을과 내덕마을이 나온다.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위로 가면 내덕마을, 아래로 가면 선암마을이 나온다.

선암마을 입구에는 「장안배 장목회 집하장 및 판매장」이라고 쓰여진 건물이 있고, 보호수와 당집이 보인다. 보호수는 180년 된 소나무로 소재지가 기장군 장안을 덕선리 74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높이 25m, 둘레 3.2m 정도로 1982년 11월 10일에 지정되었다. 마을로 들어가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진 선암마을회관이 있다. 마을에는 축사가 많다. 마을 안쪽에는 금녕김씨 재실인 경모재(景慕齋)가 있다. 그외 선암자연농원이라는 음식점이 있다.

이 마을에는 바위 위에서 신선이 놀았다는 신선바위가 있다. 신선바위인 선암(仙岩)의 이름을 따서 선암마을이라 불렀다. 차성가(車城歌)에 “정정(丁丁)한 낙자(落子)소리 들리나니 선암(仙岩)이요”라고 하여, 선암이 나온다. 선암 앞에 있는 들이 선암들이다. 마을에는 선암사라는 절이 있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중북면(中北面) 선암동(仙巖洞)에는 34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다. 34호 가운데 최명단(崔命丹), 최복단(崔卜丹), 황순매(黃順每), 최춘일(崔春日)씨 집이 각각 4칸으로 가장 크다. 34호 가운데 최씨

(19호)가 가장 많다. 최씨 집성마을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김씨(7호) 순이다. 초가 2칸의 덕동서숙(德洞書塾)이 있다.

최씨 집성촌은 일제 강점기 때 조사된 동족마을 실태에서 확인된다. 1930년 10월 실시한 국세(國勢)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편찬된 《조선의 성(朝鮮の姓)》(조선총독부, 1936년)에 의하면, 당시 장안면 덕선리에는 경주 최씨 28세대의 동족마을이 있었다. 덕선리의 경주 최씨 동성마을은 최씨 집성촌인 선암마을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선암동과 하북면 내덕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덕선리가 되었다.

○ 내덕마을

기장쪽에서 장안 방면으로 1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1012번 지방도를 타야 하는 사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정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장안중 합고교가 바로 왼쪽에 나온다. 다시 조금더 가면 주유소가 나온다. 주유소 위쪽에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면 선암마을과 내덕마을이 나온다.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위로 가면 내덕마을, 아래로 가면 선암마을이 나온다.

마을에는 내덕마을 버스정류장이 있다. 마을에는 내덕부락회관이 있다. 마을회관은 내덕경로당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을 안에 내덕산장이라는 음식점이 있다. 마을 입구에 임인 정월 15일에 내덕부락 일동이 건립한 비석이 서 있다.

내덕 동쪽에는 내덕못[內德池]이 있다. 이 내덕못에서 흘러내린 덕선천은 선암마을을 관통하여 덕산마을과 좌동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덕산마을에서 보면 내덕마을은 계곡의 상류가 되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좌동마을에서 덕산마을이 생기고, 그 안쪽에 선암마을, 내덕마을이 형성되었다.

덕산(德山)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내덕마을이라 한 것 같다. 덕산은 약간 언덕진 산을 뜻하는 둔덕피를 가리킨다. 둔덕피[둔덕산]가 덕산이 되었다. 따라서 내덕마을은 안쪽에 있는 둔덕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선암동과 하북면 내덕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덕선리가 되었다.

5. 명례리

1) 연 혁

명례리는 대명마을과 신명마을, 그리고 도야마을을 합친 법정리이다. 예로부터 울리 또는 울레라 불려왔다. 예도를 숭상하고 지키며 위엄을 올리며 주위 사람들을 승복케하며 사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한 마을 이름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 옛날 큰울레(大鳴)마을에 (許)씨 성받이가 들어와 권세와 부를 함께 누리면서도 예절을 중히 여겨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딜 가나 대우받아 큰 소리를 울리며 사는 마을이라 하여 울레가 되었다고도 한다. 그 예로서 현재 울주군과 경계하고 있는 남창까지의 2km 긴 골짜기를 예동골 또는 예동곡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명마을과 도야마을 중간에 있는 양수받이(두갈래 냇물이 합수하는 곳)근처에 큰 서당이 있었다고 하며 차성가(車城歌)에도 「박모산 빗긴 달의 『비긴달에』 글소리 울레로다」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장현읍지》에는 고을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상북면 명례동이라는 공식적인 동리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후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명례리가 되었다.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에 의거 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산 천

○ 간빰디 - 재

대명마을 회관에서 서남쪽으로 간빰디(버덩)을 지나 상장안마을 회관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사근다리 고개

도야마을 남쪽에서 오리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한발재(고개)

도야마을 서남쪽에서 하장안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큰 들인 한밭의 골짜기로 나 있는 고개라 하여 한발재로 불리게 되었다.

○ 가는골

치픈골 동쪽에 있는 작은 가는 골짜기.

○ 궁근달골

도야마을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공굴다리(‘콘크리트 다리’의 사투리)가 있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독점골

도야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제2편 자치구

○ 딛놀골

대명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하천령에서 발원하는 효암천의 상류 계곡에 해당된다.

○ 못안골

도야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못이 자리잡고 있다 하여 못안골이라 불린다.

○ 뽕당골

양지산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불당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삼밭골

도야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이 골짜기 밭에 삼을 재배하였다 하여 삼밭골로 불리게 되었다.

○ 삼밭골논

삼밭골에 있는 논.

○ 고래논

대명 북쪽에 있는 고랫골에 있는 논.

○ 마당멀리(들)

대명마을 동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마당처럼 편편하다고 하여 마당멀리로 불리게 되었다.

○ 사근다리들

사근다리 고개 밑에 있는 들.

○ 섬들(들)

신명마을 남쪽에 있는 들로서 한가운데에 섬처럼 생긴 구렁이 자리 잡고 있다.

○ 부엉이 바우

뿔당골에 있는 바위로 부엉이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근달못

사근다리 옆에 있는 못.

○ 대명못

대명마을 동남쪽에 있는 못.

○ 뿔당골 폭포수

뿔당골에 있는 작은 폭포수.

○ 갯뺨디기(버덩)

대명마을 서남쪽에 있는 버덩으로 옛날 잡풀만 무성한 거친 자갈 언덕배기였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3) 민 속

○ 명례리 대명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의 동쪽 약 400m지점의 논 가운데의 소나무 · 느티나무 숲이 있는 동산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0cm, 옆면 215cm로써 건평이 1.5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흙벽에 횃가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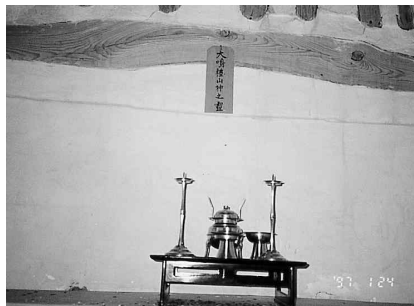
제2편 자치구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 짝 여닫이 문 (한 짝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115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두께 4cm의 나무판자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05cm, 옆면 54cm, 높이 74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大鳴禮山神之靈”이라 쓴 나무 위패가 제단 위 67cm에 있는 보에 부착되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26cm, 두께 1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돌담장(크기는 앞면 460cm, 옆면 460cm, 높이 147cm, 두께 36cm)이 있고, 그 밖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있다.



대명 할배당산



대명 할배당산의 위패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 또는 제주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하되, 되도록 돌아가면서 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6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당산할배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의에 참석한 자들이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공동경비로 하며, 약 1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당사의 담장 오른쪽 밖에서 240cm 떨어진 곳에 시멘트로 만든 산신제단(앞면 79cm, 옆면 60cm, 높이 20cm)이 있다.

○ 명례리 도야 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 앞 서남쪽 소나무동산 옆 길가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西紀壹仟九百六拾五年度乙巳三月拾五日申時立柱上樑.



도야당산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40cm, 옆면 265cm로써 건평이 1.92평이다. 팔작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제2편 자치구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2cm, 세로 126cm)이다. 당사 앞 처마 앞에 슬레이트 맞배 지붕을 한 차양대(앞면 382cm, 옆면 350cm, 높이 184cm)가 설치되어 있다.

- 당사의 좌향 : 서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04cm, 옆면 61cm, 높이 33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島野里祀之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제단 위 96cm 높이의 벽에 부착돼 있는데, 크기는 가로 7cm, 세로 35cm, 두께 2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왼쪽과 뒤쪽에 돌담(총길이 930cm, 높이 97cm, 두께 78cm)이 있고, 오른쪽은 소나무동산의 자락이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의 가구를 3가구씩 편성하여 순번으로 교대하여 지내는데, 3가구의 호주가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새벽1시와 6월 15일 새벽 1시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제관들이 음복하고, 남은 제물을 마을회관에 가져와 마을사람들이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망겇돈’이라 하고, 마을기금으로 하되,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명례리 신명 마방지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남쪽 길가 아래의 민가에서 10m 거리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丙午年潤參月拾五日甲子午崑立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0cm, 옆면 134cm로써 건평이 0.93평이다. 우진각 시멘트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 문(크기는 가로 89cm, 세로 137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동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94cm, 옆면 53cm, 높이 34cm이고, 향로대는 앞면 34cm, 옆면 17cm, 높이 11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신명 마방지할배당산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460cm, 옆면 530cm, 높이 150cm 두께 18cm)이 있다.

제2편 자치구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만 모시는 이’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당산할배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에는 부정없는 마을사람들이 참석하며, 제의 뒤에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3개월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당비’라 하고, 마을의 가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당사의 뒤 왼편 담장 아래에 약 95cm 떨어진 곳에 시멘트로 만든 산신제단(앞면 100cm, 옆면 65cm, 높이 11cm)이 있다.

○ 명례리 신명 세올리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동쪽 변의 약 100m 지점의 산록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歲在一九六八年八月二十八日壬戌午崑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7cm, 옆면 236cm로써 건평이 1.7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늬샷시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4.5cm, 세로 138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72cm, 옆면 55cm, 높이 25cm이고, 제단 위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산신제단은 당사에서 동쪽 약 1m 거리에 있는데, □형의 블록담장(양옆벽 길이 105cm · 높이 59cm, 뒷벽 길이 136cm · 높이 74cm) 안에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지면에서의 높이가 52cm이고, 좌향은 동남향이다. 그리고 산신제단 오른쪽에 큰 팽나무가 한 그루 있다.



신명 세울리 할배당산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오른쪽에 흉고둘레 228cm의 팽나무가 있고, 팽나무 밑에 산신제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신제단 아래쪽에 40여년생의 소나무 2그루가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만 모시는 이’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자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당산할배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제의에는 부정이 없는 마을사람들이 참석하며, 제의 뒤에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3개월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당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4) 자연마을

○ 대명마을

상장안마을에서 명례리로 가는 협동로가 1978년 완공되었다. 이 협동로는 명례리의 대명, 도야, 신명마을, 오리의 대룡마을, 장안리의 상장안마을에서 각각 부지를 내어 주민들이 협동하여 만든 길이다.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이 상장안마을 가마솔가든 앞에 서 있다. 여기서 명례리로나 있는 협동로를 따라 가면 큰 저수지가 나오고, 금샘농원이라는 음식점이 나온다. 이 곳을 지나면 대명마을이 나온다. 마을에는 대명마을회관이 있다. 회관에는 대명마을노인정이 있다. 전통생활도자기를 만드는 토정도예라는 공장이 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명례리의 옛이름은 울례[울리]이다. 울이 뜻을 빌어 울 ‘명(鳴)’자로, 례가 음을 빌어 ‘례(禮)’자가 되었다. 이 두 글자가 합하여 명례(鳴禮)가 되었다. 울은 울타리를 뜻한다. 예[례]는 ‘나’, ‘라’로 발음되는 마을, 촌(村)을 뜻한다. 따라서 울례[울리] 즉, 명례는 울타리가 있는 마을을 뜻한다. 울타리는 방어시설을 의미하므로, 군사들의 군막(軍幕)이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고 본다. 한편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는 크게 번성하였으므로, ‘땡땡울리고 사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울리’라고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차성가(車城歌)에 “박모산(薄暮山) 비낀달에 글소리 울례(蔚禮)로 다”라고 하여, 울례가 나온다.

대명(大鳴)은 큰 명례를 뜻한다. 대명마을의 옛이름은 큰 울례[울리]이다. 따라서 대명마을은 명례리의 본동 마을이다. 대명례에서 끝의 ‘례’자를 빼고 대명이라 부른다. 지형적으로 보면 명례리의 대명마을은 본동, 신명마을은 동동(東洞), 도야마을은 하동(下洞)이 된다. 명례동 앞에는 사근제(沙斤堤)가 있었다. 명례동 동쪽에는 화철령(火鐵嶺)이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명례동(鳴禮洞)에는 42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42호 가운데 김심백(金心白), 정기선(鄭基先), 김용심(金用心)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42호 가운데 김씨(21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최씨(4호), 권씨(3호) 순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명례동이 동래군 장안면 명례리가 되었다.

○ 도야마을

대명마을을 지나 협동로를 따라 가다가, 국도 14번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상장안마을에서 명례리로 가는 협동로는 1978년 완공되었다. 이 협동로는 명례리의 대명 · 도야 · 신명마을, 오리의 대룡마을, 장안리의 상장안마을에서 각각 부지를 내어 주민들이 협동하여 만든 길이다. 지형적으로 보면 명례리의 도야마을은 하동(下洞), 대명마을은 본동, 신명마을은 동동(東洞)이 되는 마을이다. 신명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회관인 도야회관이 있다. 마을 앞에는 큰 소나무가 있다.

제2편 자치구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의 옛이름은 ‘섬들’이다. 마을 주변이 들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은 임야가 생겨 마치 들 가운데 섬처럼 생겨서, 그 들을 ‘섬들’이라 불렀다. 섬들이라는 들의 이름이 마을이름이 되어 섬들마을이라 부른다. 섬들마을이 섬 ‘도(島)’자와 들 ‘야(野)’자가 합쳐져서 도야(島野)마을이 되었다. 주민들은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 못밀마을

대명 동남쪽에는 대명못[대명큰못, 울리못]이라 불리는 큰 못이 있다. 이 못 밑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못밀마을이라 부른다.

○ 신명마을

장안읍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명례리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과 경계를 이루는 위쪽 마을이다. 도야마을에서 국도 14번과 교차하는 굴다리 아래로 난 길로 가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다시 국도 14번에 오른다. 국도 14번 옆에는 신명산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진하해수욕장을 알리는 간판 아래에 신명마을로 가는 표지석과 알림판이 함께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를 가다보면 청암사라는 사찰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농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정부지원으로 만들어진 한우축사가 있다. 마을에는 마을회관인 신명회관이 있다. 회관 건물에는 신명노인정, 신명청년회, 신명영농회, 신명개발위원회, 신명부녀회가 함께 있다.

마을의 옛이름은 새울례[울리]이다. 명례리의 본동 마을인 대명마을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새울례라 불렀다. 새울례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새’ 신자를 써서 신명례(新鳴禮)가 되었다. 신명례에서 끝의 ‘례’자를 빼고

신명(新鳴)마을이 되었다. 지형적으로 보면 명례리의 신명마을은 동동(東洞), 대명마을은 본동, 도야마을은 하동(下洞)이 되는 마을이다. 동풍(東風)을 셋바람이라 부르는 것처럼, 신명마을의 신[新, 새]은 동쪽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명례리에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신명이라 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상장안마을에서 명례리로 가는 협동로는 1978년 완공되었다. 이 협동로는 명례리의 대명·도야·신명마을, 오리의 대룡마을, 장안리의 상장안마을에서 각각 부지를 내어 주민들이 협동하여 만든 길이다.

5) 기 타

○ 명례리 도야동 분묘유적(墳墓遺蹟)

명례리 도야동 남서쪽에 표고 117m의 야산이 있는 그 야산 동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낮은 구릉의 경사면에 분묘가 분포돼 있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1993년에서 1997년에 걸쳐 기장군 일대 지표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송전철탑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이 송전철탑을 세우기 위해 길을 내었는데 길 주변에 5~6세기대 도질토기들이 흩어져 있고 도굴한 구멍이 도처에 뚫여 있었다. 드러난 유구들은 대부분 중·소형의 석곽묘였다. 지표에 드러난 석곽묘는 개석(蓋石)이 있고, 석곽의 크기는 길이 180cm, 폭 95cm 정도였다. 유물은 개(蓋)와 고배(高杯)가 주류를 이루었다.

위치가 다른 독립된 낮은 구릉에서는 봉토(封土) 높이 120cm 내외, 직경10cm 정도의 큰 무덤 1기가 있었고 이 무덤에서 430cm 정도 떨어진 자리에는 직경 5m 내외의 작은 봉분 무덤 1기가 있었다. 그러나 봉토분 위에는 송전철탑이 세워졌다. 또 다른 경사가 완만한 마을 서쪽 언덕에

있는 텃밭에서는 5세기 말에서 6세기대로 보이는 도질(陶質)과 연질토기 소량이 채집되었다. 그러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도굴과 파괴를 막으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진 전 지역의 정식 발굴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6. 반룡리

1) 연 혁

구기(舊基)마을과 고무(古武)마을을 합친 법정리이다. 《기장현읍지》에는 반룡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중북면 반룡동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기장군 상북면 오동에 속해 있던 고무(古武)마을을 흡수하여 동래군 장안면 반룡리가 되고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 호로 장안면의 읍 승격과 함께 양산군 장안읍 반룡리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기장군위 복군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가 되었다.

옛 이름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동명(洞名)의 유래 또한 뚜렷하게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없으므로 인근 마을 이름과 연관지어 유추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우선 같은 수계인 장안천 중류지점에 『용수물-다물』(용수담→龍首潭)이란 물웅덩이 소(沼)가 있다. 이로 연유하여 용(龍)자와 인연되면서 바로 윗쪽 마을이 기룡이요, 용소천에도 용자 붙은 웅덩이가 많아서 마을이름도 용소인 것처럼 장안천과 용소천이 합수하여 상하로 넓은 들을 이루면서 마을 앞을 구비 돌아 흐르는 냇물의 모양이 흡사 용이 『또아리』(방언은 파랭이=머리에 짐을 일 때 짐 밑에 받치는 짚. 또는 형겅 따위로 만든 둥근 도구)를 트는 것 같은 모양으로서 기룡이나 용소처럼 마을이름에 용자를 넣어서 반룡으로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반룡의 반(盤)은 소반을 뜻하는 반이 아니라 굴곡(屈曲)을 뜻하는 서릴 반의 반(盤)자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2) 명승고적

○ 남방소보수보 기념비(南方沼沚修湫 記念碑)

반룡리 반룡마을 입구에 마을의 표지석과 나란히 서 있는 이 비는 남방소보를 쌓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다. 크기는 118×31×11cm로 일제 때인 1940년에 세웠다.

비문의 내용은 반룡리 아래 윗 들의 토지는 비옥하나 물대기가 어려워 가뭄이 들면 흉작이 되었는데 1939년 큰 가뭄이 들자 도(道)에서 의논하여 도의 보조금 2,545원과 지주들이 부담한 1,698원으로 저수지 독을 쌓았다. 독의 높이는 3승(陞), 길이 90척, 폭 7척, 깊이 23척이었다. 이로써 관개시설이 확충되어 소작인의 고통을 해소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를 세운다고 하였다.

3) 민 속

○ 반룡리 본리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회관에서 동쪽 약 80m 거리에 위치하고, 월내에서 하근으로 가는 도로 오른쪽 논을 건너 산 밑이며 마을에서 동쪽 약 80m 지점.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2000년 12월에 당사 뒤에 소나무가 쓰러져 당사의 벽이 허물어짐에 재건축함.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305cm, 옆면 301cm로써 건평이 2.8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시멘트벽돌 쌓아 밤색

제2편 자치구

타일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외쪽 여닫이 알미늄샷시 문(크기는 가로 82cm, 세로 151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서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크기는 앞면 258cm, 옆면 70.5cm, 높이 62.7cm) 위에 나무판(크기는 앞면 258cm, 옆면 70.5cm, 두께 5.8cm)이 얹혀 있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2개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오른쪽에 “방모地神之位”, 왼쪽에 “本里地神之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앞의 것의 크기는 가로 7cm, 세로 27cm, 두께 1cm이고, 뒤의 것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24.5cm, 두께 1.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반룡리 본리제당



반룡리 본리제당의 위패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앞에는 석축 위에 시멘트바닥(앞면 390cm, 옆면 387cm)을 해 놓았고, 당사의 왼쪽에는 흉고둘레가 220cm인 죽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당사 뒤에는 큰 바위가 있다. 당사 주위에는 철근 휀스를 쳐 놓았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연말 마을 총회에서 연로자 2명을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을 마을회관에서 장만하며, 제물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제당할배할매제만 지낸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그 자료 및 형태 : 옛날에는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당산나무옆에 세웠으나 요사이는 당산나무에 금줄만 친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마을 회관에서 음복을 하며, 음복을 했을 경우 적어도 보름 이상 금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의 노인층만 주로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옛날에는 3개월간이었으나 요사이는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자체 경비로 하며, 약 1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이장 박경희씨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방모 마을의 할배제를 지내고, 그 다음 본리 마을의 할미제를 지냈는데, 약 50여년 전에 방모의 당사가 수해를 입자, 그곳의 할배를 본리 할배당사로 모셔와 합사(合祀)하게 되었다고 함. 현재 방모 마을에는 4가구만 있다고 함.

○ 반룡리 구기당산

- 당산 소재지 : 반룡리 102번지. 마을회관에서 서남쪽 약 80m 지점의 숲 옆.

제2편 자치구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戊寅三月初五日丁卯開始三月二十九日申卯畢役.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70cm, 옆면 336cm로써 건평이 2.74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돌과 시멘트를 섞어 만든 구조물이고, 문은 외쪽 여닫이나무문(크기는 가로 71cm, 세로 143cm)이다.
- 당사의 좌향 : 동동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80cm, 옆면 66cm, 높이 42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 위패가 서 있다.



반룡리 구기당산



반룡리 구기당산의 위패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慶尙南道東萊郡長安面盤龍里舊基部落社神之位”라 쓴 나무 위패가 제단 위에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16cm, 세로 80cm, 두께 3cm이다.
- 당산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 담장은 없고, 수풀이 우거져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이장이 지낸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할매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마을회관에 동네사람들이 모여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없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반룡리 고무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서남방 약 100m 지점으로 하근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의 오른쪽 소나무 숲속에 위치.



반룡리 고무당산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乙未閏三月二十八日午時豎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62cm, 옆면 256cm로써 건평이 2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시멘트를 입혔고, 벽은 돌을 쌓고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며, 문은 나무로 만든 두 작

제2편 자치구

여달이문(한쪽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131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서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65cm, 옆면 70cm, 높이 16cm이다.
제단 위에 나무판자가 있고 그 위에 제구가 없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산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담장이 없고, 소나무 숲이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위 뒤인 보름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제관의 집에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4) 자연마을

○ 고무마을

반룡리 본리마을 북쪽에는 고무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고무마을이다. 고무골, 고무동이라고도 부른다. 옛이름은 알 수 없으나, 고무는 곰[熊]의 차음 표기라고 한다. 이 곰[熊]은 신(神), 군(君)을 의미하는 검, 감, 고마, 개마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고무마을은 큰마을, 본마을, 중심마을로서 주촌(主村)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손씨가 피난와서 마을을 이루었는데, 마을 지형이 무예(武藝)를 닦기에 좋으므로, 많은 무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옛 ‘고’자와 무사 ‘무’자를 써서 고무(古武) 마을이라 하였다고 한다. 차성가(車城歌)에 “수락석출(水落石出) 건천(乾川)이요 절극침사(折戟沈沙) 고무(古武)”라고 하여, 고무가 나온다. 손씨가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고무동(古武洞)에는 11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11호 가운데 2칸 집이 7호나 된다. 11호 가운데 7호가 손씨 집이다. 손씨 동성마을이라 생각한다.

본래 고무마을은 대룡리, 판곡리, 신리, 개천리와 함께 오동오리(五洞五里)로 되어 있다가, 장안면이 생기면서 반룡리에 소속되어 반룡리 고무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오동일부와 중북면 반룡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반룡리가 되었다. 1904년 당시 기장군 상북면에 속해 있던 고무동이 이때 장안면 반룡리 고무마을로 된 것 같다.

○ 구기마을

반룡본리마을에서 월내리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 구기마을을 알리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정류장에는 「반룡 《구기》 길천」이라고 쓰여져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구기마을이 나온다. 마을에는 구기마을회관이 있다. 회관 안에는 구기노인정이 있다. 구기마을에는 김해김씨 경과(京派) 집안의 재실인 경모재(敬慕齋)가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 생긴 마을을 새터, 신기(新基)마을이라 부른다. 이로 미루어 보아 구기(舊基)마을은 옛터로서, 마을이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형성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반룡본리마을

기룡리 하근마을에서 월내리 쪽으로 난 길로 가면 반룡리가 나온다. 반룡리의 중심마을이 반룡본리마을이다. 줄여서 본리마을, 본동마을, 반룡마을이라고 부른다. 반룡마을 버스정류장에는 「하근 《반룡》 구기」라고 쓰여져 있다. 반룡마을에는 마을회관인 반룡회관이 있다. 회관 앞에는 1940년(소화 25년 5월 일)에 세워진 남방소보수보기념비(南方沼淤修淤記念碑)가 서 있다. 남방소보답(南方沼淤畓) 소작인이 세웠다고 쓰여져 있다. 이 마을에는 본동식당이 있다.

마을은 장안천의 중류에 위치한다. 장안천은 이 마을 앞에서 넓은 평야를 끼고 구불어져 굴곡을 이루면서 강폭이 넓어진다. 장안천은 옛날에는 건천(乾川), 용천(龍川)이라 하였다. 건천은 마르내고, 용천은 머리내다. 모두 머리내로서 큰 내, 으뜸가는 내라는 뜻이다. 마을이 장안천(龍川)의 굴곡(屈曲)지점에 위치하므로, 돌[선회할] ‘반’자와 용 ‘룡’자를 써서 반룡(盤龍)마을이라 불렀다. 즉 꼬불꼬불 반곡(盤曲)된 머리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1936년) 기장군 산천조에는 반룡천(盤龍川)이 나온다. 이에 의하면, 반룡천은 그 원류가 둘이다. 하나는 군의 북쪽 40리에 있는 불광산 상류에서 흘러 나온다. 다른 하나는 군의 북쪽 30리에 있는 용소곡에서 흘러 나온다. 이 두 갈래가 합류하여 월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반룡천과 반룡마을 가운데 어느 쪽 이름이 먼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반룡마을의 이름은 이 반룡천과 관련이 크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원래 장안에는 다섯 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반룡에 있어서, 용이 서려 있는 마을이라 반룡이라 하였다고 한다. 차성가(車城歌)에 “산세(山勢)도 장(壯)하도다 기상(氣像)이 반룡(盤龍)이라”라고 하여, 반룡이 나온다. 고무마을이 오동(五洞) [五里]에서 반룡리에 속하게 되자 마을을 본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반룡동(盤龍洞)이 세 곳 있다. 중북면(中北面)에 한 곳, 상북면(上北面)에 두 곳이다. 세 곳과 반룡마을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 가호안에 의하면, 당시 중북면 반룡동에는 9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초가 2~3칸 집이다. 9호 가운데 김운택(金云宅)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9호 가운데 김씨(4호), 이씨(3호) 순이다. 그리고 상북면 반룡동에는 5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5호 가운데 김씨가 2호, 장(張)씨가 2호이다. 또 다른 상북면 반룡동에는 5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초가 2칸, 3칸 집이 각 2호다. 5호 가운데 윤석우(尹錫佑)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5호 가운데 박씨가 2호, 김씨, 윤씨, 추씨가 각각 1호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오동일부와 중북면 반룡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반룡리가 되었다.

5) 기 타

○ 반룡리 유적(盤龍里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95년에서 1997년 사이 기장군 일대의 지표 조사를 하였을 때 반룡리 긴네들 서쪽 구릉 일대에서 도질토기편 3점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자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밭의 경작으로 인해 유물이 지상으로 노출된 것 같았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채집된 도질토기편 2점은 기형을 알수 없고 1점은 호(壺)의 구연부편(口緣部片)으로 추정되었다. 색조는 회청색이었다. 채집유물로 보아 5~6세기대의 분묘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7. 오 리

1) 연 혁

오리는 글자 그대로 다섯 자연마을이 모여 하나의 법정리를 이룬데서 유래된 마을이름이다. 대룡·판곡·신리·개천 그리고 고무 등이 그것이다. 오리는 《기장현읍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신리방(新里坊)이 대신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도 중북면 고무동(古武洞), 신리동·개천동(開川洞)·판곡동(板谷洞)·대룡동(大龍洞)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 장안면 오리가 되면서 고무(古武)마을을 반룡리로 떼어주게 되어 4개마을이 남게 되었으나 오리라는 동명을 그대로 유지, 사용해오고 있다. 그후 1973년 7월 1일 동래군이 폐지되고 양산군에 병합됨에 따라 양산군 장안면 오리가 되었다.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양산군 장안읍 오리가 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과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가 되었다.

2) 산 천

○ 굴방우

오리 개천마을 뒷산에 우뚝 솟은 바위로 아래에는 큰 굴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두 산 속으로 피난을 하였는데 경주에 살던 해주 오씨들이 어느 백발노인의 안내로 이 곳 굴에서 피난을 하게 되었다.

깊은 산속인지라 밤중에는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였는데 그 백발노인이 이 바위를 세워주게 되자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이 바위에서 푸른 빛이 발하면서 쉽게 이 굴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 이 바위는 나라에 큰 변란이 생기거나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 때는 빛을 발하여 미리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때마다 변란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보름날이면 제수를 차려서 백발노인의 은혜를 기리는 제를 지내고 있다.

○ 덧골생이 고개

덧골생이에서 너실 산골의 외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꼬사리 밭골

개천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사리 밭이 있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덧골생이골

오리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못안골

어드뱅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새앙-골

개천마을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찬 샘이가 있다.

○ 안골

개천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효암천 상류계곡에 해당된다.

○ 어드뱅이골

안골 북쪽에 있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

○ 원곡(골)

오리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효암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내의 계곡이다.

○ 텃골

개천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화짓대산

솔재갯 동쪽에 있는 산으로 화짓대가 서 있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여수방우

오리에 딸린 판곡마을 뒷산 골짜기에 있는 바위. 이 골짜기를 여수더미라고 하며, 다음과 전설이 얹혀 있다. 즉, 옛날 여수바우 밑에 천년묵은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둔갑을 잘하는 매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산길에서 둔갑을 하여 사람을 흘려서는 간을 파먹고, 무덤을 파헤쳐서 송장을 뜯어 먹기도 하였다. 이에, 인근 마을 장정들과 합세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대창과 몽둥이를 들고 여수더미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매구는 그 틈을 타서 텅빈 마을에서 닭을 모두 잡아 먹고서는 마을 사람으로 변신하여 대창을 들고 따라 다녔다. 마을사람들은 의논 끝에 힘센 장사를 데려와서 천년묵은 여우를 퇴치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장사는 환도를 들고 여수더미로 올라갔다. 매구는 늙은 할망구로 변신하여 산길에 쓰러져 곧 죽는 시늉을 하였다. 장사는 마을에 살고 있는 노파인 줄 알고 등에 업고 마을로 급히 내려오는데 매구는 그 사이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두 눈을 질러 버렸다. 장사는 비명을 지르면서 앞을 보지 못해 이 산 저 산을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어느 달 밝은 밤 주막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젊은 남자를 멀리서 바라보던 여우는 곧 예쁜 처녀로 둔갑하여 접근하였다. 젊은 남자의 몸에서 술냄새를 맡은 매구는 콧소리를 지르면서 늙은 여우가 되어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매구가 술냄새를 맡으면 매구가 되지 못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잔치를 벌이고 모두 거니하게 술에 취하여 술통을 가지고 여수더미와 마을에 술을 뿌리고 여수바우에는 술통을 놓아두었다. 매구는 술냄새 때문에 변신을 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고 한다.

○ 자래방우

개천마을 남쪽 효암천에 있는 바위로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자래방우로 불리게 되었다.

○ 할만네 방우

자래방우 아래쪽에 있는 바위로 생긴 모습이 할머니와 비슷하다.

○ 용왕소

할만네 방우 아래쪽 효암천가에 있는 소택지로서 옛날 이 곳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3) 민 속

○ 오리 개천 골매기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 앞의 산밑, 마을에서 남쪽 약 150m지점의 도로변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中元甲壬申年七月十八日壬子申時豎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25cm, 옆면 233cm로써 건평이 1.59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단이문(한쪽의 크기는 가로 39cm, 세로 127cm)이다.



개천 골매기 할매당산



개천 골매기 할매당산의 위패

- 당사의 좌향 : 동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합판으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91cm, 옆면 80cm, 높이 58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東萊郡長安面開川洞古堂”라 세로로 쓴 나무판이 제단에서 82cm 높이의 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12cm, 세로 42cm, 두께 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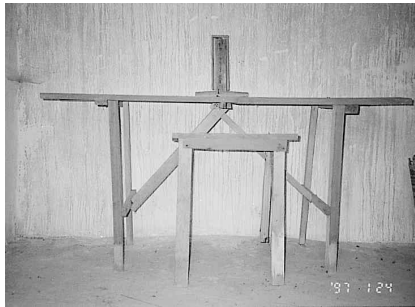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뒤는 가파른 산기슭이고, 양옆은 돌담장 (한쪽 길이 450cm, 높이 140cm, 기저두께 100cm)이며, 앞쪽은 블록을 쌓은 담장(크기는 앞면 990cm, 높이 128cm, 두께 15cm)이고, 돌담장 밖 좌우에 향나무가 각각 2그루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하며, 제물은 마을의 30여 가구가 조를 짜 순번대로 제물을 장만하고 제의에는 마을의 남자어른들이 전부 참여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는 소나 돼지의 족발 4개와 백절을 반드시 얹으며,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산신제→당산제의 순서이다.
- 거릿대의 건립 유무와 자료 및 형태 : 정월 14일에 나무를 깎아 오리형상을 만들어 산신나무인 소나무에 원새끼로 매단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에서 자진하여 내는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당사 뒤에 흉고 둘레가 210cm인 소나무가 산신나무이며, 당사에서 서남쪽(왼쪽 위) 370cm거리에 산신제단(자연적으로써 크기는 앞면 69cm, 옆면 45cm, 높이 26cm)이 설치되어 있다.

○ 오리 신리 골매기할매당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서남방 저수지 너머 산 아래의 대숲 밑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50cm, 옆면 252cm로써 건평이 1.9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36cm)이다.
- 당사의 좌향 : 동북향.



신리 골매기 할매당사



신리 골매기 할매당사의 위패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제상으로 크기는 앞면 137cm, 옆면 53cm, 높이 23cm이고, 제상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新里地神兩位靈座”라 쓴 나무 위패가 제상 위에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22.5cm, 두께 1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고, 당사 입구 오른쪽 안벽 모서리 중간에 나무판(가로 55cm, 세로 26cm, 두께 1.5cm)을 설치하고 거기에 시준단지를 얹어 두었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돌담장(크기는 앞면 430cm, 옆면 540cm, 높이 164cm, 두께 40cm)이 있고, 당사 뒤 돌담밖에 흥고돌레 265cm의 노송이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 어른들의 나이 순으로 제관이 되며, 제물은 마을의 약 30가구를 2가구씩 편성하여 교대로 장만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옛날에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으로 연 2회였으나, 요사이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에 지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보름날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마을 회관에서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1년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기금의 이자로 제물을 장만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4) 자연마을

○ 개천마을

효암천(孝岩川) 중류의 강폭이 넓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다. 이 효암천을 계내[鷄川]라고 불렀다. 개천마을의 옛이름은 개내다. 한자로 표기하면 계천(鷄川), 계내(鷄內), 또는 개내(介內)였다. 모두 개내의 한자

표기이다. 강과 마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양자가 일치한다. 차성가(車城歌)에 “개천(介川)에 누운용(龍)이 등천(登天)하니 대룡(大龍)이라”라고 하여, 개천[개내]이 나온다.

개내[계내, 鷄川]는 새내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때의 새는 동풍(東風)을 셋바람이라 한 것처럼, 동쪽이나 밝음을 뜻한다고 한다. 개내[계내, 鷄川]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내를 뜻하는 개천(開川)으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개내는 개울과 내의 합성어로 조그만 내가 이 마을에서 시작하였으므로 개천(開川)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마을 주민들은 임진왜란 때 해주 오씨가 도사의 안내로 이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개천·대룡·관곡·신리·고무마을을 합쳐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오동, 오리라고 부른다. 마을에는 개천마을회관과 개천노인정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장안배 작목회 집하장 및 판매장이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개천동(開川洞)에는 12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9호 가운데 한세영(韓世永)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12호 가운데 김씨, 오씨, 한씨가 각각 2호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오동(五洞)일부가 동래군 장안면 오리가 되었다.

○ 대룡마을

국도 14번을 타고 명례리 신명마을에서 부산 방면으로 1.5km 정도 가면 대룡마을과 오리마을을 알리는 알림판이 있다. 대룡마을 입구에는 보건 진료소가 있다. 1994년 3월 준공된 대룡마을회관이 있다. 마을회관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겸하고 있다. 대룡마을에서 개천마을로 가다보면

대룡용바윗골가든이 있다. 마을에는 장안국교 대룡분교가 있었다.

마을 남쪽에 있는 큰 바위가 용처럼 생겨 바위 이름을 대룡암(大龍岩)이라 하고, 그 계곡을 용바위골이라 부른다. 대룡암에서 이름을 따서 대룡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룡암은 용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큰머리바위[大頭岩]였는데 큰머리바위[大龍岩]로 잘못 전해졌다고 한다. 한편 마을 뒤흘에 있는 조그만 계곡에서 큰 용이 등천하였다고 하여 대룡(大龍)마을이라 부른다고 본다. 차성가(車城歌)에 “개천(介川)에 누운용(龍)이 등천(登天)하니 대룡(大龍)이라”라고 하여, 대룡이 나온다.

대룡 · 판곡 · 신리 · 개천 · 고무마을을 합쳐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오동, 오리라고 부른다. 대룡마을은 오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이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대룡동(大龍洞)에는 7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7호 가운데 김칠월(金七月)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7호 가운데 김씨(4호)가 가장 많다.

상장안마을에서 명례리로 가는 협동로가 1978년 완공되었다. 이 협동로는 오리의 대룡마을, 장안리의 상장안마을, 명례리의 대명 · 도야 · 신명마을에서 각각 부지를 내어 주민들이 협동하여 만든 길이다.

○ 신리마을

기룡리 하근마을 뒤편에 오리의 신리마을과 판곡마을로 가는 길이나 있다. 길 입구에는 신리마을과 판곡마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에는 신리마을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의 자매부락임을 알리고 있다. 표지석 옆에는 동래원예고등학교 실습농장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 길을 따라 가면 신리마을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버스정류장에는 「하근 《신리》 판곡」이라고 쓰여져 있다. 버스정류장 옆에 신리마을 표지석이 있다. 그 옆에는 남원양공포석공로비(南原梁公浦錫功勞碑)라는

비가 서 있다. 비 뒷면에는 양포석이 농지개혁, 농로개설, 향촌발전 등에 이바지하여 1990년 신리주민 일동이 세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마을에는 동래원예고등학교 장안실습농장이 있다. 마을에는 신리부락 회관이 있고, 그 뒷편에 신리노인정이 있다. 마을 위쪽에 금산사(대한불교 조계종)라는 사찰이 있다. 마을 안쪽에는 남원양씨신리문중(新里門中) 재실인 영모재(永薰齋)가 있다. 마을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많다.

대룡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 신리(新里)라고 부른 것 같다. 한편, 신리라는 이름에서 ‘신’자는 새롭다는 뜻이 아니고, 동풍을 셋바람이라 하는 것처럼, 동쪽이나 밝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마을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는 약 400년 전 진양(晉陽) 하씨(河氏)가 처음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면서, 갈대밭이던 곳을 개간하여 전답을 만들고 살았으므로 신리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차성가(車城歌)에 “우후청산(雨後靑山) 돌은달은 새로 워라 신리(新里)로다”라고 하여, 신리가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신리동(新里洞)에는 9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9호 가운데 김차금(金且今)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9호 가운데 김씨(5호)가 가장 많고, 박씨(2호), 양(梁)씨(2호)이다. 신리·대룡·판곡·개천·고무마을을 합쳐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오동, 오리라고 부른다.

○ 판곡마을

대룡마을에서 개천마을로 가다 보면 중간에 우측으로 난 농로가 있다. 이 길을 따라 가면 1992년에 세워진 어두봉교라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 좁은 길을 따라 가면 판곡마을이 나온다. 마을에는 마을회관인 판곡회관과 판곡노인정이 있다.

신리마을이나 판곡마을로 가려면 장안리 하근마을에서 가는 것이 쉽다. 판곡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대룡 《판곡》 신리」라고 쓰여져 있다. 판곡버스정류장에서 우측으로 난 길로 가면 신리마을이다. 판곡에서 신리로 가는 길에는 한일농원이라는 큰 알림돌이 있다. 그외 마을에는 한성양어장이 있다.

판곡의 옛이름은 너실, 널실, 널골이다. 골짜기 사이의 넓은 평지에 위치하였으므로 널실이라 불렀다. 넓은 골이 너른골, 널골이 되었다. 실은 골과 같은 뜻이다. 널실 · 널골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널 ‘판(板)’, 골[실] ‘곡(谷)’자를 써서 판곡(板谷)이 되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임진왜란 때 동래 정씨가 피난지를 찾던 중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송림이 울창하였으므로 이 소나무로 널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널실, 너실마을 즉, 판곡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동래 정씨가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판곡동(板谷洞)에는 10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10호 가운데 노원매(盧元每), 정삼월(鄭三月)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10호 가운데 정(鄭)씨(5호)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이씨(2호) 순이다. 판곡 · 대룡 · 신리 · 개천 · 고무마을을 합쳐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오동, 오리라고 부른다.

8. 용소리

1) 연 혁

옛 이름은 뚜렷하게 전해오는 바가 없다. 장안의 진산인 삼각산(三角山)에서 발원하여 마을 앞을 지나 반룡에서 장안천과 합류하는 용소천은 상류쪽 곳곳에 작은 폭포가 소(沼)를 이루고 있고 이곳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용담(龍潭)이라는 큰 웅덩이가 있다. 이곳을 용담골이라 하여 놀이터로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이 용소는 용추(龍楸)·용담(龍潭)·용소(龍沼) 등과 같이 용과 연관지어 지은 이름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용소리는 《기장현읍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상북면 용소동(龍沼洞)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용소리였다가 1973년 7월 1일부터는 양산군 소속이 되고 동1985년 10월 1일에는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양산군 장안읍 용소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복군되면서 이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로 되었다.

2) 산 천

○ 가는 골재(고개)

용소마을 북서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를 따라 기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 가는 골

용소마을 북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장안천으로 흘러드는 용천의 상류 계곡이다.

○ 갈밭골

빨근밭골 북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개장-골

놋쇠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고점골

용소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구사짐 고개

용소마을 남쪽에서 덕선리 내덕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구사짐 골짜기를 따라 고개가 나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굴방우

버무듬 서쪽에 있는 바위로 작은 동굴이 나 있으며 옛날 이 곳에 범이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굴방웃골

굴방우가 있는 골짜기.

○ 난들

벌들 동쪽에 있는 넓은 들로서 장안천을 흘러드는 용소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놋짐들

놋짐골에 있는 들.

제2편 자치구

○ 도치골

무덤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떡갈등

용소마을 북쪽에 있는 등성이.

○ 무덤골

추밭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무정골

은개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미나리-곰 골짜기

놋집밭 뒤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방모산

용소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53.5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꼭대기가 둥그스레하며 북쪽 산기슭 아래로 용소천이 흐르고 있다.



방모산 전경

○ 버무듬골

갈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범이 숨어 살았다는 굴방우가 있다.

○ 버무듬들

버무듬골에 있는 들.

○ 벌들

용소마을 남쪽 벌판에 있는 들. 장안천으로 흘러드는 용소천의 범람원에 해당한다.

○ 벌들 못

벌들에 있는 저수지.

○ 벌들보

벌들에 있는 농업용수의 보.

○ 비탈논-골짜

개장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산비탈에 논이 있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빨근발 골

상나무새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상나무새-새(산)

점평이 서쪽에 있는 산.

○ 새림들

나들 북쪽에 있는 들.

○ 새림보

새림들에 있는 농업용수의 보(洑).

제2편 자치구

○ 송곳바우

용소마을 남동쪽에 있는 바위로 송곳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송뚝웅디

용소서쪽 송뜨물에 있는 웅덩이.

○ 송뜨물

용서 서쪽에 있는 바위더미로 아래에는 소택지가 있다.

○ 아랫구사짐들

구사짐 소개 아래쪽에 있는 들.

○ 아릿 벌들보

벌들보 아래에 있는 보.

○ 애기 웅디

버무듬 서쪽에 있는 작은 웅덩이.

○ 애나무 달 모롱이

용소마을 남쪽에 있는 모롱이로 외나무 다리가 있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용담소

용소 북쪽에 있는 소. 옛날 이 곳에서 용이 등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용두대

용담소에 있는 널따란 바위. 《기장읍지》에 “용두대는 기장군에서 북녘 3리에 있다. 산봉우리가 세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석이 기려하다. 신룡이 화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까닭으로 용두대라 이름하였다”라고 적혀있다.

신룡이 등천하였다는 전설은 곳곳에 많지만 옛 기장현에서는 유일하게 폭포에서 용이 신룡이 되어 등천하였다는 전설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곳 마을 이름도 용못이라 하여 용소리(龍沼里)로 부르고 있다.

옛날에는 명주꾸리 하나를 다 풀어도 그 깊이가 남았다고 하나 차차 매몰되어 지금은 그렇게 깊고 크지는 않지만 주변의 계곡과 산의 풍치가 좋고 泉石이 좋아 조용한 놀이터를 찾는 피서객들에게는 여름 한철 설만한 곳이다.

○ 용소못

용소 북쪽 벌들 가운데 있는 못.



용소못 전경

○ 윗벌들

벌들 위쪽에 있는 들.

제2편 자치구

○ 웃구사짐들

구사짐들 위쪽에 있는 들.

○ 은개골

도치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은개나무가 많았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 갈밭골

갈밭골의 작은 골짜기.

○ 작은 버무듬골

버무듬의 작은 골짜기.

○ 작은 질매지 고개

질매재의 작은 고개.

○ 점땡이등

비탈논 골짜기 북쪽에 있는 야트만한 등성이. 옛날 이 곳에 사기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지중갯산

논짐밭 뒤 남쪽에 있는 산.

○ 진등고개

용소마을 남서쪽에서 덕선리 내덕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긴등성이 위로 길이 나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질매재

용소마을 북쪽에서 정관면 병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모습이 길마처럼 생겼다하여 질매재로 불리게 되었다.

○ 집앞들

용소 앞에 있는 비교적 넓은 들로서 용소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추밭골

용소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깎추배기가 많다.

○ 큰 갈밭골

갈밭골의 큰 골짜기.

○ 큰 버무듬골

버무듬의 큰 골짜기.

○ 용소천

용소천(龍沼川)은 기장군 장안읍 삼각산(해발 450m)에서 발원하여 남동으로 장안읍 용소리 · 반룡리 · 월래리를 차례로 지나 월내포로 흘러든다. 좌광천과 마찬가지로 상류는 계류이나 하류는 하상구배가 완만한 망산하천을 이루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 큰질매재고개

질매재의 큰 고개.

○ 팽풍무듬바위

버무듬 북쪽에 있는 기반암의 나출암으로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제2편 자치구

○ 팽풍 무덤산

팽풍 무덤바위가 있는 산.

○ 한지랄들

용소 동쪽 한길 아래에 있는 들로서 용소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한지랄들보

한지랄에 있는 농업용소의 보(洑).

3) 민 속

○ 용소리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장안읍 용소리 408번지,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00m지점의 들 가운데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용소리 할배당산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327cm, 옆면 318cm로써 건평이 3.15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 (한 짝의 크기는 가로 58cm, 세로 149cm)이다.

- 당사의 좌향 : 서서북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84cm, 옆면 75cm, 높이 55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없다. 단 제단에서 108cm 높이의 벽에 가로 11cm, 세로 26cm의 한지가 부착되어 있다.
- 당산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담장이 없고, 당사 앞쪽에 시멘트로 마당(가로 760cm, 세로 950cm)을 조성해 놓았다. 그리고, 당사의 왼쪽에 읍보호수인 팽나무(수령 340년, 수고 20m, 나무둘레 46m)가 한 그루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마을 이장이 주로 제주가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6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위 뒷날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제주 집에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 정도 근신한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당산할배제를 지낸 후 당산나무(팽나무) 아래에 간단하게 제물을 차려 ‘갓집할매제’를 지내기도 한다.

4) 자연마을

○ 용소마을

장안읍을 지나 14번 국도를 타고 울산 방면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장안사와 월내로 가는 알림판이 나오는데 그 직전 왼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입구 버스정류장에는 「좌동 《용소》 하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옆에는 소나무가 들어서 있다. 마을에 다가가면 조그만 놀이터 옆에 당산나무와 당집에 있다. 마을 안에 널찍한 주차장과 함께 마을회관인 용소회관이 있다. 용소마을 경로당으로 함께 쓰고 있다. 마을에는 준용하천인 용소천이 흐르고 있다.

용소천 상류 골짜기를 용소골[龍沼谷], 용담골[龍潭谷]이라고 부른다. 용소골을 흐르는 용소천이 계곡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밑 웅덩이가 용소, 용추(龍湫)다. 차성가(車城歌)에 “용두대(龍頭臺) 걸린폭포(瀑布) 구부도다 용소(龍沼)로다”라고 하여, 용소가 나온다. 용소가 있다고 하여 용소 마을이라 불렀다. 용소동 뒤편에 삼각산, 앞에는 벌야평(伐野坪)이 있었다. 마을에는 용소점이라는 주막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백·지·모씨 세 성씨 사람이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용소동(龍沼洞)에는 30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30호 가운데 김응서(金應西)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30호 가운데 김씨(12호)가 가장 많다. 다음이 이씨(3호), 오씨(2호), 윤씨(2호), 장씨(2호) 순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용소동이 동래군 장안면 용소리가 되었다.

9. 월내리

1) 연 혁

옛 이름은 알 수 없다. 마을주민들 사이에 구전(口傳)되고 있는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 북동편 월내천 옆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름 모르는 200평 가량의 연지(淵池)가 풀숲에 덮인 채 있었다. 밤이 되어 동천에 뜬 달이 연지에 비치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연지에서 달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그 연지를 소랑강(昭琅江), 즉 밝고 밝은 향풀이 가득한 강이라는 뜻의 이름을 부치고 달(月)이 큰 연지 안[湖]에서 뜨는 마을이라 하여 월호(月湖)라 칭하다가 고종 3년(1866)에 와서 달이洞里)안에서 뜬다하여 월내라 부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을 옛이름이 월래(月來)인 것만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래(來)가 내(內)로 바뀐 것은 『ㄹ』 발음이 겹칠 경우 자연적(口蓋音化)으로 내(內)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나는대로 래(來)를 내(內)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나는대로 래(來)를 내(內)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월내리의 명칭은 《기장현읍지》에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 가호안》에 중북면 월내동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후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 장안면 월내리가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장안면 월내리로 되었다.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양산군 장안읍 월내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과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산 천

○ 뒷재(고개)

월내 북서쪽 뒤에서 반룡리 구터로 넘어가는 고개.

○ 땅재(고개)

월내 북동쪽에서 명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서낭당이 자리잡고 있었다.

○ 봉생잇-골

월내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봉생잇-재

봉생잇골 동쪽에서 좌천리로 넘어가는 고개.

○ 갯골

월내 북쪽 가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덩발골

삼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더미로 된 바위가 있었는데서 덩발골로 불린다.

○ 무릉골

갯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영골(武營谷)이라 부르기도 하며 이는 이곳에 옛날 나무울타리 또는 흙돌담으로 성책(城柵)을 쌓아 군사들이 지키던 군부대라는데서 비롯된다.

○ 발골짜

봉생잇-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발이 많았다는 데서 발골짜으로 불리게 되었다.

○ 삼발골

월내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옛날 이 곳에 삼발이 자리잡고 있었다.

○ 큰들

월내 북동쪽에 있는 큰 들판으로 월내천 양안에 형성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에 해당된다.

○ 자갈배미(논)

월내 북쪽에 있는 논으로 월내천이 운반해온 자갈이 많은 모래톱에 해당된다.

○ 칼돌-비알산

무릉골 북쪽에 있는 산으로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이다. 이 산에 칼처럼 생긴 암반이 많다는 데서 칼돌-비알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 뒷재-등

뒷재 위쪽에 있는 둥그스레한 산등성이.

○ 마등-듬바위

육계도인 앞섬 서쪽에 있는 갯바위로 마당처럼 넓고 평평하다.

○ 신덜머리 바위

마당듬바위 서쪽에 있는 갯바위. 갈매기들의 배설물로 하얗게 보인다 하여 ‘흰덜머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앞섬바위

월내 앞에 있는 갯바위. 모래톱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에 해당된다.

○ 장구섬바위

앞섬 바위 옆에 있는 작은 갯바위로 모습이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섬 바위로 불리게 되었다.

○ 솔안강

큰거랑 모퉁이 북쪽에 있는 작은 내로 월내천으로 흘러든다.

○ 월내교

월내천 하류에 놓인 다리로 고리와 연결된다. 길이 20m. 북쪽으로는 월내철교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

○ 월내천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와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와의 경계를 이루는 준령(631m)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반용리와 기룡리 경계에 이르러 석은덤(543m)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는 용소천과 합류하여 월내포로 흘러드는 하천. 장안읍을 관류한다고 하여 장안천으로 불리기도 한다. 월내천 또는 장안천은 1914년 3월 1일 장안면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건천(乾川)이라 하였으며 그 옛날은 마리내라 하였다.

마리내를 마를 ‘乾’, 내 ‘川’로 표기하여 마른내가 되었는데 이 월내천은 항상 물이 풍부하고 상류로부터 물이 많이 흘러 근처의 다른 강보다 오히려 수량이 많으니 물이 말라버리는 ‘乾川’이라는 이름은 맞지 않다. 장안천의 옛이름은 마른내가 아니라 머리내라 불렀을 것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장안천변에 있는 기룡리, 반룡리, 건천리라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룡(龍)자이다.

이와 같이 장안천의 옛이름은 머리내로서 ‘乾川’ 또는 ‘龍川’은 잘못된 표기이고 머리내는 ‘頭川’, ‘上川’, ‘大川’, ‘宗川’으로 표기되는 것이 옳은 뜻이 된다. 아마도 머리내라는 이름이 머리내로 잘못 알려져 머리 ‘龍’자로 표기되었고 또 마르내로 잘못 알려져 ‘乾川’이라 표기한 것 같다. 한편, 이 하천은 상류에서 반용리까지는 머리내(宗川, 頭川)라 불렀고, 그 하류는 아마도 달울내(月來川)라 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약 200년 전에 작성된 차성가에는 월내천의 상류가 되는 ‘錦水洞’, ‘錦川’, ‘朴川’, ‘乾川’이라는 강명이 나오고, 삼각산의 발원지로부터 불광산의 계곡까지를 박천(朴川)이라 하였고, 백련암계곡과 박천계곡의 쌍계가 합류하여 기룡리 앞 까지를 금천(錦川)이라 하였고, 여기서 반룡리까지를 건천(乾川), 그리고 용소리에서 반룡리까지를 ‘龍沼川’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월내천 또는 장안천은 일제강점기 때 붙여진 것임에 틀림없다.

○ 덩발골보

덩발골에 있는 농업용수의 보.

○ 자갈배미 보

자갈배미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동쪽불

월내 새쪽(‘동쪽’의 사투리)에 있던 모래톱이나 지금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진입로 건설로 거의 사라져 버렸다.



동쪽불 전경

○ 마짜불

월내 마쪽(‘남쪽’의 사투리)에 있던 모래톱이나 지금은 월내항 확장으로 거의 사라져 버렸다.

○ 옹구미

봉생잇골 남서쪽에 있는 구미(굴), 두 개의 굴바위 사이로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옛날 이곳에 용이 숨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용왕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 큰거랑-모링이(모롱이)

월내 북동쪽에 있는 모롱이로 큰 내인 월내천의 위가 된다.

○ 매밀간(숲)

월내 북동쪽에 있는 숲으로 옛날 묘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의 아래쪽에 해당된다.

3) 명승고적

○ 월내리 보부상 관련비(月內里 褓負商 關聯碑)

장안읍 월내역 앞 도로 옆에 밭과 건물 사이에 보부상 출신이었던 배상기(裴常起)의 업적을 기린 비석 3기가 나란히 서 있다.

제각각 세운 시기를 달리하면서 동일 인물의 비석이 내용을 달리하며 한자리에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 세 비석에서 붓짐과 등짐으로 이장, 저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한 당시의 보부상(褓負商)이 가진 조직 체계를 엿볼 수 있다.

맨 먼저의 비석이 1904년(고종 8)에 세워진 좌우사 반수 배상기 홀상 영세불망비(左右社 班首 裴常起 恤商 永世不忘碑)이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사 반수’는 보부상 조직의 우두머리 직책이고 비석 전면 양쪽에 새겨진 반수, 접장(接長), 감역(監役) 등은 보부상 조직의 직책으로 보인다.

이 비석 후면에는 「전 주사 접장 김상명 출의 영세불망비(前 主事 接長 金相明 出義 永世不忘碑)라 새기고 김상명이 성금을 낸 일을 기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1913년에 세워진 비석이 「통정대부 배공 상기 창계 홀리비(通政大夫 裴公 常起 勳契 恤里碑)」이다.

비석이 설 당시는 한일합방 3년 뒤인 일제시대가 되는데 어찌해서 머리글을 ‘통정대부’라 한 지를 알 수 없다.

이 비는 계를 형성하여 마을을 도운 일을 기리고 있다.

세 번째로 1917년에 세워진 비석이 「통정대부 배공 상기 창숙 장학비(通政大夫 裴公 常起 勳塾 獎學碑)」이다. 이 비는 배상기가 글방을 열어 학문을 장려한 일을 기리고 있다.

4) 민 속

○ 월내리 할배제당

- 당산 소재지 : 월내역에서 동북쪽 10m지점에 있으며, 마을에서는 서남쪽임.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77년 2월 26일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57cm, 옆면 290cm로써 건평이 2.25평이다. 팔작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알미늄샷시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 (한 짝의 크기는 가로 53cm, 세로 161cm)이다.
- 당사의 좌향 : 동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26cm, 옆면 80cm, 높이 41cm이고, 제단 위 뒷벽에 나무로 된 위패함이 걸려 있다.

제2편 자치구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위패함에는 “豊川任公侍奉神位・坡平尹公侍奉神位・慶州李公侍奉神位・仁同張公侍奉神位・宜寧南公侍奉神位”라 각기 쓴 지방이 나란히 나무 위패함에 부착되어 있는데, 위패함의 크기는 가로 59cm, 세로 32cm이다.



월내리 할배당산



월내리 할배제당안의 위패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4폭 병풍이 있다.
- 당산 주위환경 :당사의 주위에는 월내역쪽에 철철헤스(총길이 17.8m, 높이 137cm)가 설치되어 있고 , 당사의 앞과 옆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480cm, 옆면12m, 높이 40cm, 두께 16cm)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 뒤에는 흥고둘레가 232cm인 팽나무 1그루와 흥고둘레가 212cm인 소나무 1그루가 있고, 당사 왼쪽에는 제물당 [크기는 앞면 363cm, 옆면 293cm인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블록벽으로 된 건물로 함석 외쪽 여닫이 문(가로 88cm, 세로 171cm)이 달린 건물]과 그 밑에 흥고둘레 230cm 인 소나무 1그루가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 이장이 고정적으로 제관이 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아 쓰고,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제당할아버지제→산신제→용왕제의 순서로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뒷날인 16일에 마을회관에서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약 2~3개월간 근신한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비’라 칭하고 마을 기금과 기부금으로 하며, 약 100만원 정도이다.
- 제관의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산신제는 당사 뒤편의 소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려 지내고, 용왕제는 당사의 경내에서 바다가 보이는 위치에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5) 자연마을

○ 월내마을

월내리에는 동해남부선 월내역이 있다. 월내역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장안해물탕 음식점 앞에 월내마을 표지석이 서 있다. 월내역 앞에는 월내시장이 있고, 시장 안에 월래리사무소가 있다. 이 곳에는 월내해수욕장이 있다. 그리고 길천리와 월내리 사이에 월내교가 있다. 월내리 소나무 숲 아래에 월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월내 무료급식소도 운영되고 있다.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 수록, 1832년) 산천조에 의하면, 월래포(月來浦)는 현의 동쪽 25리에 있었다. 월내마을은 이 월래포를 중심으로

제2편 자치구

형성된 마을이라고 생각된다. 월래포는 기장의 9대 포구[무지포·이을포·기을포·동백포·공수포·기포·독이포·월래포·화사을포]의 하나다.

월내의 옛이름은 월래(月來)다. 월래의 ‘월’은 울타리의 ‘울’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즉 방어를 위한 책(柵), 성(城)을 뜻한다. 월래의 ‘래’는 내(內)라고도 표기한다. 내, 래는 나(那, 奈), 내(乃), 노(奴), 라(羅)와 같은 의미로 나라[國], 성(城), 촌(村)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월내, 월래는 성책을 가진 마을의 의미다.

마을 주민들은 월내천 옆에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이름 모르는 풀숲 속에 큰 연못이 있고, 밤이 되어 달이 뜨면 연못에 비치는 것이 마치 연못 내에서 달이 솟는 듯한 느낌을 주어, 달[月]이 연못 안[內]에서 뜨는 마을이라 하여, 월호(月湖)라고 부르다가, 달이 동리 안에서 뜬다고 하여 월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차성가(車城歌)에 “동산상(東山上)에 달뻗으니 월호(月湖)에 선유(船遊)하다”라고 하여, 월호가 나온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중북면(中北面) 월내동(月內洞)에는 67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초가 2~3칸 집이다. 67호 가운데 정득남(鄭得男), 배춘득(裴春得), 박잉삼(朴莚三), 박영일(朴永一)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67호 가운데 김씨(16호)가 가장 많다. 다음은 박씨(8호), 이씨(7호), 張씨(4호), 배씨(3호), 서씨(3호), 손씨(3호), 鄭씨(3호), 趙씨(3호), 한씨(3호) 순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월내동일부가 동래군 장안면 월내리가 되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임랑동과 월내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임랑리가 되었다.

○택구방우마을

월내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곳에는 태끼[토끼]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태끼바위, 태끼방우, 토끼바위, 태구바위, 태호바위, 태호암(宅號岩)이라고 불렀다. 이 토끼바위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서, 태구방우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 팔칸마을

월내리와 임랑리의 경계지점에는 약간 높은 고개가 있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다. 광복후 일본에서 귀국한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어준 팔칸 집이 있는 마을이라서 팔칸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두 지역의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월내에서는 팔칸마을을 임랑에 있다고 하고, 임랑에서는 월내에 있다고 촌로들이 이야기한다.

10. 임랑리

1) 연 혁

옛 이름은 알 수 없다. 이곳 주민들은 임랑이란 마을이름은 임진왜란 다시 임계안(林溪岸) 뒷산에 왜적들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임성(林城)이라 하였는데 그후 유(柳)씨, 방(方)씨, 김(金)씨, 박(朴)씨, 정(鄭)씨 등이 정착하여 이들 다섯 성씨가 본마을의 숲이 울창하고 물결이 아름답다 하여 수풀 임(林)자와 물결 랑(浪)자를 따서 임랑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임랑은 《기장현읍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중북면 임랑동(林浪洞)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임랑리(林浪里)가 되고 1973년 7월 1일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가 되었다. 195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장안면이 읍(邑)으로 승격 됨에 따라 양산군 장안읍 임랑리였다가,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이 복군 되면서 부산 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가 되었다.

2) 산 천

○ 갈밭둑

임랑리 남쪽 좌광천 하구 일대에 있는 둑으로 옛날 이 일대에 갈대가 무성한 갈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데서 갈밭둑으로 불리게 되었다.

○ 강건네산

임랑 남쪽 좌광천 건너에 있는 산. 높이 70m로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이다.

○ 건넛-들

강건네산 북쪽에 있는 들로서 좌광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월내-깐칫골

임랑의 남쪽 마을인 원림에 있는 작은 내의 골짜기.

○ 좌광천

좌광천(佐光川)은 기장군의 백운산과 용천산·문래봉·함박산에서 각각 발원하여 정관면 침식분지에서 합류하고 동쪽으로 장안읍 좌천을 지나 독이포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상류는 하강구배가 급하고 하류는 비교적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상류의 정관면의 침식분지에는 좌광천의 퇴적작용으로 소선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류에는 기장지방에서 비교적 넓은 충적 평야가 분포한다.

정관천의 원류는 병산리의 금동골이다. 널밭골계곡과 북쪽의 조가보계곡의 두 갈래 계곡이 병산리 아래에서 합류하여 병산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 저수지에서 흘러 용수리를 통과하면서 백운산·망월산·문래봉·

함박산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1개의 계곡의 합류하고, 용수 · 방곡 · 예림리의 북쪽계곡과 덕선리에서 좌공까지 내려오는 6개의 계곡이 합류하여 좌광천이 되었다.

좌천리 남쪽을 굽어 돌면서 임랑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하류를 차성가에서 “도화수 뛰는 길어 임랑천에 천렵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차성(기장의 옛지명) 경내에서는 “가장 크고 도천에 풍경이 좋고, 물이 맑아 아작은 천렵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좌광천의 물이 맑고 깨끗했음을 알 수 있다.

○ 건논-재

임랑 북쪽에서 기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개는 좌광천을 건너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건논-재로 불리게 되었다.

○ 공동묘지 산

임랑 서쪽에 있는 높이 51m의 야트마한 산으로 공동묘지가 자리잡고 있는데서 붙여진 산의 이름이다.

○ 굴 바위

임랑마을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굴바위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즉, 옛날 이 굴바위에 집채보다 큰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인근 마을 사람이나 가축을 덮쳐 주민들은 낮에도 밖에 나다니기를 두려워했다. 사냥꾼들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그 종적을 감추는 날썰 호랑이를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냥꾼들이 호랑이에게 희생되었다. 인근 주민들은 의논 끝에 호랑이 먹이로서 늙은 개 몇 마리를 바위굴에 가져가서 먹이를 제공하였다. 그 후로는 호랑이는 사람이나 닭, 돼지 등 일반가축을 덮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후 이곳에 절을 세운 매년 석가탄신일에 호랑이 먹이로 희생된 개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제2편 자치구

○ 선달래-집산

큰들 서쪽에 있는 구룡성 산으로 옛날 이 곳에서 선달 벼슬을 지낸 사람이 살았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예수 방우

큰들 서쪽에 있는 바위로 옛날 이 곳에 여우가 살았다는데 붙여진 이름이다.

○ 예수 방우골

예수 방우가 있는 골짜기.

○ 예수 방우산

예수 방우가 있는 산.

○ 왜성산

임랑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2m이다. 전형적인 구룡성 산지로 산꼭대기가 둥그스레 하고 산기슭 또한 완만하다. 왜성산이란 임진왜란 때(선조 25년) 왜적이 이 곳에 주둔하면서 왜장(毛利吉成)이 성을 쌓았다는데서 비롯된다. 이 왜성산은 ‘이승산’ 또는 ‘이산면딩이’로 불리기도 한다.

○ 작은-자리(불)

임랑 동쪽 해안의 모래톱으로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하얀 모래 사장이 1킬로 넘게 넓게 깔려 있고 남쪽에는 임랑천(좌광천)의 맑은 물이 백사장을 가로 질러 바닷속에 잠기면서 예부터 ‘月湖秋月’의 경승지로 유명한 곳이다. 백사장 주변에 노송이 큰 가지를 펴고 병풍처럼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 이 곳은 근래에 와서 해수욕장으로 단장되고

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외국인들과 장안사와 이 곳 해변의 관광객이 모여 제법 붐비고 있지만 아직은 호젓하고 조용한 곳이다.



작은자리(불) 전경

예전 사람들은 이 곳 임랑천의 맑은 물에서 낮에는 고기잡이 하고 놀다가 병풍처럼 펼쳐진 송림 위에 달이 떠 오르면 님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달구경을 하면서 뱃놀이를 즐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동산에 달이 뜨고, 임랑천에 달이 있고 천과만과 잔잔한 물결 속에 수천수만의 달이 잠기고, 백사장에 달빛이 서리고, 님의 얼굴이 달덩이 같고, 내 마음이 달과 같다 하였다. 그래서 예부터 이 곳의 달맛이를 차성팔경의 하나로 손꼽는다. 이 곳 주민들은 좋은 송림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도를 두고 마을 이름을 임랑(林浪)이라 하였고 호수처럼 맑고 잔잔한 바다에 떠오르는 달이 ‘月湖’라 하여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月湖秋月’의 경승이라 할 수 있다.

○ 큰-자리(물)

좌광천 하구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모래톱으로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옛날에는 후리질을 하여 멸치를 많이 잡았던 곳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3) 명승고적

○ 임랑리봉수(林浪里烽燧)

장안읍 문동리 북쪽 해안에 접한 산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봉수대가 임랑포봉수대다. 현재로서 일광에서 월래로 가는 국도에 있는 임랑교(林浪橋)를 지나기 직전의 좌측 산상이 된다.

1998년 1월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봉수의 규모는 동서 직경 약 8.5m, 남북 직경 약 10m가 되는데 외벽석(外壁石)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이 긴 축(軸)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이미 큰 나무들이 들어서 있다.

봉둔(烽墩)의 외곽석(外郭石)은 1단(段)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본둔의 중앙부분은 기단(基壇)으로부터 약 2m 정도 높이로 남아 있고 동서 직경 5m, 남북 직경 6m 정도였다.

남쪽 끝부분은 외벽석에서 약 230cm 정도 떨어져 다른 곳보다 폭이 다소 넓어 화구(火口 : 아궁이)가 남쪽으로 난 것으로 보였다.

이 봉수가 역사기록에 나오는 임을랑포(林乙浪浦) 봉수로서 지역에 나타난 안위(安危)를 남쪽으로는 남산봉수(南山烽燧)에 전하고 북으로는 이길봉수(爾吉烽燧)에 전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임랑포봉수의 기록이 있으나 《여지도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 책들이 편찬된 1530년에서 1765년 사이 임랑포봉수가 폐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폐지 이유는 동쪽의 이길봉수와는 직선거리가 약 3.3km 거리로 가깝고 남쪽의 남산봉수와는 직선거리 약 9.5km로 거리가 너무 멀어 임랑포봉수보다 좀더 남쪽에 위치한 아이포봉수(阿爾浦烽燧)로 그 기능이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임랑리 해수욕장

끝없는 동해를 향해 원호(圓弧)를 그리듯 바다를 안고 휘어든 임랑리 바닷가 백사장 자리가 임랑리 해수욕장이다.

임랑강 맑은 물을 따라 내린 모래가 백사장을 이루는 큰 역할을 했다. 백사장 주변은 노송이 큰 가지를 펴고 병풍처럼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 백사장 길이는 1,000m가 넘는다.

임랑리 주위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직원들이 많고 장안사와 불광사 그리고 그 계곡을 찾아드는 행락객도 많다. 그 직원들과 행락객으로 여름이면 백사장이 해수욕장으로 바뀌어 가다가 최근에는 부산의 어느 해수욕장보다 물이 맑고 조용하다 하여 시내 사람들이 임랑리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들고 있다. 멀지 않아 이름난 해수욕장으로 탈바꿈 하리란 기대를 가져보는 곳이다.

○ 용두사(龍頭寺)

임랑리 산 33번지에 조계종 종단소속의 용두사가 있다. 1930년 4월 창설이다.

전해오는 전설로는 이 곳에 굴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 굴바위에 집채보다 큰 호랑이가 살고 있으면서 이웃 마을의 사람이나 가축을 덮쳐 그 피해가 심해 주민들은 낮에도 밖에 나다니기를 두려워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의논 끝에 호랑이 먹이로 늙은 개 몇 마리를 방위굴에 가져가서 먹이로 제공한 이후부터 호랑이는 사람이나 닭, 돼지 등 일반 가축을 덮치는 일은 없었졌다고 한다.

그 이후 이곳에 절을 지어 호랑이 먹이로 희생된 개의 넋을 천도 하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용두사라는 절을 세우고 매년 석가탄신일에 천도제를 열고 있다고 한다.

4) 민 속

○ 임랑리 박씨·류씨당산

- 당산 소재지 : 임랑에는 박씨할매당산과 류씨할매당산이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박씨당사는 檀紀四二九二年己亥九月初二日戊午立柱上樑이고, 류씨당사는 西紀壹千九百七拾壹年辛亥이다.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박씨당사의 크기는 앞면과 옆면이 266cm로써 건평이 2.14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54cm, 세로 136cm)이다. 류씨당사의 크기는 앞면 510cm, 옆면 275cm로써 건평이 4.24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임랑 박씨할매당



임랑 박씨할매당의 위패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두 칸 구조물(오른쪽은 창고, 왼쪽은 제당)이고, 제당 문은 함석으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49cm)이며, 창고 문은 함석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84cm, 세로 147cm)다.

- 당사의 좌향 : 박씨당사는 동남향이고, 류씨당사는 남향이다.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박씨당사의 제단은 2cm 두께의 나무판자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06cm, 옆면 58cm, 높이 83cm이고, 류씨당사의 제단은 2.2cm 두께의 나무판자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49cm, 옆면 59cm, 높이 59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박씨당사에는 제단 위 위패함 속에 “靈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39cm, 두께 1cm이고, 류씨당사에는 제단 위 위패함 속에 “靈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4cm, 세로 18cm, 두께 1.7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박씨당사의 위패 위 벽에 “洞里創設後本堂神位奉獻諸氏”라는 나무현판(크기는 가로 72.5cm,



임랑 류씨할매당



임랑 류씨할매당의 위패

세로 29cm, 두께 1.5cm)이 붙어 있고, 당사 왼쪽벽에 “己亥年八月二十五日本祭堂再建築時主動槩員名單”이라는 나무현판(크기는 가로 130cm, 세로 29cm, 두께 1.5cm)이 붙어 있다. 그리고, 류씨당사에는 없다.

제2편 자치구

- 당산 주위환경 : 박씨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이중 담장으로 안담장(크기는 앞면 417cm, 옆면 545cm, 높이 167cm, 두께 19cm)과 바깥담장(크기는 앞면 2860cm, 옆면 2730cm, 높이 170cm, 두께 19cm)이 있고 당사 뒤 250cm 거리에 흉고둘레 432cm인 소나무와 흉고둘레 256cm인 소나무가 있다. 류씨당사의 주위에도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585cm, 옆면 464cm, 높이 105cm, 두께 20cm)이 있고, 담장 밖의 뒤에는 소나무들이 있으며 앞에는 사철나무가 울타리처럼 둘러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주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하는데 고령자로 한다. 제의 때 제관 4명 정도가 참가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 경이며, 1년에 1 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 육고기는 절대 쓰지 않고,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할매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 보름날 아침에 경로당에서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제의 날만 금기생활을 한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공동경비로 하며, 두 당산의 경비는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임랑 기촌 때에 세 입향조가 뒷날 당산신으로 좌정 하였는데, 박씨·류씨·방씨의 당산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재 방씨당사는 없어졌다. 이들 당산의 제의는 같은 날 동시에 같이 지낸다고 한다.

5) 자연마을

○ 삼칸마을

원림마을에서 월내 방면으로 가다보면 묘관음사를 알리는 거대한 알림돌이 나온다. 이 곳에서 월내 방면으로 가는 고개를 넘지 않은, 임랑해수욕장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매밀간[묘밀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리에서 집 없는 이들에게 지어준 삼칸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삼칸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 원림마을

임랑 큰마을에서 월내 방면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 나온다. 임랑해수욕장이 있어 민박집과 카페, 음식점 등이 즐비한 곳이다. 이 곳에는 당집이 있다. 임랑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임랑과 월내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월내리 소속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임랑리에 편입되었다. 월내리의 ‘월’자와 임랑리의 ‘림’자를 따서, 월림(月林)마을이 되었다. 월림마을이 원림마을로 바뀐 것 같다.

○ 임랑마을

임랑리 입구 삼거리에는 임랑해수욕장이라고 쓰여진 큰 알림판이 있다. 임랑삼거리에서 부산 방면 31번 국도를 타고 가면 「임랑마을」 표지석이 바로 나온다. 임랑의 큰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마을에는 임랑리 마을회관이 있다. 마을회관에는 노인정, 임랑새마을문고가 함께 들어 있다. 임랑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마을에는 당사(堂祠)가 두 곳 있다.

임랑의 옛이름은 임을랑(林乙浪)이다. 임을랑은 ‘임어란안’의 차음(借音) 표기로서, 임+어란+안에서 임은 님, 주인, 어른의 뜻이고, 어란은 일정한 넓이를 뜻하는 울이므로, 임어란안은 님울안의 의미라고 한다. 즉 주성

(主城), 주책(主柵) 안[內]의 뜻이라고 한다. 옛날에 이 곳에 주진(主鎭)이 있었고, 이 주진의 권내(圈內)를 님울랑, 임을랑이라 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임진왜란 후에 유(柳), 방, 김, 박, 정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는데, 마을의 숲이 우거지고 바다 물결이 아름다워, 수풀 ‘림(林)’자와 물결 ‘랑(浪)’자를 따서 임랑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경상도지리지》(1425년, 기장현조)에 보면 기장현의 남산연대봉화는 서쪽으로는 23리 떨어진 동래현 간비오봉화와 연락하고, 북쪽으로는 25리 떨어진 울산군 임을랑포봉화와 연락한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경상도 기장현 봉수조)에 보면 기장현의 남산봉수는 남쪽으로는 동래현 간비오산봉수와 연락하고, 북쪽으로는 울산군 임랑포봉수와 연락한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임을랑포가 줄어서 임랑포가 된 것 같다. 임을랑포, 임랑포는 당시 울산군 관할이었다. 임랑마을은 이 임을랑포, 임랑포를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이라 생각된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중북면(中北面) 임랑동(林浪洞)에는 15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초가 2~3칸 집이다. 15호 가운데 박득삼(朴得三), 김금진(金今辰)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15호 가운데 박씨(6호)가 가장 많다. 다음은 이씨(3호),鄭씨(2호) 순이다. 박씨가 많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조사된 동족마을 실태에서 확인된다.

1930년 10월 실시한 국세(國勢)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편찬된 《조선의 성(朝鮮의姓)》(조선총독부, 1936년)에 의하면, 당시 장안면 임랑리에는 밀양 박씨 21세대의 동족마을이 있었다. 따라서 가호안의 6호 박씨의 경우도 밀양 박씨일 가능성이 높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임랑동과 월내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임랑리가 되었다.

○ 재치맥마을

임랑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멸치를 후리는 정치망(定置網) 어업이 발달한 마을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 같다. 정치망이 재치막, 재치맥으로 변한 것 같다.

○ 팔칸마을

삼칸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임랑리와 월내리의 경계지점에는 약간 높은 고개가 있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다. 해방후 일본에서 귀국한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어준 팔칸 집이 있는 마을이라서 팔칸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두 지역의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임랑에서는 팔칸마을을 월내에 있다고 하고, 월내에서는 임랑에 있다고 촌로들이 이야기한다.

6) 기 타

○ 장안 임랑포왜성(林浪浦矮城)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丁酉 : 1597) 때 왜군이 쌓은 왜성이 임랑리 방모산의 동남쪽 끝자리 산꼭대기(해발 약 70m)에 본성이 있었고 남쪽 임랑강쪽(현재는 철길 건너)에는 돌출한 구릉에 지성이 있었다.

본성에서 가장 높은 본환(本丸)의 동북쪽 천수대(天守台)로 추정되는 노대(櫓臺)가 10×10m, 높이 약 5m로 남아 있다. 모서리의 구배(句配)는 직선을 이루고 성벽은 일본식 그대로 70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지성 자리는 철도와 도로건설, 유치원 건축 등으로 형태를 잃고 그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이 임랑포왜성은 고도상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동남해 해안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바다에 접해 있는 전면의 경사도가 급경사를 이루어 적이 접근하기 어려워 공격과 수비의 적지라고 할 수 있다.

성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성안의 초석과 여러 시설물의 기초가 잘 남아 있어 정유재란 때의 증축관계와 당시의 왜성 축성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1. 장안리

1) 연 혁

장안리는 상장안마을과 하장안마을로 이루어지고 있다. 8.15 광복후 1948년경까지는 속칭 박칭이골 및 청룡골에도 사람이 살았으나 공비들의 출몰로 주민들이 철수, 상장안마을로 이주하였다. 옛 이름은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장안사의 절 이름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장안은 《기장현읍》 하미면조에 장안방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상북면 장안동이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합 때 동래군 장안면 장안리가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7월 1일에는 양산군의 관할하에 들어가고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2호로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양산군 장안읍 장안리가 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지에 기장군이 복군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로 되었다.

2) 산 천

○ 삼각산

장안사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425c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봉우리는 왕룡처럼 둥그스레하나 산기슭은 가파른 편이다. 삼각산이란

삿갓모양의 3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나란히 사이좋게 솟아 있는데서 비롯되며, 기우제를 지내던 산이라고 한다. 즉, 이 삼각산을 삼신산으로 삼아 인근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이 곳에서 기우제를 올렸고 그러면 꼭 단비가 내려 해결되곤 하였다.

삼각산이 이처럼 신산이고 보니 이곳에 몰래 시체를 묻고 묘자리로 삼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럴때면 그 해에는 가뭄이 들게 되었다. 약90년 전에 도야마을 사람들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삼각산에 묻힌 묘를 파헤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묘임자가 마을 사람들을 고발하여 마을 사람들이 옥고를 치루면서 곤욕을 당한 사연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 박천

삼각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불광교에 이르러 월내천으로 합류하는 월내천의 작은 지류. 박천(朴川)은 맑내로서 예부터 신선한 곳으로 인식해온 내이다. 옛날 이 삼각산 아래 박천물에서 삼각산의 산정으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를 올린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천계곡 전경

3) 명승고적

○ 장안사(長安寺)

장안사는 불광산(佛光山) 안인 장안리 598번지에 있다. 이 사찰은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척판암(擲板庵)과 함께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창건 당시는 쌍계사(雙溪寺)라 하였는데 신라 애장왕 10년(809) 장안사로 이름을 고쳤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의 병화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인조 8년(1631)에 중창하였고 인조 16년(1638)에는 태의대사(太義大師)가 중건하였다. 효종 5년(1654)에는 원정(元正), 효능(孝能), 충묵(沖墨)스님 등이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1941년에는 각현스님이 중수하였고, 1987년에는 종각을 새로 세우고 요사를 중창하였다. 1972년에도 보수공사가 있었고 1979년 2월에도 보수공사가 있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으로 지붕은 겹처마 팔각으로 꾸며진 다포형식이다. 대웅전에는 중앙에 본존불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아미타불여래, 왼쪽에 약사여래의 삼신불이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 건물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부재가 견실하여 사찰의 중심건물로서 웅장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불전인 대웅전 이외에는 응진권(應眞殿), 명부전(冥府殿), 산신각 등 건물이 있다.

응진전은 나한전이라고도 하는데 16명의 나한이 모셔졌다. 나한은 석가여래가 열반한 후 미륵이 나타나기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하도록 위임한 분들이다. 그러나 응진전의 주불은 석가모니가 된다.

명부전은 시왕전이라고도 한다. 명부전은 육도에서 해매는 중생들이 죽으면 염마대왕 앞에 나가 자기가 지은 죄악에 대해 엄격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은 10대왕이 하게 된다. 명부전에는 지장삼존불상이 주불신이 되어 모셔져 있다.

이 절의 석재물로는 오층석탑과 석등 그리고 부도(浮屠) 5기(基)가 있는데 오층석탑은 요사채 앞에 근래에 조성한 것이고 석등은 대웅전 앞에 뒷 부분이 부서진 채로 남아 있고 부도(浮屠)는 절터 주변에 있었던 다섯 기(基)를 절의 동북쪽 대숲으로 옮겨 한 자리에 봉안하였다.

이 장안사는 1974년 12월 지방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되었다가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뒤인 1995년 12월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37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 척판암(擲板庵)

장안리 636번지에 조계종 선학원인 척판암이 있다. 장안사가 있는 위쪽 계곡 옆이 된다. 지금은 초라한 암자로 퇴락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만 그 유서는 불교계의 설화를 전해오고 있다.

그 설화는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원효는 중국땅을 바라보았다. 그때 중국 장안의 종남산 기슭에 있는 운제사라는 절의 대웅전에서는 천여명의 승려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웅전의 대들보가 썩어 곧 무너질 순간에 있었다. 원효는 그 위급을 알려려고 옆에 있는 소반에다 海東元曉擲板救衆(해동원효척판구중)이라는 글을 써서 하늘 높이 던졌다. 던진 소반은 운제사 대웅전 위에서 웅웅 소리를 내며 댕돌고 승려들은 이상한 소리에 놀라 밖으로 모두 나오니 그때서야 대웅전은 무너지고 공중을 댕돌던 소반도 떨어졌다.

승려들은 떨어진 소반에서 해동의 원효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알고 장안성내에 있던 천여명의 승려들은 길을 떠나 양산군 천성산

석굴에 있던 원효를 만나게 되고 원효대사의 오묘한 법문과 가르침을 받고 모두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장안사의 부도와 부도탑비(浮屠塔碑)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부도를 승탑(僧塔)이라고도 하는데 장안사가 절터 주변에 있던 승탑을 수습하여 함께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 승탑은 원래는 장안사 종루 왼쪽에 옮겨졌다가 현재는 절의 동북쪽 대숲으로 다시 옮겨져 있다. 승탑비도 이 곳으로 옮겨졌다.

이 부도(승탑) 가운데 문자가 새겨진 것은 선암당 명열대사(仙岩堂 明悅大師) 부도뿐이다. 명열대사 부도는 옥개가 생략되고 종형으로 전면에 仙岩堂 明悅大師塔이란 명문이 있고 후면에는 가경(嘉慶) 3년(정조 22년, 1798년) 9월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판 기록은 글짜가 마멸되어 판독할 수가 없다.

이 이외의 부도는 8각의 옥개석을 얹은 것이 있고 중대석과 하대석이 한돌로 구성된 부도도 있으며 높이 147cm의 부도도 있고 윗부분을 상투처럼 표현한 것들 모두 5기의 부도가 있다.

부도와 연관된 탑비(塔碑)는 2기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선교양종 월조당 대선사지탑비(禪敎兩宗 月照堂 大禪師之塔碑)」와 「연파당대사 쾌주지비(蓮坡堂大師 快湍之碑)」가 된다. 이 둘은 모두 석비인데 월조당의 것은 부도를 모은 자리에서 앞쪽으로 왼쪽에 있다. 원래는 건륭 19년(영조 30 : 1754)에 처음 세웠는데道光 24년(현종 10 : 1844)에 다시 세운 것이다. 또 하나의 탑비인 연파당의 것은 부도를 모은 자리에서 앞쪽으로 오른쪽에 있다. 이 비는 건륭 40년(영조 51 : 1775)에 세웠다.

○ 현감 송공 재우 훈민선정 만고불망비 (縣監 宋公 載遇 恤民善政 萬古不忘碑)

송정 기원후 3년 (영조29 : 1753)에 세운 것으로 원래는 장안읍 좌동리 지사고개에 있었는데 장안리로 옮겨졌다.

비의 크기는 140×40×38cm다. 비석의 후면 측면이 마모된 때문인지 업적을 기리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송공이 현감 재직 때 용소·반룡·하근 등 마을 모두가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생기면 노인들께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기장현의 창고에 남아 있는 마지막 곡식을 떨어내어 이재민을 구휼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함애 이곳 주민들이 송현감의 선정을 후세에 기리고자 비석을 세웠다고 전한다.

○ 금수동(錦水洞)

장안사가 있는 계곡 일대를 장안사계곡이라 한다. 장안사 주위는 예부터 단풍의 명소가 되어 단풍을 말할 때는 불광산(佛光山) 단풍이라 한다.

하지만 장안사 앞을 지나는 계곡의 물을 말할 때는 금수동(錦水洞)의 금수(錦水)라 한다. 금수동의 금수는 박천(朴川) 맑은 물이 삼각산과 불광산 울창한 숲을 관류하여 흘러내린 물이다.

이 금수동은 장안사로 들어가는 5리정도의 길가 층암절벽의 자리가 중심이 된다. 이 곳에 錦水洞(금수동)이라는 세글자를 암벽에 새겨두었기 때문인데 어느 때 누가 이름하여 썼는지 알 수 없다.

이곳으로 흐르는 계곡길 물에 아침해가 비치면 금빛 비단폭이 아침해를 받아 온통 흘러내리듯 찬란하고, 단풍이 물속으로 비치면 흐르는 물이 비단실로 수놓은 듯하고, 단풍이 물속에 떨어지면 단풍 그 자체가 비단으로 보여 비단 금(錦), 물 수(水), 골 동(洞)의 금수동이라 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제2편 자치구

이 금수동 위쪽으로 백련암 계곡에서 분원한 계곡과 박천(朴川)이 합류하는 지점을 쌍계(雙溪)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안사의 본래 이름을 쌍계사라 하였다는 말도 있다. 이곳 금수동 주위는 봄은 철쭉의 경(景)이, 겨울은 나무마다 잎을 떨어뜨린 나목(裸木)의 경이 또 빼어났다.

○ 장안리 느티나무

윗장안에 느티나무가 노거목으로 자라고 있다. 당산나무로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높이 30m, 둘레 2m, 수관폭 동서남북 20m 정도이고 수령은 1,0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산기슭이나 골짜기 또는 마을 부근의 흙이 깊고 진 땅에서 잘 자란다. 한국·일본·몽고·중국·시베리아·유럽 등지에 분포돼 있다.

4) 민 속

○ 장안리 상장안 할배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 입구.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미상.



상장안 할배당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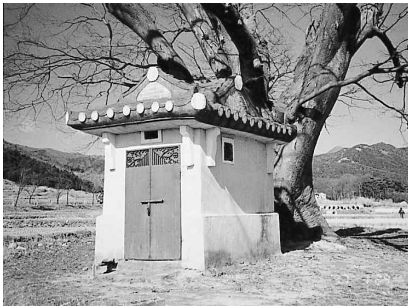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40cm, 옆면 230cm로써 건평이 1.67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벽은 흙을 쌓아 회칠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46cm, 세로 115cm)이다.
- 당사의 좌향 : 서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69cm, 옆면 50cm, 두께 2cm이고, 제단 위에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長安里社主神之位”라 쓴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17cm, 세[로 36cm, 두께2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돌담장(크기는 앞면 530cm, 옆면 515cm, 높이 170cm, 두께 44cm)이 있고, 앞과 뒤에 흉고둘레 350cm · 330cm · 330cm의 회나무 3그루와 흉고둘레 267cm의 팽나무 1그루가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총회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6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아버지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하고 남은 제물은 땅에 묻는다.
- 금기 기간 : 제의 앞뒤 한 달간이다.

제2편 자치구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장안리 하장안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장안을 장안리 294번지. 하장안 마을에서 서북쪽 약 150m지점의 들 가운데 있으며, 장안사 가는 길의 오른쪽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72년도에 새마을사업 때 신축.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12cm, 옆면 291cm로써 건평이 1.87평이다. 팔작형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두 짝 여닫이 철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169cm)이다.



하장안 할매당사



하장안 할매당사의 위패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49cm, 옆면 54cm, 높이 32cm이고, 제단 위에는 촛대 2개가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長安里堂山大祭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제단 위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17cm, 세로 105.5cm, 두께 1.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사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담장이 없고, 당사 뒤 약 180cm에 시보호수인 느티나무(수령 1300년, 수고 25m, 나무 둘레 8m) 한 그루가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의 각 가구가 순번제로 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과 6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2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머니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 또는 보호수 주변에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관 부부는 1개월간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며, 3개월 동안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만돈’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 사항 : 2000년에 젊은 사람이 많이 죽어 마을굿을 2월 중순에 하였는데, 근래 들어 당사의 관리가 허술하여 그런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하여 마을 가가호호에서 거둔 돈이 600만원, 당일 굿하는 장소에서 절값 들어온 것이 200만원 도합 800만원이 들었다. 당산나무는 원효대사가 이 마을 북쪽 측판암을 지을 때 당시 왕이 지나가다가 심은 나무라 한다.

5) 자연마을

○ 상장안마을

장안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전통민속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원조장안할매집과 장안집 등 장안이란 이름이 붙은 음식점 간판이 많이 보인다. 마을에는 상장안마을회관이 있다. 이 마을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선정한 1996년도 농촌환경우수마을로 지정되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상장안마을에서 명례리로 가는 협동로가 1978년 완공되었다. 이 협동로는 장안리의 상장안마을, 명례리의 대명·도야·신명마을, 오리의 대룡마을에서 각각 부지를 내어 주민들이 협동하여 만든 길이다.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이 상장안마을 가마솔가든 앞에 서 있다. 그 우측으로 난 길이 협동로이다.

마을 위쪽 금수동 계곡에는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장안사(長安寺)가 있다. 이 장안사 이름을 따서 장안마을의 이름이 정해진 것 같다. 한편 장안사가 있기 전부터 장안이란 이름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좌천리와 좌동마을의 본명이 장안으로, 이 곳 일대를 장안으로 부르던 것이 장안사의 절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옛날 임금님이 다녀간 마을이라 장안이라 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상장안마을과 하장안마을 사이에 있는 동산을 경계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상장안(上長安)이라 부른다. 웃장안, 윗장안마을, 상리(上里)라고도 부른다. 장안동에는 장안점이라는 주막이 있었다. 장안동 북쪽에는 양지제(陽只堤)가 있었다. 마을에는 장안천이 흐르고 있다. 밀양 박씨가 처음 마을에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장안동(長安洞)에는 32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32호 가운데 김득남(金得男), 김상단(金尙丹)씨 집이 4칸으로 가장 크다. 32호 가운데 김씨(10호)가 가장 많다. 다음이 박씨(8호), 구씨(4호) 순이다. 박씨 8호는 밀양 박씨일 가능성이 높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장안동이 동래군 장안면 장안리가 되었다.

○ 하장안마을

장안사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장군 농수산물직판장이 있다. 그 앞에는 하장안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상장안마을과 하장안마을 사이에 있는 동산을 경계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하장안(下長安)이라 부른다. 아랫장안, 아랫장안마을, 하리(下里)라고도 부른다. 마을에는 장안천이 흐르고 있다. 일년에 두 번 음력 1월 14일 자정과 6월 14일 자정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낸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장안동(長安洞)에는 32호가 살고 있었는데, 이 숫자는 상장안마을뿐 아니라 하장안마을까지 포함된 수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장안마을 뒤편 홍골에는 토기요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다. 이 곳에는 비교적 깊숙하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골짜기 서편의 구릉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확실하게 가마로 인정되는 유구(遺構)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넓게 토기 파편이 흩어져 있다.

6) 기 타

○ 장안리 유적(長安里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1995년부터 97년에 걸쳐 기장군 일대의 지표

조사를 할 때 장안초등학교에서 장안사로 가는 도로를 따라 2km 정도 간 도로 서쪽에 논이 있고 그 논과 구릉 끝자락이 노출된 단면에 열을 지어 기와가 박혀 있고 주변에도 기와와 자기편이 흩어져 있었다. 소성 온도(燒成溫度)가 비교적 낮은 황적색 연질 기와도 많이 보였다.

이곳 노인들의 말로는 예전에는 이곳을 ‘불메들’이라 불렀다고 한다. ‘불메’는 대장간에서 바람넣는 기구를 말하는데 ‘불’을 때서 작업하는 동네가 되어 그리 불려진 것이 아닌가 한다.

기와나 자기를 수습한 양은 적으나 논둑과 밭에서 확인되는 등 흩어져 있는 범위가 넓었다. 그런 점으로 보아 이 근방에 기와 또는 자기의 요지(窯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별도의 자리가 되는 아래 장안리 마을 뒤편 홍골에 위치한 자리에는 토기요지(土器窯址)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었다. 가마로 인정되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토기 파편이 넓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나 그릇을 굽었을 때 일그러진 것 또는 서로 붙어버린 것, 또는 소토(燒土)덩이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이 자리 일대는 계단식 논이 조성되어 논이 개간될 당시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유물은 주로 대호(大壺)의 동체부편(胴體部片)이어서 그 명확한 형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요지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대호를 주로 굽은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채집된 토기의 구연부의 형태나 소성도(燒成度), 색조 등의 제반 특징으로 보아서는 5세기 전반대(前半代)의 요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12. 좌동리

1) 연 혁

좌동리는 좌동마을과 덕산마을을 합친 법정리이다. 좌동마을이 본 마을이다. 옛이름은 알 길이 없으나 아마도 좌천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좌동은 《기장현읍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중북면 좌동(佐洞)이란 동명이란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후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동래군 장안면 좌동리로 되었다. 1973년 7월 1 일에는 양산군에 소속됨에 따라 양산군 장안면 좌동리로 1985년 10월 1일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 되면서 장안읍 좌동리로 되었다.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과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가 되었다.

2) 산 천

○ 감나뭇-골

깎칫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개오지-방우

예수 방우 서쪽에 있는 바위.

○ 고랫-골

떡땃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일대에 고래논이 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굴밭-골

동편 마을인 건네말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제2편 자치구

○ 깐치-골

건네말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도덕-골

건네말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좌광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내의 상류계곡에 해당된다.

○ 돈대기 골

못안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둔덕이 저 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동밋-등

동리 서쪽에 있는 야트마한 등성이.

○ 떡뎃-골

방맷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좌광천으로 흘러드는 좌동천의 상류계곡이다.

○ 매나발-골

자시골 어귀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모랫-들

건네말 북동쪽에 있는 넓은 들. 좌동천의 범람원에 해당되며 모래가 많은데서 모랫-들로 불린다.

○ 목넘-고개

좌동에서 선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 못안-골

고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저수지가 있어 못안-골로 불린다.

○ 방맷-골

덕산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좌동천의 상류계곡에 해당된다.

○ 배나무-골

지사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불선-골

돈대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상-보

건네말 서북쪽에 있는 농업용수의 보(洑).

○ 상봇-골

상보가 있는 골짜기로 좌동천의 상류계곡에 해당된다.

○ 선-돌박(등)

매나발골 북쪽에 있는 야트마한 등성이.

○ 순박-골

좌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시빚-들

건네말 동쪽에 있는 들. 좌동천의 범람원으로서 시비기(돌구덩이)가 많은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태-봉(산)

지사곡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57.3m이다. 전형적인 구릉성 산지로 등글스레하고 기슭 또한 완만하다. 안태-봉이란 이 곳에 임금의 태를 묻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된다.

○ 예수-방우

덕산 동쪽 야트마한 구릉성 산지에 있는 바위로 옛날 이 곳에 여우가 살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군-바우

개오지방우 남쪽에 있는 바위. 옛날 이 바위가 장군이 바친 고인돌이라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좌동교

좌동 북동쪽에 있는 다리로 길이는 10m이다. 좌동천 중류에 놓여 있으며 14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 좌동딿들

좌동 뒤에 있는 들로서 좌동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중보

건네말 서쪽에 있는 농업 용수의 보(洑).

○ 지사골

좌동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14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 지사곡 고개

좌동에서 용소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사곡을 따라 나 있으며 지금은 14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 지개 고개

덕산 마을 남동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지게처럼 생겼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통심이 고개

좌동 북쪽에 있는 고개로 통샘이 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하보

건네말 서쪽에 있는 농업 용수의 보(洑).

3) 명승고적

○ 좌동리 팽나무

좌동리 서낭당에 큰 포구나무가 있다. 포구나무는 이곳에서 말하는 이름이고 표준어는 팽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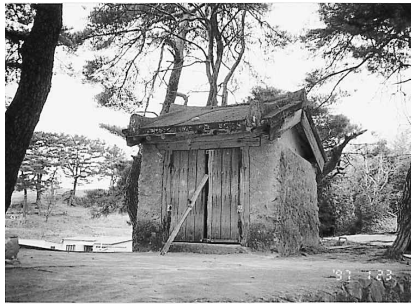
좌동마을 팽나무는 수령 약 250년이 넘는 고목으로 마을사람이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 마을사람은 이 고목의 나뭇잎이 윤기가 있고 싱싱하면 마을에 좋은 일이 새기고 윤기가 없고 마르면 마을에 좋지 못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매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팽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나무껍질은 회색이고 가지에 잔털이 있다.

4) 민 속

○ 좌동리 덕산 할머니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에서 동남쪽 마을 입구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昭和拾四年己卯正月初八日甲午寅時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3cm, 옆면 238cm로써 건평이 1.68평이다. 맞배슬라브지붕에 벽은 돌과 흙으로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 (한 짝의 크기는 가로 59cm, 세로 137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50cm, 옆면 57cm, 높이 19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德山里社主神之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뒷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9cm, 세로 40.5cm, 두께 1.5cm이다.



덕산할매당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에는 담장이 없고, 당사 주위에는 높이 90cm의

축대 위에 시멘트로 된 마당이 둘러 있으며, 그 가운데 감나무 12그루 소나무 10그루가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24가구의 대표들이 모여 구두로 제관을 추천하여 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머니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제의에 참석한 이들이 음복하고, 남은 제물을 아침에 마을회관에 가져와 마을사람들이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제관은 제의 당일만 금기생활을 한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망제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15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좌동리 최씨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마을의 남서쪽 30m 지점의 들 가운데의 비닐 하우스 사이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1991년에 건립.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97cm, 옆면 264cm로써 건평이 2.37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고, 앞면에 푸른색 페인트로 송죽을 그려 놓은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만든 외짝 여닫이문(크기는 가로 78cm, 세로 150cm)이다.
- 당사의 좌향 : 남남서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32cm, 옆면 76.5cm, 높이 77cm

제2편 자치구

이고, 제단 위 뒷벽에 나무로 된 위패가 부착되어 있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佐東洞神神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뒷벽에 부착되어 있는 데, 크기는 가로 6.5cm, 세로 23.5cm, 두께 1.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석축 위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앞면 830cm, 옆면 820cm, 높이 35cm, 두께 17cm)이 있고, 제당에서 남쪽(앞쪽) 3.5m 지점에 벚나무(둘레 165cm, 높이 약 5m)가 1그루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마을의 호수를 4개반으로 나누어 1개반(제관 2명)씩 순차적으로 교대하여 제의를 맡음.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5일밤 11시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는 반드시 쇠고기산적과 삶은 닭을 통째로 얹으며, 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당산할배할매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뒷날인 16일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제당에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1개월 정도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제당 할배할매 제비’라 하고, 마을의 기금으로 하되 약 2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 특기사항 : 마을의 개척조인 최씨 할배할매를 당산신으로 모신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노랑할머니 공덕제단비가 좌동리 424번지 신순옥씨 집 남쪽에 있다.

노랑할매전설 : 옛날 부자할머니가 후손이 없어서 재산을 동네에 기부하고 제사를 부탁했다. 음력 8월 20일에 노인회의 주관으로 제사를 지낸다.

오석(烏石)의 비문(크기는 앞면 23.5cm, 옆면 10.4cm, 높이 78.5cm)은 앞면에 “孺人노랑할머니 功德祭壇碑”라 쓰여있고, 뒷면에 5행으로 “약일백년전좌동마을에노랑할머니/께 사시다가별세할무렵에 재산을/기증하였음으로그뜻을 받들어공덕/비를세우며매년음8월20일에제를/올리고있습니다./좌동동민 일동”이라는 글이 쓰여 있고, 비석의 오른쪽 면에 “西紀一九九六年戊寅六月二十二日建立”이라 쓰여 있다.

이 제단비는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건물(크기는 앞면 234cm, 옆면 256cm, 높이 212cm) 안에 있고, 제단비 앞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제단이 놓여 있는데, 크기는 앞면 91cm, 옆면 60cm, 높이 15cm이다.

5) 자연마을

○ 건네마을

동리마을 도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도랑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에 있는 마을이 줄어서 건네말이 되었다. 동편(東便)마을이라고도 부른다. 건네말 동쪽에는 굼밭골, 깐칫골, 동북쪽에는 도덕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동북쪽에는 모랫들, 동쪽에는 시밋들이라 불리는 들이 있다. 서쪽에는 중보(中淤), 서북쪽에는 상보(上淤)라는 보가 있다.

○ 덕산마을

좌동리의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리마을과 건네마을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좌동리의 넓은 들 가에 마을이 있다. 들판에 두두룩게 언덕진 곳을 둔덕이라 부른다. 둔덕에 있는 산을 둔덕외, 둔덕산이라 부른다. 이러한 둔덕산, 언덕산을 줄여서 덕산(德山)이라 부른다.

마을 주민들은 이 곳에 덕대사(德大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절터는 전답으로 변하였는데, 덕대사의 ‘덕’자를 따고, 주변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외 ‘산’자를 따서 덕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좌동동과 덕산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좌동리가 되었다.

○ 동리마을

1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월내나 고리원자력발전소로 가는 길로 들어가서, 좌천리 가기 전에 있는 마을이 좌동리(佐東里)다. 좌촌(佐村)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동리(東里)마을이라 부른다. 차성가(車城歌)에 “향양화목(向陽花木) 좋은꽃은 좌동(左東)에 피어있고”라고 하여, 좌동(佐東)이 나온다.

준용하천인 덕선천이 흐르고 있다. 도로변에는 기장현감 공덕비[行縣監李公魯宇永世不忘碑]가 서 있다. 비석 옆에 있는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좌동경노정노인회」라고 쓰여진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마을회관이다. 이 경로당 뒤편에는 기념비[機張金融組合理事姜信甲記念碑, 朴圭熙慈善記念碑] 2기가 서 있다. 도로 건너에는 건넌마을이 있다.

마을에는 좌동점(佐東店)이라는 주막이 있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좌동동과 덕산동이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좌동리가 되었다.

○ 동밋등마을

동밋등에 있는 마을이다. 동밋등은 독밋등을 가리킨다. 산이 움푹하게 파여서 독 모양으로 생긴 밋등이라서 독밋등, 동밋등이라 부른다고 한다. 독멧등, 독뿔등의 뜻이다.

6) 기 타

○ 좌동리유적(佐東里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장군의 지표 조사를 할 당시(1995~97) 좌동리의 장안중합고등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는 자리의 온실 개간지 흙더미에서 도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이는 4~5세기대의 것으로 연질토기가 많았는데 거의 모든 토기에 다양한 타날문(打捺文)이 있었다. 소성(燒成)은 좋지 않았고 박리(剝離)가 많았다. 도질토기는 승석문(繩席文)이 타날되어 있었다.

좌동천(佐東川)이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무덤이나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13. 좌천리

1) 연 혁

좌천의 유래는 좌광천의 흐름이 현 좌천초등학교 뒤쪽에서 좌천역 방향으로 직선으로 흘렀으나 잦은 수해 때문에 제방을 쌓아 현재의 흐름으로 돌려내었다고 전한다. 정관면 병산골에서 발원하여 달음산 언저리를 싸고 돌아 마을 옆을 흐르는 냇가에 위치하므로 옛 이름 좌방(佐坊)의 좌(佐)에다가 내 천(川)을 부쳐서 좌천이 되었다는 추측된다.

좌천은 《기장현읍지》 하미면조에 좌촌방(佐村坊)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는 중북면 좌천동(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동래군 장안면 좌천리가 되었다. 그후 다시 1973년 7월 1일에는 양산군 소속이 되었다가 1985년 10월 1일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됨으로써 장안읍 좌천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으로 그 명칭이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로 그 이름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

2) 공공기관

○ 장안읍사무소

장안읍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54-12에 자리잡고 있다. 장안읍사무소의 연혁을 보면, 1018년(현종 9)에 울산군의 영현이 되면서 기장현에 감무가 설치되었다. 1599년(선조 32)에 동래군에 속했다가 1617년(광해군 9)에 기장현으로 독립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기장군이 되었다. 1914년에 동래군에 편입되어 장안면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 양산군에 병합되었다가 1985년 10월 1일에 양산군 장안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3월 1일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었다.

장안읍의 행정 구역으로는 14개의 법정리와 26개의 행정리 및 11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50.84km²이고 인구수는 11,150명이다.

청사의 대지 면적은 2,999m²이고 건물 연면적은 1,427.33m²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사무실, 회의실, 부대시설이 있다.

장안읍사무소의 주요 업무로는 주민분위의 봉사행정 정착으로 현장행정 실현, 민원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간선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환경 정비, 가로변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으로는 저소득 생활보장, 경노연금, 장애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휴경 농지 작물재배, 지역 특산물 육성 등 주민 본위와 지역 발전의 봉사 행정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 조직 기구로는 읍장 밑에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6명으로 주민 화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산 천

○ 증방들

좌천 서남쪽에 있는 들. 좌광천의 중류 양안에 형성된 범람원인 자방들의 복판이 된다.

○ 짱-바탕이(버덩)

덧갓에 있었던 잡초가 무성하고 거친 땅. 옛날 이 곳 마을 사람들이 짱을 치고 놀았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개-건네(들)

좌천 동쪽에 있는 들.

○ 도마재

좌천 서북쪽에 있는 고개로 길이 반듯하고 곧게 나 있다.

○ 도마 - 골

도마재가 있는 아래의 골짜기.

제2편 자치구

○ 뒷들

좌천 뒤쪽에 있는 넓은 들.

○ 뒷갓산

좌천 뒤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02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꼭대기가 둥그스레하고 산기슭도 완만한 편이다. 좌천 마을의 주산으로 알려져 있다.

○ 목넘-고개

좌천 서쪽에서 정관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목넘-들

좌천 서쪽에 있는 들로서 좌광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시리성-골

좌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자방-들

좌천 남쪽에 있는 넓은 들로서 좌광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 자방 -보

자방-들에 있는 농업용수의 보.

○ 자방새미

좌천 북판에 있는 샘.

○ 좌방교

좌천 서쪽에 있는 다리. 좌광천에 가로 놓인 이 다리는 길이 7m로 14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4) 민 속

○ 좌천리 골매기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좌천우체국 뒤, 곧 좌천 중심가에서 서남쪽 변두리에 위치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昭和拾壹年丙子閏三月拾參日乙酉巳時 豎柱上樑.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당사의 크기는 앞면 237cm, 옆면 298cm로써 건평이 2.14평이다. 맞배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이중으로 바깥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48cm, 세로 169cm)이고, 안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미닫이문이다.
- 당사의 좌향 : 남향



좌천리 골매기 할매당산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206cm, 옆면 50cm, 높이 40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佐川里社神之位"라 쓰여진 나무 위패가 제단위 벽에 붙어 있는데, 크기는 가로 16.5cm, 세로 33.5cm, 두께 3cm이다.

제2편 자치구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당사의 주위에는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담장(크기는 700cm, 옆면 1300cm, 높이 158cm, 두께 27cm)이 있고, 당사 앞 왼쪽에 흉고둘레 2m인 괴목이 서 있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음력 정월초순에 부정이 없고 연만한 이를 마을 총회에서 선정한다.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경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제물에는 반드시 삶은 돼지머리를 얹으며, 제물진설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 골매기할때제만 지낸다.
- 음복 여부 : 제의 뒤에 보름날 아침에 당사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해반한다.
- 금기 기간 : 3개월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망제비’라 하고, 마을의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제관에 20만원, 협제관에 10만원을 준다.

5) 시 장

○ 좌천장

좌천초등학교 입구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좌천 이용원이 있다. 좌천자은 그 안쪽 큰 공터에서 열린다. 장터에는 시장농수산물관매장이라고 쓰여진 건물이 있다. 장터 옆에는 좌천농약종묘사, 좌천가스씽크상사도 있다. 매달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열리는 5일장으로 대개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장이 선다.

《기장현읍지》(《경상도읍지》 수록, 1832년) 장시조에는 읍내장(邑內場)과 좌촌장(佐村場)의 두 장이 기재되어 있다. 좌촌장은 현치(縣治) 동쪽 20리에 있으며, 한달에 여섯 번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에 열렸다. 좌촌장이 곧 좌천장(佐川場)을 가리킨다. 《교남지》(시장조)에도 좌촌시장이 기재되어 있다. 읍지와 동일한 내용이다.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화식, 팔역장시조)에 의하면, 좌촌장은 현치에서 20리 거리의 중복면 좌촌리에 있다고 하였다. 읍내장에서 많이 거래된 물품은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광어, 조기, 생복(生鰯), 해채(海菜), 담채(淡菜), 해삼, 소금, 종이, 담배, 돛자리 등이다. 좌촌장의 경우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좌천장은 해산물과 쇠진[牛廩]으로 유명하다.

장안읍 월내리 월내역 앞 도로 옆에는 보부상 출신인 배상기(裴常起)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左右社班首裴常起恤商永世不忘碑]가 세워져 있다. 광무 8년(1904)에 세워진 이 비석은 보부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비석이다. 배상기가 기장지역의 보부상을 관할하는 책임자인 반수로서 상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의 뒷면에는 보부상 집장 김상명(金相明)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 비석 옆에는 배상기 관련 비석[通政大夫裴公常起勸塾獎學碑, 通政大夫裴公常起勸塾恤里碑] 2기가 서 있다. 좌천장은 읍내장과 마찬가지로 배상기, 김상명 등과 같은 보부상들의 중요한 상업 활동 무대이었을 것이다.

6) 자연마을

○ 좌천마을

좌천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에는 좌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다. 좌천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좌천우체국이 있다. 우체국 바로 뒤흘에 좌천마을 제당이 있다. 제당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좌천의 옛이름은 좌촌(佐村)이다. 좌천과 좌촌은 보통 자천, 자촌으로 불린다. ‘좌’, ‘자’는 성(城)을 뜻하는 ‘쟈’, ‘재’와 같은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촌은 성촌(城村)의 뜻이다. 그런데 성촌은 저재, 저자라는 시장(市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좌촌이 좌천(佐川)이 된 것은 좌광천(佐光川)이 마을을 둘러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천’자를 붙여서 좌천이 되었다고 한다. 좌천동 앞에는 좌광평(佐廣坪)이 있었다. 좌천점이라는 주막도 있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달음산 줄기를 타고 정관면에서 흘러내린 좌광천이 좌천으로 돌아 흐르므로, 이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하여 도울 ‘좌’자와 내 ‘천’자를 따서 좌천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박씨, 이씨가 가장 먼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씨가 마을을 형성한 것은 다음 가호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중북면(中北面) 좌천동(佐川洞)에는 27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초가 2~3칸 집이다. 27호 가운데 이씨(7호)가 가장 많다. 다음은 김씨(6호), 한씨(3호) 순이다. 그리고 당시 중북면(中北面) 좌동(佐洞)에는 18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초가 2~3칸 집이다. 18호 가운데 이막쇠(李莫釵)씨 집이 6칸으로 가장 크고, 황정월(黃丁月)씨 집이 4칸으로 그 다음이다. 18호 가운데 이씨, 鄭씨, 황씨가 각각 3호이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중북면 좌천동이 동래군 장안면 좌천리가 되었다.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는 좌천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장안종합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등 학교가 있다.

○ 시장마을

좌천장은 좌천역 철길 뒤편에 있는 시장농수산물판매장 건물과 그 주변에서 4일, 9일 장으로 열린다(<좌천장 참조>). 좌천장이 서는 마을이라서 시장마을이라 부른다. 장터마을, 시장부락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에는 시장부락회관이 있고, 경로당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을회관은 시장부락민방위대, 영농회, 청년회, 부녀회 건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마을에는 한국전력공사지소 건물이 있다.

옛이름은 좌촌방(佐村坊)이다. 좌천[자촌]마을은 본래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촌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장마을이라는 뜻이다. 차성가(車城歌)에 “좌촌점(左村店) 삼배주(三杯酒)로 순류동하(順流東下) 내려가니”라고 하여, 좌촌이 나온다.

○ 좌서마을

좌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좌천 서쪽에 있어서 좌서(佐西)마을이라 부른다. 좌천동 서쪽에는 좌광보(佐廣洑)가 있었다.

7) 기 타

○ 장안 3.1의거(義舉)

1910년 일제강점 이후 우리 나라는 일본의 조선총독부 통치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한 항일독립투쟁이 각지에서 시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은 총칼을 무기로 삼아 무

단정치로 탄압했다.

이에 전민족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일어난 의거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 3.1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되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독립선언서는 일제의 철통같은 경계망을 뚫고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이나라 변방 농촌지역인 장안에서 3·1의거가 일어난 것은 4월 8일의 좌천장날이었다. 장안의거의 주동인물은 정관면 사람이 많았는데 정관면 사람은 좌천장을 보고 있었고 좌천장은 장안면에 속해 있어서 이를 장안의거라 했다.

4월 8일은 이웃인 기장에서 3·1의거가 일어난 3일 뒤였다. 그래서 좌천리 주위의 농민과 장사꾼들은 기잠의거의 소식을 알고 있는 터라 일제에 대한 의분과 저항의식이 한층 고조되어 있었다.

정관면 용전리의 김윤희(金允熙)와 오진환(吳進煥)은 동지를 규합, 모의를 거듭하고 4월 8일 기장장날을 의거일로 정하고 인근 농촌에 알려 많은 장꾼들을 모으게 했다.

장날이 되자 많은 장꾼들이 모여 들었다. 신두성(辛斗星), 김윤희 등 주동인물들이 오전 10시경 장터 한복판에서 준비해 온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자 기다리고 있던 장꾼들이 일제히 주동인물이 나누어준 태극기를 흔들고 이에 호응했다.

주위에서 만세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기세가 한층 더하여 장터를 돌리다며 계속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마침내는 시장 바깥 거리까지 소리치며 돌았다. 사태에 놀란 일본경찰은 총칼로 덤벼들었다. 시위대는 좌천리와 주위 지역까지 확대되어 갔다. 총칼에 밀린 시위대는 논밭과 산기슭으로 무리져 피하면서도 “독립만세”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일본경찰은 실제 총을 쏘았다. 응원 경찰의 수가 많아지면서 마구잡이로 50명을 주동인물이라 하여 체포했다.

주동일몰로 체포된 가운데 김윤희는 징역 10월의 옥고를 겪고 출옥한 뒤 바로 작고(作故)하였고, 정지모(鄭智謨) 역시 징역 10월의 옥고를 치른 뒤 출옥과 동시에 작고하였고, 신두성(辛斗星)도 징역 10월을 마쳤지만 병고의 몸으로 나왔다가 작고하였다. 오진환(吳進煥)은 해외로 망명하였고, 박일봉(朴一鳳)은 국내로 잠적 피신하였다.

3·1독립의거의 회갑을 맞은 정관면에서는 1979년 4월 5일 정관초등학교 교정에 의거비를 세웠다. 당시에 타계한 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애국 애족의 정신을 후인들이 길이 기리고자 함이었다.

○ 좌천리 유적(佐川里遺蹟)

좌천리의 임당고개들 유적에서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기장군지표조사를 할 때 경질토기편 5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리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무덤이 위치했을 입지조건으로 채집된 유물은 5~6세기대의 분묘군(墳墓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좌천리 장자골 장안종합고등학교 앞의 낮은 구릉에 석곽묘가 파괴된 채 있었는데 길이 200cm 정도가 현재 남아 있고 일부 석력(石列)과 도굴갱(盜掘坑)으로 보이는 구덩이가 4~5군데 있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의 분묘유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14. 효암리

1) 연 혁

효암리는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기장군 상북면 영역이던 차암동(車岩洞)과 그 당시 울산군 외남면 효열동(孝烈洞)을 합쳐서 동명을 새로 만들었다. 즉 효열동의 효(孝)자와 차암동의 암(岩)자를 따서 효암리로 마을이름이 정해지고 장안면 효암리가 되었다.

차암동의 《기장현읍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상북면에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효암리로 불리어졌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동래군이 양산군에 병합됨에 따라 양산군 장안면 효암리가 되고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장안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양산군 장안을 효암리가 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의 복군과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을 효암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효암리는 한국전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따라 마을 전지역이 그 건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장차 이웃 고리와 같이 주민 없는 마을로서 이름과 역사만 남게 될 운명에 있다.

2) 산 천

○ 둠병-골

차암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갯너매들

효암리 너머에 있는 들.

○ 대넌에들

사랫들 서쪽에 있는 들.

○ 대 념에 보

대념에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뒷자리들

효열동 뒤에 있는 들판.

○ 사랫들

차암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모래사장 안쪽이 된다.

○ 봉대산

차암 남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25.5m이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봉우리가 둥그스레하고 산기슭 또한 완만한 편이다. 봉대산이란 조선 시대 이 산에 봉수대가 설치된데서 비로된다.

○ 효암 양식어장

효암리 해변에 있는 양식장. 1970년 고리 해안 일대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잃게 될 이 지역 어민들의 어장을 대신하고자 1989년에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동 축양장 이다.

○ 갯너메보

갯너매 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뒤자리보

뒷자리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뒷자리보

뒷자리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 사랫들보

사랫들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보.

3) 명승고적

○ 이길봉수대(爾吉烽燧臺)

봉수대는 군사정보를 중앙으로 알리는 옛 통신시설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일정하게 조직된 봉수망을 따라 봉수군에 의해 전달되었다.

서생포 방면 군사정보를 알리는 이길봉수대는 효암리 산 51~1 일원의 봉대산 정산(해발 120.2m)에 있었는데 이것이 경상남도지역에 있는 원봉(元烽) 34개소 간봉(間烽) 90개소 중의 하나였다. 이길 봉수대가 있는 산정에서는 사방이 되어 봉수대로서는 적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면, 직경 약 30m정도로 자연석 외벽을 둥글게 두르고 그 내부에 봉돈(烽墩)을 조성 하였는데 봉돈의 높이 2.4m, 직경 9m로 돌로 쌓았다. 봉수대와 외벽 사이는 폭 5m 정도의 환상구(環狀溝)를 조성하였다.

이길봉수는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7.3Km 떨어져 있는 아이봉수(阿爾烽燧)와 연결되었다. 한때는 직선거리 약 3.3Km 떨어져 있는 임랑포봉수(林郎浦烽燧)와 연결된 바 있다. 북쪽으로는 하산(下山) 봉수와 연결 되었는데 이길봉수는 조선초기(1425년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것은 봉수대 축조형식이 봉수대 초기형식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곳에서 수습된 분청사기편(粉靑沙器片)과 영조 3년(1727)년 평양감영에서 주조된 상평통보(常平通寶)등으로 보아 조선 후기 봉수대가 폐지된 갑오경장(1894)까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길 봉수대는 각처에 남아 있는 봉수대들 가운데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하나가 된다. 기장군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때는 이길봉

수대가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84호이다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뒤인 1995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38호로 바뀌었다.

1987~1999년에는 봉수대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고 주변 석축 및 중앙의 봉돈 일부를 정비 복원하였다.

그런데 기장군향토문화연구소 공태도 소장은 이길봉수대를 아이봉수대(阿爾峰臺)라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차성가(車城歌 : 車城은 기장의 별호)의 내용 등으로 보아 아이포(옛 지명)에 따라 아이봉수대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백년 전에 펴낸 《기장군지》에 의하면, 기장 남산봉수대에서 남으로 해운대 간비오산봉수대에 응하고 북으로 30리 지점에 있는 아이봉수대에 연결한다고 돼 있고, 현감 이해륜이 쓴 《기장읍지》도 ‘아이포봉수’는 현의 북쪽 30리에 있는데 남으로 남산에 응하고 북으로 울산 이길봉수와 15리 떨어져 있었다고 적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 여러 자료를 건주어 보아도 효암리 산 51~1에 있는 봉수대 이름은 ‘아이봉수’라고 주장하면서 ‘이길봉수’는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뒷산에 있는 봉수라고 주장한다.

공태도씨의 논거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는 보다 확실은 실증이 있어야 하겠다.

4) 민 속

○ 효암리 할배 · 할매당산

- 당산 소재지 : 효암에는 할배당산과 할매당산이 있는데, 할배당산은 마을 남쪽 해변도로 밑에 있고, 할매당산은 마을에서 서북쪽 약 30m지점의 뒷산 밑에 위치하고 있다.
- 당사(堂祠)의 건립 연대 : 할배당산은 癸巳辛酉月八月二十三日甲申未時이고, 할매당산은 戊寅春三月十六日戊寅午崑上樑이다.

제2편 자치구

- 당사의 형태와 규모 : 할배당사의 크기는 앞면 360cm, 옆면 364cm로써 건평이 3.96평이다. 우진각 기와지붕에 시멘트를 입혔고, 벽은 돌벽에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나무로 만든 두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52cm, 세로 140cm)이다. 할매당사의 크기는 앞면 342cm, 옆면 310cm로써 건평이 3.2평이다. 우진각기와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고, 문은 함석으로 마든 두 짝 여닫이문(한 짝의 크기는 가로 52cm, 세로 172cm)이다.



효암리 할배당산



효암리 할배당산의 위배

- 당사의 좌향 : 할배당산은 서서남향이고, 할매당산은 동동남향
- 제단(祭壇)의 형태와 자료 및 규모 : 할배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 제단으로 크기는 앞면 184cm, 옆면 68cm, 높이 85cm이고, 할매제단은 시멘트로 만든 ㄱ자형 제단으로 크기는 정면으로 앞면 227cm, 오른쪽으로 앞면은 126cm, 양 옆면 76cm, 높이 45cm이다.
-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 : 할배당사에는 "車巖祀祭主"라 쓴 나무 위패가 제단 위의 나무로 만든 위패걸이판자(앞면 120cm, 옆면 18cm, 두께 4.5cm) 위에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9cm, 세로

28cm, 두께 4cm이다. 할매당사에는 정면 제단 위에 “孝烈社主靈神之位”라 쓴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9cm, 세로 34cm, 두께 3.5cm이고, 오른쪽 제단 위에 “孝烈社姑靈神之位”라 쓴 나무 위패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가로 8cm, 세로 28.5cm, 두께 2.5cm이다.

- 당사 내의 현판 유무와 글의 내용 : 두 당사 안에 다 없다.
- 당산 주위환경 : 할매당사의 앞은 도로이고, 뒤는 바다이다. 할매당사의 앞은 밭이고, 뒤는 산이다.
- 제관의 명칭과 선정 방법 : 제관이라 칭하고, 정초에 마을회의에서 선정하는데, 요사이는 주로 이장이 한다.



효암리 할매당산



효암리 할매당산의 위패

- 제의 날짜와 연회수 :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이다.
- 제물 종류와 진설도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 절차 :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 제의의 전과정 산신제 →당산할매제→당산할매제의 순서이다.
- 음복 여부 : 보름날 아침에 마을회관에 동네사람들이 모여 음복한다.
- 금기 기간 : 제의 전후 각 3일이다.

- 당산제의 경비 모금방법과 액수 :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하며, 약 30만원 정도이다.
- 제관에 대한 보수 : 없다.

5) 자연마을

○ 효암마을

길천리에서 지방도를 타고 가다 울산, 고리로 나누어지는 양 갈래 길에서 우회전하여 고리 방면으로 가면 효암리가 나온다.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 「효암리」라는 표지석이 있다. 효암리에는 효암리회관이 있다. 마을 회관 건물에 경로당과 동사무소가 함께 있다. 마을에는 효암횃집, 효암상사, 효암식당 등 효암이란 이름을 붙인 상호가 많이 보인다. 버스 정류장에는 「길천 《효암》 서생」이라고 쓰여져 있다. 마을에는 당사(堂祠)가 두 곳 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기장군 상북면 차암동과 울산군 외남면 효열동일부가 합쳐져서 동래군 장안면 효암리가 되었다. 효열동의 ‘효’와 차암동의 ‘암’을 따서 효암동이 되었다. 차암(車岩)은 한글로 수레바위이다. 수레바위가 수리바우, 수리바위가 되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수리바우 북쪽에는 효열동마을이 있다. 효자와 열녀가 났다고 하여 효열동(孝烈洞)이라 부른다.

조선 인조 때 기장현감이던 강좌랑(姜佐郎)이 울산군에 빼앗겼던 북삼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을 도로 환속받은 기념으로 차암동에 있는 큰 바위에 차성(車城)이라는 기장의 별호를 새겼다고 한다. 이 바위를 차성암이라 하는데 줄여서 차암이라 불렀다. 차성가(車城歌)에 “차암(車岩)에 새긴글자 강좌랑(姜佐郎)의 유적이라”라고 하여, 차암이 보인다. 지금은 효암이라고 불리지만, 마을회관 안쪽에는 차암상회라고 하여 차암이란

이름이 붙은 상호가 보인다.

1904년(광무 8) 편찬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奎 17949)에 의하면, 당시 상북면(上北面) 차암동(車巖洞)에는 14호가 살고 있었다. 집은 대개 초가 2~3칸 집이었다. 23호 가운데 2칸 집이 10호나 된다. 김씨(8호)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1930년 10월 실시한 국세(國勢)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편찬된 《조선의 성(朝鮮の姓)》(조선총독부, 1936년)에 의하면, 당시 장안면 효암리에는 영산(靈山) 신(辛)씨 16세대의 동족마을이 있었다.

《부산지명총람》 제1권 ~ 제6권

제 1 권 (1995. 12)

제 1 편 부산광역시

제 1 장 자연환경

제 1 절 위치와 면적

제 2 절 지 형

제 3 절 지 절

제 4 절 기 후

제 2 장 현 황

제 1 절 인구와 도시성장

제 2 절 교통과 통신

제 3 절 산업활동

제 3 장 역사적 변천

제 1 절 선사시대의 부산

제 2 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부산

제 3 절 조선시대의 부산

제 4 절 개항과 일제침략기의 부산

제 5 절 일제식민지배기의 부산

제 6 절 해방 후의 부산

제 2 편 자 치 구

제 1 장 중 구

제 1 절 광 복 동

제 2 절 남 포 동

제 3 절 대 청 동

제 4 절 동 광 동

제 5 절 보 수 동

제 6 절 부 평 동

제 7 절 신 창 동

제 8 절 영 주 동

제 9 절 중 앙 동

제 10 절 창 선 동

제 2 장 서 구

제 1 절 남부민동
제 3 절 부 민 동
제 5 절 서대신동
제 7 절 암 남 동
제 9 절 충 무 동

제 2 절 동대신동
제 4 절 부 용 동
제 6 절 아 미 동
제 8 절 초 장 동
제 10 절 토 성 동

제 3 장 동 구

제 1 절 범 일 동
제 3 절 좌 천 동

제 2 절 수 정 동
제 4 절 초 량 동

제 2 권 (1996. 8)

제 4 장 영 도 구

제 1 절 남 향 동
제 3 절 대 평 동
제 5 절 봉 래 동
제 7 절 영 선 동

제 2 절 대 교 동
제 4 절 동 삼 동
제 6 절 신 선 동
제 8 절 청 학 동

제 5 장 부 산 진 구

제 1 절 가 야 동
제 3 절 당 감 동
제 5 절 범 천 동
제 7 절 부 전 동
제 9 절 연 지 동
제 11 절 초 읍 동

제 2 절 개 금 동
제 4 절 범 전 동
제 6 절 부 압 동
제 8 절 양 정 동
제 10 절 전 포 동

제 6 장 동 래 구

제 1 절 낙 민 동
제 3 절 명 장 동
제 5 절 사 직 동
제 7 절 안 락 동
제 9 절 칠 산 동

제 2 절 명 룬 동
제 4 절 복 천 동
제 6 절 수 안 동
제 8 절 온 천 동

제 3 권 (1997. 6)

제 7 장 남 구

제 1 절 감 만 동
제 3 절 문 현 동
제 5 절 용 당 동

제 2 절 대 연 동
제 4 절 우 암 동
제 6 절 용 호 동

제 8 장 북 구

제 1 절 구 포 동
제 3 절 덕 천 동
제 5 절 화 명 동

제 2 절 금 곡 동
제 4 절 만 덕 동

제 9 장 해운대구

제 1 절 반 송 동
제 3 절 석 대 동
제 5 절 우 동
제 7 절 중 동

제 2 절 반 여 동
제 4 절 송 정 동
제 6 절 재 송 동
제 8 절 좌 동

제 4 권 (1998. 6)

제10장 사 하 구

제 1 절 감 천 동
제 3 절 괴 정 동
제 5 절 당 리 동
제 7 절 장 립 동

제 2 절 구 평 동
제 4 절 다 대 동
제 6 절 신 평 동
제 8 절 하 단 동

제11장 금 정 구

제 1 절 금 사 동
제 3 절 구 서 동
제 5 절 노 포 동
제 7 절 부 곡 동
제 9 절 선 동

제 2 절 금 성 동
제 4 절 남 산 동
제 6 절 두 구 동
제 8 절 서 동
제 10 절 청 룡 동

제 5 권 (1999. 7)

제12장 강 서 구

제 1 절 강 동 동
제 3 절 녹 산 동
제 5 절 대저 1동
제 7 절 대 향 동
제 9 절 명 지 동
제 11 절 범 방 동
제 13 절 생 곡 동
제 15 절 송 정 동

제 2 절 구 량 동
제 4 절 눌 차 동
제 6 절 대저 2동
제 8 절 동 선 동
제 10 절 미 음 동
제 12 절 봉 립 동
제 14 절 성 북 동
제 16 절 식 만 동

제 17 절 신 호 동
제 19 절 죽 림 동
제 21 절 천 성 동

제 18 절 죽 동
제 20 절 지 사 동
제 22 절 화 전 동

제 6 권 (2000. 10)

제13장 연 제 구

제 1 절 거 제 동

제 2 절 연 산 동

제14장 수 영 구

제 1 절 광 안 동

제 2 절 남 천 동

제 3 절 망 미 동

제 4 절 민 락 동

제 5 절 수 영 동

제15장 사 상 구

제 1 절 감 전 동

제 2 절 패 법 동

제 3 절 덕 포 동

제 4 절 모 라 동

제 5 절 삼 락 동

제 6 절 엄 궁 동

제 7 절 주 레 동

제 8 절 학 장 동

《釜山地名總覽》責任執筆者

姓 名	所屬 及 職位	執 筆 分 野
金 錫 禧	前 釜山大學校 教授	自治區 - 沿革 邑·里 - 沿革
朱 永 澤	鄉土史學者	公共機關
吳 建 煥	釜山大學校 教授	山川
崔 海 君	鄉土史學者	各勝古蹟, 其他
康 龍 權	前 東亞大學校 教授	民俗, 民俗놀이
金 承 璨	前 釜山大學校 教授	당집, 당산, 장승
金 東 哲	釜山大學校 教授	市場, 自然마을

釜山地名總覽 제7권(기장군(Ⅰ) : 기장읍·장안읍편)

2001年 10月 20日 印刷

2001年 10月 30日 發行

發 行 處 : 釜山廣域市

編 著 :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印 刷 : 大元印刷文化社

행정간행물등록번호 : 2100-86100-86-9503

(비매품)

연락처 | 우편번호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전화번호 : (051) 888-3466 ~ 8

F A X : (051) 888-3469